연구보고서 2015-22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이상영·정진욱·황도경·손창균
윤시몬·채수미·차미란·김효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자살위험도 결정요인 및 지역간 격차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정진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창균 동국대학교 교수
윤시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차미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인턴

연구보고서 2015-22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발 행 일	2015년 12월 31일
저 자	이 상 영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전 화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주)범신사
정 가	11,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ISBN 978-89-6827-275-2 93510

발간사

최근 우리 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회·심리적 불안은 지금의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주요 사회현상의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날로 더 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불안은 실직, 가계부채, 취약한 생활안전, 부실한 노후 준비, 학업성적 및 진로 문제 등 개인적 차원의 불안요소와 경기침체 및 성장 둔화, 청년실업,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세월호 사태, 범죄의 증가, 북핵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회·심리적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심리적 불안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소년 및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와 원인,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불안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증상 및 병리현상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안하고 있는데, 사회·심리적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및 복지서비스 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이상영 선임연구위원 책임 하에 정진욱 부연구위원, 황도경 부연구위원, 손창균 동국대학교 교수, 윤시몬 전문연구원,

채수미 전문연구원, 차미란 연구원, 김효진 연구인턴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진은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사회·심리적 불안 측정방법 등과 관련하여 귀중한 자문을 제공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검독해주신 경북대학교 이성국 교수, 인제대학교 류시원 교수, 그리고 본 연구원의 김동진 부연구위원, 윤강재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관련된 정책 개발·추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 론 ·····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제2절 선행연구 고찰 ····· 15

제3절 연구방법 ····· 23

제2장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와 원인 ····· 59

제1절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 ····· 61

제2절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7

제3절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영향요인과 불안의 다변량 분석 ····· 103

제4절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위험 ····· 113

제5절 청소년의 불안 해소 방법 및 정책적 지원요구 ····· 169

제3장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실태와 원인 ····· 175

제1절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 ····· 178

제2절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96

제3절 성인의 사회·심리적 영향요인과 불안의 다변량 분석 ····· 220

제4절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위험 ····· 229

제5절 사회·심리적 불안 해소 방법 및 정책적 지원요구 ····· 278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85
제1절 결론 ····· 287
제2절 정책제언 ····· 292

참고문헌 ····· 295

부 록 ····· 299
부록 1. 청소년 조사표 ····· 299
부록 2. 성인 조사표 ····· 314
부록 3. 청소년 조사 세부결과표 ····· 330
부록 4. 성인 조사 세부결과표 ····· 379

표 목차

〈표 1-1〉 설문조사내용: 개인·가구 특성 ····· 27
〈표 1-2〉 설문조사내용: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와 원인 ····· 29
〈표 1-3〉 설문조사내용: 가족·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 ····· 31
〈표 1-4〉 설문조사내용: 자아의식·대인신뢰도·행복지수 ····· 32
〈표 1-5〉 설문조사내용: 사회적지지·사회적 자본 ····· 33
〈표 1-6〉 설문조사내용: 신체적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 34
〈표 1-7〉 설문조사내용: 정신건강 ····· 35
〈표 1-8〉 설문조사내용: 사회·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 35
〈표 1-9〉 청소년 대상 조사 개요 ····· 36
〈표 1-10〉 청소년 대상 조사의 시·도별 표본 수 ····· 37
〈표 1-11〉 일반가구 조사개요 ····· 40
〈표 1-12〉 시·도별 표본 수 ····· 41
〈표 1-13〉 시·도별 추출 비율 ····· 42
〈표 1-14〉 지역별 표본 읍·면·동 규모 및 추출확률 ····· 45
〈표 1-15〉 래킹 조정을 위한 주요 변수별 추계인구수 및 조정승수 ····· 46
〈표 1-16〉 시·도별, 세대별 래킹 조정 가중치 분포 ····· 47
〈표 1-17〉 시·도별 읍·면·동 수 및 세대수(2015년 5월기준) ····· 49
〈표 1-18〉 시·도별 표본 읍·면·동 수 및 세대수 ····· 50
〈표 1-19〉 시·도별 세대별 가중치 분포 ····· 51
〈표 1-20〉 시·도별 세대별 조정 가중치 분포 ····· 52
〈표 1-21〉 래킹비(raking ratio) 조정을 위한 가중치 조정 승수 ····· 53
〈표 1-22〉 시·도별 세대별 조정 가중치 분포 ····· 54
〈표 1-23〉 청소년 대상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6
〈표 1-24〉 성인대상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7
〈표 2-1〉 청소년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정도 점수 ····· 63
〈표 2-2〉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안정도의 점수 ····· 65

〈표 2-3〉 청소년 개인적 측면에서의 가장 큰 불안요소 ····· 67
〈표 2-4〉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 ····· 69
〈표 2-5〉 청소년 개인적 측면의 불안요소별 불안 점수 ····· 71
〈표 2-6〉 사회적 측면에서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불안요소 ····· 73
〈표 2-7〉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따른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 ····· 74
〈표 2-8〉 사회적 측면에서의 불안요소별 청소년들의 불안 점수 ····· 77
〈표 2-9〉 청소년들의 가족·학교에서의 대인관계의 원만함 ····· 79
〈표 2-10〉 청소년들의 따돌림 경험 여부 ····· 80
〈표 2-11〉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와 불안 점수 ····· 81
〈표 2-12〉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점수(Resenberg 척도) ····· 82
〈표 2-13〉 청소년들의 이상적인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사회계층 ····· 84
〈표 2-14〉 청소년들의 가족·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행복도 ····· 85
〈표 2-15〉 우리 사회의 평등도 및 안정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 86
〈표 2-16〉 청소년들의 대인 신뢰도 ····· 87
〈표 2-17〉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점수 ····· 88
〈표 2-18〉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대인신뢰도 및 행복도 등과 불안 점수 ····· 89
〈표 2-19〉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 91
〈표 2-20〉 청소년들의 생활습관 및 행태 ····· 92
〈표 2-21〉 청소년의 개인건강 및 생활습관·행태와 불안 점수 ····· 93
〈표 2-22〉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점수 ····· 95
〈표 2-23〉 도움을 받을 가능성 및 상의할 수 있는 사람수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점수 ····· 97
〈표 2-24〉 청소년의 가족·친구들과의 소통정도 점수 ····· 98
〈표 2-25〉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자본과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 ····· 100
〈표 2-26〉 청소년의 범죄 피해 및 트라우마 경험률 ····· 101
〈표 2-27〉 청소년의 범죄 피해 및 트라우마 경험여부와 불안 점수 ····· 102
〈표 2-28〉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요인 간 상관계수
(0-order corelation coefficients) ····· 105
〈표 2-29〉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Ⅰ) ····· 106

〈표 2-30〉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Ⅱ) ····· 107
〈표 2-31〉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Ⅲ) ····· 109
〈표 2-32〉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Ⅳ) ····· 110
〈표 2-33〉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Ⅴ) ····· 112
〈표 2-34〉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 ····· 115
〈표 2-35〉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스트레스 정도 ····· 116
〈표 2-36〉 청소년의 우울 정도 ····· 117
〈표 2-37〉 청소년의 우울증상 점수(CES-D11) ····· 118
〈표 2-38〉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우울 정도 ····· 119
〈표 2-39〉 청소년의 불안장애 등급별 분포 ····· 120
〈표 2-40〉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불안장애 등급 ····· 121
〈표 2-41〉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여부 ····· 122
〈표 2-42〉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 ····· 123
〈표 2-43〉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여부 ····· 125
〈표 2-44〉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 126
〈표 2-45〉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여부 ····· 126
〈표 2-46〉 청소년의 본인의 분노조절 ····· 127
〈표 2-47〉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분노조절 여부 ····· 128
〈표 2-48〉 청소년의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의 원만함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30
〈표 2-49〉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원만함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32
〈표 2-50〉 청소년의 따돌림 경험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34
〈표 2-51〉 청소년의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36
〈표 2-52〉 청소년의 추관적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38
〈표 2-53〉 청소년의 소속감 및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40
〈표 2-54〉 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행복도 및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42
〈표 2-55〉 청소년의 사회 평등도에 대한 인식 및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44
〈표 2-56〉 청소년의 대인신뢰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46
〈표 2-57〉 청소년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48

〈표 2-58〉 청소년의 우리 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50
〈표 2-59〉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52
〈표 2-60〉 청소년의 가족과의 소통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54
〈표 2-61〉 청소년의 친구들과의 소통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56
〈표 2-62〉 청소년의 주변으로부터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58
〈표 2-63〉 청소년의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160
〈표 2-64〉 청소년의 사회적 불안과 개인·사회적 위험 간의 상관관계 ····· 162
〈표 2-65〉 우울척도(CES-D)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 164
〈표 2-66〉 Zung의 불안장애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 166
〈표 2-67〉 청소년의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168
〈표 2-68〉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불안 해소 방법 ····· 169
〈표 2-69〉 사회·심리적 불안해소를 위한 청소년들의 국가적 지원 희망 사항 ····· 170
〈표 2-70〉 사회적 문제로 인한 불안의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항 ····· 171
〈표 2-71〉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 172
〈표 2-72〉 불안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도움의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 173
〈표 3-1〉 19세 이상 성인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정도 ····· 180
〈표 3-2〉 19세 이상 성인의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불안정도 ····· 182
〈표 3-3〉 성인의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 ····· 185
〈표 3-4〉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 ····· 187
〈표 3-5〉 성인의 개인적 측면의 불안요소별 불안 점수 ····· 189
〈표 3-6〉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인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 ····· 192
〈표 3-7〉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 ····· 193
〈표 3-8〉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성인들의 불안 요소별 불안정도 ····· 196
〈표 3-9〉 성인들의 가족·직장·이웃과의 대인관계 ····· 197
〈표 3-10〉 성인의 대인관계와 불안 점수 ····· 199
〈표 3-11〉 성인들의 자아존중감 점수(Resenberg 척도) ····· 200
〈표 3-12〉 성인의 자신의 이상적인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사회계층 ··· 203
〈표 3-13〉 성인들의 삶에 대한 행복도 및 대인신뢰도 ····· 205

〈표 3-14〉 성인들의 자아존중감, 대인신뢰도 및 행복도와 불안점수 ····· 207
〈표 3-15〉 성인들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 208
〈표 3-16〉 성인들의 생활습관 및 행태 ····· 209
〈표 3-17〉 성인의 개인건강 및 생활습관·행태와 불안 ····· 211
〈표 3-18〉 성인의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자본 ····· 213
〈표 3-19〉 성인의 가족 및 주변사람과의 소통정도 ····· 216
〈표 3-20〉 성인의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자본과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 ····· 218
〈표 3-21〉 성인의 범죄 피해 및 트라우마 경험률 ····· 219
〈표 3-22〉 성인의 범죄 피해 및 트라우마 경험과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 ····· 220
〈표 3-23〉 성인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 ····· 222
〈표 3-24〉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Ⅰ) ····· 223
〈표 3-25〉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Ⅱ) ····· 225
〈표 3-26〉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Ⅲ) ····· 226
〈표 3-27〉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Ⅳ) ····· 228
〈표 3-28〉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Ⅴ) ····· 229
〈표 3-29〉 성인의 스트레스 정도 ····· 231
〈표 3-30〉 성인의 사회적 불안점수와 스트레스 정도 ····· 233
〈표 3-31〉 성인의 우울 증상 (2개 그룹) ····· 235
〈표 3-32〉 성인의 우울 증상 (원 점수) ····· 236
〈표 3-33〉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우울 정도 ····· 237
〈표 3-34〉 성인의 불안장애 등급별 분포 ····· 238
〈표 3-35〉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불안장애 등급 ····· 239
〈표 3-36〉 성인의 자살 생각 여부 및 이유 ····· 240
〈표 3-37〉 성인의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 241
〈표 3-38〉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여부 ····· 242
〈표 3-39〉 성인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 243
〈표 3-40〉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여부 ····· 244
〈표 3-41〉 성인의 본인의 분노조절 ····· 245

〈표 3-42〉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분노 조절 ····· 246
〈표 3-43〉 성인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의 원만함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248
〈표 3-44〉 성인의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의 원만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250
〈표 3-45〉 성인의 가족 간 활동 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252
〈표 3-46〉 성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254
〈표 3-47〉 성인의 가정, 학교, 직장 및 사회의 소속감 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256
〈표 3-48〉 성인의 주관적 삶의 행복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258
〈표 3-49〉 성인의 대인 신뢰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260
〈표 3-50〉 성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262
〈표 3-51〉 성인의 우리 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264
〈표 3-52〉 성인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266
〈표 3-53〉 성인의 가족과의 소통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 268
〈표 3-54〉 성인의 사회적 불안과 개인·사회적 위험 간의 상관관계 ····· 270
〈표 3-55〉 우울척도(CES-D)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 273
〈표 3-56〉 Zung의 불안장애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 275
〈표 3-57〉 성인의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277
〈표 3-58〉 성인들의 심리적 불안 해소 방법 ····· 280
〈표 3-59〉 성인의 개인적인 불안요소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희망 사항 ····· 281
〈표 3-60〉 성인의 사회적인 불안요소 해소를 위한 국가적 지원 희망 사항 ····· 282
〈표 3-61〉 성인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인식 ····· 283
〈표 3-62〉 성인의 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도움 필요성 ····· 283

부표 목차

〈부표 3-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 ····· 330
〈부표 3-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 ····· 333
〈부표 3-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원만함 ····· 336

〈부표 3-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 관계 원만함 ····· 336
〈부표 3-5〉 다툼(갈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개입(도움) 필요 ····· 337
〈부표 3-6〉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툼(갈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개입(도움) 필요 ····· 337
〈부표 3-7〉 개입(도움) 필요 시 역할 ····· 338
〈부표 3-8〉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입(도움) 필요 시 역할 ····· 339
〈부표 3-9〉 따돌림(왕따)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및 주변 도움 받은 경험, 도움 요청 대상 ····· 341
〈부표 3-10〉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왕따)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및 주변 도움 받은 경험, 도움 요청 대상 ····· 341
〈부표 3-1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왕따)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 342
〈부표 3-1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왕따) 당할 때 주변의 도움 받은 경험 ··· 343
〈부표 3-1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왕따)으로부터 도움 요청 대상 ····· 343
〈부표 3-14〉 학업 성적 관련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 받음 ····· 346
〈부표 3-15〉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 성적 관련 도움 요청 경험 ····· 346
〈부표 3-16〉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 성적 관련 도움 요청 상대 ····· 347
〈부표 3-17〉 이성 관련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 받음 ····· 349
〈부표 3-18〉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성 관련 도움 요청 경험 ····· 349
〈부표 3-19〉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성 관련 도움 요청 상대 ····· 350
〈부표 3-20〉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관련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 받음 ····· 352
〈부표 3-2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관련 도움 요청 경험 ····· 352
〈부표 3-2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님 관련 도움 요청 상대 ····· 353
〈부표 3-23〉 진학/진로 관련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 받음 ····· 355
〈부표 3-2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학/진로 관련 도움 요청 경험 ····· 355
〈부표 3-25〉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학/진로 관련 도움 요청 상대 ····· 356
〈부표 3-26〉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 ····· 358
〈부표 3-27〉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 ····· 358

〈부표 3-28〉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신의 목표 달성 가능성 ····· 361
〈부표 3-29〉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 사회적 계층 ····· 361
〈부표 3-30〉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속감 ····· 363
〈부표 3-3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 363
〈부표 3-3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리 사회의 평등함 ····· 364
〈부표 3-3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람들의 신뢰도 ····· 365
〈부표 3-3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리 사회의 안정성 ····· 365
〈부표 3-35〉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신체적 건강상태 ····· 366
〈부표 3-36〉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 ····· 368
〈부표 3-37〉 음주 경험 ····· 368
〈부표 3-38〉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시간 ····· 369
〈부표 3-39〉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3개월 동안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한 횟수 ····· 371
〈부표 3-40〉 최근 7일 동안 아침 식사 한 날 ····· 372
〈부표 3-41〉 정기적 동호회 활동 ····· 372
〈부표 3-4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기적 동호회 활동 ····· 373
〈부표 3-4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경험 ····· 373
〈부표 3-4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일탈 충동 ····· 374
〈부표 3-45〉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본인의 분노조절 ····· 375
〈부표 3-46〉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 375
〈부표 3-47〉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이용 ····· 376
〈부표 3-48〉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도움 필요성 ····· 377
〈부표 3-49〉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희망하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 377
〈부표 4-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 ····· 379
〈부표 4-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인 측면의 불안 요소 ····· 381
〈부표 4-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 ····· 382
〈부표 4-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인 측면의 불안 요소 ····· 385
〈부표 4-5〉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원만함 ····· 386

〈부표 4-6〉 직장에서 대인관계 원만함 ····· 387
〈부표 4-7〉 이웃주민들과의 관계 원만함 ····· 388
〈부표 4-8〉 가족/직장/이웃과의 활동 ····· 389
〈부표 4-9〉 다툼(갈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개입 필요 ····· 389
〈부표 4-10〉 다툼(갈등)에 대한 개입의 역할 ····· 389
〈부표 4-11〉 함께 식사하는 사람 ····· 389
〈부표 4-12〉 자신의 목표 달성 가능성 ····· 390
〈부표 4-13〉 본인이 속한 사회적 계층 ····· 391
〈부표 4-14〉 올라갈 가능성 ····· 393
〈부표 4-15〉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에 대한 소속감 ····· 394
〈부표 4-16〉 소속감 ····· 394
〈부표 4-17〉 행복감 ····· 395
〈부표 4-18〉 우리사회의 평등함 ····· 396
〈부표 4-19〉 우리사회의 평등함 ····· 396
〈부표 4-20〉 사람들의 신뢰도 ····· 397
〈부표 4-21〉 우리 사회의 안정성 ····· 398
〈부표 4-22〉 우리 사회의 안정성 ····· 398
〈부표 4-23〉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 399
〈부표 4-24〉 흡연 경험 ····· 401
〈부표 4-25〉 흡연량 ····· 402
〈부표 4-26〉 음주 경험(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경험) ····· 403
〈부표 4-27〉 알코올 중독 ····· 404
〈부표 4-28〉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수면 시간 ····· 405
〈부표 4-29〉 최근 3개월 동안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한 횟수 ····· 406
〈부표 4-30〉 정기적 동호회 활동 ····· 408
〈부표 4-31〉 정기적 동호회 활동 ····· 408
〈부표 4-32〉 범죄의 피해자 경험 ····· 409
〈부표 4-33〉 트라우마 ····· 410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모형: 개념적 분석틀 ····· 26

Abstract

Some Causes of the Psycho-social Anxiety in Korea and How to Address Them

Socio-psychological anxiety is one of the phenomena which characterize the current Korean society. The causes of the socio-psychological anxiety include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recession, high unemployment rates, financial debts, criminals, incidence of MERS, insufficient preparation for the post-retirement,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and so on.

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effective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to avoid the side effects coming from the prevalence of socio-psychological anxiety, and tries to identify key factors affecting the increase in the socio-psychological anxiety.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conducts a sample surveys for the adolescents(sample size: 5,000) and the adults aged 19 or over (sample size 7,000), and finds that the Korean people are considerably anxious about their own life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The key factors affecting the socio-psychological anxiety are found to be self-esteem, social support or networks and quality of life.

This study suggests that mental health programs to deal with anxiety problem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at re-

gional levels, and the anxiety management programs should be integrated with other mental health programs at the Mental Health Promotion Centers.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불안·불만·불신 등 소위 3불(三不) 현상의 맥락 하에서 사회·심리적 불안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불안·불만·불신은 개인이 향유하는 물질적 풍요의 절대적 수준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의 하나이다. 최근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이나 세월호 사건, 북한 핵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불안·불만·불신이 사회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영역 및 관련 변수의 다양성, 정책적 개입의 한계, 정책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효과적인 수단이 강구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와 원인,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사회·경제·심리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사회·심리적 불안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상의 문제, 사회적 일탈 충동, 자살생각 등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의 추진을 위해 2015년 8월 8일~9월 22일 기간 중 만 14

세~18세 이하 청소년 5,000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그리고 만 19세 이상 7,000명에 대한 개별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만 14세~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불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과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를 알아본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안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가장 크게 불안을 느꼈던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는 학업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 측면의 불안 요소로는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와 맞물려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의 변경이 가장 불안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치 및 대외관계, 안전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19세 이상 성인에게서 나타난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은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많고 주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성에게서, 그리고 성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20대보다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서 더 높았다. 또한 결혼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소득, 직업,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가장 크게 불안을 느꼈던 개인적인 요소는 노후준비, 취업 및 소득, 신체적 건강 등이었다. 가장 큰 사회적 불안요소는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안전문제 등으로 경제와 건강문제에 따른 불안이 컸다.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 청소년은 학교에서 왕따(따돌림)경험이 있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목표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가정 및 학교 등에의 소속감이 낮을수록, 본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가 낮을수록, 우리사회의 평등정도가 낮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의 안정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을수록,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왕따(따돌림)경험이 있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목표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본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가 낮을수록, 우리사회의 평등정도가 낮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사회의 안정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수록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인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들이나 직장에서의 대인관계가 원만할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계층이 높을수록, 가정·학교·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사회가 안정되었다고 생각할수록, 미래에 대해 불안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불안 요소 해소를 위해 청소년의 경우 미래 문제(진학, 취업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학업상담 및 지원, 생활경제문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가 높았다.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 대응과 학대·폭력 등 범죄 문제에 대한 국가안전체계 강화, 교육 및 입시제도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가 높았다.

성인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 노후준비,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및 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사회적인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서는 경기활성화 및 성장 촉진, 감염병 관리 등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와 건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불안 요소인 만큼, 이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사회·심리적 불안이 인간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이지만 그 원인의 많은 부분과 불안의 정도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만큼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도 사회·심리적 불안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안 해소를 위하여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충과 보건의료체계 개선, 고용 및 취업대책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이 소득보장정책, 보건의료정책, 고용 및 취업대책 등 해당정책 영역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회·심리적 불안요인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 볼 때, 진학·취업 등 미래문제에 대한 상담, 학업상담 및 지원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불안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뿐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불안의 정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정신건강 정책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성인들의 경우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불안을 느낄 경우 수면이나 휴식, TV 시청을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결국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없이 혼자서 극복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사회·심리적 불안, 불안의 원인, 정신건강, 사회적 위험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제3절 연구방법

1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불안(不安)의 사전적 의미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정서적 반응”[1]이다.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 “과도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거나 현실적인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불안장애라고 하며, 불안장애의 종류로는 범불안 장애, 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해, 불안장애 뿐 아니라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정상으로 간주되는 정서적 반응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불안과 관련하여 불안·불만·불신 등 소위 3불(三不) 현상의 맥락 하에서 사회·심리적 불안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는 불안·불만·불신이 그 원인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삼자(三者) 간의 연관성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수복(2012)은 관행·심성·마음 등

---

1)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B%B6%88%EC%9E%A5%EC %95%A0) 2015.11.2. 14:00시
2) 위의 사이트, 같은 시각

의 문화적 요소들은 사회구성원들의 행위의 밑바닥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사고방식으로, 이는 시대가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역사의 축적물이므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의 역사적 축적물과 공통의 사고방식은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한국정책재단(2014)에서와 같은 제도와 규범에 대한 불신, 현재 생활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불안·불만·불신은 현 시대의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공통의 심리적 상태나 정서적 반응을 대표하는 측면의 하나이며, 불신이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불만이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함으로써 사회적 일탈행동이나 자살, 계층 간 갈등 등의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울러, 불안·불만·불신은 개인이 향유하는 물질적 풍요의 절대적 수준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의 하나이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불안·불만·불신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최소한 불안·불만·불신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은 낮다. 즉, 높은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불안·불만·불신의 완화나 해소가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나 세월호 사건, 북한 핵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OECD의 2015년 Better Life Index(BLI)의 삶의 만족도 지수(Life Satisfaction)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7위에 해당하는

5.8점(OECD 평균 6.6점)을 기록하였다.[3)]

이와 같이 불안· 불만 · 불신이 사회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와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영역 및 관련 변수의 다양성, 정책적 개입의 한계, 정책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효과적인 수단이 강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안 · 불만 ·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적 관행이나 규범의 개선,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등의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전 단계로서 이러한 사회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로 인한 문제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며, 그 결과로서 어떤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불안 · 불만 · 불신 등이 가지는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이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연구 상의 제약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가 내 · 외부적 사건이나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불안의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안과 관련한 국내에서의 연구들은 사회적 문제나 현상에 대한 원인의 하나로 불안을 거론하는 데 그친 것이 대부분이며, 구체적인 불안의 수준과 규모를 파악하고, 불안의 영향요인을 개인 · 집단 · 사회 수준에서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전국 규모의 국민의식조사로서 임현진외(2004) 등이 있으나 불안과 관련된 조사항목이 범죄, 교통사고, 건물 및 교량붕괴, 환경오염, 실직, 해고, 노후 대책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사회 · 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미

3) OECD Better Life Index-Edition 2015(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2015.11.2일 16:00시

흡하였다.

따라서 사회·심리적 불안의 실태와 원인,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심리적 불안에 따른 위기증상과 병리현상의 실태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불안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과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와 원인,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사회·경제·심리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사회·심리적 불안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상의 문제, 사회적 일탈 충동, 자살생각 등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을 취업 및 소득, 노후준비, 생활안전, 신체적·정신적 건강, 가족관계, 자녀교육, 가족부양 및 간병 등의 개인적 측면, 그리고 MERS의 발생,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안전문제, 학대·폭력 등 범죄, 저출산·고령화, 계층·집단 간 갈등,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등의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불안 정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대인신뢰도, 행복도, 개인건강 및 생활 행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 등의 보건·사회·경제·심리적 요인들이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사회·심리적 불안이 우울증, 불안장애, 사회적 일탈 충동, 자살생각 등과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심리

적 불안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위험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넷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심리적 불안의 확산과 이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건강 및 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심리적 불안의 실태 관련 선행연구

불안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임성우·가영희(2007)는 불안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심리현상 또는 감정적 반응으로서, 그 개념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이어서 이를 이해하는 접근방법도 철학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 사회·심리학적 측면 등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임성우·가영희 2007, p.32). 또한, 사회불안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가리키며, 사회적 상황의 회피, 생리적 각성, 신체화 증상 등을 나타낸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재인용: 김정민·이정희 2008, p.1748).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로서, 개인의 사회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한다(김남재 2004, p.1012).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불안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지거나 원치 않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여건이나 사회적 상황이 앞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느끼는 감정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안에 대한 하나의 절대적인 정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개개인이 생각하는 불안의 정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응답자 개개인은 각자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정의와 기준에 따라 응답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문에 앞서 불안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불안의 기준에 따라 응답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설문을 기반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이기는 하다.

한편, 불안의 실태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불안장애 등 정신의학적 측면의 불안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청소년기의 불안과 관련한 예로서, 불안은 초기 청소년기에 크게 증가하여 15세경에 정점에 이른다거나(Mancini et al. 2005, 재인용: 김정민·이정희 2008, p.1748), 전체 청소년기의 불안관련 유병률은 2.0~4.0%에 달한다는 연구(Essau et al. 1999, 재인용: 김정민·이정희 2008, p.1748) 등이 있다.

불안장애의 한 유형으로서 사회공포증은 일반인들에게 볼 수 있는 흔한 정신장애의 하나로(김남재 2004, p.1012),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5판(DSM-Ⅳ)에서는 사회공포증을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에 대해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가지는 것, 즉, 개인이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타인에 의해 주목받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자신들이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러운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재인용: 문혜신·오경자 2002, p.430).

사회공포증이 발병하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중기 청소년기이며, 평균적으로 약 12.3세경에 발병한다는 보고가 있다(Strauss, Last 1993, 재인용: 문혜신·오경자 2002, p.430), 또한 약 6.3%의 청소년이 사회 공포증을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도(Essau 1999, 재인용: 문혜신·오경자 2002, p.430) 있다.

그러나 사회 불안이나 공포증은 대체로 청소년기까지는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린 아동의 경우 주관적인 불편감과 사회적 맥락의 관련성을 파악해 낼만한 인지적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였고, 청소년기에 이르러서야 사회적인 관계에 노출될 기회가 증대하기 때문이다(Morris, Masia 1998, 재인용: 문혜신·오경자 2002, p.430).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불안장애는 실제보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 공포증의 평생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13.3%(Kessler et al. 1994, 재인용: 김남재 2004, p.1012), 프랑스의 경우 14.4%라는 연구결과(Weiller et al. 1996, 재인용: 김남재 2004, p.1012) 있다. 우리나라의 불안장애 평생유병률은 2011년 8.7%, 60대 이상 인구의 불안장애 유병률은 5.8%로 나타나고 있다(Cho et al. 2011, 재인용: 김지윤 외 2014, p.75).

한편, 불안을 특성불안(trait anxiety)과 상태불안(state anxiety)으로 구분하여 해석하기도 하며, 스필버거(Spielberger)의 정의에 의하면 상태불안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긴장감, 걱정, 또는 두려움의 느낌을 갖고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항진됨으로써 야기되는 일시적인 불안상태를 의미하며 위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불안의 정도가 변화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반대로 특성불안이란 불안을 일으키는 경향에 대하여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을 의미하고 외적인 위협에 대하여 대처하는 개인적인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한 개인에 있어서는 일생동안 변화되지 않고 일정한 양상을 띤다(조수철 외 2001, pp.228~229).

이 개념은 청소년의 시험불안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다. 자신이 평가를 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은 특성불안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하여 시험 상황에서 상태불안의 정도가 더 심해지며 이러한 상태에서 시험결과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nney 1966; Hodgers 1968; 조수철 외 2001, pp.226~229).

이와 같이 불안을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과는 달리 사회학 등에서는 사회불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불안을 측정하려는 시도도 이어져 왔다. 최인철·김범준(2005)은 사회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척도를 개발하였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은 7점 만점 중 4.54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사회 불안은 남자보다 여자가, 세대별로는 대학생보다 일반인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첫째는 급변하는 사회, 예측의 어려움 등에 따른 개인의 통제감 상실, 둘째는 법 집행의 불공정성, 편법 등 사회의 공정성 불신, 셋째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정보 격차의 두려움 등 개인의 취약성 등을 들었다(최인철·김범준 2005, pp.8~39).

사회불안의 객관적 대상을 정치적 불안, 경제적 불안, 북한에 대한 불안, 직장에서의 불안, 교육문제에 대한 불안 그리고, 빈부격차 불안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이훈구, 2004; 박수애·송관재, 2005, 재인용: 안주희 2009, p.76). 또한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면 예측이나 이동에 대한 불가능성, 불공정성, 통제의 어려움, 불확실성, 불신성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홍영오 외, 2006, 재인용: 안주희 2009, pp.76~77)도 있다. 이 연구들은 사회적 수준에서의 불안에 대해 논의하고는 있지만, 그 불안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안주희 2009, p.77).

더 나아가 안주희(2009)는 후기 근대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신뢰가 낮을수록 개인의 불안과 강박징후의 정도가 커진다는 점을 밝히면서 개인적 수준의 불안이 후기 근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의 문제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였다(안주희 2009, p.75).

2.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 관련 선행연구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황이더라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매우 불안하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확정적(indeterministic)이다.

이러한 불확정성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정한 불안의 원인이나 요소가 모든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불안하도록 할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의 특성(trait)이나 가치관, 사회적 여건, 심리적 상태 등의 차이로 인해 어떤 사람은 불안을 심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안을 느끼지 않기도 한다. 이 경우 개인이 가진 중재요인(intervening factors)의 차이가 개인 간에 불안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중재요인으로는 대인관계 및 대인신뢰도, 자아존중감, 행복도,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의 원인 자체가 어떤 개인에게는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다른 개인에게는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기도 한다.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입학시험이 다가 온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안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불안의 원인이 모든 개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불안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점에서 불확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정성이나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요인들로 어떤 요인들이 있으며, 불안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인구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에서 한국 사회의 불안요인을 진단하고 있다. 강혜자·한덕웅(2005)는 자기에 대한 신념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실제자기는 자신이 실제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속성, 이상자기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소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속성, 그리고 당위자기는 자신이 마땅히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속성의 표상이며, 실제자기와 이상자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낙담정서(우울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실제자기와 당위자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초조정서(불안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상자기와 실제자기의 차이가 클수록 낙담정서와 초조정서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특수한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개인의 신념이나 사고가 개인의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강혜자·한덕웅 2005, pp.350~369).

고용조정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경험한 근로자는 향후의 구조조정, 합병 등에 대한 조직변화를 지각하면 자신의 고용상태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Greenhalgh, Rosenblatt 1984; King 2000, 재인용: 박상언·이영면 2004, p.506). 또한 고용조정에서 살아남은 잔존 직원들은 변화된 직무 내용과 관련하여 역할 모호성이 클수록 해당 직

무상실의 위협과 무력감을 느껴 고용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Ashford et al. 1989, 재인용: 박상언·이영면 2004, p.506).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보다 다양한 욕구를 갖는 노인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노인에 대한 불안연구는 사회불안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장호익 2007, p.3; 민지선 2009; p.17; 이은주 2013, p.5), 노화에 대한 불안(최현보, 2014)과 같이 불안을 특정한 측면으로 국한하여 조명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명희(2003)은 여성노인의 생활불안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생활불안을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의존성이 발생했으나 이 의존성을 해소할 방안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불안으로 정의하고, 여성 독거노인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의존성을 해결하는데 가장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생활 불안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이명희 2003, p.58).

청소년이나 아동의 불안에 대해서는 교사, 친구, 가족 등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는 연구가 많았다. 김정희·이정희(2008)는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문제가 청소년의 다양한 부정적인 심리사회학적 특성 및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사회불안의 하나인 대인불안은 청소년기에 또래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또래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척되는 경우에 높게 나타나고, 청소년기의 우정의 질에 따라 사회불안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김정민·이정희 2008, pp.1748~1760).

유봉애·옥경희(2013)는 학교와 방과 후 기관의 사회적 지지원으로부터 얻은 자원이 많을수록 환경의 특수성을 지닌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불안은 줄어든다고 하였다(유봉애·옥경희 2013, p.531).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이나 불안요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지, 소속감, 행복도, 대인신뢰 및 사회적 자본 등의 매개요인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많지 않다. 그것은 불안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이라는 주제가 보다 관심을 끄는 연구주제이기도 하겠으나 매개변수 등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회·심리적 불안에 따른 위기 증상과 병리현상 관련 선행연구

사회공포증 및 사회 불안은 여러 가지 유해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아동 및 청소년기에 사회 불안을 보이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어 친구관계를 잘 맺지 못하며, 학업 수행에 손상을 받거나 학교 거부증, 우울 및 기타 약물 남용의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Beidel 1991; Clark 1993; Last et al. 1991, 재인용: 문혜신·오경자 2002, p.430).

직장에서의 불안은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서는 김영조(2001), 노용진·김동배(2003), 박상언·이영면(2004)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공정성이 결여된 고용조정 과정이 사원들의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박상언·이영면 2004, p.506).

아울러, 신분불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스트레스와 긴장을 심화시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조직차원에서는 조직몰입, 신뢰, 직무만족, 직무성과 등을 저하시키며 이직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박통희·김민강 2008, p.285).

또한 구훈정 외(2012)는 사회불안장애를 갖는 사람들은 안전 추구 행동, 미묘한 회피 행동을 보이는데, 안전 추구 행동은 일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거나, 불안을 완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회공포증에 대한 사회적 위협, 불안에 대한 지각, 부정적인 신념을 지속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구훈정 외 2012, p.694).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불안증상과 불안장애는 기능상실, 인지기능 저하 및 삶의 질 저하, 사망률 증가 등과 관련이 있다(Lenze, Wetherell 2011, 재인용: 김지윤 외 2014, p.76).

아동기에 부모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정서적 안정감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개입이 없다면, 안정감의 부재로 인해 정서적 우울과 불안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Bowlby, 1973, 재인용: 서주연·정남운 2011, p.391).

불안으로 인한 부작용은 개인이나 사회 모든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부작용을 모두 포괄하여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특정 측면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생각(suicide ideation), 사회적 일탈행동 충동, 분노, 우울증 등 정신건강 등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가 사회·심리적 불안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전국 규모의 표본조사 D/B를 구축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조사설계와 설문구성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설문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개념적 분석모형(conceptual framework)을 기초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아울러 분석모형 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불안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위험 등과 관련된 변수의 선정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의학, 보건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된 변수들도 설문 및 분석에 포함하였는데, 불안장애 등 정신의학적 측면의 변수들보다는 사회·심리적 측면의 변수들에 중점을 두었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교차분석과 함께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교차분석을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별로 불안의 실태, 영향요인, 원인, 불안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위험의 차이를 분석하고, 다변량 분석을 통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불안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회·심리적 불안과 자살생각, 사회적 일탈 충동 등과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심리적 불안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조사대상을 청소년과 19세 이상 성인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19세 성인에 대한 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하였는데, 청소년의 경우 귀가시간이 늦어 가구방문을 통해 조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는 청소년의 불안은 성인의 경우와 그 원인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이나 교사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심리적 불안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성인대상 설문조사에서 포함되는 노후준비 등은 청소년에는 부적절한 질문으로, 전체적으로 성인대상 조사와 청소년 대상 조사의 설문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설문조사는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는데, 만 14세~18세의 청소년 대상 조사의 규모는 5,000명, 19세 이상 성인 대상 조사의 규모는 7,000명이었다.

조사 관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담당하였고, 조사의 시행은 사회조사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담당하였다. 조사시기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인 8~9월로 하였다. MERS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구방문 면접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MERS에 대한 응답이 거의 절대적인 수준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타 불안요인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표본추출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 6월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모집단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층화하고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1. 연구모형 및 조사 내용

가. 개념적 분석모형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은 다양하다.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은 개인적의 원인과 사회적 차원의 원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차원의 불안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에 대한 인식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개인이 사회 자체의 불안이 높다고 인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개인의 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불안의 원인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개인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불안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 소득계층 등 기본적인 특성별로도 차이가 발생하지만 개인의 가치규범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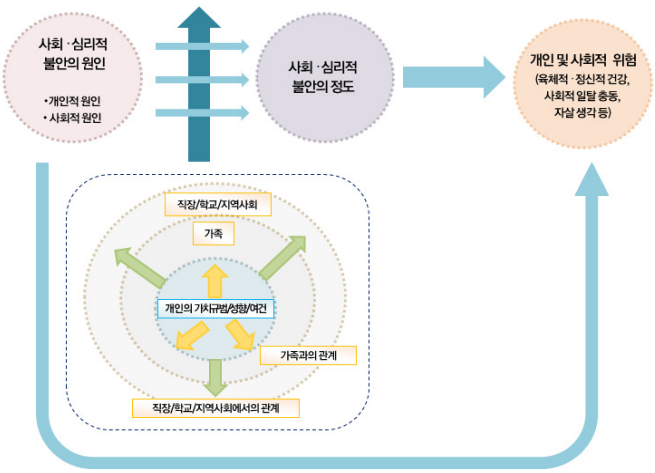
성향,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불안의 원인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존중감이나 가치관 등의 매개요인의 영향으로 불안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개요인에는 개인 자체에 국한된 내적인 특성 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직장·학교·지역사회에서의 인적 유대관계나 사회적 자본, 사회적지지 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사회·심리적 불안은 음주, 흡연, 수면 등의 건강관련행태나 주관적 건강수준 등은 물론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자살생각이나 사회적 일탈 충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이 불안이라는 변수를 통해서만 개인 및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노후준비 부족 등의 요인은 불안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불안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구도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1〕 연구모형: 개념적 분석틀



나. 변수의 선정 및 조사내용

1) 개인 및 가구특성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으로서, 개인 및 개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 혼인상태, 가구원수, 종교활동, 직업의 종류, 근로형태, 직종의 성격,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을 포함하였다.

사회심리 연구에 있어서 종교가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교활동을 변수로 포함하였는데, 단순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넘어 종교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정규직·임시적 등의 근로형태도 변수로 포함하였으며, 직종의 성격으로서 육체적 노동 중심의 직종인지 지적활동 중심의 직종인지를 조사대상 변수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개인 및 가구의 특성들은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 뿐 아니라 개인 간 불안의 원인의 차이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구에서 발생하는 불안요인과 고소득층 가구에서 발생하는 불안 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젊은 연령층과 노인계층에서의 불안의 원인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표 1-1〉 설문조사내용: 개인·가구 특성

변 수 명		보 기 (척도수)	대상
1	성별	남/여	전체
2	연령		전체
3	거주지		전체
4	혼인상태		성인
5	가구원 수		전체

변 수 명		보 기 (척도수)	대상
6	가구구성	복수선택	전체
7	종교활동 빈도	5개	전체
8	맞벌이부부 여부	예/아니오/비해당	성인
9	직업분류	14개(기타 포함)	성인
10	근로형태	3개	성인
11	직종성격	1-10점 척도(육체노동↔지적활동)	성인

주: 성인 및 청소년용 설문지는 부록 1, 2 참조

2)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 및 정도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문항은 크게 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포함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의 정도도 조사문항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문항들은 전혀 불안하지 않다(0)~매우불안하다(10점)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울러,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인적 측면의 원인으로는 노후준비, 신체적 건강, 취업 및 소득, 생활안전, 정신적 건강, 가족해체, 자녀교육 및 가족부양·간병, 직장에서의 갈등, 이웃과의 관계,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문제,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요인들을 설문조사에 반영하였다. 이 외에도 개인들이 가진 다양한 불안의 원인을 설문조사에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측면의 원인으로는 MERS 등 고위험 감염병 발생, 경기침체 및 성장 둔화, 안전 문제,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정치 및 대외관계, 높은 자

살률 등 정신건강 문제, 학대·폭력 등 범죄, 사회안전망 취약, 저출산 문제와 인구고령화, 계층·집단·세대간 갈등,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포함하였으며, 개인적 측면의 불안요소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사회적 불안요소를 설문조사에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불안요소별로 그 요인으로 인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를 전혀 불안하지 않다(0)~매우불안하다(10점)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여부나 분노조절 가능 정도 등의 변수는 사회·심리적 불안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개인 및 사회적 위험의 차원에서 포함된 문항이다.

〈표 1-2〉 설문조사내용: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와 원인

변 수 명		보 기 (척도수)	대상
1	가장 큰 개인의 불안요소		전체
2	개인적 문제(11개 요인)에 따른 불안정도	0~10점	전체
3	가장 큰 사회적 불안요소	10개	전체
4	사회적 문제(12개 요인)에 따른 불안정도	0~10점	전체
5	본인의 삶에 대한 불안 정도	5점	전체
6	우리 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정도	5점	전체
7	향후 더 일할 수 있는 기간		성인
8	불안 해소 방법		전체
9	노후준비 정도	5점	성인
10	범죄피해자 경험 여부	예/아니오	전체
11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여부	예/아니오	전체
12	분노조절 가능 정도	4점	전체

주: 성인 및 청소년용 설문지는 부록 1, 2 참조

3) 가족·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

가족·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 원만한지는 개인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이 발생했거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족과 주변과의 대인관계가 원만할 경우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심리적·정서적 교류 등을 통해 사회·심리적 불안을 적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응답자의 답변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즉, 실제로 대인관계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좋다고 인식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원만함에 대한 절대적 기준도 없으며, 객관적으로 원만함의 수준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만함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족·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묻는 질문과 함께,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한 질문으로서 가족·이웃주민·직장동료와의 교류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아울러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에서의 따돌림, 학업성적, 이성관계,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진학·진로 문제 등으로 고민이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받은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3〉 설문조사내용: 가족·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

변 수 명		보 기 (척도수)	대상
1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의 원만한 정도	4점	전체
2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의 원만한 정도	4점	성인
3	학교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의 원만한 정도	4점	청소년
4	이웃주민들과의 관계의 원만한 정도	4점	성인
5	가족/직장/이웃주민과의 활동빈도	5개	성인
6	갈등문제에 대한 3자 개입의 필요성	예/아니오	전체
7	갈등문제에 대한 중재 희망자	8개	전체
8	따돌림 경험 여부		청소년
9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4점 척도	청소년
10	따돌림을 당했을 때 주변의 도움 정도 및 도움을 준 사람		청소년
11	학업성적 고민 관련 도움 받은 경험 및 도움을 준 사람		청소년
12	이성관계 고민 관련 도움 받은 경험 및 도움을 준 사람		청소년
13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로 인한 고민 관련 도움 받은 경험 및 도움을 준 사람		청소년
14	진학·진로 고민 관련 도움 받은 경험 및 도움을 준 사람		청소년
15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문제		청소년
16	식사동반자	복수선택	성인

주: 성인 및 청소년용 설문지는 부록 1, 2 참조

4) 자아의식·대인신뢰도·행복지수

자아존중감, 인생의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 상방향으로의 사회계층 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 가정·학교·직장·사회에 대한 소속감, 행복도, 우리사회의 평등도에 대한 인식, 대인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등은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이나 사회적 위치 등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수록, 학교·직장·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사회구성원이나 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을 적게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로젠버그(Rosenberg)의 척도(10문항)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4척도 또는 10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4〉 설문조사내용: 자아의식·대인신뢰도·행복지수

변 수 명		보 기 (척도수)	대상
1	자아존중감(Rosenberg 척도 10개 문항)	4점	전체
2	인생의 목표달성 가능성	4점	전체
3	(성인)본인이 속한 사회계층 (청소년)가정이 속한 사회계층	5개	전체
4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가능성	4점	성인
5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 소속감	5점	전체
6	행복도	4점	전체
7	우리 사회의 평등도에 대한 인식	4점	전체
8	대인 신뢰도	4점	전체
9	사회에 대한 신뢰도	0-10점	전체
10	사회의 안정도에 대한 인식	4점	전체

주: 성인 및 청소년용 설문지는 부록 1, 2 참조

5) 사회적 지지·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자본은 사회·심리적 불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한 개인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응답자들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한 조사항목으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 가족과의 소통정도(communication), 주변 사람과의 소통정도, 상의할 사람의 보유정도, 정기적 동호회 활동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적 자본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과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불안요소가 발생하더라도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개인이 가진 불안의 정도를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표 1-5〉 설문조사내용: 사회적지지·사회적 자본

변 수 명		보 기 (척도수)	대상
1	사회적 지지 정도	0-10점	전체
2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7문항)	예/아니오	성인
3	가족간 소통정도	0-10점	전체
4	주변사람(친구)과의 소통정도	0-10점	전체
5	주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도	0-10점	전체
6	상의할 사람의 보유 정도	0-10점	전체
7	정기적 동호회(동아리)활동 여부	예/아니오	전체

주: 성인 및 청소년용 설문지는 부록 1, 2 참조

6) 신체적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사회·심리적 불안은 육체적 건강이나 건강관련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불안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육체적 건강을 나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흡연·음주 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수준, EQ-5D, 흡연여부, 음주횟수, 수면시간 등을 조사문항으로 포함하였다. 음주에 대해서는 관련 문항을 바탕으로 AUDIT 척도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표 1-6〉 설문조사내용: 신체적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변 수 명		보 기 (척도수)	대상
1	주관적 건강수준	5점	전체
2	EQ-5D(5문항)	3개척도	성인
3	평생흡연여부	예/아니오	전체
4	현재흡연여부		전체
5	평생음주여부	예/아니오	전체
6	음주횟수		전체
7	연간음주량		전체
8	AUDIT		성인
9	최근 3개월 하루평균수면시간		전체
10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횟수		전체

주: 성인 및 청소년용 설문지는 부록 1, 2 참조

7) 정신건강

사회·심리적 불안은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안의 정도가 심한 사람일수록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으로도 다른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를 느낄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다. 아울러, 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이나 자살생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한 변수로는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우울척도, 불안척도, 정신적 충격(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경험 여부, 자살생각 경험 여부, 자살계획 수립 경험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우울척도로서는 CES-D11을 사용하였으며, 불안척도로서는 Zung 자가평가불안척도(SAS)를 사용하였다.

〈표 1-7〉 설문조사내용: 정신건강

변 수 명		보 기 (척도수)	대상
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전체
2	우울척도(CES-D11)		전체
3	불안척도(Zung 자가평가불안척도 SAS, 20문항)		전체
4	정신적 충격 경험여부	예/아니오	전체
5	자살생각여부	예/아니오	전체
6	자살생각이유	10개	전체
7	자살계획여부	예/아니오	전체
8	자살시도여부	예/아니오	전체
9	자살시도이유	10개	전체

주: 성인 및 청소년용 설문지는 부록 1, 2 참조

8) 사회·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사회·심리적 불안을 위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한 문항으로는 개인적 측면의 불안 해소와 사회적 측면의 불안 해소를 위해 희망하는 지원 정책, 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공공기관이 제공해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하였다. 사회·심리적 불안의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정책적 구상과 설계에 있어 수요자의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

〈표 1-8〉 설문조사내용: 사회·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변 수 명		보 기 (척도수)	대상
1	개인적 문제로 인한 불안해소를 위한 희망 국가지원 정책		전체
2	사회적 문제로 인한 불안해소를 위한 희망 국가지원 정책	11개, 3순위 선택	전체

변 수 명		보 기 (척도수)	대상
3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서비스 제공 인지 여부	예/아니오	전체
4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경험 여부	예/아니오	전체
5	공공기관의 도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예/아니오	전체
6	공공기관이 제공해 주기 희망하는 서비스		전체

주: 성인 및 청소년용 설문지는 부록 1, 2 참조

2. 청소년대상 조사

가. 개요

전국의 만 14~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015년 8월 11일 ~9월 20일 기간 중 실시되었으며, 조사 완료된 대상자수는 5,000명이다. 표본틀은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이 보유한 청소년 패널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는 온라인조사로 이루어졌다.

〈표 1-9〉 청소년 대상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15년 8월 11일 ~ 9월 20일
조사표본 추출	전국의 17개 시·도를 층화하고 성별 및 연령을 고려 표본 추출
조사대상	전국 만 14~18세 남녀 5,000명
표본틀	㈜마크로밀 엠브레인 청소년 패널X
조사 방법	온라인조사 (Web Survey Based)
조사 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

나. 표본설계

청소년 대상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4세~18세의 남녀가 조사

대상으로, 표본 선정을 위해서는 2015년 6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만 19세 이상)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인구비(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구성비)를 고려한 비례할당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구비는 성별 2개(남성, 여성), 연령 2개(14~15세, 16~18세), 거주지역 17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을 고려하여 총 68개 셀(cell)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표 1-10〉 청소년 대상 조사의 시·도별 표본 수

(단위: 명)

구 분		14~15세	16~18세	합계
전 체		1,933	3,067	5,000
합계	남성	1,009	1,602	2,611
	여성	924	1,465	2,389
서울특별시	남성	171	278	449
	여성	158	258	416
부산광역시	남성	55	112	167
	여성	55	87	142
대구광역시	남성	47	94	141
	여성	52	64	116
인천광역시	남성	56	90	146
	여성	52	84	136
광주광역시	남성	35	56	91
	여성	38	47	85
대전광역시	남성	32	54	86
	여성	30	48	78
울산광역시	남성	28	33	61
	여성	23	41	64
세종시	남성	4	4	8
	여성	4	2	6
경기도	남성	259	401	660
	여성	241	374	615
강원도	남성	31	49	80
	여성	27	44	71
충청북도	남성	32	44	76

구 분		14~15세	16~18세	합계
	여성	29	48	77
충청남도	남성	41	67	108
	여성	37	58	95
전라북도	남성	39	62	101
	여성	36	56	92
전라남도	남성	35	67	102
	여성	34	55	89
경상북도	남성	55	69	124
	여성	39	81	120
경상남도	남성	73	108	181
	여성	62	95	157
제주특별자치도	남성	16	14	30
	여성	7	23	30

다. 조사 응답자 선정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청소년 패널 DB를 표본틀로 이용하여 성, 연령, 지역별로 목표 표본의 5배수씩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 메일을 발송하여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최근 유사 조사 경험자와 불성실 응답 경험자 등 부적격자는 필터링 하여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라. 추정산식

1) 전체 가구의 평균 산출

$$\hat{\bar{Y}} = \sum_{h=1}^{L}\sum_{i=1}^{n_h}\sum_{j=1}^{m_{hi}} w_{hij} y_{hij} / \sum\sum\sum w_{hij}$$

w_{hij}: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각 응답결과

L: 층의 수

n_h: 층 h에서의 표본 조사구의 수

m_{hi}: 층 h내 i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

$w_{...} = \sum_{h=1}^{L}\sum_{i=1}^{n_h}\sum_{j=1}^{m_{hi}} w_{hij}$: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2) 추정량의 분산

$$var(\hat{Y}) = \sum_{h=1}^{L}\frac{n_h(1-f_h)}{n_h-1}\sum_{i=1}^{n_h}(e_{hi.} - \overline{e_{h..}})^2$$

L: 층의 수

n_h: 층 h에서의 조사구 수, m_{hi}는 층 h내 i번째 표본조사구의 응답자 수

$f_h = n_h / N_h$

$$e_{hi.} = \left(\sum_{j=1}^{m_{hi}} w_{hij}(y_{hij} - \overline{y})\right) / w_{...}$$

$$\overline{e_{h..}} = \left(\sum_{i=1}^{n_h} e_{hi.}\right) / n_h$$

3)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오차한계

$s.e(\overline{y}) = \sqrt{var(\overline{y})}$: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 (standard error)

$rse(\overline{y}) = \frac{s.e(\overline{y})}{\overline{y}} \times 100(\%)$: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오차의 한계 $= 1.96 \times \sqrt{var(\overline{y})}$: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

3. 성인대상 조사

가. 개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8일~9월 22일 기간 중 실시되었으며, 조사 완료된 대상자수는 7,000명이다. 표본은 전국의 17개 시·도를 층화하고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추출하였다. 조사구의 추출은 크기비례확률표집(PP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표 1-11〉 일반가구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15년 8월 8일 ~ 9월 22일
조사표본 추출	전국의 17개 시·도를 층화하고 성별 및 연령을 고려 표본 추출
조사구 추출	크기비례확률표집(PPS: Probabilities Proportional to Size)
조사대상 가구	8,853 가구
조사 방법	가구방문조사 (타계식, CAPI)
조사 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종대상 가구	7,000 가구

나. 표본설계

1) 모집단 및 표본 추출

성인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남녀가 조사 대상으로, 표본 선정은 2015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만 19세 이상)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인구비(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구성비)를 고려한 비례할당 추출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 1-12〉 시·도별 표본 수

(단위: 명)

구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합계
전체		1,243	1,306	1,502	1,391	825	733	7,000
합계	남성	653	667	765	702	402	293	3,482
	여성	590	639	737	689	423	440	3,518
서울특별시	남성	134	144	145	131	81	55	690
	여성	134	142	145	138	89	74	722
부산광역시	남성	45	43	48	51	34	22	243
	여성	40	41	49	54	36	31	251
대구광역시	남성	33	29	37	35	20	13	167
	여성	28	29	38	36	22	20	173
인천광역시	남성	39	40	44	42	20	13	198
	여성	36	38	43	40	21	20	198
광주광역시	남성	19	19	22	18	10	7	95
	여성	18	19	22	18	11	10	98
대전광역시	남성	21	20	23	20	11	7	102
	여성	19	20	23	20	11	10	103
울산광역시	남성	16	16	18	17	8	4	79
	여성	13	15	18	16	8	6	76
세종시	남성	2	3	3	2	1	1	12
	여성	2	3	2	2	1	1	11
경기도	남성	158	169	197	167	81	57	829
	여성	145	164	191	157	84	83	824
강원도	남성	19	17	22	23	14	12	107
	여성	15	16	20	22	14	18	105
충청북도	남성	20	19	23	22	13	11	108
	여성	17	18	21	21	13	17	107
충청남도	남성	24	27	30	28	17	16	142
	여성	21	23	26	26	17	24	137
전라북도	남성	22	21	27	25	17	14	126
	여성	19	19	24	24	18	23	127
전라남도	남성	21	20	27	27	18	17	130
	여성	18	18	23	25	19	29	132
경상북도	남성	32	31	38	39	25	21	186
	여성	26	28	35	37	26	35	187
경상남도	남성	41	42	51	47	27	19	227
	여성	33	39	48	45	28	33	226
제주특별자치도	남성	7	7	10	8	5	4	41
	여성	6	7	9	8	5	6	41

2) 표본 가구 및 대상자 선정

우리나라 전국 3,552개 읍·면·동 전체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크기비례확률표집(PPS: Probabilities Proportional to Size)으로 200개 읍·면·동을 선정하였다. 조사구 추출 시 무작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코드를 기준으로 시, 군, 구 순으로 정렬 후 PPS를 적용하였다.

〈표 1-13〉 시·도별 추출 비율

(단위: 개, %)

지역	전체 읍·면·동 수	표본 읍·면·동 수	추출비율
합계	3,552	200	5.6
서울특별시	423	40	9.5
부산광역시	208	14	6.7
대구광역시	141	10	7.1
인천광역시	154	11	7.1
광주광역시	95	6	6.3
대전광역시	78	6	7.7
울산광역시	56	5	8.9
세종시	13	1	7.7
경기도	557	47	8.4
강원도	194	6	3.1
충청북도	153	6	3.9
충청남도	209	8	3.8
전라북도	241	7	2.9
전라남도	322	7	2.2
경상북도	345	11	3.2
경상남도	320	13	4.1
제주특별자치도	43	2	4.7

선정된 200개 읍·면·동에 방문하여 해당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을 통해 5번째 가구를 표본 가구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표본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 시점과 생일이 가장 근접한 사람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표본규모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모집단으로 인구비(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만 19세 이상 7,000명을 비례할당으로 추출하였다.

인구비는 성별은 2개(남성, 여성), 연령은 6개(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거주 지역은 17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고려하여 총 204개 표본 셀(cell)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다. 추정산식

1) 전체 가구의 평균 산출

$$\widehat{\overline{Y}} = \sum_{h=1}^{L}\sum_{i=1}^{n_h}\sum_{j=1}^{m_{hi}} w_{hij} y_{hij} / \sum\sum\sum w_{hij}$$

w_{hij}: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각 응답결과

L: 층의 수

n_h: 층 h에서의 표본 조사구의 수

m_{hi}: 층 h내 i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

$w_{...} = \sum_{h=1}^{L}\sum_{i=1}^{n_h}\sum_{j=1}^{m_{hi}} w_{hij}$: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2) 추정량의 분산

$$var(\hat{\overline{Y}}) = \sum_{h=1}^{L}\frac{n_h(1-f_h)}{n_h-1}\sum_{i=1}^{n_h}(e_{hi.} - \overline{e_{h..}})^2$$

L: 층의 수

n_h: 층 h에서의 조사구 수, m_{hi}는 층 h내 i번째 표본조사구의 응답자 수

$f_h = n_h / N_h$

$$e_{hi.} = \left(\sum_{j=1}^{m_{hi}} w_{hij}(y_{hij} - \overline{y})\right) / w_{...}$$

$$\overline{e_{h..}} = \left(\sum_{i=1}^{n_h} e_{hi.}\right) / n_h$$

3)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오차한계

$s.e(\overline{y}) = \sqrt{var(\overline{y})}$: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 (standard error)

$rse(\overline{y}) = \frac{s.e(\overline{y})}{\overline{y}} \times 100(\%)$: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오차의 한계 $= 1.96 \times \sqrt{var(\overline{y})}$: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

4. 가중치 설정

가. 청소년 대상 조사 가중치

1) 읍·면·동 추출가중치

지역별 표본 읍·면·동의 추출은 실제로 청소년 패널 집단에서 응답한 청소년들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선정된 읍·면·동으로서, 지역별 청소년 규모를 배정하여 그에 따른 표본 읍·면·동 수를 역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2,004개의 표본 읍·면·동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응답하여 표본 읍·면·동은 2,004개로 산출되며 지역별 규모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14〉 지역별 표본 읍·면·동 규모 및 추출확률

(단위: 개)

지역	읍·면·동	표본 읍·면·동	추출확률
합계	3,552	2004	0.564
서울특별시	423	336	0.794
부산광역시	208	130	0.625
대구광역시	141	92	0.652
인천광역시	154	91	0.591
광주광역시	95	66	0.695
대전광역시	78	72	0.923
울산광역시	56	42	0.750
세종특별자치시	13	8	0.615
경기도	557	449	0.806
강원도	194	74	0.381
충청북도	153	67	0.438
충청남도	209	92	0.440
전라북도	241	79	0.328
전라남도	322	90	0.280
경상북도	345	131	0.380
경상남도	320	148	0.463
제주특별자치도	43	37	0.860

결과적으로 표본 읍·면·동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추출확률의 역수로 산출된다.

$$W_h^{ED} = \frac{1}{P_h^{ED}}$$

2) 지역별 청소년 가중치

표본 읍·면·동 규모를 조정한 가중치를 청소년 개인 가중치로 전환하기위해 청소년의 성별, 연령별 및 지역별 2015년 추계 인구수를 이용하여 래킹 조정을 실시하였다.

$$W_h^{RAK} = W_h^{ED} \times A_h$$

이때 A_h는 지역별 청소년 추계인구에 대한 조정 승수이다.

〈표 1-15〉 래킹 조정을 위한 주요 변수별 추계인구수 및 조정승수

변수	구분	청소년인구추계	가중합	가중승수
계		3,084,853	8,578.3	359.61
성별	남	1,612,231	4,487.3	359.29
	여	1,472,622	4,090.9	359.97
연령별	14	586,212	1,268.6	462.08
	15	603,091	2,040.0	295.64
	16	613,070	1,401.0	437.59
	17	629,778	1,779.2	353.97
	18	652,702	2,089.4	312.38
지역	1	522,672	1,089.0	479.97
	2	190,706	494.4	385.73
	3	160,832	393.9	408.33
	4	176,542	477.2	369.93
	5	110,383	253.3	435.72
	6	100,819	177.7	567.46

변수	구분	청소년인구추계	가중합	가중승수
	7	78,154	166.7	468.92
	8	10,274	22.8	451.60
	9	785,463	1,581.7	496.60
	10	93,323	395.9	235.74
	11	97,660	349.4	279.52
	12	123,336	461.2	267.45
	13	117,388	588.8	199.38
	14	113,753	683.4	166.46
	15	152,129	642.6	236.74
	16	210,235	730.8	287.67
	17	41,184	69.7	590.62

〈표 1-16〉시·도별, 세대별 래킹 조정 가중치 분포

지역	N	합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1+(cv_W)^2$
전국	5000	3,084,853.2	617	109.5	484.1	587.9	989.6	1.032
서울	865	522,672.0	604.2	106.2	492.4	587.9	784.9	1.031
부산	309	190,705.9	617.2	107	488	582.6	777.9	1.030
대구	257	160,831.9	625.8	110.7	507.6	606	809.1	1.031
인천	282	176,542.2	626	110.5	511.8	584.4	815.8	1.031
광주	176	110,382.9	627.2	112.2	499.3	596	795.8	1.032
대전	164	100,818.9	614.7	107	502.7	600.2	801.4	1.030
울산	125	78,154.1	625.2	104.7	527.1	574.4	840.1	1.028
세종	14	10,273.9	733.9	132.1	630.2	658.2	989.6	1.032
경기	1275	785,463.0	616	109.8	500.1	597.1	797.1	1.032
강원	151	93,323.0	618	110.2	502.7	600.1	801.2	1.032
충북	153	97,660.1	638.3	114.5	515.5	615.4	821.7	1.032
충남	203	123,336.1	607.6	107.7	485.5	579.7	773.9	1.031
전북	193	117,388.1	608.2	108.5	498.4	543.2	794.4	1.032
전남	191	113,752.9	595.6	103.4	484.1	578	771.7	1.030
경북	244	152,129.0	623.5	105.5	519.6	566.3	828.2	1.029
경남	338	210,235.0	622	111.3	501.2	598.4	798.9	1.032
제주	60	41,184.1	686.4	122.3	558.6	637.8	890.4	1.032

3) 추정방법

최종적으로 조정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산식은 다음과 같다.

○ 평균 추정

$$\hat{\bar{Y}} = \sum_{h}^{L}\sum_{i}^{n_h}\sum_{j}^{m_{hi}} W_{hij} y_{hij} / W_{...} \qquad (1)$$

여기서 $W_{...} = \sum_{h=1}^{L}\sum_{i=1}^{n_h}\sum_{j=1}^{m_{hi}} W_{hij}$이며, h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로서, 지역과 동부, 읍·면부를 나타낸다. i는 표본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 2, \cdots, n_h$이다.

○ 표본평균 $\hat{\bar{Y}}$의 분산 추정치

$$\hat{V}(\hat{\bar{Y}}) = \sum_{h=1}^{L} \frac{n_h(1-f_h)}{n_h - 1} \sum_{i=1}^{n_h} (e_{hi} - \bar{e}_{h..})^2 \qquad (2)$$

여기서 $e_{hi.} = \left(\sum_{j=1}^{m_{hi}} W_{hij}(y_{hij} - \hat{\bar{Y}}) \right) / W_{...}$, $\bar{e}_{h..} = \sum_{i=1}^{n_h} e_{hi.} / n_h$ 이다.

$SE(\hat{\bar{Y}}) = \sqrt{\hat{V}(\hat{\bar{Y}})}$

○ 상대표준오차

$$\widehat{CV}(\hat{\bar{Y}}) = \frac{SE(\hat{\bar{Y}})}{\hat{\bar{Y}}} \times 100\% \qquad (3)$$

나. 성인 대상 조사 가중치

1) 읍·면·동 가중치 부여

전국 3,255개 읍·면·동으로부터 200개 읍·면·동을 확률비례추출하였기 때문에 1차로 읍·면·동을 조사구로 고려할 수 있다.

모집단으로 사용한 2015년 시·도별 읍·면·동 및 세대수는 다음과 같다. 모집단의 읍·면·동당 평균 세대수는 5,868.3 세대이며, 서울이 동당 평균 9,927.6 세대로 가장 많고, 전남이 읍·면·동당 2,565.6세대로 가장 적다.

〈표 1-17〉 시·도별 읍·면·동 수 및 세대수(2015년 5월기준)

(단위: 개)

지 역	읍·면·동	세대수	읍·면·동당 세대수
합계	3,552	20,844,274	5,868.3
서울특별시	423	4,199,356	9,927.6
부산광역시	208	1,428,115	6,865.9
대구광역시	141	976,576	6,926.1
인천광역시	154	1,143,404	7,424.7
광주광역시	95	577,428	6,078.2
대전광역시	78	594,811	7,625.8
울산광역시	56	446,572	7,974.5
세종특별자치시	13	71,570	5,505.4
경기도	557	4,821,745	8,656.6
강원도	194	678,390	3,496.9
충청북도	153	662,079	4,327.3
충청남도	209	877,228	4,197.3
전라북도	241	777,764	3,227.2
전라남도	322	826,124	2,565.6
경상북도	345	1,158,048	3,356.7
경상남도	320	1,354,492	4,232.8
제주특별자치도	43	250,572	5,827.3

표본 읍·면·동당 평균세대수로는 제주도가 19,303.5세대로 가장 크며, 전북이 5,968.6 세대로 가장 적어 결과적으로 모집단의 지역별 평균 세대수와 표본의 지역별 평균 세대수간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표본을 모집단 분포에 비례하여 추출한 것이 아니라 불균등 확률 추출에 의한 차이이다.

〈표 1-18〉 시·도별 표본 읍·면·동 수 및 세대수

(단위: 세대, 명)

지역	표본읍·면·동수	총세대수	표본읍·면·동당 세대수
합계	200	2,060,637	10,303.2
서울특별시	40	443,767	11,094.2
부산광역시	14	106,254	7,589.6
대구광역시	10	101,228	10,122.8
인천광역시	11	114,969	10,451.7
광주광역시	6	52,635	8,772.5
대전광역시	6	40,623	6,770.5
울산광역시	5	51,719	10,343.8
세종특별자치시	1	14,161	14,161.0
경기도	47	553,921	11,785.6
강원도	6	54,923	9,153.8
충청북도	6	64,084	10,680.7
충청남도	8	81,017	10,127.1
전라북도	7	41,780	5,968.6
전라남도	7	47,862	6,837.4
경상북도	11	100,689	9,153.5
경상남도	13	152,398	11,722.9
제주특별자치도	2	38,607	19,303.5

따라서 1차적으로 지역별 표본 읍·면·동 추출과정에서 불균등확률 추출에 따라 선정된 표본이므로 이에 대한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

$$W_{ED} = W_h \times A_h^{ED}$$

여기서 W_h는 표본읍·면·동 추출확률의 역수이며, A_h^{ED}는 2015년 5월 시·도별 읍·면·동수의 조정 승수이다.

2) 주민등록 세대 가중치 부여

읍·면·동에 대해 조정된 가중치를 가구 또는 세대별로 적용한 가중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W_h^{(ED)} = W_{ED}$$

〈표 1-19〉 시·도별 세대별 가중치 분포

지역	N	합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1+(cv_W)^2$
전국	7,000	2,060,637	294.4	141	28.7	288.8	742	1.229
서울	1,412	443,767	314.3	89.4	134	302.9	493.2	1.081
부산	494	106,254	215.1	74.9	135.8	187.7	400.8	1.121
대구	340	101,228	297.7	112.9	136.6	267.3	548.8	1.144
인천	396	114,969	290.3	116.1	120.4	284.7	496.4	1.160
광주	193	52,635	272.7	136.7	129.9	196.1	468	1.251
대전	205	40,623	198.2	30.6	154.5	196.1	241.1	1.024
울산	155	51,719	333.7	78.8	189.7	334.8	426.4	1.056
세종	23	14,161	615.7	0	615.7	615.7	615.7	1.000
경기	1,653	553,921	335.1	131.4	103.6	348.4	720	1.154
강원	212	54,923	259.1	138.7	91.2	222.3	551.4	1.286
충북	215	64,084	298.1	172.3	152.9	217.2	596.2	1.334
충남	279	81,017	290.4	200.9	81	215.1	738.7	1.479
전북	253	41,780	165.1	108.2	28.7	170.6	368.1	1.429
전남	262	47,862	182.7	160.1	41.9	140.8	568.4	1.767
경북	373	100,689	269.9	174.5	58.1	261.9	707.9	1.417
경남	453	152,398	336.4	195.9	71	331.8	742	1.339
제주	82	38,607	470.8	6.3	464.7	464.7	477.2	1.000

표본 읍·면·동별로 평균 35가구를 표본조사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읍·면·동별 가중치에 대해 표본 읍·면·동별 세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재조정하였다.

$$W_h^{(adj)} = W_h^{(ED)} \times \frac{M_{hk}^{(ED)}}{m_{hk}^{(ED)}}$$

여기서 $M_{hk}^{(ED)}$는 표본 읍·면·동의 총 세대수이며, $m_{hk}^{(ED)}$는 읍·면·동별 조사 완료된 가구수이다. 다음의 표는 시·도별 주민등록 세대수에 따라 조정된 가중치의 분포이다.

〈표 1-20〉 시·도별 세대별 조정 가중치 분포

지역	N	합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1+(cv_W)^2$
전국	7,000	20,940,559	2,991.5	1,405.9	536.7	2,862.3	9,856.7	1.221
서울	1,412	4,195,438	2,971.3	844.9	1,267.1	2,863.2	4,662.6	1.081
부산	494	1,434,668	2,904.2	1,011.3	1,833.4	2,534.3	5,412.3	1.121
대구	340	980,589	2,884.1	1,093.7	1,322.8	2,589.4	5,316.4	1.144
인천	396	1,149,918	2,903.8	1,160.8	1,204.4	2,847.2	4,965.3	1.160
광주	193	579,646	3,003.3	1,504.9	1,430.3	2,159.8	5,154.3	1.251
대전	205	596,471	2,909.6	449.5	2,268.5	2,879.1	3,539.9	1.024
울산	155	448,968	2,896.6	684.2	1,647.1	2,906.5	3,701.3	1.056
세종	23	77,316	3,361.6	0.0	3,361.6	3,361.6	3,361.6	1.000
경기	1,653	4,856,337	2,937.9	1,151.8	907.9	3,054.8	6,312.1	1.154
강원	212	682,501	3,219.3	1,723.5	1,132.7	2,762.0	6,851.9	1.286
충북	215	666,078	3,098.0	1,791.2	1,589.6	2,258.0	6,196.7	1.334
충남	279	881,841	3,160.7	2,187.0	881.3	2,341.7	8,040.6	1.479
전북	253	780,438	3,084.7	2,021.2	536.7	3,186.5	6,876.1	1.429
전남	262	830,007	3,168.0	2,775.9	725.8	2,441.2	9,856.7	1.767
경북	373	1,164,683	3,122.5	2,018.1	671.9	3,029.6	8,187.8	1.417
경남	453	1,361,390	3,005.3	1,749.7	634.5	2,964.2	6,628.6	1.339
제주	82	254,270	3,100.9	41.4	3,060.7	3,060.7	3,143.1	1.000

3) 추계인구 가중치 부여

주민등록자료의 경우 연령별 인구 분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가구 추계자료의 경우 세종시 정보가 누락되어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도별 세대수는 주민등록자료를, 연령별 인구 정보는 2015년 인구추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년 추계인구자료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을 위해 다음을 이용하여 래킹(raking) 조정을 실시하였다.

$$W_h^{(RAK)} = W_h^{(adj)} \times A_h$$

〈표 1-21〉 래킹비(raking ratio) 조정을 위한 가중치 조정 승수

구분		인구추계자료	가중합	조정승수
성별	남	20,355,933	10,488,179	1.940845
	여	20,722,877	10,452,380	1.982599
연령	20대	7,481,413	3,789,085	1.974464
	30대	7,653,487	4,096,793	1.868165
	40대	8,465,794	4,688,046	1.805826
	50대	8,113,253	4,072,708	1.992103
	60대	4,861,929	2,310,751	2.104047
	70대이상	4,502,934	1,983,176	2.270567
지역	서울	8,245,117	4,195,438	1.965258
	부산	2,841,526	1,434,668	1.980616
	대구	1,991,927	980,589	2.031358
	인천	2,328,387	1,149,918	2.024829
	광주	1,190,973	579,646	2.054656
	대전	1,223,353	596,471	2.050985
	울산	904,292	448,968	2.014157
	세종	154,686	77,316	2.000698
	경기	9,854,799	4,856,337	2.029266
	강원	1,233,552	682,501	1.8074

구분		인구추계자료	가중합	조정승수
	충북	1,262,401	666,078	1.895275
	충남	1,690,630	881,841	1.91716
	전북	1,453,114	780,438	1.861921
	전남	1,429,690	830,007	1.722504
	경북	2,181,556	1,164,683	1.87309
	경남	2,634,213	1,361,390	1.934944
	제주	458,594	254,270	1.803571

〈표 1-22〉 시·도별 세대별 조정 가중치 분포

지역	N	합계	평균값	표준 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1+(cv_W)^2$
전국	7,000	41,078,810.2	5,868.4	2,688.5	912.4	5,640.4	19,735.1	1.210
서울	1,412	8,245,081.4	5,839.3	1,709.5	2,271.3	5,721.5	10,734.4	1.086
부산	494	2,841,522.5	5,752.1	2,034.6	3,292.6	5,034.6	12,484.7	1.125
대구	340	1,991,918.7	5,858.6	2,235.4	2,451.7	5,622.6	12,655.5	1.146
인천	396	2,328,391.2	5,879.8	2,354.1	2,235.1	5,774.1	11,834.8	1.160
광주	193	1,190,970.2	6,170.8	3,070.6	2,699.9	5,236.7	12,497.1	1.248
대전	205	1,223,349.6	5,967.6	1,002.1	4,258.1	5,965.9	8,534.2	1.028
울산	155	904,292.8	5,834.1	1,432.6	3,048.1	6,003.7	8,797.9	1.061
세종	23	154,687.1	6,725.5	488.0	6,180.0	6,753.7	7,937.7	1.005
경기	1,653	9,854,787.4	5,961.8	2,366.0	1,691.3	6,035.2	15,103.0	1.158
강원	212	1,233,554.1	5,818.7	3,093.2	1,854.0	4,990.9	14,405.3	1.283
충북	215	1,262,404.6	5,871.6	3,405.5	2,733.0	3,937.4	13,684.1	1.336
충남	279	1,690,643.6	6,059.7	4,182.2	1,534.7	4,519.7	17,983.9	1.476
전북	253	1,453,133.4	5,743.6	3,695.6	912.4	5,681.2	15,015.0	1.413
전남	262	1,429,688.1	5,456.8	4,685.3	1,131.4	4,159.5	19,735.1	1.738
경북	373	2,181,568.2	5,848.7	3,715.4	1,146.4	5,706.7	17,944.6	1.403
경남	453	2,634,222.0	5,815.1	3,374.4	1,123.3	5,502.6	15,071.2	1.336
제주	82	458,595.3	5,592.6	443.5	5,010.6	5,531.5	6,609.0	1.006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청소년 대상 조사

실제 조사된 인원을 기준으로 청소년 대상 조사에 참여한 5,000명의 응답자 중 남성은 2,611명(52.2%), 여성이 2,389명(47.8%)이었으며, 연령별로는 만 14세가 741명(14.8%), 만 15세가 1,192명(23.8%), 만 16세 818명(16.4%), 만 17세 1,045명(20.9%), 만 18세 1,204명(24.1%)로 나타났다. 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는 4,723명(94.5%)이었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상자는 277명(5.5%)이었다. 대상자 중 153명(3.1%)는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한 상태였고, 124명(2.5%)은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한 상태였다. 응답자 중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595명(31.9%)이었으며,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3,405명(68.1%)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기준으로는 5,000명의 응답자 중 남성이 2,613명(52.3%), 여성은 2,387명(47.7%)로 나타났으며, 만 14세는 950명(19.0%), 만 15세는 978명(19.6%), 만 16세는 994명(19.9%), 만 17세는 1,021명(20.4%), 만 18세는 1,058명(21.2%)로 나타났다. 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는 4,730명(94.6%)이었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상자는 268명(5.4%)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153명(3.1%)는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한 상태였고, 115명(2.3%)은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한 상태였다. 응답자 중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600명(32.0%)이었으며,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3,400명(68.0%)로 나타났다.

〈표 1-23〉 청소년 대상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실 조사인원)		(가중치 부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5,000	100.0	5,000	100.0
성별	남성	2,611	52.2	2,613	52.3
	여성	2,389	47.8	2,387	47.7
연령	만 14세	741	14.8	950	19.0
	만 15세	1,192	23.8	978	19.6
	만 16세	818	16.4	994	19.9
	만 17세	1,045	20.9	1,021	20.4
	만 18세	1,204	24.1	1,058	21.2
세대별	1세대	72	1.4	70	1.4
	2세대	4,269	85.4	4,270	85.4
	3세대	659	13.2	660	13.2
학력	중학교 재학	1,728	34.6	1,747	34.9
	중학교 중퇴/졸업	153	3.1	153	3.1
	고등학교 재학	2,795	55.9	2,808	56.2
	고등학교 중퇴/졸업	124	2.5	115	2.3
	대학교 재학	200	4.0	175	3.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23	94.5	4,730	94.6
	학교 다니지 않음	277	5.5	268	5.4
종교활동	하지 않고 있음	3,405	68.1	3,400	68.0
	하고 있음	1,595	31.9	1,600	32.0

나. 성인 대상 조사

실제 조사된 인원을 기준으로 성인 대상 조사 응답자 7,000명 중 남성은 3,482명으로 49.7%였으며 여성은 3,518명으로 50.4%였다. 연령별로는 19세와 20대가 17.8%, 30대가 18.7%, 40대가 21.5%, 50대 19.9%, 60대 11.8%, 70대 이상 10.5% 등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21.4%였으며, 가구형태별로는 1세대가 26.6%, 2세대가 70.0%,

3세대가 3.4%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200만원 미만이 16.8%, 월 200만원~400만원 미만이 39.8%, 월 400만원~600만원 미만이 34.9%, 월 600만원 이상이 8.4% 등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16.5%, 고등학교 졸업 38.9%, 대학 재학·졸업이 43.5%,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이 1.0%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기준으로는 성인 대상 조사 응답자 7,000명 중 남성은 3,469명으로 49.6%였으며 여성은 50.4%였다. 연령별로는 19세와 20대가 18.2%, 30대가 18.6%, 40대가 20.6%, 50대 19.8%, 60대 11.8%, 70대 이상 11.0% 등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21.7%였으며, 가구형태별로는 1세대가 26.5%, 2세대가 70.0%, 3세대가 3.5%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200만원 미만이 16.6%, 월 200만원~400만원 미만이 39.1%, 월 400만원~600만원 미만이 36.1%, 월 600만원 이상이 8.3% 등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16.2%, 고등학교 졸업 38.3%, 대학 재학·졸업이 44.5%,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이 1.0%로 나타났다.

〈표 1-24〉 성인대상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실조사 인원 기준)		(가중치부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7,000	100.0	7,000	100.0
성별	남성	3,482	49.7	3,469	49.6
	여성	3,518	50.3	3,531	50.4
연령별	19~29	1,243	17.8	1,275	18.2
	30~39	1,306	18.7	1,304	18.6
	40~49	1,502	21.5	1,443	20.6
	50~59	1,391	19.9	1,383	19.8
	60~64	529	7.6	541	7.7
	65~69	296	4.2	288	4.1
	70 이상	733	10.5	767	11.0

구 분		(실조사 인원 기준)		(가중치부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학력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510	7.3	473	6.8
	중학교 졸업	645	9.2	660	9.4
	고등학교 졸업	2,725	38.9	2,684	38.3
	대학교 재학/졸업	3,048	43.5	3,115	44.5
	대학원 재학 졸업 이상	72	1.0	68	1.0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79	16.8	1,161	16.6
	200만원~400만원 미만	2,786	39.8	2,735	39.1
	400만원~600만원 미만	2,446	34.9	2,525	36.1
	600만원 이상	589	8.4	580	8.3
혼인 상태별	미혼	1,499	21.4	1,520	21.7
	유배우	5,013	71.6	5,004	71.5
	기타	488	7.0	476	6.8
가구원 수	1인	571	8.2	552	7.9
	2인	1,439	20.6	1,442	20.6
	3인	1,560	22.3	1,565	22.4
	4인	2,997	42.8	3,000	42.9
	5인 이상	433	6.2	441	6.3
세대별	1세대	1,863	26.6	1,853	26.5
	2세대	4,898	70.0	4,900	70.0
	3세대	239	3.4	247	3.5
종교활동	하지 않고 있음	5,152	73.6	5,145	73.5
	하고 있음	1,848	26.4	1,855	26.5

제 2 장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와 원인

제1절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
제2절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절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영향요인과 불안의 다변량 분석
제4절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위험
제5절 청소년의 불안 해소 방법 및 정책적 지원요구

2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와 원인

제1절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

1.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정도

청소년기의 사회·심리적 불안은 청소년기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감이나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등은 사회·심리적 불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심리적 불안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등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개인적 측면에서 느끼는 사회·심리적 불안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측면에서의 불안으로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였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만 14세~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10점(매우 불안함)의 범위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정도는 평균 4.7점으로 나타났다. 불안점수에 대한 정확한 판정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특성별로 보면, 우선 남성(4.3점)보다 여성(5.2점)의 불안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남성과 여성 간의 심리적 성향의 차이나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외모 등에 좀 더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한 연령 증가의 효과라기보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학교 재학 또는 중퇴·졸업 청소년과 고등학교 재학 또는 중퇴·졸업 청소년 사이에 불안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 학교급 간 차이가 연령에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청소년일수록 중학교 청소년에 비해 대학입시 등에 대한 정신적 압박감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4.9점)는 고등학교 재학(5.1점)이나 중퇴·졸업(5.5점) 청소년에 비해 불안점수가 낮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나아가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의 불안점수보다 고등학교 중퇴·졸업 청소년의 불안점수가 높다는 점도 특기할만하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 비해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은 그들의 불안이 대학 진학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동부·읍·면부 등 거주지역이나 종교활동 여부 등에 따라서는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1〉 청소년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정도 점수[1)]

(단위: 점)

구 분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정도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총 합계		4.7±2.37	
성별	남성	4.3±2.45	T=-12.80***
	여성	5.2±2.19	
연령별	만 14세	3.9±2.51	F=56.44***
	만 15세	4.4±2.40	
	만 16세	5.0±2.33	
	만 17세	5.1±2.18	
	만 18세	5.2±2.16	
지역별	동	4.7±2.37	T=0.95
	읍·면	4.6±2.36	
세대별	1세대	4.7±2.43	F=0.16
	2세대	4.7±2.36	
	3세대	4.7±2.40	
학력별	중학교 재학	4.1±2.47	F=47.45***
	중학교 중퇴·졸업	4.5±2.57	
	고등학교 재학	5.1±2.22	
	고등학교 중퇴·졸업	5.5±2.54	
	대학교 재학	4.9±2.04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2.35	T=-1.50
	학교 다니지 않음	4.9±2.60	
종교활동	하지 않음	4.7±2.35	T=0.62
	하고 있음	4.7±2.40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 p〈0.05, ** : p〈0.01, *** : p〈0.001

한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10점(매우 불안함) 범위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해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측면의 불안이 자신의 불안으로 귀결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당하게 될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

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10점(매우 불안함)의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6.6점이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점수(4.7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하나의 예로서, 최근의 경기침체나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청소년들에게 인식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아져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당장의 실업이나 경기침체를 우려해야 할 연령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의 정도에 괴리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별로는, 남녀 간에 불안점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있지만 그 점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안점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2). 연령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개인의 삶에 대한 사회·심리적 불안에서와 같이 연령 증가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즉, 대학 진학이나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연령대가 가까워진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중학교 청소년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 재학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점수가 6.8점으로서, 고등학교 재학이나 중퇴·졸업(6.8~6.9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점수에서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의 경우 고등학교 청소년에 비해 대학 재학생이 불안점수가 낮았으나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점수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학 재학생의 경우 일단 대학입시를 거쳤다는 심리적 안도감으로 인해 고등학교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보면 여전히 취업난 등이 사회적 불안요소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일정 수준의 사회·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안정도의 점수[1)]

(단위: 점)

구 분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불안정도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총 합계		6.6±2.26	
성별	남성	6.5±2.48	T=-5.26***
	여성	6.8±1.97	
연령별	만 14세	6.0±2.41	F=35.54***
	만 15세	6.4±2.33	
	만 16세	6.8±2.20	
	만 17세	7.0±2.02	
	만 18세	6.9±2.18	
지역별	동	6.6±2.25	T=0.31
	읍·면	6.6±2.29	
세대별	1세대	6.5±1.96	F=0.12
	2세대	6.6±2.25	
	3세대	6.6±2.30	
학력별	중학교 재학	6.2±2.36	F=28.88***
	중학교 중퇴·졸업	6.1±2.68	
	고등학교 재학	6.9±2.14	
	고등학교 중퇴·졸업	6.8±2.17	
	대학교 재학	6.8±1.98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6.6±2.24	T=1.28
	학교 다니지 않음	6.4±2.50	
종교활동	하지 않음	6.6±2.26	T=0.55
	하고 있음	6.6±2.24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 p〈0.05, ** : p〈0.01, *** : p〈0.001

2.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요소

가.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심리적 불안의 많은 부분은 결국 학업 성적과 진로문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불안을 느끼는데 기여한 개인적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개인적인 문제 중 가장 크게 불안을 느끼는 요소로 32.9%의 청소년이 학업문제, 28.0%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들었다. 약 60%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첫 번째의 불안요소로 지목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업성적, 대학진학, 진로 등의 문제가 가장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경제 문제(6.5%)나 외모문제(5.3%), 신체적 건강(5.1%), 정신적 건강(4.9%),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간섭(4.5%),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4.3%), 이성관계(3.7%), 가족해체(2.3%) 등을 첫 번째 불안요소로 지적한 청소년들도 2~6%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의 하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 및 진로 문제로 인해 가장 큰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경제문제, 외모문제, 신체적·정신적 건강,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기대 등 불안요소의 비율이 낮다고 해서 결코 그 중요성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학업성적과 진로문제를 가장 큰 불안요소로 응답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불안요소들의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 불안요소들에 대해서도 높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경제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6.5%)을 보였는데,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와 소득기회의 제한 등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청소년들도 일부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을 지적한 청소년은 0.8%의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사회적 문제로서의 중요성에 비해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표 2-3〉 청소년 개인적 측면에서의 가장 큰 불안요소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구 분	인원	비율
합계	5,000	100.0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215	4.3
학업문제	1,644	32.9	이성관계	186	3.7
미래에 대한 불안	1,399	28.0	가족해체	113	2.3
가정경제문제	323	6.5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40	0.8
외모문제	266	5.3	기타	11	0.2
신체적 건강	257	5.1	없다	64	1.3
정신적 건강	246	4.9	모름	10	0.2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간섭	227	4.5			

개인적 불안요소로서 응답률이 높았던 3개 항목 즉, 학업문제, 진로문제, 가정경제 문제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학업문제를 첫 번째 불안요소로 응답한 비율이 중학교 재학 청소년의 경우 31.7%,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의 경우 35.4%에 이른 반면,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16.9%로 나타나 대학입시와 관련된 학업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첫 번째 불안요소로 지목한 청소년의 비율은 중학교 재학의 경우 26.7%, 고등학교 재학 28.9%, 대학교 재학 27.6%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반해 고등학교 중퇴·졸업 청소년의 경우는 41.0%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에 아직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것은 일반적인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인데, 중학교 중퇴·졸업의 경우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중퇴·졸업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첫 번째 불안요소로 응답한 청소년은 17.0%로서 타 청소년계층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들의 경우 학업문제를 첫 번째 불안요소로 응답한 비율이 34.8%로서 타 청소년의 경우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첫 번째 불안요소로 응답한 청소년들을 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보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8.0%, 그렇지 않은 경우 27.2%로서 비슷한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앞에서 고등학교 중퇴·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첫 번째 불안요소로 지목한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중학교 중퇴·졸업과 고등학교 중퇴·졸업이 합해져서 발생한 현상이다.

한편,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세대구성별로 보면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세대 가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첫 번째 불안요소로서 학업문제를 지목한 청소년의 비율이 19.1%로서, 2세대 가구 청소년 33.2%, 3세대 가구 청소년 3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첫 번째 불안요소로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1세대 거주 청소년의 경우 첫 번째 불안요소로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들은 청소년의 비율이 20.0%로서, 2세대 청소년 28.0%, 3세대 청소년 28.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가

정경제 문제를 첫 번째 불안요소로 들은 청소년의 비율은 1세대 청소년의 경우 10.1%로서 2세대 가구 청소년 6.5%, 3세대 가구 청소년 5.7%에 비해 높다. 이러한 현상은 혼자 또는 형제·자매 등과 같이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 등과 같이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학업문제나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지내는 반면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업문제를 첫 번째 불안요소로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업성적을 첫 번째 불안요소로 지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 18세의 경우는 타 연령층에 비해 학업 성적의 비율이 낮고 미래에 대한 불안의 비율이 높다. 이 연령층에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중퇴·졸업 청소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외 성별이나 거주지역 특성(동/읍·면), 종교활동 여부 등의 특성별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2-4〉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

(단위: 명, %)

구분		총계	학업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가정경제문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5,000	1,644	32.9	1,399	28.0	323	6.5
성별	남성	2,613	905	34.6	621	23.8	166	6.4
	여성	2,387	739	31.0	777	32.6	157	6.6
연령별	만 14세	950	302	31.8	229	24.1	37	3.9
	만 15세	978	317	32.5	278	28.4	61	6.3
	만 16세	994	342	34.4	247	24.8	70	7.1
	만 17세	1,021	377	36.9	288	28.2	77	7.5
	만 18세	1,058	306	28.9	357	33.7	78	7.4
지역별	동	4,696	1,543	32.9	1,327	28.3	305	6.5
	읍·면	304	101	33.1	72	23.5	18	6.0

구분		총계	학업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가정경제문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세대별	1세대	70	13	19.1	14	20.0	7	10.1
	2세대	4,270	1,420	33.2	1,196	28.0	279	6.5
	3세대	660	211	32.0	189	28.6	38	5.7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553	31.7	467	26.7	88	5.0
	중학교 중퇴·졸업	153	53	34.8	26	17.0	10	6.6
	고등학교 재학	2,808	995	35.4	810	28.9	189	6.7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3	10.9	47	41.0	11	9.3
	대학교 재학	175	30	16.9	49	27.6	25	14.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577	33.4	1,326	28.0	303	6.4
	학교 다니지 않음	268	66	24.6	73	27.2	21	7.7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122	33.0	961	28.3	215	6.3
	하고 있음	1,600	522	32.6	437	27.3	108	6.8

앞에서 언급된 각종 불안요소별로 불안의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즉, 각각의 불안요소들로 인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는지를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10점(매우 불안함) 사이의 점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평균 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문제가 6.3점, 외모문제가 4.5점으로 나타났다(표 2-5).

개별적인 불안요소로 보았을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현실에서 다루고 있는 학업문제에 비해서 노출되는 빈도는 낮지만 미래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의 정도는 학업문제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표 2-5).

여기서의 특징은 여전히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이며, 외모문제로 인한 불안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아울러, 가정경제 문제, 신체적·정신적 건강,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기대,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이성관계 등이 2점~3점대의 서로 비슷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매우 다양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불안요소들로 인한 불안정도의 점수가 높지는 않지만 사회적 중요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이 점수들은 평균적으로 산출된 점수로서 각각의 불안요소에 노출된 청소년의 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각각의 요소들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불안 수준만을 고려할 경우 불안점수가 높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그 문제에 해당되는 청소년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나 악영향이 심각하다면 청소년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피해 청소년의 경우 그 규모는 작지만 문제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심각성은 크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정책적 이슈가 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이다. 따라서 학업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문제 뿐 아니라 가정경제, 교우관계, 건강문제 등 다양한 불안요소들도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표 2-5〉 청소년 개인적 측면의 불안요소별 불안 점수[1)]

(단위: 점)

구 분	평균±표준편차	구 분	평균±표준편차
학업문제	6.3±2.72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간섭	3.7±3.03
미래에 대한 불안	6.9±2.73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2.9±2.89
가정경제문제	3.6±3.21	이성관계	3.0±2.96
외모문제	4.5±2.93	가족해체	1.9±2.75
신체적 건강	3.3±3.04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2.1±2.69
정신적 건강	3.7±3.19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나.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불안 요소와 더불어, 대상자가 최근 1년간 가장 크게 불안하다고 느낀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 사회적 측면의 불안요소는 우리 사회 자체의 불안 요소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즉, 여기서의 사회적 불안요소는 우리 사회 자체를 불안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아니라 개인을 불안하도록 하는 사회적 요인이며, 이때의 사회·심리적 불안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회적 측면의 불안요소는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17.6%가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을 가장 큰 불안 요소로 들었다. 앞에서 개인적인 불안요소로 학업문제나 진로문제 등을 가장 큰 불안요소로 들었으며, 사회적 불안 요소로도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을 들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업성적과 대학입시가 얼마나 큰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17.0%의 청소년들이 정치 및 대외관계를 가장 큰 불안요소로 들었다. 이러한 응답비율은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의 비율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치적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 및 대외관계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최근의 연이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이 청소년들의 응답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장 큰 사회적 불안요소로서 13.4%의 청소년은 안전문제를 들었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등의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가 응답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외에도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10.7%),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10.4%), 학대·폭력 등 범죄(9.8%),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4.0%),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3.6%), 저출산 문제 및 인구고령화

(3.2%), 계층·집단·세대간 갈등(2.7%), 사회안전망 취약(2.2%) 등이 뒤를 이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메르스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의 응답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타 불안요소들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사회적 측면의 불안요소와 관련하여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의 하나는 일부의 항목에 응답이 집중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걸쳐 응답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심이 있어야 불안을 느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주고 있다.

〈표 2-6〉 사회적 측면에서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불안요소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구 분	인원	비율
총계	5,000	100.0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180	3.6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880	17.6	저출산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	161	3.2
정치 및 대외관계	849	17.0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158	3.2
안전문제	668	13.4	계층, 집단 및 세대간 갈등	137	2.7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533	10.7	사회안전망 취약	108	2.2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519	10.4	기타	44	0.9
학대, 폭력 등 범죄	490	9.8	없다	58	1.2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	200	4.0	모름	15	0.3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정치 및 대외관계, 안전문제,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등 4개의 응답을 성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정치 및 대외 관계(18.9%),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13.1%)의 응답

률이 여자 청소년의 응답률(각각 14.9%, 7.9%)보다 높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20.1%), 안전문제(16.7%)의 응답률이 남자 청소년의 응답률(각각 15.3%, 10.3%)보다 높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 비해 정치·경제 등 우리 사회의 거시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느껴지는 안전문제, 입시제도 변경 등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을 불안 요소로 들은 청소년은 중학교 재학생의 경우 13.6%인데 비해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21.2%,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8.0%이다. 이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입시제도변경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을 불안 요소로 들은 청소년의 비율도 높아지는데, 이것도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외, 지역(동/읍·면), 가구구성형태, 종교활동 등에 따라서는 뚜렷한 특성이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따른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

(단위: 명, %)

구분		총계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정치 및 대외관계		안전문제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5,000	880	17.6	849	17.0	668	13.4	533	10.7
성별	남성	2,613	401	15.3	494	18.9	269	10.3	343	13.1
	여성	2,387	480	20.1	355	14.9	400	16.7	190	7.9
연령별	만 14세	950	114	12.0	158	16.6	137	14.4	61	6.4
	만 15세	978	158	16.1	173	17.7	141	14.4	74	7.6

구분		총계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정치 및 대외관계		안전문제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만 16세	994	215	21.7	181	18.2	111	11.2	106	10.7
	만 17세	1,021	215	21.0	152	14.9	135	13.2	121	11.9
	만 18세	1,058	178	16.8	185	17.5	144	13.7	170	16.1
지역별	동	4,696	819	17.4	789	16.8	629	13.4	513	10.9
	읍·면	304	61	20.1	60	19.7	39	12.9	20	6.4
세대별	1세대	70	9	13.4	11	16.0	10	14.7	4	6.3
	2세대	4,270	768	18.0	715	16.8	563	13.2	467	10.9
	3세대	660	103	15.6	123	18.6	95	14.4	62	9.3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238	13.6	308	17.6	251	14.4	123	7.0
	중학교 중퇴·졸업	153	18	11.6	19	12.7	22	14.5	13	8.3
	고등학교 재학	2,808	596	21.2	477	17.0	355	12.6	352	12.5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5	12.8	16	14.3	11	9.5	14	12.0
	대학교 재학	175	14	8.0	28	16.1	30	17.0	31	17.4
재학 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848	17.9	813	17.2	635	13.4	506	10.7
	학교 다니지 않음	268	32	12.1	36	13.4	33	12.3	26	9.9
종교 활동	하지 않음	3,400	610	17.9	570	16.8	435	12.8	358	10.5
	하고 있음	1,600	271	16.9	279	17.5	233	14.6	175	10.9

앞에서 언급된 각각의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해 본 결과,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이 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문제가 5.9점, 정치 및 대외관계 5.7점, 학대·폭력 등 범죄 5.7점,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5.5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인적 불안요소에 의한 불안 점수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개인적 불안요소로 인한 불안 점수보다 높다. 개인적 불안요소로서 학업 문제로 인한 불안 점수(6.3점), 미래에 대한 불안 점수(6.9점)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개인적 불안요소로 인한 불안 점수는 2~4점대였으나, 사회

적 불안요소로 인한 불안 점수는 대체로 4점 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불안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점수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개인적 불안요소로 인한 점수보다 사회적 불안요소로 인한 불안 점수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직접적인 개인의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불안이 사회적 요인에 의한 불안보다 클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개인적 불안요소로 인한 불안 점수와 관련하여서는, 그 불안요소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불안요소를 경험한 응답자가 많지 않을 경우 평균적으로는 점수가 낮게 산출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불안요소로 인한 불안 점수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불안요소들을 많은 대중들이 널리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경험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불안 점수를 높게 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메르스에 직접 감염된 경험이 없는 응답자라 할지라도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에 대해 대중들이 널리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응답자들이 메르스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안전사고를 직접 당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라 할지라도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사회적 충격이 컸던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들이 널리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높은 불안 점수를 부여하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불안요소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서도 학업문제 및 대학입시와 관련된 요인을 가장 큰 불안요소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사회적 측면에서의 불안요소별 청소년들의 불안 점수[1)]

(단위: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6.1±3.08
정치 및 대외관계	5.7±3.05
안전문제	5.9±2.95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5.5±3.03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4.1±3.02
학대, 폭력 등 범죄	5.7±3.07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	4.6±3.04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4.6±3.10
저출산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	4.9±3.02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5.2±2.90
계층, 집단 및 세대간 갈등	4.6±2.95
사회안전망 취약	5.1±3.08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제2절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를 측정해보고, 그러한 사회·심리적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특정한 원인에 따라 불안이 유발되더라도 각 개인이 느끼는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개인들이 가진 사회·심리적 속성이나 사회·경제·인구·보건학적 특성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이 속성들을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한 다음, 이러한 영향요인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영향요인이 사회·심리적 불안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사회·심리적 불안의 영향요인으로 가족 및 학교에서의 대인 관계, 자아존중감, 대인신뢰도, 행복도, 사회적지지 및 사회적 자본, 학교·직장·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인식, 계층간 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 인생 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 경험 및 트라우마 경험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였다.

1. 가족 및 학교 등에서의 대인관계

가족·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의 대인관계는 사회·심리적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가 원만할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의 발생 자체가 억제되거나 불안이 유발된 이후에도 주변인과의 소통과 대화 등을 통해 불안의 정도가 완화 또는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의 원만함과 사회·심리적 불안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교에서의 교우관계, 선생님과의 관계가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족, 학교에서의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의 원만함은 가장 큰 영향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인관계의 원만함은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원만함 정도를 본인이 스스로 응답하게 하였다. 물론 본인은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타인과 원만하게 또는 원만하지 못하게 지내고 있

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결국 실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의 원만함에 대해 응답자의 89.1%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의 원만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3%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여 대부분 가족구성원, 학교에서 친구,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표 2-9〉 청소년들의 가족·학교에서의 대인관계의 원만함

(단위: 명, %)

구 분	총계	대인관계의 원만함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가족 구성원들과 원만함	5,000	141	2.8	404	8.1	2,834	56.7	1,621	32.4
학교 대인관계의 원만함	5,000	95	1.9	287	5.7	3,077	61.5	1,541	30.8

그러나 〈표 2-10〉에서 집단 따돌림(왕따) 경험 여부를 보면, 응답자의 33.2%가 과거에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집단 따돌림의 경험률이 상당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31.3%의 응답자는 과거에만 경험이 있으나 현재에도 경험하고 있는 경우(과거에도 경험이 있고 현재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경우, 과거에는 경험이 없으나 현재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1.9%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이 여전히 커다란 사회문제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0〉 청소년들의 따돌림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명	%
총 합계		5,000	100.0
따돌림(왕따) 경험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그렇다	52	1.0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1,567	31.3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그렇다	46	0.9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아니다	3,335	66.7

대인관계의 원만함 또는 따돌림 경험에 따라 사회·심리적 불안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할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집단과 원만하다는 집단을 구분하여 보면, 원만하지 않다는 집단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10점 만점에 5.8점으로 평가한 반면, 원만하다는 집단에서는 4.6점으로 평가하였다.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의 경우에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집단에서는 6.2점, 원만하다는 집단에서는 4.6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집단 따돌림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보면,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5.4점,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4.4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가 원만할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가 낮다는 가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도, 가족 및 학교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할수록, 그리고 집단 따돌림 경험이 없을수록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2-11〉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와 불안 점수[1)]

(단위: 점)

구 분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정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원만하지 않은 편	5.8±2.51	T=11.28***	7.1±2.30	T=5.28***
	원만한 편	4.6±2.31		6.6±2.25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원만하지 않은 편	6.2±2.44	T=13.05***	7.3±2.47	T=5.71***
	원만한 편	4.6±2.32		6.6±2.23	
따돌림 경험	있음	5.4±2.20	T=16.13***	7.1±2.16	T=10.51***
	없음	4.4±2.36		6.4±2.27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 p〈0.05, ** : p〈0.01, *** : p〈0.001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에서의 소통과 대화, 학교에서의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 선생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등이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완화 또는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사회·심리적 불안은 물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서, 학생들의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지지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자아존중감, 대인신뢰도 및 행복도

높은 자아존중감이나 자신의 능력 및 가치에 대한 긍정적 태도·인식은 사회·심리적 불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거나 발생된 불안의 정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해서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로젠버그(Rosenberg)의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이 척도에 의한 점수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다.

응답자들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28.5점으로 나타났으며, 남자(29.1점)가 여자(27.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존감 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

이 외에도 거주지역(동/읍·면), 가구구성 형태, 종교활동 여부 등의 특성별로 자아존중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의 크기가 미세하다.

다만, 고등학교 중퇴·졸업 청소년의 경우는 26.2점으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28.5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27.1점으로 학교밖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점수(Resenberg 척도)

(단위: 점)

구분		자존감 점수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총계		28.5±4.87	
성별	남성	29.1±4.83	T=9.25***
	여성	27.8±4.82	
연령별	만 14세	29.9±4.76	F=35.21***
	만 15세	28.9±4.75	
	만 16세	28.0±5.01	
	만 17세	27.9±4.72	
	만 18세	27.7±4.76	
지역별	동	28.5±4.88	T=1.15
	읍·면	28.1±4.63	
세대별	1세대	27.6±4.88	F=1.38
	2세대	28.5±4.86	
	3세대	28.4±4.92	

구분		자존감 점수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학력별	중학교 재학	29.5±4.81	F=35.02***
	중학교 중퇴/졸업	27.8±4.62	
	고등학교 재학	28.0±4.79	
	고등학교 중퇴/졸업	26.2±5.80	
	대학교 재학	27.8±4.32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28.5±4.83	T=4.62***
	학교 다니지 않음	27.1±5.21	
종교활동	하지 않음	28.4±4.85	T=-1.50
	하고 있음	28.6±4.90	

주: * : p〈0.05, ** : p〈0.01, *** : p〈0.001

한편, 자신의 이상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상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도 낮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이상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심리적 불안도 낮게 나타난다. 즉, 미래의 불확정성을 불안의 요소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이상적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62.6%가 달성가능성이 '높다' 혹은 '매우 높다'고 답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적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청소년이 37.4%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도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이나 교육수준 등을 기준으로 실

제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에 상관없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불안의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57.4%가 본인의 가정이 중위층에 속한다고 답했으며, 15.5%가 중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표 2-13). 이 두 응답을 합하면 72.9%로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70%를 넘고 있다. 이 수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이나 성인들의 자각(自覺) 중산층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서, 청소년들의 경우 기성세대에 비해 자신들의 계층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3〉 청소년들의 이상적인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사회계층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합계		5,000	100.0
자신의 이상적인 목표 달성 가능성	매우 낮다	122	2.4
	낮다	1,747	34.9
	높다	2,601	52.0
	매우 높다	531	10.6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	최하위	89	1.8
	하위	1,219	24.4
	중위	2,871	57.4
	중상	775	15.5
	최상위	46	0.9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소속감이다.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이 낮다. 소속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동질감, 일체감 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안요소들은 자

신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심리적 불안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72.8%의 청소년이 가정·학교 등에 소속감을 많이 또는 매우 많이 느낀다고 답하여 가정과 학교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삶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에 대한 인식 즉, 주관적 행복도도 사회·심리적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주관적 삶의 행복도는 사회·심리적 불안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주관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을 적게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심리적 불안을 적게 느낄수록 주관적 행복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관적 행복도를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82.6%가 본인의 삶이 행복하다 또는 매우 행복하다고 답하여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표 2-14).

〈표 2-14〉 청소년들의 가족·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행복도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총계		5,000	100.0
가정, 학교에 대한 소속감	매우 적게 느낀다	153	3.1
	적게 느낀다	1,206	24.1
	많이 느낀다	3,030	60.6
	매우 많이 느낀다	611	12.2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도	매우 불행함	66	1.3
	불행함	804	16.1
	행복함	3,512	70.2
	매우 행복함	618	12.4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평등성과 안정성(stability)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정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이 낮다.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대우 받는 사회에서 소속되어 있다는 인식은 그만큼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불안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평등성이나 안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9.4%의 청소년이 우리 사회가 매우 불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답하였으며, 60.0%가 우리사회가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 또는 안정적이지 않다고 답하였다(표 2-15).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진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식과 개인적 측면에서의 인식 간에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앞에서 제시된 개인적 측면의 인식인 소속감, 행복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지만 우리 사회의 평등성, 안정성 등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다는 것이다.

〈표 2-15〉 우리 사회의 평등도 및 안정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총계		5,000	100.0
우리사회의 평등도	매우 불평등	1,047	20.9
	불평등	2,923	58.5
	평등	968	19.4
	매우 평등	62	1.2
우리사회의 안정성	전혀 안정적이지 않음	562	11.2
	안정적이지 않음	2,438	48.8
	조금 안정적임	1,931	38.6
	매우 안정적임	68	1.4

한편, 대인신뢰도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대인신뢰도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은 낮다.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55.8%가 신뢰할 수 있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표 2-16〉 청소년들의 대인 신뢰도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총계		5,000	100.0
대인 신뢰도	전혀 신뢰할 수 없음	164	3.3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	2,046	40.9
	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	2,702	54.0
	매우 신뢰할 수 있음	88	1.8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가에 대해서는 0점(매우 믿을 수 없음)에서 10점(매우 믿을 수 있음)의 척도로 측정해 본 결과 평균 4.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인구·사회학적 변수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뢰도 점수가 낮아지고, 학교재학 여부별로 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일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7).

〈표 2-17〉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점수[1)]

(단위: 점)

구 분		우리 사회의 신뢰도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전 체		4.1±1.92	
성별	남성	4.2±2.12	T=1.12
	여성	4.1±1.68	
연령별	만 14세	4.6±2.03	F=19.18***
	만 15세	4.2±1.89	
	만 16세	4.0±1.93	
	만 17세	3.9±1.80	
	만 18세	4.0±1.87	
지역별	동	4.1±1.92	T=1.10
	읍·면	4.0±1.98	
세대별	1세대	4.2±1.85	F=1.65
	2세대	4.1±1.93	
	3세대	4.0±1.85	
학력별	중학교 재학	4.4±1.98	F=14.17***
	중학교 중퇴·졸업	4.0±2.18	
	고등학교 재학	4.0±1.85	
	고등학교 중퇴·졸업	3.5±2.07	
	대학교 재학	4.2±1.78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1±1.90	T=2.60**
	학교 다니지 않음	3.8±2.15	
종교활동	하지 않음	4.1±1.92	T=-2.00*
	하고 있음	4.2±1.93	

주: 1) 0점(전혀 믿을 수 없음) ~ 10점(매우 믿을 수 있음)으로 측정한 점수
2) * : p〈0.05, ** : p〈0.01, *** : p〈0.001

지금까지 살펴본 영향요인들이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아존중감 점수를 10점대, 20점대, 30점 이상으로 구분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의 정도 점수를 산출해 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10점대인 집단은 불안 점수가 7.7점, 자아존중감이 20점대인 집단은 5.5점, 자아존중감이 30점 이상인 집단은 3.5

점 등으로 집단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적인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집단과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목표달성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불안점수가 5.8점,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4.1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이 낮다는 가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 소속감, 주관적 행복도, 우리 사회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 대인신뢰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가정·학교·지역사회 등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도가 높을수록, 우리 사회의 평등성 및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대인신뢰도와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8). 아울러 각 집단 간 불안 점수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대인신뢰도 및 행복도 등과 불안 점수[1)]

(단위: 점)

구분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정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자아 존중감[2)]	10~19점	7.7±2.05	F=717.88***	8.3±1.67	F=104.31***
	20~29점	5.5±1.96		6.8±2.06	
	30점 이상	3.5±2.25		6.2±2.44	
이상적인 목표 달성 가능성	낮은 편	5.8±2.14	T=26.64***	7.1±2.06	T=13.51***
	높은 편	4.1±2.26		6.3±2.31	

구분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정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주관적 사회 계층	최하위 또는 하위	5.7±2.29	F=180.69****	7.2±2.26	F=57.38****
	중위	4.5±2.23		6.5±2.18	
	상위 또는 최상위	3.8±2.46		6.3±2.37	
소속감	적게 느끼는 편	5.6±2.37	T=16.99***	7.1±2.26	T=8.83***
	많이 느끼는 편	4.4±2.28		6.4±2.23	
행복도	불행한 편	6.8±1.89	T=35.08***	7.6±2.02	T=15.89***
	행복한 편	4.3±2.21		6.4±2.25	
우리사회 평등도	불평등함	5.0±2.29	T=15.01***	7.0±2.12	T=23.44***
	평등함	3.7±2.38		5.2±2.24	
우리사회 안정성	불안정	5.2±2.31	T=16.74***	7.3±2.11	T=27.43***
	안정	4.0±2.29		5.6±2.10	
대인 신뢰도	신뢰할 수 없음	5.4±2.22	T=18.50***	7.2±2.17	T=17.57***
	신뢰할 수 있음	4.2±2.34		6.1±2.21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3]	0~3점(하)	5.3±2.43	F=146.68****	7.5±2.22	F=336.11****
	4~5점(중)	4.6±2.11		6.3±1.93	
	6점 이상(상)	3.9±2.38		5.6±2.24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Rosenberg 척도
3) 0점(전혀 믿을 수 없음) ~ 10점(매우 믿을 수 있음)으로 측정한 점수
4) * : p<0.05, ** : p<0.01, *** : p<0.001

3. 개인건강 및 생활행태

개인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와 관련한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흡연, 수면 등을 고려하였다. 이 변수들은 여기서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하였지만 실제로는 사회·심리적 불안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그리고 음주나 흡연 등 건강관련 행태가 나쁠수록,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고, 음주나

흡연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의 횡단면 자료(cross-section data)를 바탕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一)방향 인과관계 분석 모형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는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38.9%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35.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또는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는 11.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2-19).

〈표 2-19〉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합 계	5,000	100.0
매우 나쁨	34	0.7
나쁨	524	10.5
보통	1,771	35.4
좋음	1,944	38.9
매우 좋음	727	14.5

흡연과 관련하여 과거의 흡연 경험과 관계없이 현재 흡연하는 경우와 흡연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보았는데, 응답자의 5.1%가 현재 흡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4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의 현재흡연율 9.2%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수치이다.

음주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흡연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음주 경험과 관계없이 현재 술을 마시는 경우와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 보았는데, 16.0%가 현재 음주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 수치는 청소년건강

행태온라인조사 2014년 현재 음주율 16.7%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에 대해서는 27.2%가 7시간으로 답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25.8%가 6시간, 19.5%가 8시간으로 응답하였는데, 5시간 이하의 경우도 17.9%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불안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횟수에 대해서는,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5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월 1~2회 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4.7%로 나타났다(표 2-20).

〈표 2-20〉 청소년들의 생활습관 및 행태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총 계		7,000	100.0
현재 흡연 여부	예	257	5.1
	아니오	4743	94.8
현재 음주 여부	예	798	16.0
	아니오	4201	84.0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5시간 이하	894	17.9
	6시간	1,291	25.8
	7시간	1,359	27.2
	8시간	973	19.5
	9시간 이상	483	9.7
최근 3개월간 심리적 불안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한 횟수	없음	2,824	56.5
	월 1~2회	1,233	24.7
	주 1~2회	630	12.6
	주 3~4회	212	4.2
	거의 매일	100	2.0

이러한 요인들별로 사회·심리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면, 우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집단에서는 불안점수가 6.0점, 보통이라는 집단에서는 5.2점, 좋다는 집단에서는 4.1점으로 나타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가 좋다는 집단에서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여부별로는,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불안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음주를 하는 경우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자신의 삶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자신의 삶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느끼는 불안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흡연 여부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표 2-21〉 청소년의 개인건강 및 생활습관·행태와 불안 점수[1)]

(단위: 점)

구 분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정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	나쁨	6.0±2.31	F=209.77***	7.5±2.25	F=62.29***
	보통	5.2±2.12		6.8±2.09	
	좋음	4.1±2.36		6.3±2.31	
현재 흡연	피움	5.2±2.26	T=3.74***	6.7±2.28	T=0.89
	피우지 않음	4.7±2.37		6.6±2.26	
현재 음주	마심	5.1±2.22	T=5.29***	6.9±2.21	T=3.53***
	마시지 않음	4.6±2.39		6.6±2.26	
최근 3개월 평균 수면시간	5시간 이하	5.4±2.21	F=58.97***	7.2±2.12	F=44.04***
	6~8시간	4.6±2.34		6.6±2.22	
	9시간 이상	4.2±2.56		6.0±2.56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 p〈0.05, ** : p〈0.01, *** : p〈0.001

4.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하여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안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회·심리적 불안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이나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절대적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즉,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수준을 0점(전혀 받고 있지 않음)~10점(매우 많이 받고 있음)까지의 점수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평균 6.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지 않은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청소년의 특성별로 보면, 성별, 거주지역, 가구구성 형태, 종교활동 여부 등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통계적인 유의성도 낮다. 그러나 중학교 중퇴·졸업자(5.4점), 고등학교 중퇴·졸업자(5.1점)는 중학교 재학생(6.2점), 고등학교 재학생(5.8점), 대학교 재학생(6.1점) 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학교 재학생 중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보면 재학 중인 경우는 6.0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5.3점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청소년들일수록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 다니지 않음으로 인해 교우 등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고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일수록 학교를 중퇴하는 등의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학교밖 청

소년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만 14세의 경우 6.3점, 만 18세 5.8점 등으로 크지는 않지만 다소간의 점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22〉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점수[1)]

(단위: 점)

구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점수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총 합계		6.0±2.09	
성별	남성	5.9±2.17	T=-1.36
	여성	6.0±2.01	
연령별	만 14세	6.3±2.12	F=12.77***
	만 15세	6.1±2.09	
	만 16세	5.7±2.14	
	만 17세	5.9±1.97	
	만 18세	5.8±2.10	
지역별	동	6.0±2.09	T=2.06*
	읍·면	5.7±2.11	
세대별	1세대	6.1±2.09	F=0.39
	2세대	6.0±2.09	
	3세대	5.9±2.12	
학력별	중학교 재학	6.2±2.09	F=17.74***
	중학교 중퇴·졸업	5.4±2.52	
	고등학교 재학	5.8±2.04	
	고등학교 중퇴·졸업	5.1±2.38	
	대학교 재학	6.1±1.93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6.0±2.06	T=4.83***
	학교 다니지 않음	5.3±2.46	
종교활동	하지 않음	5.9±2.09	T=-1.86
	하고 있음	6.0±2.10	

주: 1) 0점(사회적 지지를 전혀 받지 않고 있음) ~ 10점(사회적 지지를 매우 많이 받고 있음)으로 측정한 점수

2) * : p〈0.05, ** : p〈0.01, *** : p〈0.001

이와 함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는 질문을 조금 달리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파악해 보았다. 즉, 평소에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상황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0점(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음)~10점(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까지의 점수로 파악해 본 결과 주관적 사회적 지지 인식 점수에 비해 다소 높은 평균 6.4점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성별, 거주지역, 가구구성 형태, 종교활동 여부 등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학교 재학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 재학생 6.7점, 고등학교 재학생 6.3점, 대학교 재학생 6.4점 등에 비해 중학교 중퇴·졸업자는 5.9점, 고등학교 중퇴·졸업자는 5.2점이었다.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보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6.4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5.6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만 14세 6.8점, 만 18세 6.2점 등이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 하에서 평소에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결과는 위의 두 질문과 다소 다른 응답 양상을 보이고 있다. 0점(전혀 없음)~10점(매우 많음)까지의 점수로 측정해 본 결과 평균 5.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점수나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이다. 이는 주변으로부터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도움을 받는 정도라는 측면과 개인이 가진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간의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경우에 비해 성별 점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도움을 받을 가능성 및 상의할 수 있는 사람수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점수[1)]

(단위: 점)

구분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받을 가능성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상대 수에 대한 인식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전 체		6.4±2.22		5.5±2.63	
성별	남성	6.4±2.27	T=2.04*	5.7±2.63	T=5.76***
	여성	6.3±2.16		5.3±2.60	
연령별	만 14세	6.8±2.24	F=14.73***	6.0±2.72	F=10.73***
	만 15세	6.5±2.16		5.6±2.65	
	만 16세	6.1±2.29		5.4±2.56	
	만 17세	6.3±2.14		5.3±2.53	
	만 18세	6.2±2.20		5.4±2.62	
지역별	동	6.4±2.23	T=0.44	5.5±2.63	T=1.49
	읍·면	6.3±2.11		5.3±2.59	
세대별	1세대	6.1±2.08	F=0.69	5.6±2.63	F=0.15
	2세대	6.4±2.23		5.5±2.62	
	3세대	6.4±2.14		5.5±2.67	
학력별	중학교 재학	6.7±2.19	F=21.13***	5.8±2.68	F=11.68***
	중학교 중퇴·졸업	5.9±2.57		5.4±2.94	
	고등학교 재학	6.3±2.18		5.4±2.56	
	고등학교 중퇴·졸업	5.2±2.54		4.5±2.78	
	대학교 재학	6.4±1.96		5.4±2.47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6.4±2.19	T=5.22***	5.6±2.61	T=3.02**
	학교 다니지 않음	5.6±2.58		5.0±2.90	
종교활동	하지 않음	6.3±2.23	T=-1.84	5.4±2.63	T=-3.61***
	하고 있음	6.5±2.20		5.7±2.60	

주: 1) 0점(도움을 받을 가능성 전혀 없음) ~ 10점(도움을 받을 가능성 매우 높음), 또는 0점(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전혀 없음) ~ 10점(상의할 수 있는 사람 매우 많음)으로 측정한 점수
2) * : p〈0.05, ** : p〈0.01, *** : p〈0.001

한편, 평소에 가족·친구들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의사소통은 사회·심리적 불안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의 하나로서 사회적 지지나 관계망의 개념

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사회적 관계망이나 지지망이 폭넓고 긴밀하게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족·친구의사소통의 정도를 0점(전혀 없음)~10점(매우 많음)까지의 점수로 조사한 결과, 가족과의 소통점수는 평균 6.0점, 친구들과의 소통점수는 평균 7.1점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보다는 친구들과의 소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소통점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경우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 비해 가족과의 소통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의 소통점수의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았다. 또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대상자(6.1점)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상자(7.2점) 보다 소통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소통의 장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표 2-24).

〈표 2-24〉 청소년의 가족·친구들과의 소통정도 점수[1)]

(단위: 점)

구 분		가족끼리 소통 점수		친구들과의 소통 점수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총계		6.0±2.51		7.1±2.39	
성별	남성	5.9±2.50	T=-1.20	7.0±2.44	T=-4.73***
	여성	6.0±2.51		7.3±2.32	
연령별	만 14세	6.2±2.61	F=10.77***	7.5±2.42	F=16.41***
	만 15세	6.3±2.51		7.4±2.33	
	만 16세	5.8±2.49		7.0±2.43	
	만 17세	5.9±2.46		7.0±2.27	
	만 18세	5.7±2.42		6.7±2.43	
지역별	동	6.0±2.51	T=0.36	7.1±2.38	T=1.57
	읍·면	5.9±2.50		6.9±2.53	

구 분		가족끼리 소통 점수		친구들과의 소통 점수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세대별	1세대	5.4±2.43	F=2.26	6.8±2.56	F=1.51
	2세대	6.0±2.50		7.1±2.40	
	3세대	5.9±2.52		7.2±2.34	
학력별	중학교 재학	6.3±2.56	F=16.84***	7.5±2.37	F=26.84***
	중학교 중퇴·졸업	5.3±2.45		6.5±2.51	
	고등학교 재학	5.8±2.45		7.0±2.36	
	고등학교 중퇴·졸업	4.9±2.64		5.7±2.95	
	대학교 재학	6.1±2.34		7.4±2.02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6.0±2.49	T=5.73***	7.2±2.36	T=6.09***
	학교 다니지 않음	5.1±2.53		6.1±2.73	
종교활동 여부	하지 않음	5.9±2.53	T=-3.55***	7.0±2.42	T=-3.79***
	하고 있음	6.1±2.44		7.3±2.31	

주: 1) 0점(소통 전혀 없음) ~ 10점(소통 매우 많음)으로 측정한 점수
2) * : p〈0.05, ** : p〈0.01, *** : p〈0.001

지금까지 언급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한 인식, 가족·친구와의 소통정도 등에 따라 사회·심리적 불안의 점수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각각의 변수들은 0~10점의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여기서 산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높다 또는 낮다는 등의 절대적 수준에 대한 판단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에만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의적으로 구분한 등급 간에도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보여주기 위해 편의상 2~3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보았다.

먼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점수는 0~4점, 5~7점, 8~10점 등 3등급으로 구분해 보았으며,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한 인식, 가족·친구와의 소통정도 등은 0~5점, 6~10점 등 2등급으로 구분해 보았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점수와 관련하여서는, 0~4점인 집단의 경우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6.0점, 5~7점인 집단은 4.7점, 8~10점인 집단은 3.6점으로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점수 등급별로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점수와 관련하여서는, 0~4점인 집단의 경우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5.7점, 6~10점 집단의 경우 4.2점으로 나타나 이 역시 집단 간에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외 마음을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가족·친구들과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낮게 나타났다(표 2-25).

〈표 2-25〉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자본과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1)]

(단위: 점)

구 분		자신의 삶의 불안 정도[1)]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2)]	0~4점	6.0±2.26	F=335.76***
	5~7점	4.7±2.10	
	8~10점	3.6±2.44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 받는 정도[2)]	0~5점	5.7±2.12	T=22.70***
	6~10점	4.2±2.32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 정도[2)]	0~5점	5.5±2.14	T=23.14***
	6~10점	4.0±2.34	
가족과의 소통정도[2)]	0~5점	5.3±2.27	T=15.81***
	6~10점	4.3±2.34	
친구들과 소통정도[2)]	0~5점	5.4±2.29	T=12.41***
	6~10점	4.5±2.34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0점~10점으로 측정한 점수
3) * : p〈0.05, ** : p〈0.01, *** : p〈0.001

5. 범죄피해 및 트라우마 경험

정신적인 충격이 큰 범죄의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가 있을 경우 사회·심리적 불안이 높게 나타난다. 본인 또는 가족이 지난 한 해 동안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3.3%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하였는지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16.4%가 트라우마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26〉 청소년의 범죄 피해 및 트라우마 경험률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합계		5,000	100.0
범죄 피해	있음	261	5.2
	없음	4,163	83.3
	잘 모르겠음	576	11.5
트라우마	있음	821	16.4
	없음	4,179	83.6

그리고 범죄피해 경험, 트라우마 경험 여부에 따라 사회·심리적 불안의 점수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범죄피해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점수가 5.4점,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점수는 4.6점으로 두 집단 간 불안 점수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점수도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7.1점, 범죄피해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6.5점으로 나타나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집단

의 불안 점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불안 점수를 비교해보면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점수는 5.6점,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점수는 4.5점으로 나타나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불안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점수도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7.2점, 트라우마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6.5점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불안 점수가 뚜렷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표 2-27).

〈표 2-27〉 청소년의 범죄 피해 및 트라우마 경험여부와 불안 점수[1)]

(단위: 점)

구 분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정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범죄 피해	있음	5.4±2.39	F=48.71***	7.1±2.24	F=20.95***
	없음	4.6±2.36		6.5±2.27	
	잘 모르겠음	5.5±2.18		7.0±2.12	
트라우마	있음	5.6±2.34	T=12.50***	7.2±2.23	T=8.48***
	없음	4.5±2.33		6.5±2.24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 p〈0.05, ** : p〈0.01, *** : p〈0.001

제3절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영향요인과 불안의 다변량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경제적 특성들과 개인의 삶에 대한 불안,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의 변수들에 대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관련변수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들을 일시에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기보다는 우선 앞에서의 교차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던 변수들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이 변수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0-order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독립변수로 반영해야 할 변수들이 매우 많아 편의상 세부 영역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변수들을 일차적으로 선별한 다음 최종적으로 이 변수들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개인특성(성별, 연령 등), 가족과 학교에서의 인간관계(가족·친구들과의 관계, 따돌림 경험), 자아존중감, 목표 달성 가능성, 가정의 사회적 계층수준, 가정·학교 등에의 소속감,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사회 평등정도, 사람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정도, 신체적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가족끼리 소통정도, 친구들과 소통정도, 주변으로부터의 도움 정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등의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가 높게 산출된 일부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할수록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였고(r=0.467),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r=0.416).

사회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사회가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r=0.536),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516).

또한 사회가 안정된 사회라고 생각할수록 사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며(r=0.506), 사회에 대한 신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r=0.582).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가정, 학교 등에 소속감을 많이 느끼며(r=0.400), 본인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436). 평소 어려움에 처한 경우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삶의 행복도가 높았으며(r=0.464),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며(r=0.614), 친구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481).

평소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r=0.478), 어려움에 처한 경우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662).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r=-0.478).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r=-0.514)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409).

〈표 2-28〉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요인 간 상관계수(0-order corelation coefficients)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개인특성	성별[1]																							
	나이[2]	-.025																						
	학교 재학여부[3]	-.057**	-.076**																					
가족·학교에서의 관계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정도[4]	.006	-.072**	.046**																				
	학교에서 친구 및 선생님과 원만정도[5]	.051**	-.086**	.106**	.467**																			
	학교에서왕따(따돌림) 경험여부[6]	.180**	-.096**	.052**	.109**	.196**																		
자아의식·대인신뢰도·행복지수	자아존중감[7]	.112**	-.125**	.049**	.243**	.333**	.193**																	
	목표달성 가능성[8]	.094**	-.066**	.060**	.196**	.247**	.126**	.474**																
	본인 인식 사회적 계층수준[9]	.055**	-.169**	.061**	.189**	.163**	.120**	.232**	.289**															
	가정,학교등의 소속감[10]	.007	-.114**	.075**	.262**	.377**	.167**	.345**	.283**	.221**														
	본인 삶의 행복정도[11]	.055**	-.147**	.065**	.329**	.355**	.183**	.499**	.416**	.308**	.408**													
	사회 평등 정도[12]	-.002	-.137**	.007	.118**	.126**	.137**	.177**	.203**	.218**	.178**	.283**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13]	.049**	-.093**	.030*	.162**	.211**	.135**	.238**	.195**	.169**	.253**	.300**	.341**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14]	.016	-.108**	.038**	.148**	.166**	.126**	.216**	.196**	.218**	.209**	.288**	.536**	.516**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15]	.038**	-.144**	.019	.127**	.132**	.112**	.192**	.180**	.206**	.143**	.251**	.506**	.368**	.582**									
신체적건강·생활습관·행태	신체적 건강상태[16]	.071**	-.082**	.051**	.187**	.257**	.177**	.335**	.269**	.182**	.254**	.362**	.169**	.238**	.222**	.190**								
정신건강	죽고싶다는 생각의 여부[17]	-.176**	.030*	-.024	-.186**	-.178**	-.211**	-.299**	-.228**	-.155**	-.212**	-.343**	-.211**	-.203**	-.196**	-.190**	-.225**							
사회적지지·사회적자본	사회적지지 인식 정도[18]	-.019	-.086**	.078**	.271**	.334**	.163**	.404**	.337**	.259**	.400**	.436**	.225**	.311**	.352**	.252**	.298**	-.235**						
	가족끼리 소통의 정도[19]	-.017	-.084**	.080**	.358**	.258**	.107**	.313**	.248**	.206**	.315**	.364**	.139**	.206**	.204**	.171**	.243**	-.216**	.422**					
	친구들과 소통의 정도[20]	-.067**	-.110**	.096**	.180**	.326**	.152**	.284**	.185**	.153**	.364**	.306**	.117**	.247**	.196**	.131**	.259**	-.147**	.386**	.419**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21]	.029*	-.093**	.085**	.292**	.349**	.209**	.419**	.338**	.269**	.412**	.464**	.221**	.336**	.327**	.245**	.323**	-.272**	.614**	.471**	.481**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22]	.081**	-.081**	.046**	.230**	.319**	.204**	.391**	.335**	.248**	.373**	.438**	.229**	.331**	.289**	.214**	.305**	-.304**	.478**	.427**	.461**	.662**		
사회심리적 불안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23]	-.177**	.195**	-.020	-.243**	-.279**	-.217**	-.478**	-.389**	-.262**	-.268**	-.514**	-.253**	-.265**	-.257**	-.252**	-.321**	.373**	-.361**	-.295**	-.238**	-.409**	-.402**	

주: 1) 변수=성별(남자=1, 여자=0), 학교재학 여부(재학=1, 다니지 않음=0), 학교에서 왕따(따돌림) 경험여부(유=1, 무=0), 자아존중감(C1-1~C1-10 변수 합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0~10), 죽고 싶다는 생각(유=1, 무=0), 사회적 지지 인식정도(0~10), 가족끼리 소통의 정도(0~10), 친구들과 소통의 정도(0~10),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0~10),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0~10),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0~10)

2) *: p〈0.05, **: p〈0.01 ***: P〈0.001

1. 가정·학교에서의 인간관계와 사회·심리적 불안 영역의 다변량분석

개인의 삶에 대한 불안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특성, 그리고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의 원만함 정도,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의 원만함 정도, 학교에서 왕따(따돌림) 경험 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통계치가 163.410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2는 0.164로서 횡단면 분석임을 고려하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회귀분석은 단순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를 사전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편의 상의 분석이기 때문에 R^2 등의 진단통계치들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개별변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 재학여부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의 원만한 정도와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의 원만한 정도가 낮을수록, 학교에서 왕따(따돌림)경험이 있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Ⅰ)

	종속변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정도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7.452	.238		31.319	.000
성별	-.662	.062	-.140	-10.593	.000
연령	.261	.022	.156	11.942	.000
학교 재학여부	.158	.137	.015	1.155	.248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정도	-.468	.050	-.138	-9.387	.000
학교에서 친구 및 선생님과 원만정도	-.641	.056	-.171	-11.436	.000
학교에서 왕따(따돌림) 경험여부	.649	.068	.129	9.619	.000

R=0.405 R^2=0.164
F-statistic=163.410, p=0.000

주: 독립변수=성별(남자=1, 여자=0), 학교재학 여부(재학=1, 다니지 않음=0), 따돌림 경험(유=1, 무=0)

2. 자아존중감·대인신뢰도·행복도와 사회·심리적 불안 영역의 다변량분석

자아존중감,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계층수준에 대한 인식, 가정 및 학교 등에의 소속감,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우리사회의 평등정도, 대인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 안정성 등에 따른 개인의 삶에 대한 불안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며, 독립변수 중 학교 재학 여부, 가정·학교에의 소속감,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계층수준에 대한 인식,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우리사회의 평등정도, 대인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등은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와 부(-)의 관계를 보였다.

〈표 2-30〉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Ⅱ)

항목	종속변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정도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13.496	.240		56.203	.000
성별	-.512	.053	-.108	-9.709	.000
연령	.141	.019	.084	7.445	.000
학교 재학여부	.251	.116	.024	2.170	.030
자아존중감	-.151	.007	-.310	-20.102	.000
목표달성가능성	-.238	.047	-.069	-5.093	.000
본인인식 사회적 계층수준	-.131	.040	-.039	-3.241	.001
가정, 학교 등 소속감	.076	.044	.022	1.718	.086

항목	종속변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정도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1.008	.059	-.246	-17.088	.000
사회의 평등정도	-.168	.048	-.048	-3.467	.001
대인신뢰도	-.148	.053	-.037	-2.797	.005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009	.019	-.007	-.456	.648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	-.161	.049	-.046	-3.254	.001
R=0.632 R^2=0.400 F-statistic=276.761, p=0.000					

주: 독립변수=성별(남자=1, 여자=0), 학교재학 여부(재학=1, 다니지 않음=0), 자아존중감(CES-D11),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0~10)

3. 사회적지지 및 사회적 자본과 사회·심리적 불안 영역의 다변량분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정도, 가족과의 소통정도, 친구들과의 소통정도,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 등을 독립변수로, 개인의 삶에 대한 불안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였다.

독립변수 중에서 학교재학 여부, 친구들과의 소통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정도, 가족과의 소통정도,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규모 등과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의 소통정도, 학교 재학 여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2-31〉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Ⅲ)

항목	종속변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7.439	.180		41.387	.000
성별	-.744	.058	-.157	-12.763	.000
연령	.244	.021	.146	11.916	.000
학교 재학 여부	.211	.128	.020	1.641	.101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정도	-.161	.018	-.143	-9.032	.000
가족과의 소통정도	-.078	.014	-.083	-5.715	.000
친구들과의 소통정도	.011	.015	.011	.763	.446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	-.164	.020	-.153	-8.193	.000
평소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정도	-.161	.015	-.178	-10.550	.000
$R=0.514$, $R^2=0.264$					
F-statistic=223.491, p=0.000					

주: 독립변수=성별(남자=1, 여자=0), 학교재학 여부(재학=1, 다니지 않음=0),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정도(0~10), 가족과의 소통 정도(0~10), 친구들과의 소통정도(0~10),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0~10),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규모(0~10)

4. 모든 영역의 변수를 고려한 다변량 분석

앞의 각 영역별 회귀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성별, 연령, 학교재학 여부, 학교에서의 왕따 경험, 자아존중감, 목표달성 가능성, 본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계층수준, 가정·학교에의 소속감,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사회의 평등정도에 대한 인식, 사회 안전성에 대한 인식정도, 신체적 건강상태,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여부, 주변으로부터 도움정도, 상의할 수 있는 사람 규모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의 원만함정도,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의 원

만함 정도, 대인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가족과의 소통정도, 친구들과의 소통정도 등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변수 중 가정·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앞의 교차분석에서도 소속감을 적게 느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높았던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2〉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Ⅳ)

구분	종속변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11.974	.284		42.220	.000
성별	-.406	.053	-.086	-7.597	.000
연령	.157	.019	.094	8.466	.000
학교 재학여부	.314	.114	.030	2.762	.006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의 원만함 정도	-.052	.044	-.015	-1.185	.236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의 원만함 정도	-.058	.050	-.016	-1.164	.245
학교에서 왕따(따돌림) 경험 여부	.136	.058	.027	2.368	.018
자아존중감(Rosenberg)	-.116	.008	-.239	-14.974	.000
목표달성 가능성성 대한 인식	-.215	.046	-.062	-4.682	.000
사회적 계층수준에 대한 인식	-.085	.040	-.025	-2.144	.032
가정·학교 등에의 소속감	.200	.045	.057	4.390	.000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785	.060	-.192	-13.075	.000
사회의 평등정도에 대한 인식	-.132	.048	-.038	-2.779	.005
대인신뢰도	-.056	.052	-.014	-1.063	.288

구분	종속변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011	.019	.009	.576	.565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128	.048	-.037	-2.641	.008
신체적 건강상태	-.115	.032	-.043	-3.540	.000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여부	.616	.061	.123	10.172	.000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018	.017	-.016	-1.072	.284
가족과의 소통정도	-.018	.013	-.019	-1.428	.153
친구들과의 소통정도	.017	.013	.017	1.292	.197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	-.064	.018	-.060	-3.561	.000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규모	-.051	.014	-.057	-3.693	.000
$R=0.654$, $R^2=0.428$					
F-statistic=169.035, p=0.000					

주: 독립변수=성별(남자=1, 여자=0), 학교재학 여부(재학=1, 다니지 않음=0), 학교에서 왕따(따돌림) 경험 여부(유=1, 무=0), 자아존중감(Rosenberg),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0~10),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유=1, 무=0), 사회적 지지 인식정도(0~10), 가족과의 소통정도(0~10), 친구들과 소통정도(0~10),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0~10),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규모(0~10),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0~10)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자아존중감만을 독립변수로 고려했을 때 R^2가 0.306에 이르고 있어, 자아존중감이 사회·심리적 불안과 관련한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여부, 연령, 평소 마음을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 등의 변수가 추가됨에 따른 R^2의 증가분이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며, 이보다는 설명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여부, 연령, 평소 마음을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 등도 주요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3〉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V)

모형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확률	
1	(상수)	12.364	.165		74.730	.000	R=0.553, R^2=0.306 F-statistic=2199.287, p=0.000
	자아존중감	-.269	.006	-.553	-46.897	.000	
2	(상수)	13.507	.168		80.431	.000	R=0.601, R^2=0.361 F-statistic=1411.878, p=0.000
	자아존중감	-.186	.007	-.383	-27.465	.000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1.190	.057	-.290	-20.832	.000	
3	(상수)	12.305	.188		65.524	.000	R=0.619, R^2=0.383 F-statistic=1034.828, p=0.000
	자아존중감	-.167	.007	-.344	-24.603	.000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1.055	.057	-.257	-18.498	.000	
	죽고 싶다는 생각의 여부	.812	.061	.162	13.406	.000	
4	(상수)	11.495	.206		55.758	.000	R=0.627, R^2=0.393 F-statistic=809.981, p=0.000
	자아존중감	-.162	.007	-.333	-23.859	.000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1.015	.057	-.248	-17.894	.000	
	죽고 싶다는 생각의 여부	.834	.060	.166	13.876	.000	
	연령	.171	.019	.103	9.161	.000	
5	(상수)	11.325	.206		55.054	.000	R=0.634, R^2=0.402 F-statistic=671.531, p=0.000
	자아존중감	-.146	.007	-.301	-20.979	.000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914	.058	-.223	-15.889	.000	
	죽고 싶다는 생각의 여부	.768	.060	.153	12.751	.000	
	연령	.171	.019	.103	9.231	.000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규모	-.098	.012	-.109	-8.474	.000	

제4절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위험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위험(risk)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심리적 불안이 정신건강 상의 위해 등 개인적 위기증상이나 범죄적 위험을 유발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기여하는 것은 분명한 만큼 이러한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개인적 위험으로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장애, 자살생각(suicide ideation),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건강 측면의 요인을 고려하였으며, 사회적 위험으로는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을 고려하였다. 사회적 위험으로 범죄 등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에 대해 파악해 보려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험을 응답자 개인에 대한 설문으로 조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여기서는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만을 파악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단순히 사회·심리적 불안 뿐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장애, 자살생각,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건강 관련요인과 사회적 일탈 충동 등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정신건강 상의 위해나 사회적 일탈 충동 등은 사회·심리적 불안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인신뢰도, 자아존중감, 소속감,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도,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의사소통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정신건강 상의 위해 등 개인적 위기증상과 사회적 위험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개인·사회적 위험

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이 큰 경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심리적 불안감이 작은 경우에 비해 높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요인(stressor) 발생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도 크다. 우선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2.3%, 매우 많이 느낀다는 청소년이 6.7%로 나타나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매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9.0%였다. 스트레스를 조금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3.5%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매우 많이 느끼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약 40%에 이른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성적이나 대학입시 등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라 세분해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매우 많이 느낀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즉, 만 14세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비율과, 매우 많이 느낀다는 각각 29.6%, 4.8%였으나, 만 17세의 경우는 각각 34.5%, 7.8%였다. 이는 단순히 연령 증가의 효과라기보다는 상급 학교·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성적이나 대학입시 등에 대한 정신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외 지역(동/읍·면), 가구구성 형태, 학교재학 여부, 종교활동 여부 등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34〉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

(단위 : 명, %)

구 분		총 합계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끼는 편임		많이 느끼는 편임		매우 많이 느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 계		5,000	373	7.5	2,677	53.5	1,616	32.3	334	6.7
성별	남성	2,613	249	9.5	1,475	56.4	746	28.6	143	5.5
	여성	2,387	124	5.2	1,202	50.3	870	36.5	191	8.0
연령별	만 14세	950	103	10.9	519	54.7	281	29.6	46	4.8
	만 15세	978	89	9.1	546	55.9	289	29.6	53	5.4
	만 16세	994	64	6.5	534	53.7	314	31.6	82	8.2
	만 17세	1,021	59	5.8	529	51.8	352	34.5	80	7.8
	만 18세	1,058	57	5.4	548	51.8	379	35.9	73	6.9
지역별	동	4,696	349	7.4	2,506	53.4	1,527	32.5	314	6.7
	읍·면	304	24	8.0	171	56.1	89	29.3	20	6.7
세대별	1세대	70	7	9.8	35	50.7	21	30.2	6	9.3
	2세대	4,270	317	7.4	2,303	53.9	1,361	31.9	289	6.8
	3세대	660	49	7.4	338	51.2	235	35.6	38	5.8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354	7.5	2,539	53.7	1,525	32.2	311	6.6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9	6.9	138	51.3	89	33.4	22	8.4
종교활동 여부	하지 않음	3,400	269	7.9	1,825	53.7	1,064	31.3	243	7.1
	하고 있음	1,600	104	6.5	852	53.3	553	34.5	91	5.7

사회·심리적 불안점수에 따라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0~3점인 집단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와 매우 많이 느낀다의 비율이 17.2%이고, 4~6점인 집단에서는 39.2%, 7~10점인 집단에서는 66.2%로 나타나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5〉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스트레스 정도

(단위 : 명, %)

불안 점수 구분	계	스트레스 정도								통계값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1,456	255	17.5	950	65.2	229	15.7	22	1.5	X^2= 978.50***
4~6점	2,393	99	4.1	1,356	56.7	844	35.3	94	3.9	
7~10점	1,150	19	1.7	370	32.2	543	47.2	218	19.0	

주: 1)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p〈0.05, **: p〈0.01, ***: p〈0.001

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우울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매우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데, 사회·심리적 불안도 그 중 하나이다. 타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사회·심리적 불안 효과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분석이 필요하나 이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교차분석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측정을 위해 CES-D11 척도를 사용하였고, 측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정상군과 위험군으로 구분하였을 때, 정상군이 전체의 79.0%였고, 위험군이 전체의 21.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우울은 자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관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겠다.

이를 응답자의 특성별로 세분해 보면, 위험군의 비율은 남자(18.1%)보다 여자(24.2%)가 높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군이 비율이 높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 또한 학업성적과 대학입시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만 18세 중 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입학 시험 이외에 다른 우울의 원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시기에 대학입시로 인해 큰 정신적 압박을 받지만 대학입시를 거친 후에도 우울로부터 자유로워지기보다는 여전히 다양한 우울의 원인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간에 위험군 비율 상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학교 재학여부이다.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는 위험군의 비율이 20.4%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위험군의 비율이 32.7%에 이른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의 분석결과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도 더 많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 문제를 가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2-36〉 청소년의 우울 정도

(단위 : 명, %)

구 분		합계	정상군		위험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합계		5,000	3,949	79.0	1,051	21.0
성별	남 성	2,613	2,140	81.9	473	18.1
	여 성	2,387	1,809	75.8	578	24.2
연령별	만 14세	950	805	84.7	145	15.3
	만 15세	978	809	82.7	169	17.3
	만 16세	994	768	77.3	226	22.7
	만 17세	1,021	788	77.2	232	22.8
	만 18세	1,058	779	73.6	279	26.4
지역별	동	4,696	3,706	78.9	989	21.1
	읍·면	304	242	79.6	62	20.4
세대별	1세대	70	54	77.4	16	22.6
	2세대	4,270	3,376	79.1	894	20.9
	3세대	660	519	78.6	141	21.4

구 분		합계	정상군		위험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3,767	79.6	963	20.4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80	67.3	88	32.7
종교활동 여부	하지 않음	3,400	2,684	78.9	716	21.1
	하고 있음	1,600	1,265	79.1	335	20.9

이러한 현상은 CES-D11으로 측정한 점수의 분포에서도 발견된다. 전체 우울점수 평균은 10.0점이었으며, 남자 청소년이 9.2점, 여자 청소년이 10.9점으로서 여자 청소년의 점수가 높았다.

연령별로도 만 14세 8.4점에서 만 18세 11.3점까지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학교 재학여부별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9.9점,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12.2점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우울증상 점수가 높았다.

〈표 2-37〉 청소년의 우울증상 점수(CES-D11)

(단위: 점)

구분		우울 증상 점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총 합계		10.0±6.56	0.0	33.0
성별	남성	9.2±6.48	0.0	32.0
	여성	10.9±6.53	0.0	33.0
연령별	만 14세	8.4±6.60	0.0	32.0
	만 15세	9.2±6.37	0.0	32.0
	만 16세	10.3±6.59	0.0	30.0
	만 17세	10.7±6.42	0.0	32.0
	만 18세	11.3±6.43	0.0	33.0
지역별	동	10.0±6.57	0.0	32.0
	읍·면	10.1±6.52	0.0	28.0
세대별	1세대	10.8±6.87	0.0	32.0
	2세대	10.0±6.55	0.0	33.0
	3세대	10.2±6.59	0.0	32.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9.9±6.49	0.0	32.0
	학교 다니지 않음	12.2±7.40	0.0	33.0
종교활동 여부	하지 않음	9.9±6.61	0.0	32.0
	하고 있음	10.2±6.46	0.0	33.0

사회·심리적 불안점수 등급에 따른 우울정도를 분석해 보면,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0~3점인 집단에서는 우울증상 위험군의 비율이 4.2%였으며, 4~6점인 집단에서는 17.9%, 7~10점인 집단에서는 49.0%로 나타나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위험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8〉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우울 정도

(단위: 명, %)

불안 점수 구분	계	우울정도				통계값
		정상군		위험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1,457	1,396	95.8	61	4.2	X^2=803.098***
4~6점	2,394	1,966	82.1	428	17.9	
7~10점	1,150	587	51.0	563	49.0	

주: 1)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p〈0.05, **: p〈0.01, ***: p〈0.001

다.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신의학적 측면의 불안장애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불안장애 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Zung의 자가평가 불안척도 SAS(20문항)를 사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여 보았다. 산출된 점수를 바탕으로 정상범위, 경증~중간 정도 불안, 심한 불안, 매우 심한 불안으로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정상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73.9%, 경증~중간 정도 불안 24.1%, 심한 불안 2.0%, 매우 심한 불안 0.1% 등으로 나타나 심한 불안 또는 매우 심한 불안은 2.1%로 나타났다.

심한 불안 또는 매우 심한 불안의 비율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1.5%, 여자 청소년의 경우 2.7%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만 15세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세대별, 종교활동 여부 등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 재학여부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심한 불안 또는 매우 심한 불안이 1.9%였으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4.1%로 나타났다.

〈표 2-39〉 청소년의 불안장애 등급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총 합계	정상범위		경증~중간 정도 불안		심한 불안		매우 심한 불안	
			인원	분포	인원	분포	인원	분포	인원	분포
총 합계		5,000	3,693	73.9	1,204	24.1	101	2.0	3	0.1
성별	남성	2,613	1,986	76.0	588	22.5	39	1.5	1	0.0
	여성	2,387	1,707	71.5	616	25.8	62	2.6	2	0.1
연령별	만 14세	950	757	79.7	173	18.2	19	2.0	0	0.0
	만 15세	978	762	77.9	203	20.7	12	1.3	1	0.1
	만 16세	994	724	72.8	248	24.9	22	2.2	0	0.0
	만 17세	1,021	723	70.8	274	26.9	23	2.2	1	0.1
	만 18세	1,058	727	68.7	306	28.9	25	2.3	1	0.1
지역별	동	4,696	3,461	73.7	1,139	24.2	93	2.0	3	0.1
	읍·면	304	232	76.1	65	21.3	8	2.6	0	0.0
세대별	1세대	70	46	66.4	22	31.1	2	2.5	0	0.0
	2세대	4,270	3,161	74.0	1,022	23.9	86	2.0	1	0.0
	3세대	660	485	73.5	160	24.2	13	2.0	2	0.3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3,529	74.6	1,108	23.4	92	1.9	1	0.0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62	60.4	95	35.5	9	3.5	2	0.6
종교활동 여부	하지 않음	3,400	2,556	75.2	778	22.9	65	1.9	2	0.1
	하고 있음	1,600	1,137	71.1	425	26.6	37	2.3	1	0.1

사회·심리적 불안점수 등급에 따른 불안장애 정도를 보면,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0~3점인 집단에서는 불안장애점수는 33.62점으로 나타났으며, 4~6점인 집단에서는 39.49점, 7~10점인 집단에서는 45.10점으로 나타나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불안장애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불안장애 점수와 사회·심리적 불

안의 점수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양 변수 간에 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0〉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불안장애 등급

불안 점수 구분	계	불안장애점수(합계)	통계값
		M±SD	
0~3점	1,457	33.62±6.625	F=718.053***
4~6점	2,394	39.49±7.529	
7~10점	1,149	45.10±9.233	

주: 1)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p〈0.05, **: p〈0.01, ***: p〈0.001

라.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심리적 불안이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경험을 조사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과 단순히 죽고 싶다는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질문이 아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자가 매우 적게 조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을 자살생각으로 해석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우선,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33.5%로 나타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로는 학업 및 취업문제(진로 등)가 54.6%로 가장 많았고, 가족갈등이 40.3%. 학교생활(교우관계 등)이 35.0%, 경제적 어려움이 19.8%로 나타났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남자 청소년(25.6%)보다는 여자 청소년(42.2%)에게서 많았고, 만 17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험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38.2%)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33.3%)에 비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2-41〉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분		총 합계	있음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합계		5,000	1,676	33.5	3,324	66.5
성별	남성	2,613	668	25.6	1,945	74.4
	여성	2,387	1,008	42.2	1,379	57.8
연령별	만 14세	950	282	29.7	668	70.3
	만 15세	978	328	33.5	650	66.5
	만 16세	994	336	33.8	658	66.2
	만 17세	1,021	381	37.3	640	62.7
	만 18세	1,058	350	33.1	708	66.9
지역별	동	4,696	1,579	33.6	3,117	66.4
	읍·면	304	98	32.1	207	67.9
세대별	1세대	70	21	30.7	48	69.3
	2세대	4,270	1,444	33.8	2,825	66.2
	3세대	660	211	31.9	450	68.1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573	33.3	3,157	66.7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02	38.2	166	61.8
종교활동 여부	하지 않음	3,400	1,136	33.4	2,264	66.6
	하고 있음	1,600	540	33.8	1,059	66.2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중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학업 및 취업문제(진로 등), 가족갈등, 학교생활(교우관계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업 및 취업문제(진로 등)로 인하여 죽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학교생활(교우관계 등)로 인하여 죽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은 감소하였다.

또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가족갈등, 경제적 어려움, 주변과의 단절(외로움), 생활환경 문제(거주 등), 현재 앓고 있는 질환, 가족의 건강문제로 죽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42〉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

(단위 : 명, %)

구분		총 합계	학업 및 취업문제(진로 등)		가족갈등		학교생활(교우관계 등)		경제적 어려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합계		1,676	915	54.6	675	40.3	586	35.0	331	19.8
성별	남성	668	340	50.8	241	36.1	191	28.5	125	18.7
	여성	1,008	576	57.1	434	43.1	396	39.3	206	20.4
연령별	만 14세	282	120	42.6	112	39.8	108	38.1	38	13.6
	만 15세	328	159	48.5	147	44.8	124	37.9	58	17.7
	만 16세	336	186	55.5	142	42.4	124	37.1	80	23.9
	만 17세	381	227	59.7	142	37.3	136	35.7	76	20.0
	만 18세	350	223	63.6	132	37.8	94	26.9	78	22.3
지역별	동	1,579	858	54.4	646	40.9	547	34.7	312	19.8
	읍·면	98	57	58.4	30	30.3	39	40.1	19	19.8
세대별	1세대	21	11	49.6	10	45.0	9	40.9	7	33.5
	2세대	1,444	779	53.9	575	39.8	507	35.1	276	19.1
	3세대	211	126	59.9	90	42.9	70	33.3	48	22.9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1,573	868	55.2	630	40.0	554	35.2	302	19.2
	학교 다니지 않음	102	46	45.2	45	44.4	33	31.9	29	28.4
종교활동 여부	하지 않음	1,136	632	55.6	467	41.1	400	35.2	210	18.5
	하고 있음	540	283	52.4	208	38.5	186	34.5	121	22.5

구분		총 합계	주변과의 단절(외로움)		이성문제		생활환경 문제(거주 등)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1,676	272	16.2	134	8.0	127	7.6	51	3.1
성별	남성	668	100	15.0	70	10.5	53	7.9	24	3.6
	여성	1,008	172	17.1	63	6.3	74	7.4	27	2.7

구분		총 합계	주변과의 단절(외로움)		이성문제		생활환경 문제(거주 등)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명	%	명	%	명	%	명	%
연령별	만 14세	282	46	16.3	22	7.7	20	7.3	6	2.3
	만 15세	328	36	11.0	18	5.5	20	6.0	11	3.5
	만 16세	336	58	17.4	27	7.9	26	7.6	5	1.4
	만 17세	381	61	16.1	34	9.0	37	9.8	12	3.1
	만 18세	350	70	20.0	33	9.5	24	6.7	17	4.8
지역별	동	1,579	254	16.1	122	7.7	116	7.3	47	3.0
	읍·면	98	18	18.5	12	12.0	11	10.9	4	4.0
세대별	1세대	21	5	25.2	3	12.1	8	36.3	0	0.0
	2세대	1,444	241	16.7	115	8.0	101	7.0	41	2.9
	3세대	211	26	12.2	16	7.4	17	8.2	10	4.7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1,573	245	15.6	127	8.1	115	7.3	46	2.9
	학교 다니지 않음	102	27	26.1	7	6.5	11	11.0	5	5.3
종교활동 여부	하지 않음	1,136	186	16.3	90	7.9	82	7.2	36	3.1
	하고 있음	540	86	16.0	43	8.0	44	8.2	16	2.9

구분		총 합계	가족의 건강문제		기타		특별한 이유 없다		모름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1,676	38	2.3	86	5.2	5	0.3	19	1.1
성별	남성	668	14	2.0	36	5.4	4	0.5	9	1.4
	여성	1,008	24	2.4	50	5.0	1	0.1	10	1.0
연령별	만 14세	282	9	3.2	12	4.1	3	0.9	3	0.9
	만 15세	328	4	1.3	16	5.0	0	0.0	4	1.2
	만 16세	336	8	2.5	23	6.8	1	0.4	4	1.1
	만 17세	381	6	1.5	20	5.1	1	0.3	8	2.1
	만 18세	350	10	3.0	16	4.5	0	0.0	1	0.3
지역별	동	1,579	35	2.2	80	5.1	5	0.3	17	1.1
	읍·면	98	3	3.3	6	6.4	0	0.0	2	2.1
세대별	1세대	21	0	0.0	2	8.5	0	0.0	0	0.0
	2세대	1,444	33	2.3	74	5.1	5	0.3	17	1.2
	3세대	211	5	2.4	10	4.9	0	0.0	2	1.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1,573	33	2.1	79	5.0	5	0.3	17	1.1
	학교 다니지 않음	102	5	4.9	7	7.0	0	0.0	2	2.1
종교활동 여부	하지 않음	1,136	26	2.3	60	5.3	3	0.3	16	1.4
	하고 있음	540	11	2.1	26	4.9	1	0.2	3	0.6

사회·심리적 불안점수 정도에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에서는 자살 생각(죽고싶다는 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2%였으며,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무려 60.0%로 나타나 불안정도가 클수록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해본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3〉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여부

(단위: 명, %)

불안 점수 구분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통계값
		예		아니오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1,457	192	13.2	1,265	86.8	X^2=631.257***
4~6점	2,394	795	33.2	1,599	66.8	
7~10점	1,149	689	60.0	460	40.0	

주: 1)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p〈0.05, **: p〈0.01, ***: p〈0.001

마.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사회·심리적 불안은 범죄 등 사회적 일탈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지난 1년간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지난 1년간 사회적 일탈충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28.8%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32.8%)이 남자 청소년(25.2%)보다 사회적 일탈충동 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33.9%)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28.6%) 보다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특이한 점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30.2%)이 종교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28.2%)보다 사회적 일탈 충동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2-44〉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단위: 명, %)

구분		총 합계	있음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합계		5,000	1,441	28.8	3,559	71.2
성별	남성	2,613	658	25.2	1,955	74.8
	여성	2,387	784	32.8	1,603	67.2
연령별	만 14세	950	200	21.1	750	78.9
	만 15세	978	241	24.6	737	75.4
	만 16세	994	299	30.1	695	69.9
	만 17세	1,021	344	33.7	677	66.3
	만 18세	1,058	358	33.8	700	66.2
지역별	동	4,696	1,361	29.0	3,335	71.0
	읍·면	304	81	26.5	224	73.5
세대별	1세대	70	16	22.7	54	77.3
	2세대	4,270	1,231	28.8	3,039	71.2
	3세대	660	194	29.4	466	70.6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350	28.6	3,379	71.4
	학교 다니지 않음	268	91	33.9	177	66.1
종교활동 여부	하지 않음	3,400	958	28.2	2,442	71.8
	하고 있음	1,600	483	30.2	1,117	69.8

사회·심리적 불안점수에 따라 일탈충동 경험 여부의 비율이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0~3점인 집단에서는 일탈충동경험을 느낀 적이 있다는 비율이 13.0%, 4~6점인 집단에서는 28.7%, 7~10점인 집단에서는 49.0%로 나타나, 불안정도가 클수록 사회적 일탈충동을 느낀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2-45〉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여부

(단위: 명, %)

불안 점수 구분	계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통계값
		있음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1,457	190	13.0	1,267	87.0	X^2=404.926***
4~6점	2,394	688	28.7	1,706	71.3	
7~10점	1,149	563	49.0	586	51.0	

주: 1) 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p〈0.05, **: p〈0.01, ***: p〈0.001

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분노 조절

분노조절 장애도 사회·심리적 불안이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평소 분노 조절이 되는지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평소에 분노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절되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60.5%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 조절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3.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분노조절이 잘되고 있다는 청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분노조절이 잘 안 되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5.5%에 이르고, 전혀 조절되지 않는다는 청소년도 0.8%에 달하였다.

분노조절이 전혀 조절되지 않는다 또는 조절되지 않는 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서 높았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표 2-46〉 청소년의 본인의 분노조절

(단위: 명, %)

구분		총 합계	전혀 조절되지 않음		조절되지 않는 편임		조절되는 편임		매우 잘 조절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합계		5,000	39	0.8	775	15.5	3,025	60.5	1,162	23.2
성별	남성	2,613	25	1.0	341	13.1	1,502	57.5	745	28.5
	여성	2,387	13	0.6	434	18.2	1,523	63.8	417	17.5
연령별	만 14세	950	11	1.2	121	12.7	565	59.5	253	26.6
	만 15세	978	7	0.7	157	16.1	590	60.3	224	22.9
	만 16세	994	4	0.4	155	15.6	616	62.0	219	22.0
	만 17세	1,021	5	0.5	177	17.3	598	58.6	241	23.6
	만 18세	1,058	12	1.2	165	15.6	656	62.0	225	21.2
지역별	동	4,696	37	0.8	722	15.4	2,862	60.9	1,075	22.9
	읍·면	304	2	0.7	52	17.2	163	53.6	87	28.6

구분		총 합계	전혀 조절되지 않음		조절되지 않는 편임		조절되는 편임		매우 잘 조절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세대별	1세대	70	1	1.2	16	23.6	36	51.4	17	23.8
	2세대	4,270	32	0.7	665	15.6	2,585	60.5	988	23.1
	3세대	660	6	0.9	93	14.1	404	61.2	157	23.8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32	0.7	726	15.3	2,856	60.4	1,116	23.6
	학교 다니지 않음	268	7	2.6	49	18.4	167	62.4	44	16.6
종교활동 여부	하지 않음	3,400	24	0.7	520	15.3	2,053	60.4	803	23.6
	하고 있음	1,600	15	0.9	255	15.9	972	60.7	359	22.4

사회·심리적 불안점수에 따라 분노조절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본 결과,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에서는 분노조절이 매우 잘 조절된다는 비율이 36.0%,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분노조절이 매우 잘 조절된다는 비율이 15.6%, 분노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점수가 낮을수록 분노조절이 잘 되는 비율이 높았고, 불안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7〉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분노조절 여부

(단위: 명, %)

불안 점수 구분	계	분노조절								통계값
		전혀 조절되지 않음		조절되지 않는 편임		조절되는 편임		매우 잘 조절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1,457	8	0.5	121	8.3	804	55.2	524	36.0	X^2=328.585***
4~6점	2,393	9	0.4	351	14.7	1,574	65.8	459	19.2	
7~10점	1,150	21	1.8	303	26.3	647	56.3	179	15.6	

주: 1) 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p〈0.05, **: p〈0.01, ***: p〈0.001

2.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개인·사회적 위험

가. 가족·학교 등에서의 대인관계와 개인·사회적 위험

가족들과의 대인관계 원만함 정도를 독립변수,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기 위해 가족들과의 대인관계 원만함 정도에 대한 응답에 따라 4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별로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낮았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우울정도(CES-D11)가 15.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원만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우울점수가 가장 낮은 7.59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불안점수(Zung)가 가장 높은 44.73점으로 나타났고, 매우 원만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불안점수가 가장 낮은 36.53점으로 나타났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의 비율이 가장 높은 58.2%로 나타났고, 매우 원만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21.4%가 자살생각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일탈충동 경험의 경우에도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일탈충동 경험률이 21.7%로 가장 낮았다.

〈표 2-48〉 청소년의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의 원만함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 명, %, 점)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원만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41	19	13.5	63	44.7	38	27.0	21	14.9	X^2= 288.597***	10.40±8.49	F= 193.342***	39.18±10.69	F= 114.006***
그렇지 않다	404	9	2.2	132	32.7	188	46.5	75	18.6		15.43±6.51		44.73±9.38	
그렇다	2,834	155	5.5	1,533	54.1	972	34.3	174	6.1		10.61±6.23		39.71±8.33	
매우 그렇다	1621	190	11.7	948	58.5	419	25.8	64	3.9		7.59±5.87		36.53±8.26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원만도	계	자살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41	52	36.9	89	63.1	X^2= 230.69***	35	24.8	106	75.2	X^2= 88.592***
그렇지 않다	404	235	58.2	169	41.8		174	43.1	230	56.9	
그렇다	2,834	1042	36.8	1,792	63.2		881	31.1	1,953	68.9	
매우 그렇다	1620	347	21.4	1,273	78.6		351	21.7	1,269	78.3	

주: *: $p<0.05$, **: $p<0.01$, ***: $p<0.001$

학교에서 선생님 및 친구들과의 관계 원만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2-49〉.

학교에서의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낀다는 비율이 4.4%로 가장 낮았고, 우울증상 점수 7.15점, 불안장애 점수 36.03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가장 낮았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선생님 및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2.9%, 사회적 일탈충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2.6%로 각각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즉, 학교 및 선생님 및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는 낮았으며, 우울정도와 불안장애도 낮은 것으로, 자살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9〉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원만함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 명, %, 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원만정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94	9	9.6	37	39.4	24	25.5	24	25.5	X^2= 326.007***	13.80±9.44	F=253.913 ***	42.70±12.02	F= 145.499***
그렇지 않다	289	7	2.4	94	32.5	131	45.3	57	19.7		16.73±6.64		45.91±9.19	
그렇다	3,076	147	4.8	1,685	54.8	1059	34.4	185	6.0		10.71±6.15		39.85±8.31	
매우 그렇다	1542	211	13.7	860	55.8	403	26.1	68	4.4		7.15±2.67		36.03±8.14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원만정도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95	41	43.2	54	56.8	X^2= 196.566***	33	35.1	61	64.9	X^2= 63.816***
그렇지 않다	287	179	62.4	108	37.6		125	43.4	163	56.6	
그렇다	3,076	1103	35.9	1,973	64.1		934	30.4	2,143	69.6	
매우 그렇다	1541	353	22.9	1,188	77.1		349	22.6	1,192	77.4	

주: *: p〈0.05, **: p〈0.01, ***: p〈0.001

주변 친구 등으로부터의 따돌림(왕따) 경험 여부를 독립변수,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기 위해 따돌림(왕따) 경험에 따라 4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 집단별로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주변 친구 등으로부터의 따돌림(왕따) 경험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거의 스트레스 받지 않거나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5.0%로 가장 높았고, 우울정도는 8.71점, 불안장애는 37.53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주변 친구 등으로부터의 따돌림(왕따) 경험 여부에 대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3.5%,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6.6%로 각각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즉, 주변 친구 등으로부터의 따돌림(왕따) 경험이 없을수록 대체적으로 스트레스 정도와, 우울과 불안장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2-50〉 청소년의 따돌림 경험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따돌림 경험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느낌		많이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그렇다	53	2	3.8	20	37.7	19	35.8	12	22.6	X^2= 121.341***	17.95±7.07	F= 161.765***	47.39±9.71	F= 120.005***
과거 있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1,567	68	4.3	781	49.8	581	37.1	137	8.7		12.36±6.59		41.90±9.14	
과거에 없었으나, 현재는 그렇다	46	1	2.2	13	28.3	24	52.2	8	17.4		15.68±6.93		45.08±7.70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아니다	3,335	303	9.1	1,863	55.9	992	29.7	177	5.3		8.71±60.9		37.53±8.10	

따돌림 경험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그렇다	52	33	63.5	19	36.5	X^2= 228.794***	29	55.8	23	44.2	X^2= 153.791***
과거 있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1,568	740	47.2	828	52.8		619	39.5	949	60.5	
과거에 없었으나, 현재는 그렇다	46	20	43.5	26	56.5		14	30.4	32	69.6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아니다	3,335	883	26.5	2,452	73.5		779	23.4	2556	76.6	

주: *: p〈0.05, **: p〈0.01, ***: p〈0.001

나. 목표달성가능성 및 사회적 계층인식도 등

현재의 자신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목표 달성 가능 정도를 4가지로 분류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현재 자신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거나 매우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69.6%로 가장 높았고, 우울정도는 6.42점, 불안장애 정도는 34.46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의 경우에는 현재 자신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9.1%,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8.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즉, 자신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으며, 우울정도와 불안장애 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1〉 청소년의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목표달성 가능성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낮다	122	1	0.8	36	29.5	43	35.2	42	34.4	X^2= 428.928****	18.61±7.77	F= 269.021****	47.29±10.19	F= 194.184****
낮다	1,747	67	3.8	824	47.2	700	40.1	156	8.9		12.40±6.27		42.02±8.47	
높다	2,601	200	7.7	1,527	58.7	766	29.5	108	4.2		8.75±5.90		37.65±8.03	
매우 높다	531	105	19.8	290	54.6	108	20.3	28	5.3		6.42±5.98		34.46±8.40	

목표달성 가능성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낮다	122	88	72.1	34	27.9	X^2= 289.638****	63	52.1	58	47.9	X^2= 132.026**
낮다	1,746	792	45.4	954	54.6		644	36.9	1,103	63.1	
높다	2,601	685	26.3	1,916	73.7		619	23.8	1,982	76.2	
매우 높다	531	111	20.9	420	79.1		115	21.7	415	78.3	

주: *: p〈0.05, **: p〈0.01, ***: p〈0.001

청소년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가정이 속한 사회적 위치(계층)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청소년이 인지한 가정의 사회적 계층 인식도를 최하위, 하위, 중위, 중상위 및 최상위로 총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현재의 자신의 가정이 최하위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거나 매우 많이 받는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1.8%로 나타났고, 다른 집단에 비해서 우울정도는 14.87점, 불안장애 정도는 44.97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본인 가정의 사회적 계층이 최하위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자살생각 경험률이 59.6%,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률이 44.9%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즉, 현재 가정의 사회적 계층이 낮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으며, 우울정도와 불안장애도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2〉 청소년의 추관적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사회적 계층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최하위	89	7	7.9	27	30.3	31	34.8	24	27.0	X^2= 185.580***	14.87±8.11	F= 67.494****	44.97±11.17	F= 46.826****
하위	1,219	53	4.3	603	49.5	450	36.9	22	9.3		12.15±6.69		41.37±8.91	
중위	2,872	215	7.5	1,606	55.9	895	31.2	156	5.4		9.45±6.28		38.49±8.33	
중상위	775	83	10.7	425	54.8	232	29.9	35	4.5		8.29±6.05		37.02±8.61	
최상위	47	16	34.0	16	34.0	9	19.1	6	12.8		8.17±7.12		37.71±10.24	

사회적 계층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최하위	89	53	59.6	36	40.4	X^2= 136.818***	40	44.9	49	55.1	X^2= 67.497***
하위	1,219	547	44.9	672	55.1		448	36.8	771	63.2	
중위	2,871	868	30.2	2,003	69.8		746	26.0	2,125	74.0	
중상위	775	201	25.9	574	74.1		200	25.8	575	74.2	
최상위	46	8	17.4	38	82.6		7	15.2	39	84.8	

주: *: p〈0.05, **: p〈0.01, ***: p〈0.001

청소년이 느끼는 가정 및 학교의 소속감 정도를 독립변수,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이 느끼는 소속감 정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그 단계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가정 및 학교에 대해 소속감을 매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73.7%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5.86점, 불안장애 정도는 34.58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의 경우에는 가정 및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매우 적게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2%,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8%로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았다. 즉, 가정 및 학교의 소속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으며, 우울정도와 불안장애 점수도 낮게 나타났고,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3〉 청소년의 소속감 및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소속감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적게 느낌	151	13	8.4	57	37.0	43	27.9	41	26.6	X^2= 340.114***	13.66±9.44	F= 259.014***	43.76±11.58	F= 158.286***
적게 느낌	1,206	55	4.6	534	44.3	487	40.4	130	10.8		13.51±6.58		42.69±8.85	
많이 느낌	3,030	196	6.5	1,745	57.6	951	31.4	138	4.6		9.28±5.83		38.30±8.02	
매우 많이 느낌	610	110	18.0	340	55.7	135	22.1	25	4.1		5.86±5.38		34.58±8.09	

소속감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통계값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통계값
		예		아니오			있음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적게 느낌	151	86	56.2	67	43.8	X^2= 238.330***	64	41.8	89	58.2	X^2= 101.440***
적게 느낌	1,206	588	48.8	617	51.2		469	38.9	736	61.1	
많이 느낌	3,030	879	29.0	2151	71.0		770	25.4	2,260	74.6	
매우 많이 느낌	611	123	20.1	488	79.9		138	22.5	474	77.5	

주: *: p〈0.05, **: p〈0.01, ***: p〈0.001

청소년이 본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정도를 독립변수,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기 위해 삶의 행복정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본인의 삶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84.9%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4.32점, 불안장애 점수는 33.09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본인의 삶이 매우 불행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6%,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본인의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 우울정도와 불안장애가 낮았으며, 본인의 삶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2-54〉 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행복도 및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삶의 행복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불행	66	2	3.0	8	12.1	18	27.3	38	57.6	X^2= 1158.774****	21.50±7.60	F= 698.455****	53.08±9.90	F= 381.883****
불행	804	7	0.9	224	27.9	430	53.5	143	17.8		16.44±5.87		45.62±8.62	
행복	3,512	220	5.7	2,084	59.3	1,090	31.0	138	3.9		9.33±5.55		38.36±7.81	
매우 행복	617	164	26.6	360	58.3	78	12.6	15	2.4		4.32±4.42		33.09±7.12	

삶의 행복도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불행	66	50	74.6	17	25.4	X^2= 649.831****	41	62.1	25	37.9	X^2= 282.571****
불행	804	547	68.0	257	32.0		390	48.5	414	51.5	
행복	3,512	1007	28.7	2505	71.3		937	26.7	2,575	73.3	
매우 행복	617	72	11.7	545	88.3		73	11.8	545	88.2	

주: *: p〈0.05, **: p〈0.01, ***: p〈0.001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이 느끼는 우리사회의 평등정도를 4단계로 나누고, 평등정도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았다.

우리사회가 매우 평등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75.8%로 가장 많았고, 우울정도와 불안장애 정도의 경우에는 각각 5.31점, 33.83점으로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사회의 평등정도를 매우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4%,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사회를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으며, 우울정도와 불안장애도 낮게 나타났고, 우리사회를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55〉 청소년의 사회 평등도에 대한 인식 및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사회의 평등정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불평등	1,047	50	4.8	459	43.8	389	37.2	149	14.2	X^2= 336.880****	12.50±7.12	F= 104.607****	41.57±9.42	F= 60.735****
불평등	2,923	180	6.2	1,598	54.7	987	33.8	158	5.4		9.97±6.23		39.06±8.46	
평등	968	117	12.1	599	61.9	227	23.5	25	2.6		7.78±5.90		36.74±8.05	
매우 평등	62	26	41.9	21	33.9	13	21.0	2	3.2		5.31±6.43		33.83±9.62	

사회의 평등정도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불평등	1,047	507	48.4	540	51.6	X^2= 224.307****	454	43.4	593	56.6	X^2= 221.444****
불평등	2,923	989	33.8	1,934	66.2		845	28.9	2,078	71.1	
평등	968	175	18.1	793	81.9		134	13.8	834	86.2	
매우 평등	63	6	9.5	57	90.5		8	12.9	54	87.1	

주: *: p〈0.05, **: p〈0.01, ***: p〈0.001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람들에 대한 신뢰정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78.5%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7.06점, 불안장애 정도는 36.32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의 경우에는 대인 신뢰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7%,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고, 우울정도와 불안장애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56〉 청소년의 대인신뢰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대인 신뢰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혀 신뢰할 수 없음	163	10	6.1	46	28.2	55	33.7	52	31.9	X^2= 426.225***	16.06±8.40	F= 182.399***	45.85±10.67	F= 126.719***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	2,047	96	4.7	972	47.5	795	38.8	184	9.0		11.86±6.47		41.17±8.58	
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	2,702	238	8.8	1,618	59.9	754	27.9	92	3.4		8.35±5.87		37.16±8.12	
매우 신뢰할 수 있음	88	29	33.0	40	45.5	13	14.8	6	6.8		7.06±6.82		36.32±10.07	

대인 신뢰도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혀 신뢰할 수 없음	163	93	56.7	71	43.3	X^2= 211.503***	86	52.4	78	47.6	X^2= 146.235***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	2,047	881	43.1	1,165	56.9		728	35.6	1,318	64.4	
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	2,702	684	25.3	2,018	74.4		614	22.7	2,088	77.3	
매우 신뢰할 수 있음	88	18	20.5	70	79.5		14	15.9	74	84.1	

주: *: p〈0.05, **: p〈0.01, ***: p〈0.001

청소년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신뢰정도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의 분포가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를 3개군(0~3점, 4~6점, 7~10점)으로 분류하고, 각 점수 그룹별로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보았다.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가 '7~10점'인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77.5%로 나타났고, 우울정도의 경우에는 6.57점, 불안장애 정도는 34.87점으로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았다. 반면에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에서 '0~3점' 집단에서는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3%,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청소년 중에서 우리사회를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으며, 우울정도와 불안장애 점수도 낮았고, 우리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2-57〉 청소년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사회 신뢰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1,885	99	5.3	870	46.2	690	36.6	226	12.0	X^2= 264.276***	11.97±6.96	F= 184.363***	41.17±9.14	F= 129.924***
4~6점	2,572	186	7.2	1,475	57.3	816	31.7	95	3.7		9.32±6.01		38.42±8.21	
7~10점	541	87	16.1	332	61.4	110	20.3	12	2.2		6.57±5.52		34.87±7.88	

사회 신뢰도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1,885	835	44.3	1,051	55.7	X^2= 181.735***	700	37.1	1,185	62.9	X^2= 122.971***
4~6점	2,572	744	28.9	1,829	71.1		655	25.5	1,917	74.5	
7~10점	541	97	17.9	445	82.1		85	15.7	456	84.3	

주: *: $p<0.05$, **: $p<0.01$, ***: $p<0.001$

다음으로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안정정도에 따른 개인·사회적 위험 정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안정정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이 우리사회를 매우 안정적이라고 답한 경우,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78.3%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5.83점, 불안장애 정도는 33.99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우리사회가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3%,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9%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청소년들 중 우리사회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으며, 우울정도와 불안장애도 낮게 나타났고,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8〉 청소년의 우리 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사회 안정성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혀 안정적이지 않음	562	31	5.5	243	43.2	198	35.2	90	16.0	X^2= 248.56***	12.59±7.42	F= 101.0***	42.13±9.81	F= 82.60***
안정적이지 않음	2,438	137	5.6	1,258	51.6	874	35.8	169	6.9		10.88±6.50		40.15±8.64	
조금 안정적	1,931	181	9.4	1,145	59.3	534	27.7	71	3.7		8.32±5.89		37.00±8.02	
매우 안정적	69	24	34.8	30	43.5	10	14.5	5	7.2		5.83±5.71		33.99±8.47	

사회 안정성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혀 안정적이지 않음	562	277	49.3	285	50.7	X^2= 183.948***	241	42.9	321	57.1	X^2= 137.936***
안정적이지 않음	2,438	935	38.4	1,503	61.6		791	32.4	1,647	67.6	
조금 안정적	1,931	453	23.5	1,478	76.5		396	20.5	1,535	79.5	
매우 안정적	68	12	17.4	57	82.6		13	19.1	55	80.9	

주: *: p〈0.05, **: p〈0.01, ***: p〈0.001

다. 사회적 지지와 개인·사회적 위험

청소년이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정도를 3개군(0~3점, 4~6점, 7~10점)으로 분류하고, 3개의 그룹별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우울정도,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사회적 지지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71.5%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7.48점, 불안장애 정도는 36.0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반면 사회적 지지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6%,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4.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 우울정도와 불안장애가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2-59〉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사회적 지지 정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625	26	4.2	198	31.7	269	43.0	132	21.1	X^2= 452.546***	15.71±7.06	F= 503.231***	45.20±9.66	F= 357.166***
4~6점	2,190	100	4.6	1,164	53.2	796	36.3	130	5.9		10.92±6.16		40.39±8.26	
7~10점	2,185	247	11.3	1,315	60.2	551	25.2	72	3.3		7.48±5.45		36.00±7.64	

사회적 지지 정도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625	367	58.6	259	41.4	X^2= 253.838***	278	44.5	347	55.5	X^2= 105.298***
4~6점	2,190	768	35.1	1,422	64.9		649	29.6	1,541	70.4	
7~10점	2,185	542	24.8	1,643	75.2		514	23.5	1,671	76.5	

주: *: p〈0.05, **: p〈0.01, ***: p〈0.001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대상자의 사회적 연결정도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위험의 정도의 차이를 보기위해서 평소 가족끼리 소통(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전화를 이용한 소통을 포함)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족과의 소통정도를 독립변수,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기 위해 가족과의 소통정도를 3개군(0~3점, 4~6점, 7~10점)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가족과의 소통정도를 '7~10점'이라고 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9.1%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7.97점, 불안장애 정도는 36.70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가족과의 소통정도에서 '0~3점'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9%,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가족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으며, 우울정도와 불안장애도 낮게 나타났고,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도 가족들과 소통을 적게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0〉 청소년의 가족과의 소통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가족과 소통정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894	37	4.1	366	40.9	369	41.3	122	13.6	X^2= 229.830***	13.55±6.88	F= 285.499****	42.70±9.20	F= 191.571***
4~6점	1,818	92	5.1	974	53.6	637	35.0	115	6.3		10.86±6.31		40.27±8.42	
7~10점	2,289	244	10.7	1,337	58.4	611	26.7	97	4.2		7.97±5.87		36.70±8.14	

가족과 소통정도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894	464	51.9	430	48.1	X^2= 212.672***	379	42.4	515	57.6	X^2= 109.827***
4~6점	1,817	640	35.2	1,177	64.4		520	28.6	1,297	71.4	
7~10점	2,289	572	25.0	1,717	75.0		542	23.7	1,747	76.3	

주: *: p〈0.05, **: p〈0.01, ***: p〈0.001

사회적 연결망의 정도를 가족들과의 소통정도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친구들과의 소통정도를 조사하고, 친구들과의 소통정도에 따른 개인·사회적 위험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친구와의 소통정도를 3개의 그룹(0~3점, 4~6점, 7~10점)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친구와의 소통정도가 '7~10점'으로 가장 높았던 집단에서는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4.5%로 나타났고, 우울도도 8.83점, 불안장애 정도 37.78점으로 친구들과의 소통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친구와의 소통정도가 '0~3점'으로 가장 낮았던 집단에서는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1%,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친구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 우울정도와 불안장애가 낮았으며, 친구들과 소통을 적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자살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2-61〉 청소년의 친구들과의 소통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친구들과 소통정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445	20	4.5	186	41.8	162	36.4	77	17.3	X^2= 133.616***	14.44±7.28	F=205.913 ****	43.30±9.86	F= 123.514***
4~6점	1,256	67	5.3	647	51.5	458	36.5	84	6.7		11.56±6.43		40.97±8.63	
7~10점	3,298	285	8.6	1,843	55.9	997	30.2	173	5.2		8.83±6.12		37.78±8.32	

친구들과 소통정도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446	250	56.1	196	43.9	X^2= 121.086***	193	43.3	253	56.7	X^2= 50.928***
4~6점	1,256	438	34.9	818	65.1		358	28.5	897	71.5	
7~10점	3,298	989	30.0	2,309	70.0		890	27.0	2,409	73.0	

주: *: p〈0.05, **: p〈0.01, ***: p〈0.001

그 다음으로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평소 어려움에 처한 경우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대상자가 응답한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정도를 독립변수로,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주변 도움 정도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주변 도움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70.7%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7.55점, 불안장애 정도는 26.13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주변 도움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7%,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평소 어려움이 처한 경우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 우울정도와 불안장애의 위험도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의 도움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2-62〉 청소년의 주변으로부터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주변으로부터 도움정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520	20	3.8	155	29.8	235	45.2	110	21.2	X^2= 421.191***	16.30±6.74	F= 591.463***	45.77±9.09	F= 414.506***
4~6점	1,903	84	4.4	969	50.9	719	37.8	131	6.9		11.64±6.14		41.23±8.37	
7~10점	2,577	269	10.4	1,553	60.3	662	25.7	93	3.6		7.55±5.53		26.13±7.69	

주변으로부터 도움정도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520	331	63.7	189	36.3	X^2= 335.838***	245	47.1	275	52.9	X^2= 130.739***
4~6점	1,903	727	38.2	1,176	61.8		598	31.4	1,305	68.6	
7~10점	2,577	618	24.0	1,959	76.0		598	23.2	1,979	76.8	

주: *: p〈0.05, **: p〈0.01, ***: p〈0.001

그 다음으로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주변에 상의 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를 3개군(0~3점, 4~6점, 7~10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군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주변에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한 인식 점수가 '7~10점'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73.0%로 나타났고, 우울도도 7.14점, 불안장애 정도 35.85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반면에 주변에 상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 점수가 '0~3점' 집단에서는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5%,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앞선 주변사람의 도움정도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으며, 우울정도와 불안장애도 낮게 나타났고,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도 평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2-63〉 청소년의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1,219	40	3.3	463	38.0	541	44.4	175	14.4	X^2= 418.937***	14.25±6.53	F= 541.072***	43.23±9.04	F= 311.761***
4~6점	1,803	96	5.3	1,006	55.8	605	33.6	96	5.3		10.31±5.94		39.79±8.15	
7~10점	1,977	236	11.9	12.7	61.1	471	23.8	63	3.2		7.14±5.58		35.85±7.83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계	자살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통계값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통계값
		예		아니오			있음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1,220	689	56.5	531	43.5	X^2= 434.472***	538	44.1	682	55.9	X^2= 210.125***
4~6점	1,803	577	32.0	1,226	68.0		502	27.8	1,301	72.2	
7~10점	1,978	411	20.8	1,567	79.2		401	20.3	1,577	79.7	

주: *: p〈0.05, **: p〈0.01, ***: p〈0.001

3.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개인·사회적 위험에 대한 다변량분석

〈표 2-64〉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신건강관련 요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기술통계상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낸 변수로 개인특성(성별, 나이, 학교 재학여부), 가족과 학교에서의 관계(가족들과의 관계, 학교·친구들과의 관계, 따돌림 경험), 자아존중감, 사회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가정·학교 등에의 소속감,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대인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개인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사회적 지지, 가족끼리 소통, 친구들과 소통, 주변으로부터의 도움, 상의할 사람의 정도,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신건강(스트레스, CES-D, 불안장애, 죽고 싶다는 생각 등)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0-order correlation) 중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면서 상관계수가 비교적 큰 몇 개의 변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했으며(r=0.467), 가정·학교 등에 소속감을 많이 느낄수록 자존감이 높았다(r=0.407). 삶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가정·학교 등에 소속감을 많이 느꼈으며(r=0.408), 사회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사회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r=0.582).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자존감이 높았고(r=0.473), 어려움에 처한 경우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r=0.614).

특히, CES-D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았고(r=0.587), 불안장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와(r=0.521) CES-D점수(r=0.758)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2-64〉 청소년의 사회적 불안과 개인·사회적 위험 간의 상관관계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개인특성	성별[1]																											
	나이[2]	-.025																										
	학교 재학여부[3]	-.057**	-.076**																									
가족/학교 등에서의 관계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정도[4]	.006	-.072**	.046**																								
	학교에서 친구 및 선생님과 원만정도[5]	.051**	-.086**	.106**	.467**																							
	학교에서왕따(따돌림) 경험여부[6]	-.180**	.096**	-.052**	-.109**	-.196*																						
자아의식/ 대인신뢰도 /행복지수	자아존중감[7]	.130**	-.155**	.065**	.279**	.370**	-.235*																					
	목표달성 가능성[8]	.094**	-.066**	.060**	.196**	.247**	-.126*	.555**																				
	본인 인식 사회적 계층수준[9]	.055**	-.169**	.061**	.189**	.163**	-.120*	.276**	.289**																			
	가정,학교등의 소속감[10]	.007	-.114**	.075**	.262**	.377**	-.167*	.407**	.283**	.221**																		
	본인 삶의 행복정도[11]	.055**	-.147**	.065**	.329**	.355**	-.183*	.585**	.416**	.308**	.408**																	
	사회 평등 정도[12]	-.002	-.137**	.007	.118**	.126**	-.137*	.214**	.203**	.218**	.178**	.283**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13]	.049**	-.093**	.030*	.162**	.211**	-.135*	.290**	.195**	.169**	.253**	.300**	.341**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14]	.016	-.108**	.038**	.148**	.166**	-.126*	.259**	.196**	.218**	.209**	.288**	.536**	.516**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15]	.038**	-.144**	.019	.127**	.132**	-.112*	.223**	.180**	.206**	.143**	.251**	.506**	.368**	.582**													
개인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신체적 건강상태[16]	.071**	-.082**	.051**	.187**	.257**	-.177*	.393**	.269**	.182**	.254**	.362**	.169**	.238**	.222**	.190**												
사회적지지/ 사회적자본	사회적지지 인식 정도[17]	-.019	-.086**	.078**	.271**	.334**	-.163*	.473**	.337**	.259**	.400**	.436**	.225**	.311**	.352**	.252**	.298**											
	가족끼리 소통의 정도[18]	-.017	-.084**	.080**	.358**	.258**	-.107*	.357**	.248**	.206**	.315**	.364**	.139**	.206**	.204**	.171**	.243**	.422**										
	친구들과 소통의 정도[19]	-.067**	-.110**	.096**	.180**	.326**	-.152*	.332**	.185**	.153**	.364**	.306**	.117**	.247**	.196**	.131**	.259**	.386**	.419**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20]	.029*	-.093**	.085**	.292**	.349**	-.209*	.491**	.338**	.269**	.412**	.464**	.221**	.336**	.327**	.245**	.323**	.614**	.471**	.481**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21]	.081**	-.081**	.046**	.230**	.319**	-.204*	.467**	.335**	.248**	.373**	.438**	.229**	.331**	.289**	.214**	.305**	.478**	.427**	.461**	.662**							
사회심리적 불안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22]	-.177*	.195**	-.020	-.243*	-.279*	.217**	-.553*	-.389**	-.262*	-.268**	-.514*	-.253*	-.265*	-.257*	-.252*	-.321*	-.361*	-.295**	-.238**	-.409**	-.402**						
정신건강	스트레스[23]	-.120*	.087**	-.018	-.179*	-.196*	.136**	-.401**	-.236**	-.134**	-.204**	-.399**	-.211**	-.233**	-.219**	-.178**	-.251**	-.288**	-.220**	-.162**	-.295**	-.297**	.444**					
	CES-D[24]	-.133*	.158**	-.080**	-.273*	-.342*	.281**	-.623*	-.364**	-.215**	-.356**	-.539**	-.243**	-.311**	-.277**	-.237**	-.384**	-.437**	-.346**	-.307**	-.475**	-.459**	.586**	.587**				
	불안장애[25]	-.114*	.135**	-.095**	-.211**	-.266*	.249**	-.542*	-.321**	-.181**	-.290**	-.428**	-.187**	-.261**	-.241**	-.215*	-.396*	-.376*	-.279**	-.239**	-.404**	-.358**	.515**	.521**	.758**			
	자살 생각(죽고싶다는 생각) 경험[26]	-.176*	.030*	-.024	-.186*	-.178*	.211**	-.357*	-.228**	-.155**	-.212**	-.343**	-.211**	-.203**	-.196*	-.190*	-.225*	-.235**	-.216**	-.147**	-.272**	-.304**	.373**	.340**	.446**	.373**		
	사회적 일탈 경험[27]	-.084*	.107**	-.025	-.103*	-.105*	.171**	-.247*	-.151**	-.101*	-.131*	-.236**	-.208**	-.169*	-.172*	-.165*	-.163*	-.143*	-.148*	-.093*	-.177*	-.214**	.308**	.262**	.350**	.307**	.332**	

주: 1) 변수=성별(남자=1, 여자=0), 학교재학여부(재학=1, 다니지않음=0), 학교에서 왕따(따돌림) 경험여부(유=1, 무=0), 자아존중감(C1-1~C1-10 변수 합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0~10), 죽고싶다는 생각(유=1, 무=0), 사회적지지 인식정도(0~10), 가족끼리 소통의 정도(0~10), 친구들과 소통의 정도(0~10),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0~10),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0~10),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0~10), CES-D(E2-1~E2-11 변수 합산), 불안장애(E3-1~E3-20 변수 합산), 자살 생각(죽고싶다는 생각) 경험(예=1, 아니오=0), 사회적 일탈 경험(있음=1, 없음=0)

2) **: p〈0.05, **: p〈0.01 ***: P〈0.001

가. 사회·심리적 불안과 우울 및 불안장애에 대한 다변량 분석

우울척도(CES-D)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술통계에서 개인특성(성별, 나이, 학교재학여부), 가족·학교에서의 관계(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따돌림 경험여부), 가족과 학교에서의 관계(가족들과의 관계, 학교·친구들과의 관계, 따돌림 경험), 자아존중감, 사회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가정·학교 등에의 소속감,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대인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개인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사회적 지지, 가족끼리 소통, 친구들과 소통, 주변으로부터의 도움, 상의할 사람의 정도,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신건강(스트레스, CES-D, 불안장애, 죽고 싶다는 생각 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R^2=0.71이며, 유의수준 0.001 기준으로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따돌림 경험여부, 자아존중감, 삶의 행복정도,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 불안장애, 자살(죽고 싶다는)생각, 사회적 일탈 경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불안장애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해할수록, 따돌림 경험이 있을수록 CES-D 점수가 높아지는 반면,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자존감이 높고, 삶의 행복도가 높고,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 수 록 CES-D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표 2-65〉 우울척도(CES-D)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항목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2.043	.787		2.598	.009
성별	-.042	.106	-.003	-.394	.694
나이	.073	.037	.016	1.967	.049
학교 재학여부	-.157	.226	-.005	-.698	.485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정도	-.069	.086	-.007	-.797	.426
학교에서 친구 및 선생님과 원만정도	-.346	.099	-.033	-3.496	.000
학교에서왕따(따돌림) 경험여부	.538	.114	.039	4.701	.000
자아존중감	-.180	.016	-.134	-11.253	.000
목표달성 가능성	.217	.091	.023	2.383	.017
본인 인식 사회적 계층수준	.172	.079	.018	2.192	.028
가정, 학교등의 소속감	-.150	.090	-.015	-1.668	.095
본인 삶의 행복정도	-.767	.121	-.068	-6.325	.000
사회 평등 정도	-.069	.095	-.007	-.729	.466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	-.169	.104	-.015	-1.629	.103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023	.037	.007	.603	.546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	.089	.096	.009	.927	.354
신체적 건강상태	.025	.065	.003	.388	.698
사회적지지 인식 정도	-.065	.033	-.021	-1.973	.049
가족끼리 소통의 정도	-.040	.025	-.015	-1.596	.110
친구들과 소통의 정도	-.036	.026	-.013	-1.377	.169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	-.050	.036	-.017	-1.407	.159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	-.118	.027	-.047	-4.320	.000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243	.029	.088	8.367	.000
스트레스	1.523	.086	.167	17.640	.000
불안장애	.321	.008	.428	40.365	.000
자살 생각(죽고싶다는 생각) 경험	.962	.125	.069	7.706	.000
사회적 일탈 경험	.667	.123	.046	5.444	.000

$R=0.843$, $R^2=0.710$
F-statistic=469.253, p=0.000

주: 1) 종속변수= CES-D(E2 : E2-1~E2-10 변수합산)
2) 독립변수=죽고 싶다는 생각(예=1, 아니오=0),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있음=1,없음=0), 따돌림 경험(1, 2, 3=1, 4=0),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으로 인한 고민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받은 경험(예=1, 아니오=0), 진학, 진로 문제로 도움을 받은 경험(예=1, 아니오=0)

우울척도에 이어 기술통계에서 불안장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던 변수들과 불안장애 점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불안장애를 종속변수로 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개인특성(성별, 나이, 학교재학여부), 가족·학교에서의 관계(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따돌림 경험여부), 가족과 학교에서의 관계(가족들과의 관계, 학교·친구들과의 관계, 따돌림 경험), 자아존중감, 사회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가정·학교 등에의 소속감,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대인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개인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사회적 지지, 가족끼리 소통, 친구들과 소통, 주변으로부터의 도움, 상의할 사람의 정도,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신건강(스트레스, CES-D, 불안장애, 죽고 싶다는 생각 등) 영역의 변수들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R^2=0.61이며,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학교 재학여부, 자아존중감,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 본인 삶의 행복도,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수의 정도,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 우울척도(CES-D)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척도(CES-D)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을 느낄수록 불안장애 점수가 높았다. 반면, 자존감이 높고, 주관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불안장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표 2-66〉 Zung의 불안장애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항목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32.114	1.130		28.410	.000
성별	.167	.164	.010	1.014	.311
나이	.029	.057	.005	.509	.611
학교 재학여부	-1.399	.349	-.036	-4.014	.000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정도	.123	.134	.010	.918	.359
학교에서 친구 및 선생님과 원만정도	.264	.154	.019	1.721	.085
학교에서왕따(따돌림) 경험여부	.535	.177	.029	3.015	.003
자아존중감	-.143	.025	-.080	-5.731	.000
목표달성 가능성	-.070	.141	-.005	-.496	.620
본인 인식 사회적 계층수준	.101	.122	.008	.827	.408
가정,학교등의 소속감	-.060	.139	-.005	-.433	.665
본인 삶의 행복정도	.793	.188	.052	4.212	.000
사회 평등 정도	.503	.146	.039	3.435	.001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	-.024	.161	-.002	-.149	.882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030	.058	-.007	-.524	.600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	-.296	.148	-.023	-1.999	.046
신체적 건강상태	-1.049	.099	-.106	-10.555	.000
사회적지지 인식 정도	-.093	.051	-.022	-1.835	.067
가족끼리 소통의 정도	.023	.038	.007	.593	.553
친구들과 소통의 정도	.078	.040	.021	1.928	.054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	-.170	.055	-.043	-3.089	.002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	.159	.042	.048	3.740	.000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248	.045	.067	5.496	.000
스트레스	1.279	.137	.105	9.366	.000
CES-D	.769	.019	.577	40.365	.000
자살 생각(죽고싶다는 생각) 경험	.244	.194	.013	1.254	.210
사회적 일탈 경험	.577	.190	.030	3.034	.002
R=0.781, R^2=0.610 F-statistic=298.731, p=0.000					

주: 1) 종속변수= 불안장애(E3: E3-1~E-20 변수합산)
2) 독립변수=자살(죽고 싶다는) 생각(예=1, 아니오=0),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있음=1,없음=0), 따돌림 경험(1, 2, 3=1, 4=0),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으로 인한 고민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받은 경험(예=1, 아니오=0), 진학, 진로 문제로 도움을 받은 경험(예=1, 아니오=0)

나. 사회·심리적 불안과 죽고 싶다는 생각에 대한 다변량 분석

우울, 불안장애에 이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특성(성별, 나이, 학교재학여부), 가족·학교에서의 관계(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따돌림 경험여부), 자아존중감,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 주관적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 소속감,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사회 평등도에 인식, 대인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신체적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사회적 지지, 가족과의 소통정도, 친구들과의 소통정도, 주변으로부터의 도움정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정신건강 영역 요인 중 기술통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성별, 친구 및 선생님과 원만정도, 가족·학교 등에의 소속감, 본인 삶의 행복도, 주변으로부터의 도움정도,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 스트레스, 사회적 일탈 경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척도(CES-D)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을 느낄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클수록, 본인의 삶이 행복하다고 답할수록, 주변의 도움의 정도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7〉 청소년의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항목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상수)	-.560	.075	56.176	1	.000	.571
성별	-.148	.027	30.526	1	.000	.862
나이	-.037	.161	.052	1	.820	.964
학교 재학여부	-.164	.063	6.825	1	.009	.848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정도	.120	.071	2.856	1	.091	1.128
학교에서 친구 및 선생님과 원만정도	.310	.077	16.119	1	.000	1.363
학교에서왕따(따돌림) 경험여부	-.022	.012	3.585	1	.058	.978
자아존중감	.015	.065	.050	1	.822	1.015
목표달성 가능성	-.025	.057	.195	1	.658	.975
본인 인식 사회적 계층수준	-.093	.067	1.963	1	.161	.911
가정,학교등의 소속감	-.319	.089	12.988	1	.000	.727
본인 삶의 행복정도	-.253	.069	13.300	1	.000	.776
사회 평등 정도	-.034	.073	.211	1	.646	.967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	.015	.027	.298	1	.585	1.015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110	.068	2.586	1	.108	.896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	-.033	.046	.529	1	.467	.967
신체적 건강상태	.022	.024	.862	1	.353	1.022
사회적지지 인식 정도	-.030	.017	2.971	1	.085	.970
가족끼리 소통의 정도	.024	.018	1.750	1	.186	1.024
친구들과 소통의 정도	.026	.025	1.086	1	.297	1.026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	-.075	.019	15.466	1	.000	.928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	.109	.021	25.706	1	.000	1.115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276	.062	19.811	1	.000	1.317
스트레스	.065	.010	44.402	1	.000	1.067
CES-D	.009	.006	2.031	1	.154	1.009
사회적 일탈 경험	.840	.078	116.799	1	.000	2.316

Cox와 Snell의 R^2=0.275 Nagelkerke R^2=0.382
Hosmer와 Lemeshow 검정 X^2=20.497, 자유도=8, p=0.009

주: 성별(남자=1, 여자=0), 학교재학여부(재학=1, 다니지않음=0), 학교에서 왕따(따돌림) 경험여부(유=1, 무=0), 자아존중감(변수 합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0~10), 죽고싶다는 생각(유=1, 무=0), 사회적지지 인식정도(0~10), 가족끼리 소통의 정도(0~10), 친구들과 소통의 정도(0~10),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0~10),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0~10),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0~10), CES-D(변수 합산), 불안장애(변수 합산), 자살생각(죽고싶다는 생각) 경험(예=1, 아니오=0), 사회적 일탈 경험(있음=1, 없음=0)

제5절 청소년의 불안 해소 방법 및 정책적 지원요구

1. 청소년들의 불안해소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사회·심리적 불안이 발생했을 때 주로 혼자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해소 방법으로 수면이나 휴식 55.7%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이 44.6%, 게임 32.2%, 감상 및 관람(영화, 음악, 미술 등) 31.4% 등이었다. 영화·음악·미술 감상·관람은 타인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수면·휴식, 인터넷 및 스마트 폰은 혼자서 하는 활동으로, 방에 혼자 있다는 비율도 13.7%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흡연(1.8%)을 하거나 음주(1.2%)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약물(0.2%)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회·심리적 불안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68〉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불안 해소 방법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1]	구 분	인원	비율[1]
총계	5,000	100.0	TV시청	820	16.4
수면이나 휴식	2,786	55.7	대화	729	14.6
인터넷, 스마트폰	2,229	44.6	(방에) 혼자 있음	687	13.7
게임	1,610	32.2	스포츠 활동	643	12.9
감상 및 관람(영화, 음악, 미술 등)	1,569	31.4	흡연	88	1.8
노래방	1,026	20.5	음주	60	1.2
취미활동	923	18.5	약물	11	0.2

주: 1) 각 방법에 대한 중복응답 비율

2. 정책적 지원 희망 사항

청소년들에게 불안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를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미래문제(진학, 취업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이 6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학업상담 및 지원이 42.4%, 생활경제문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41.5% 순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은 결국 앞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큰 불안의 요소로 지목했던 사항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지원(37.0%), 신체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및 지원(32.3%),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22.7%), 가족갈등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지원(20.3%)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2-69〉 사회·심리적 불안해소를 위한 청소년들의 국가적 지원 희망 사항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1)]
총 합계	5,000	100.0
미래 문제(진학, 취업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188	63.8
학업상담 및 지원	2,118	42.4
생활경제문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	2,074	41.5
정신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 및 지원	1,850	37.0
신체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및 지원	1,617	32.3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1,137	22.7
가족 갈등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지원	1,015	20.3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보완 및 위반자 처벌 강화	872	17.4
가족해체 등 위기 가족 지원	569	11.4
이성문제 상담 및 지원	424	8.5
정치 개선	21	0.4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13	0.3
교육 및 입시 제도 개선	12	0.2
기타	7	0.1

주: 1) 각 방법에 대한 중복응답 비율

한편,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 대응이 39.7%, 학대 폭력 등 범죄 문제에 대한 국가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34.7%, 교육 및 입시제도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가 3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만큼 청소년들도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 중 가장 큰 불안요소의 하나로 지목되었던 교육 및 입시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의 정책적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0〉 사회적 문제로 인한 불안의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항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1]
총 합계	5,000	100.0
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 대응	1,986	39.7
학대, 폭력 등 범죄 문제에 대한 국가안전체계 강화	1,734	34.7
교육 및 입시제도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1,620	32.4
정치 및 대외관계 강화	1,600	32.0
경기활성화 및 성장 촉진	1,475	29.5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 지원	1,292	25.8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및 식중독 관리 강화	1,288	25.8
사회안전망 강화	995	19.9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대책 강화	874	17.5
환경 보호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853	17.1
계층, 집단 및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766	15.3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보완 및 위반자 처벌 강화	462	9.2
기타	7	0.1

주: 1) 각 방법에 대한 중복응답 비율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중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31.5%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1.9%로 매우 낮았다.

〈표 2-71〉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총 합계		5,000	100.0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인식 여부	알고 있음	1,573	31.5
	모름	3,427	68.5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여부	있음	93	1.9
	없음	4,907	98.1

또한 대상자에게 개인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의 64.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공공기관의 도움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도는 성인(48.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기관에서 제공해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문화활동(영화관람 등) 지원이 6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이 63.0%, 지역사회 체육 프로그램 강화가 34.4%로 나타났다.

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도움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에 비해 실제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경험률은 낮다는 것은 학업 등으로 인해 보건소나 정신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 등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72〉 불안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도움의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단위: 점)

구 분		인원	비율
총 합계		5,000	100.0
공공기관 도움 필요성	필요함	3,222	64.4
	필요하지 않음	1,778	35.6
희망하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소 계	3,222	100.0
	문화활동(영화관람 등) 지원	2,150	66.8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2,029	63.0
	지역사회 체육 프로그램 강화	1,109	34.4
	지역사회 멘토 지정 운영	759	23.6
	가정방문을 통한 정신건강관리	747	23.2
	지역사회 내 자조모임 확대 지원	412	12.8
	기타	13	0.4

제 3 장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실태와 원인

제1절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
제2절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절 성인의 사회·심리적 영향요인과 불안의 다변량 분석
제4절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위험
제5절 성인의 불안 해소 방법 및 정책적 지원요구

3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실태와 원인

19세 이상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해서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 사회·심리적 불안을 유발하는 불안요소,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심리적 불안의 해소방법, 사회·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장은 총 5개의 절로 구성되는데 우선, 제1절에서는 19세 이상 성인들이 느끼는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불안의 정도를 일정한 척도(0점~10점)로 점수화한 다음 전체적인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고, 인구·사회·경제·보건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사회·심리적 불안원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안요소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불안요소를 개인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불안요소와 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불안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사회·심리적 불안요소에 따라 불안이 유발되더라도 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사회·심리적인 속성이나 자질, 특성 등에 따라 개인별로 불안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3절에서는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로 기술적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4절에서 관련 변수들 간의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정신건강관리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성인들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해소방법과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1절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

1.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정도

모든 국가에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양한 사회·심리적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나 고용요건 악화, 세월호 사건 등 대형사고, MERS 상태 등의 사회적 여건은 국민들의 사회·심리적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의 측면에서도 인간관계상의 어려움이나 채무관계, 실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사회·심리적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심리적 불안은 시기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심리적 불안을 측정해본다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추후 사회적 여건이 변화한 후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심리적 불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19세 이상 성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10점(매우 불안함)의 범위로 측정해 본 결과 평균 5.4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불안의 점수가 4.7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성인들이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가 나타내는 불안의 정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전혀 불안하지 않음'이 0점, '매우 불안함'이 10점임을 고려하면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가 중간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대적인 기준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향후의 사회·심리적 불안 정도와 비교해하는데 보다 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나 거주 지역, 종교 활동 여부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는 19세 및 20대의 경우 5.2점, 30대·40대·50대 5.4점, 60대 5.5점, 70대 이상 5.6점 등으로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구성형태별로 보면, 1세대 가구 거주자의 경우 5.5점, 나머지 5.3점으로서 독거자의 경우가 불안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독거 자들이 가진 사회·경제적 배경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독거하는 경우 대화나 의사소통 기회 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나 유배우 5.3점, 별거·이혼·사별 6.0점으로 나타나 별거나 이혼, 사별 등을 경험할 경우 사회·심리적 불안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육체노동자(5.5점)가 비육체노동자(5.2점)에 비해 사회·심리적 불안점수가 높고, 임시직(5.7점)이 정규직(5.3점)이나 자영업자(5.4점)에 비해 사회·심리적 불안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50대 이하이면서 고졸(5.6점)이거나 60대 이상이면서 초등학교졸업(5.9점)이거나 중학교 졸업(5.6점)의 경우 타 계층에 비해 불안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월평균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인 경우 5.9점, 600만원 이상 4.7점으로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고연령층일수록, 소득계층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육체노동자일수록, 임시직일수록 불안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단

순히 직업의 형태나 소득수준, 교육수준 그 자체가 불안의 정도를 결정짓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계층에 따라 불안의 원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를 것이며,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처하는 개인의 성향이나 방법, 불안 해소 기회에 대한 접근도 등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표 3-1).

〈표 3-1〉 19세 이상 성인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정도

(단위: 점)

구 분		자신의 삶 불안 점수[1]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전 체		5.4±1.87	
성별	남성	5.4±1.88	T=2.01*
	여성	5.3±1.87	
연령별	19~29세	5.2±1.96	F=5.34***
	30~39세	5.4±1.84	
	40~49세	5.4±1.79	
	50~59세	5.4±1.86	
	60~64세	5.5±1.81	
	65~69세	5.5±1.98	
	70세 이상	5.6±1.92	
지역별	동	5.4±1.89	T=-2.67**
	읍·면	5.5±1.80	
세대별	1세대	5.5±1.91	F=6.04**
	2세대	5.3±1.85	
	3세대	5.3±1.96	
혼인상태별	미혼	5.3±1.94	F=32.73***
	유배우	5.3±1.85	
	별거·이혼·사별	6.0±1.77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5.4±1.86	F=1.60
	비맞벌이	5.3±1.85	
	비해당	5.5±1.79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5.2±1.86	F=19.63***
	육체노동자	5.5±1.82	
	무직	5.3±1.93	
근로형태별	정규직	5.3±1.84	F=8.37***
	임시직	5.7±1.82	

구 분		자신의 삶 불안 점수[1)]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자영업	5.4±1.85	
	기타	5.1±1.84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5.5±2.21	F=22.84***
	19~59세 고졸	5.6±1.77	
	19~59세 대재이상	5.2±1.90	
	60세 이상 초졸	5.9±1.84	
	60세 이상 중졸	5.6±1.78	
	60세 이상 고졸이상	5.2±1.97	
소득별	200만원 미만	5.9±1.86	F=63.19***
	200~400만원 미만	5.4±1.81	
	400~600만원 미만	5.3±1.86	
	600만 원 이상	4.7±1.94	
종교활동	하지 않음	5.4±1.85	T=2.26*
	하고 있음	5.3±1.93	

주: 1) 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p〈0.05, **: p〈0.01, ***: p〈0.001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의 정도도 파악하였다. 개인의 삶에 대한 불안 정도와 마찬가지로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10점(매우 불안함)의 범위로 측정해 본 결과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점수(5.4점)와 비슷한 수준인 평균 5.6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점수가 6.6점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청소년이 성인보다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은 성인보다 약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더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한 번 요약하면, 성인의 경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점수가 5.4점,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점수가 5.6점으로 이 양자 간에 비슷한 점수를 보였으나,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점수(4.7)와 우리나라

의 미래에 대한 불안점수(6.6점)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의 삶과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두 가지 주제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성인의 경우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대로 연장하여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로는 집단 간에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만, 소득수준의 경우 200만원 미만 5.7점, 600만원 이상 5.3점 등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점수가 낮았다(표 3-2).

〈표 3-2〉 19세 이상 성인의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불안정도

(단위: 점)

구 분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불안 점수[1]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전 체		5.6±1.66	
성별	남성	5.7±1.65	T=1.38
	여성	5.6±1.67	
연령별	19~29세	5.6±1.67	F=3.26**
	30~39세	5.7±1.68	
	40~49세	5.6±1.66	
	50~59세	5.7±1.64	
	60~64세	5.6±1.62	
	65~69세	5.5±1.67	
	70세 이상	5.4±1.62	
지역별	동	5.6±1.67	T=-2.69**
	읍·면	5.8±1.56	
세대별	1세대	5.6±1.63	F=0.46
	2세대	5.6±1.66	
	3세대	5.7±1.74	
혼인 상태별	미혼	5.7±1.64	F=2.45
	유배우	5.6±1.67	
	별거·이혼·사별	5.8±1.51	

구 분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불안 점수[1)]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5.7±1.67	F=3.47*
	비맞벌이	5.5±1.68	
	비해당	5.6±1.61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5.6±1.65	F=12.66***
	육체노동자	5.7±1.62	
	무직	5.5±1.70	
근로 형태별	정규직	5.7±1.64	F=0.02
	임시직	5.7±1.55	
	자영업	5.7±1.66	
	기타	5.7±1.7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5.8±1.69	F=9.47***
	19~59세 고졸	5.8±1.61	
	19~59세 대재이상	5.6±1.69	
	60세 이상 초졸	5.7±1.57	
	60세 이상 중졸	5.4±1.59	
	60세 이상 고졸이상	5.4±1.70	
소득별	200만원 미만	5.7±1.63	F=12.10***
	200~400만원 미만	5.7±1.61	
	400~600만원 미만	5.6±1.70	
	600만 원 이상	5.3±1.69	
종교활동	하지 않음	5.6±1.65	T=1.34
	하고 있음	5.6±1.68	

주: 1) 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p〈0.05, **: p〈0.01, ***: p〈0.001

2.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 요소

사회·심리적 불안의 요소는 크게 개인 요소와 사회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불안요소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사회적 측면에서의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 여건 악화는 결국 그 폐해가 개인에게 귀결되어 실업 문제 등의 개인적 측면의 불안요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사회문제의 개인화라고 표현한다면 개인문제의 사회화도 존재한다. 즉, 개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문제는 해당되는 개인 학생들 간의 인간관계에서 출발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많은 사회구성원이 불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구분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의 청소년에서의 분석과 같이 성인에 대해서도 사회·심리적 불안의 요소를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

최근 1년간 가장 크게 불안을 느꼈던 개인적인 문제로서 응답자의 25.3%가 노후준비를 들었으며, 18.4%가 취업 및 소득문제를 들었다. 노후 준비나 취업 및 소득문제는 결국 경제적 문제가 연령층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여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장년층에서는 노후준비 부족이라는 문제로 표현되고 청년층이나 중년층에서는 취업이나 소득문제로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의 43.7%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와 경제적 여건 악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15.0%가 신체적 건강을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응답하였는데, 신체적 건강을 불안 요소로 지목한 경우는 대체로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응답을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 때문에 불안요소로 지목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신체적 건강을 가장 큰 불안요소로 응답한 경우가 15.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 및 중장년층

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이것이 개인적인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서도, 3.1%가 정신적 건강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2014년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인구10만 명당 27.3명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 국민들 스스로도 개인적 측면의 불안요소로 정신건강 문제를 지목한 비율이 약 3%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12.1%의 응답자가 자녀교육·가족부양·간병 문제를 가장 큰 불안요소로 들었다. 자녀교육이나 간병 등도 크게 보면 가정경제의 문제를 넘어 넓은 의미의 가족부양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부양의무의 크기가 증대되고 이것이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표 3-3).

〈표 3-3〉 성인의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구 분	인원	비율
합 계	7,000	100.0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243	3.5
노후준비	1,771	25.3	정신적 건강	218	3.1
취업 및 소득	1,291	18.4	가족관계 및 해체	190	2.7
신체적 건강	1,048	15.0	이웃과의 관계	47	0.7
자녀교육, 가족부양 및 간병	848	12.1	기타	20	0.3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문제	509	7.3	없음	93	1.3
직장 내의 갈등문제	448	6.4	모름	1	0.0
생활안전	274	3.9			

개인적 측면의 불안요소로서 응답률이 가장 높은 노후준비, 취업 및 소득, 신체적 건강을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은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을 맞은 시기(50~59세)에 가장 높았다(43.2%). 현실적으로 이미 퇴직을 하였거나 경제활동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60세 이상은 오히려 이에 대한 불안이 35.9% 정도로 낮아졌고 70세 이상은 22.5%로 더욱 낮게 나타났다.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가장 큰 불안요소로 응답한 비율이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계층에서는 28.4%, 600만원 이상인 계층에서는 17.6%였다.

직업유형별로는 노후준비를 가장 큰 불안요소로 응답한 비율이 육체노동자의 31.7%, 비육체 노동자의 20.1%로서 육체노동자에서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단순한 직업유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육체노동자와 비육체노동자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근로형태별로는 노후준비를 가장 큰 불안요소로 응답한 비율이 정규직의 경우 23.2%, 임시직의 경우 25.2%, 자영업의 경우 37.0%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수입의 영세성 등에 따른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 및 소득문제를 가장 큰 불안요소로 응답한 비율은 19세 및 20대의 연령층이 49.9%로 가장 높고, 30대 21.3%, 40대, 11.7%, 50대 11.0% 등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이 48.5%이고 유배우가 10.7%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청년층에게 있어 취업이 가장 큰 개인적인 관심사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또 하나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야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유배우의 경우 미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

인다. 유배우가 미혼에 비해 취업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이미 결혼 이전에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저출산이 결혼력(nuptiality)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은 후에야 결혼을 함에 따라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체적 건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뚜렷한 연령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체적 건강문제를 가장 큰 불안요소로 응답한 비율이 70세 이상의 경우 43.8%, 65~69세 29.5%, 60~64세 29.4%, 50~59세 17.5% 등으로 나타나 주로 고령층과 중장년층에서 신체적 건강문제로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표 3-4〉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

(단위: 명, %)

구 분		합계	노후준비		취업 및 소득		신체적 건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7,000	1,771	25.3	1,291	18.4	1,048	15.0
성별	남성	3,469	883	25.5	764	22.0	458	13.2
	여성	3,531	888	25.1	527	14.9	589	16.7
연령별	19~29세	1,275	52	4.1	637	49.9	35	2.8
	30~39세	1,304	201	15.4	277	21.3	69	5.3
	40~49세	1,443	446	30.9	169	11.7	121	8.4
	50~59세	1,383	598	43.2	152	11.0	242	17.5
	60~64세	541	194	35.9	34	6.3	159	29.4
	65~69세	288	106	37.0	9	3.1	85	29.5
	70세 이상	767	173	22.5	13	1.7	336	43.8
지역별	동	5,937	1,509	25.4	1,132	19.1	856	14.4
	읍·면	1,063	261	24.6	159	15.0	192	18.0
세대별	1세대	1,853	548	29.6	195	10.5	513	27.7
	2세대	4,900	1,176	24.0	1,045	21.3	482	9.8
	3세대	247	47	19.0	52	21.0	52	21.2

구 분		합계	노후준비		취업 및 소득		신체적 건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94	6.2	736	48.5	59	3.9
	유배우	5,004	1,531	30.6	534	10.7	827	16.5
	별거·이혼·사별	476	145	30.5	20	4.3	162	34.0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702	32.3	303	14.0	238	11.0
	비맞벌이	2,684	779	29.0	226	8.4	539	20.1
	비해당	148	51	34.4	5	3.5	50	33.5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321	20.1	273	17.1	124	7.8
	육체노동자	2,921	927	31.7	554	19.0	397	13.6
	무직	2,484	522	21.0	464	18.7	527	21.2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584	23.2	466	18.5	215	8.6
	임시직	648	163	25.2	167	25.8	82	12.7
	자영업	1,343	497	37.0	193	14.3	221	16.5
	기타	8	4	55.9	1	12.7	2	21.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50	40.5	10	8.1	30	23.8
	19~59세 고졸	2,179	738	33.8	369	16.9	250	11.5
	19~59세 대재이상	3,101	509	16.4	856	27.6	188	6.1
	60세 이상 초졸	459	103	22.5	11	2.5	214	46.7
	60세 이상 중졸	550	170	30.9	16	2.8	204	37.1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201	34.2	29	5.0	161	27.5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330	28.4	96	8.3	395	34.0
	200~400만원 미만	2,735	726	26.5	552	20.2	349	12.8
	400~600만원 미만	2,525	613	24.3	534	21.2	237	9.4
	600만 원 이상	580	102	17.6	109	18.8	67	11.5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1,256	24.4	1,031	20.0	697	13.5
	하고 있음	1,855	514	27.7	260	14.0	350	18.9

지금까지 언급된 각종 불안요소별로 불안의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각각의 불안요소들로 인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는지를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10점(매우 불안함) 사이의 점수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노후준비가 6.1점, 취업 및 소득 5.9점, 신체적 건강 5.1점, 생활안전 문제 5.0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문제 4.7점, 자녀교육·가족부양·간병 4.5점,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4.5점, 가족관계 및 해체 3.9점, 이웃과의 관계 3.7점, 직장 내 갈등 문제 3.9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들은 평균적인 개념으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수들이 낮다고 해서 결코 정책적 중요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이 점수들은 개별 불안요소에 노출된 성인의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연령층에게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높기 때문에 불안점수를 높게 부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만약 노후준비에 해당되는 계층의 규모가 작다고 가정하면 전체적인 불안점수의 평균도 매우 낮게 산출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후준비의 사회적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불안요소로서 노후준비, 취업 및 소득, 신체적 건강, 생활안전 문제 등이 지목된 것은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표 3-5).

〈표 3-5〉 성인의 개인적 측면의 불안요소별 불안 점수[1)]

(단위: 점)

구 분	평균(점)±표준편차
노후준비	6.1±2.15
취업 및 소득	5.9±2.06
신체적 건강	5.1±2.34
자녀교육, 가족부양 및 간병	4.5±2.51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문제	4.7±2.48
직장 내의 갈등문제	3.9±2.43
생활안전	5.0±2.00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4.5±2.30
정신적 건강	4.8±2.24
가족관계 및 해체	3.9±2.35
이웃과의 관계	3.7±2.16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나.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

개인적인 불안 요소와 더불어, 최근 1년간 가장 크게 불안하다고 느낀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는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았다. 앞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측면의 불안요소는 우리 사회 자체의 불안 요소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우리 사회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와 사회적 불안요소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불안 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여기서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불안을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사회적 문제는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였다. 최근의 메르스 사태에 따라 고위험 신종감염병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21.7%에 달하였는데,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가 이보다 높은 36.6%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에 대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문제가 8.8%를 기록하였는데, 이 또한 국가적 재난으로서 세월호 사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 응답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위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응답률도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월호 사건를 포함한 안전문제와 같이 응답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에 대한 응답률은 앞으로 획기적인 경기반등이 없는 한 상당기간 동안 높은 응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사회안전망 취약 5.9%, 정치 및 대외 관계 5.7%, 저출산 문제와 인구고령화 4.8%,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 문제 3.6%, 학대·폭력

등 범죄 3.3%, 계층·집단·세대 간 갈등 2.7%,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2.7%,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2.0%,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2.0%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난 특징은 경기침체 및 성장 둔화, 고위험 신종전염병 유행, 안전문제 등에 응답이 집중되고 나머지 불안요소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아울러, 청소년과 비교해보면, 청소년의 경우는 정치 및 대외관계(17.0%), 안전문제(13.4%),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10.7%),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10.4%), 학대·폭력 등 범죄(9.8%) 등으로, 청소년들이 오히려 성인보다 정치 및 대외 관계, 안전문제 등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정치 및 대외 관계, 안전문제 등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성인의 경우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와 고위험 감염병 유행 등 소수의 불안요소로 응답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불안요소들의 응답비율이 낮아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 안전사고 등에 응답이 집중된 것은 이들이 많은 응답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취약이나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 문제, 학대·폭력 등 범죄, 계층·집단·세대 간 갈등,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해당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저출산 문제와 인구고령화,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등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범위는 넓지만 그로 인한 폐해가 피부로 확연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짐작된다(표 3-6).

〈표 3-6〉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인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구 분	인원	비율
합 계	7,000	100.0	학대, 폭력 등 범죄	234	3.3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2,559	36.6	계층, 집단 및 세대 간 갈등	189	2.7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1,520	21.7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186	2.7
안전문제	613	8.8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137	2.0
사회안전망 취약	414	5.9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137	2.0
정치 및 대외관계	398	5.7	빈부격차	1	0.0
저출산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	339	4.8	없다	16	0.2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	252	3.6	모름	5	0.1

사회적 측면에서의 불안요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안전문제 등을 성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를 가장 큰 불안요소로 든 비율은 남성(42.0%)이 여성(31.2%)보다 높았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가정의 주된 수입원(main earner)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연령계층별로 보았을 때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를 가장 큰 불안요소로 든 비율이 19세 및 20대에서는 30.9%였으나, 30대·40대·50대의 경우는 39.2%~43.4%로 높게 나타났다. 이후 주된 수입원으로서 기능이 약화되는 60~64세 연령층에서는 33.1%, 65~69세 연령층에서는 29.5%, 70대 이상에서는 20.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맞벌이 부부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 45.1%, 그렇지 않은 경우 33.3%로, 맞벌이일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52.1%로 나타나 정규직41.3%, 임시직 35.0%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고위험신종 감염병을 가장 큰 불안요소로 응답한 비율을 보면,

남성(17.7%)보다 여성(25.7%)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감염병에 따른 위해 등에 대해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고위험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50대는 응답률이 약 20%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60~64세는 26.7%, 65~69세 23.6%, 70대 이상 32.1%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무직(28.9%)의 경우, 별거·이혼·사별(30.0%) 등이 타 집단에 비해 응답률이 높다는 사실 이외 다른 인구·사회적 특성별로는 일관성 있는 패턴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안전문제를 가장 큰 불안요소로 응답한 비율은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나 고위험 신종감염병 등에 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응답비율이 낮고, 안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선별성(selectivity)이나 차별성을 발생시킬 정도의 인구·사회적 특성이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들 중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뒤집어 말하면, 안전문제는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표 3-7).

〈표 3-7〉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

(단위: 명, %)

구 분		합계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안전문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7,000	2,559	36.6	1,520	21.7	613	8.8
성별	남성	3,469	1,456	42.0	614	17.7	286	8.2
	여성	3,531	1,103	31.2	906	25.7	327	9.3
연령별	19~29세	1,275	394	30.9	275	21.5	128	10.0
	30~39세	1,304	511	39.2	239	18.3	110	8.4
	40~49세	1,443	631	43.7	263	18.2	114	7.9

구 분		합계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안전문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50~59세	1,383	601	43.4	285	20.6	119	8.6
	60~64세	541	179	33.1	144	26.7	52	9.7
	65~69세	288	85	29.5	68	23.6	21	7.2
	70세 이상	767	159	20.7	246	32.1	69	8.9
지역별	동	5,937	2,163	36.4	1,290	21.7	529	8.9
	읍·면	1,063	396	37.3	230	21.6	84	7.9
세대별	1세대	1,853	610	32.9	467	25.2	154	8.3
	2세대	4,900	1,876	38.3	990	20.2	440	9.0
	3세대	247	73	29.4	63	25.6	20	8.1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525	34.6	291	19.2	145	9.5
	유배우	5,004	1,909	38.2	1,086	21.7	429	8.6
	별거·이혼·사별	476	125	26.2	143	30.0	40	8.4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979	45.1	408	18.8	181	8.3
	비맞벌이	2,684	894	33.3	632	23.5	234	8.7
	비해당	148	36	24.1	47	31.6	14	9.2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622	39.0	287	18.0	147	9.2
	육체노동자	2,921	1,346	46.1	514	17.6	229	7.9
	무직	2,484	591	23.8	718	28.9	237	9.5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041	41.3	456	18.1	226	9.0
	임시직	648	227	35.0	123	18.9	60	9.3
	자영업	1,343	699	52.1	219	16.3	91	6.8
	기타	8	2	20.8	4	49.5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54	43.7	25	20.1	8	6.5
	19~59세 고졸	2,179	942	43.2	420	19.3	184	8.5
	19~59세 대재이상	3,101	1,141	36.8	617	19.9	279	9.0
	60세 이상 초졸	459	102	22.2	132	28.7	42	9.1
	60세 이상 중졸	550	137	25.0	160	29.1	50	9.0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183	31.2	166	28.3	50	8.5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313	27.0	314	27.0	99	8.5
	200~400만원 미만	2,735	1,057	38.7	552	20.2	251	9.2
	400~600만원 미만	2,525	966	38.3	515	20.4	205	8.1
	600만 원 이상	580	222	38.3	139	24.0	58	9.9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1,938	37.7	1,085	21.1	428	8.3
	하고 있음	1,855	621	33.5	435	23.5	186	10.0

한편, 지금까지의 사회적 불안요소 각각에 대해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10점(매우 불안함)의 범위에서 불안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에 대한 불안점수는 6.9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위험 신종 감염병이 6.4점, 안전문제가 6.2점으로 이 세 가지 불안요소는 응답률도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불안의 정도를 나타나내는 불안점수도 가장 높았다. 아울러,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불안요소로서 노후준비(6.1점), 취업 및 소득(5.9점), 신체적 건강(5.1점) 등에 비해 높은 점수대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불안요소들이 사회적 측면에서의 불안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즉, 개인적 측면의 불안요소가 사회적 측면의 불안요소보다 개인에게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점에서 불안점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부 사회적 불안요소의 경우 개인적 측면에서의 불안요소보다 불안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고위험 감염병, 안전문제 등이 우리 사회에 대해 가지는 파급력이 크고, 그 사회문제가 사회구성원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경기침체나 메르스 등의 사회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문제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응답자 개인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의 경우는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에 대해 5.5점, 고위험 신종 감염병 4.1점, 안전문제 5.9점 등으로 평가하였다. 대신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을 6.1점으로 평가하여, 결국 성인과 청소년의 관심사의 차이가 불안요소별 불안점수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경제나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큰 성인들의 경우 경기침체나 고용여건 등이 가장 관심사인 반면, 청소년들의 경우 대학입시 등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다(표 3-8).

〈표 3-8〉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성인들의 불안 요소별 불안정도[1)]

(단위: 점)

구 분	평균(점)±표준편차	구 분	평균(점)±표준편차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6.9±1.79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	5.4±2.04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6.4±1.86	학대, 폭력 등 범죄	5.5±2.08
안전문제	6.2±1.86	계층, 집단 및 세대 간 갈등	5.2±2.00
사회안전망 취약	5.5±2.05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5.6±1.83
정치 및 대외관계	5.7±1.86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5.0±2.12
저출산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	5.4±2.05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5.1±2.18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제2절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가족 및 지역사회 등에서의 대인관계

가족을 비롯한 주변과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주변과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이에 따라 사회·심리적 불안요소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한 불안이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과의 소통과 대화 등을 통해 불안의 정도가 완화 또는 해소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불안요소가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완충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사에서 평가한 대인관계는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로서, 응답자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응답할 가능성도 있으며, 응답자 자신이 상대의 생각과 다르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스스로 대인관계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개인의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평가하는 잣대보다 더욱 의미 있는 지표일 수 있다.

최근 가족 간의 갈등이나 직장생활에서 동료와의 갈등, 그리고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는 이웃 간의 갈등이 치명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현대인들이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갈등의 상황에 놓이는 경우 그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직장, 이웃과의 대인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가족구성원간 관계의 원만함에 대해서는 그렇다 80.0%, 매우 그렇다 14.1%로 94.1%가 관계가 원만하다고 응답하였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의 원만함에 대해서는 그렇다 88.4%, 매우 그렇다 7.8%로 96.2%가 관계가 원만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웃주민과의 관계의 원만함에 대해서는 그렇다 83.8%, 매우 그렇다 6.1% 등으로 89.9%가 관계가 원만하다고 응답하였다.

성인들의 경우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의 원만함에 대해 14.1%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청소년들의 경우는 32.4%였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의 원만함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0.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성인들에 비해 인간관계가 매우 원만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인간관계의 원만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표 3-9〉 성인들의 가족·직장·이웃과의 대인관계

(단위: 명, %)

구 분	합계 합계	대인관계의 원만함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7,000	17	0.2	400	5.7	5,599	80.0	984	14.1
직장에서 인간관계	4,515	5	0.1	166	3.7	3,990	88.4	354	7.8
이웃주민과의 관계	7,000	35	0.5	672	9.6	5,863	83.8	430	6.1

대인관계와 불안정도와의 관계를 보면,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불안의 정도를 0(전혀 불안하지 않음)~10점(매우 불안함)의 범위로 측정해 보면,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경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점수가 6.6점, 원만하다는 경우는 5.3점이었다. 또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경우는 불안점수가 6.2점, 원만하다는 경우는 5.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웃주민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경우는 불안점수가 5.8점, 원만하다는 경우는 5.3점이었다. 이와 같은 불안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가 원만할수록 불안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청소년들의 경우에 비해 불안점수가 전체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0(전혀 불안하지 않음) ~10점(매우 불안함)의 척도로 불안의 정도를 측정해 보면, 대인관계의 원만함의 차이에 따른 불안점수의 차이가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점수에 비해 크지 않다.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점수가 5.9점, 원만하다는 경우는 5.6점이었다. 아울러 직장에서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경우는 6.0점, 원만하다는 경우는 5.7점, 그리고 이웃주민과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경우는 5.7점, 원만하다는 경우는 5.6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웃주민과의 대인관계의 원만함에 따른 불안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을 청소년과 비교해 보면, 청소년의 경우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점수가 7.1점, 원만하다는 경우 6.6점으로서 성인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안점수가 높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건·사고나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표 3-10).

〈표 3-10〉 성인의 대인관계와 불안 점수[1)]

(단위: 점)

구분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정도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불안정도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원만하지 않은 편	6.6±1.80	T=13.63***	5.9±1.62	T=3.35***
	원만한 편	5.3±1.85		5.6±1.66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원만하지 않은 편	6.2±1.78	T=6.09***	6.0±1.73	T=2.97**
	원만한 편	5.4±1.84		5.7±1.63	
이웃주민과의 관계	원만하지 않은 편	5.8±1.84	T=5.95***	5.7±1.68	T=1.73
	원만한 편	5.3±1.87		5.6±1.65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 p〈0.05, ** : p〈0.01, *** : p〈0.001

2. 자아존중감, 대인신뢰도 및 행복도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 및 가치에 대한 긍정적 태도·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심리적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불안의 요소가 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불안의 요소로 인식하지 않거나 또는, 불안을 느끼더라도 불안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능력이 높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다양한 불안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불안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해 10개 문항의 로젠버그(Rosenberg) 척도를 활용하였다. 성인들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29.8점으로서 청소년들의 28.5점에 비해 미세하나마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자아존중감 점수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성은 29.8점, 여성은 29.7점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그 외 연령, 거주 지역, 가구구성형태,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직업유형, 근로형태, 학력, 소득수준 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점수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기가 미세하다.

다만, 소득수준별로는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 수준과 정규직에서 자아존중감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표 3-11〉 성인들의 자아존중감 점수(Resenberg 척도)

(단위: 점)

구 분		자존감 점수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전 체		29.8±3.41	
성별	남성	29.8±3.44	T=1.50
	여성	29.7±3.38	
연령별	19~29세	30.3±3.40	F=36.96***
	30~39세	30.2±3.27	
	40~49세	29.9±3.28	
	50~59세	29.8±3.43	
	60~64세	29.2±3.34	
	65~69세	29.3±3.54	
	70세 이상	28.3±3.37	
지역별	동	29.7±3.44	T=-2.83**
	읍·면	30.0±3.23	
세대별	1세대	29.1±3.53	F=44.31***
	2세대	30.0±3.32	
	3세대	29.5±3.54	

구 분		자존감 점수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혼인 상태별	미혼	30.3±3.43	F=80.73***
	유배우	29.8±3.33	
	별거·이혼·사별	28.0±3.57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30.2±3.29	F=28.77***
	비맞벌이	29.5±3.32	
	비해당	28.7±3.40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30.5±3.32	F=65.52***
	육체노동자	29.8±3.33	
	무직	29.3±3.47	
근로형태별	정규직	30.2±3.29	F=25.06***
	임시직	29.0±3.36	
	자영업	30.1±3.36	
	기타	30.9±2.69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28.6±4.40	F=62.88***
	19~59세 고졸	29.7±3.33	
	19~59세 대재이상	30.4±3.28	
	60세 이상 초졸	28.1±3.34	
	60세 이상 중졸	28.4±3.50	
	60세 이상 고졸이상	29.7±3.23	
소득별	200만원 미만	28.2±3.57	F=150.87***
	200~400만원 미만	29.6±3.31	
	400~600만원 미만	30.3±3.18	
	600만 원 이상	31.2±3.25	
종교활동	하지 않음	29.8±3.42	T=2.09*
	하고 있음	29.6±3.37	

주: * : p〈0.05, ** : p〈0.01, *** : p〈0.001

한편,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태도나 인식은 사회·심리적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이상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불확정적이거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는 반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불투명한 미래를 위험(risk)으로 인식하여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 과정에서 미래의 불투명성에 대

한 위험으로 인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이상적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해 55.1%가 '높다' 혹은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청소년의 경우는 이 비율이 62.6%였음을 고려해볼 때 성인의 경우 청소년에 비해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판단과 인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도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이 낮다. 실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사회계층과 상관없이 자신 스스로 상위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불안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의 사회계층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중위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0%, 중상위계층이라는 응답이 9.4%, 최상위 계층이라는 응답이 0.1%였다. 중위계층과 중상위 계층을 합하면 67.4%가 자신을 넓은 의미의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는 이 비율이 72.9%였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7.4%라는 수치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上)방향으로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자신의 노력 결과에 따라 계층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은 낮다. 이는 이상적인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깔려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심리적 불안에 노출될 가능성도 낮다.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과 높다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계층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 1.7%, 높다 46.6%로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48.3%였다. 반면 매우 낮다 5.4%, 낮다 46.3%로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51.7%였다(표 3-12).

〈표 3-12〉 성인의 자신의 이상적인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사회계층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합 계		7,000	100.0
자신의 이상적인 목표 달성 가능성	매우 낮다	401	5.7
	낮다	2,741	39.2
	높다	3,656	52.2
	매우 높다	202	2.9
자신의 현재 사회적 계층	최하위	160	2.3
	하위	2,109	30.1
	중위	4,063	58.0
	중상	659	9.4
	최상위	9	0.1
계층 상승 가능성	매우 낮다	379	5.4
	낮다	3,244	46.3
	높다	3,259	46.6
	매우 높다	118	1.7

본인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행복도는 사회·심리적 불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을 적게 느끼기도 하며, 사회·심리적 불안을 적게 느낄수록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행복도와 사회·심리적 불안 간의 인과관계(causality)의 방향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삶의 행복도를 원인변수, 사회·심리적 불안을 결과변수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는 응답이 83.8%,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이 3.1%를 차지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행복하다는 응답이 70.2%,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이 12.4%였음을 고려 해볼 때 전체적으로 행복하다 또는 매우 행복하다는 비율은 비슷하지만 매우 행복하다는 비율은 성인보다 청소년이 높았다.

한편,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대인신뢰도인데, 대인신뢰도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은 낮다. 대인신뢰도가 높을수록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마찰이 적고, 이에 따라 불안요소가 적게 발생한다. 아울러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사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69.5%로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31.5%)보다 높았다(표 3-13). 사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비율은 청소년의 경우 55.8%로서, 성인이 청소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금까지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성인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는 편(86.9%)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UN이 발표한 2015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158개 국가 중 한국의 행복도가 47위라고 밝힌바 있다. 이것은 2013년도에 비해 6위가 낮아진 것으로, 이웃나라 일본(46위)에 비해서도 뒤쳐진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순위에 있는 국가는 수리남, 엘살바도르, 우즈베키스탄, 슬로바키아 등이며, 미국(15위), 영국(21위), 독일(26위), 프랑스(29위), 대만(38위) 등은 상당히 앞서 있다.[4](표 3-13)

4) 연합뉴스. (2015. 04. 24), 한국, 행복지수 158개국 중 47위...1위 스위스.

〈표 3-13〉 성인들의 삶에 대한 행복도 및 대인신뢰도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합 계		7,000	100.0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도	매우 불행함	19	0.3
	불행함	895	12.8
	행복함	5,868	83.8
	매우 행복함	217	3.1
대인신뢰	전혀 신뢰할 수 없음	75	1.1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	2,131	30.4
	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	4,738	67.7
	매우 신뢰할 수 있음	55	0.8

지금까지 살펴본 요인들이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아존중감 점수를 10점대, 20점대, 30점 이상으로 구분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의 정도 점수를 산출해 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10점대인 집단은 불안 점수가 8.0점, 20점대 집단은 5.8점, 30점대 집단은 5.0점 등으로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불안 점수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모든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집단에 걸쳐 전반적으로 성인의 불안점수가 높았다.

이상적인 목표 달성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집단과 높은 평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을 구분해 보면, 목표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불안점수는 5.7점, 목표달성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5.2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는 목표달성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불안점수가 5.8점, 그렇지 않은 집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4/0200000000AKR20150424061051009.HTML 에서 2015. 10. 19 인출.

의 불안점수는 4.1점으로 나타나 성인과 청소년 간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 계층상승의 가능성,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도, 대인신뢰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사회적 계층이 최하위 또는 하위계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불안점수는 5.9점, 중위계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불안점수는 5.2점, 상위 또는 최상위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불안점수는 4.8점으로 나타나 자신의 사회계층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불안점수가 낮았다.

계층상승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불안점수는 5.6점,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불안점수는 5.1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신의 삶에 대해 불행한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불안점수는 6.6점, 행복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불안점수는 5.2점으로 나타나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불안점수가 낮았다.

마지막으로, 대인신뢰도가 높은 집단의 불안점수는 5.8점, 대인신뢰도가 낮은 집단의 불안점수는 5.2점으로서 대인신뢰도가 높을수록 불안점수가 낮았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집단간 불안점수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점수도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점수와 마찬가지로 각 집단 간에 비슷한 양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4).

〈표 3-14〉 성인들의 자아존중감, 대인신뢰도 및 행복도와 불안점수[1)]

(단위: 점)

구분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정도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불안정도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자아존중감[2)]	10~19점	8.0±1.62	F=186.92***	6.7±1.68	F=34.68***
	20~29점	5.8±1.72		5.8±1.54	
	30점 이상	5.0±1.91		5.5±1.73	
이상적인 목표 달성 가능성	낮은 편	5.7±1.82	T=11.09***	5.6±1.61	T=-0.58
	높은 편	5.2±1.89		5.6±1.69	
자신의 현재 사회적 계층	최하위 또는 하위	5.9±1.80	F=122.58***	5.7±1.67	F=5.15**
	중위	5.2±1.80		5.6±1.61	
	상위 또는 최상위	4.8±2.17		5.5±1.86	
계층 상승 가능성	낮은 편	5.6±1.82	T=11.12***	5.6±1.63	T=0.54
	높은 편	5.1±1.90		5.6±1.69	
삶에 대한 행복	불행한 편	6.6±1.54	T=24.71***	6.0±1.54	T=7.68***
	행복한 편	5.2±1.85		5.6±1.67	
대인 신뢰	신뢰할 수 없는 편	5.8±1.77	T=12.52***	5.8±1.55	T=7.00***
	신뢰할 수 있는 편	5.2±1.89		5.5±1.69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Rosenberg 척도
3) * : p〈0.05, ** : p〈0.01, *** : p〈0.001

3. 개인건강 및 생활행태

개인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와 관련한 변수로는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흡연, 수면 등을 고려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행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변수이기도 하지만 결과변수이기도 하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음주나 흡연 등 건강관련 행태가 건전하지 못할수록, 수면을 적절하게 취하지 못할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사회·심리적 불안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음주나 흡연, 부적절한 수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관련 변수와 건강행태를 원인변수로 간주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65.5%였으며, 연령별로는 남성이 68.6%, 여성이 62.6%였다.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다 또는 매우 좋다는 비율은 청소년 조사에서도 53.4%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비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2005년에 남성과 여성이 각각 52.0%,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었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낮아져 2013년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38.1%, 32.1%였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 p.35)(표 3-15).

〈표 3-15〉 성인들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총 계	7,000	100.0
매우 나쁨	21	0.3
나쁨	461	6.6
보통	1,928	27.5
좋음	3,839	54.8
매우 좋음	750	10.7

흡연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는지를 조사하였는데, 흡연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5.7%였다. 연령별로는 남성이 68.7%, 여성이 3.3%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비교하면 남성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남성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3년 42.1%였고, 여성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여 2013년 6.2%였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 p.23).

술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19세 이상 성인 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경우가 17.2%인 점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음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알코올에

대한 의존 정도를 AUDIT-K로 평가한 결과, 정상군은 60.8%로 적었다. 위험음주군(38.4%)과 알코올중독군(0.8%)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과 관련하여서는, 7시간미만이 27.9%, 7시간이 37.9%로서 65.8%가 7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심리적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횟수에 대해서는 없는 경우가 68.7%였으며, 월 1~2회가 24.4%로 나타났다(표 3-16).

〈표 3-16〉 성인들의 생활습관 및 행태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총 합계		7,000	100.0
흡연경험[1]	있음	2,499	35.7
	없음	4,501	64.3
흡연량	소계	2,499	100.0
	매일 피움	1,634	65.4
	가끔 피움	74	2.9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790	31.6
음주경험[2]	없음	1,207	17.2
	있음	5,793	82.8
알코올 중독[3]	소계	5,793	100.0
	정상군	3,525	60.8
	위험음주군	2,224	38.4
	알코올중독	44	0.8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7시간미만	1,953	27.9
	7시간	2,652	37.9
	8시간	1,955	27.9
	9시간 이상	440	6.3
최근 3개월간 심리적 불안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한 횟수	없음	4,812	68.7
	월 1~2회	1,707	24.4
	주 1~2회	387	5.5
	주 3~4회	62	0.9
	거의 매일	32	0.5

주: 1)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5갑(100개비) 이상의 흡연 경험
2)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경험
3) AUDIT-K로 평가한 알코올 의존 정도

지금까지 살펴본 건강상태와 건강행태별로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를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집단에서는 불안점수가 6.1점, 보통이라는 집단에서는 5.7점, 좋다는 집단에서는 5.2점으로 나타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도 낮았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청소년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집단에서는 불안점수가 6.0점, 보통이라는 집단에서는 5.2점, 좋다는 집단에서는 4.1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점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양상은 유사하였다. 흡연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집단의 불안점수가 5.5점, 없는 집단의 불안점수가 5.3점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알코올 중독 여부에 따라서는 정상군의 사회·심리적 불안점수가 5.3점, 위험음주군의 불안점수는 5.5점, 알콜 중독군의 불안점수는 7.1점으로 집단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점수도 정상군의 경우 5.6점, 위험음주군의 경우 5.7점, 알콜 중독군의 경우 6.4점으로 다른 특성에 따른 집단 간이 차이보다 그 차이의 폭이 컸다.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수면 시간에 따라서는 5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집단의 불안점수가 5.8점, 6~8시간 수면을 취하는 집단의 불안점수가 5.4점으로서 5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집단의 불안점수가 높았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점수도 5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집단에서 높았다(표 3-17).

〈표 3-17〉 성인의 개인건강 및 생활습관·행태와 불안[1)]

(단위: 점)

구 분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정도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불안정도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주관적 건강상태	나쁜 편	6.1±1.88	F=95.64***	5.8±1.59	F=9.46***
	보통	5.7±1.70		5.7±1.53	
	좋은 편	5.2±1.90		5.6±1.71	
흡연경험	있음	5.5±1.86	T=3.14**	5.6±1.63	T=0.34
	없음	5.3±1.88		5.6±1.67	
알코올 중독	정상군	5.3±1.85	F=21.08***	5.6±1.65	F=6.66**
	위험음주군	5.5±1.89		5.7±1.62	
	알코올중독	7.1±1.75		6.4±1.73	
최근 3개월 평균 수면시간	5시간 이하	5.8±2.07	F=10.14***	6.0±1.81	F=8.81***
	6~8시간	5.4±1.86		5.6±1.64	
	9시간 이상	5.6±1.90		5.7±1.72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 p〈0.05, ** : p〈0.01, *** : p〈0.001

4.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지가 불안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누군가로부터 받는 관심, 정서적 지원은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키며(김정민·이정희 2008, p.1761), 가정환경에서 심리·정서적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 외 주변의 지지가 뒷받침되면 긍정적인 작용이 일어난다(유봉애·옥경희 2013, p.515). 특히 다양한 삶의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더 많은 불안요소에 노출되는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심리적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은 감소한다.

사회적 지지는 계량적 척도를 통해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비록 측

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산출되는 수치의 절대적 수준에 대한 해석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사회적 지지 수준을 0점(전혀 받고 있지 않음)~10점(매우 많이 받고 있음)까지의 점수로 측정해 본 결과 주관적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평균 6.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6.0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사회적 지지 정도 점수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세 및 20대에서는 6.6점인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5.6점으로 나타나 고령층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낮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인혼·사별의 경우 5.4점으로 타 집단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육체노동자가 비육체 노동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아울러 임시직의 경우 정규직 등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는 일맥상통하지만 다소 다른 유형의 질문으로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이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좀 더 구체화하여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라는 상황을 부여하고 이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0점(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10점(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측정해 본 결과 평균 6.4점으로, 청소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연령별로는 19세 및 20대의 경우 6.6점, 70대 이상 5.8점 등으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이혼·사별의 경우 점수가 낮았으며, 육체노동자가 비육체 노동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임시직의 경우에도 정규직 등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평소에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는데, 신뢰할만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사회적 자본이 많이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였다. 마음을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상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0점(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전혀 없음)~10점(상의할 수 있는 사람 매우 많음)으로 측정해 본 결과 평균 6.2점이었다. 이는 청소년 조사에서의 5.5점에 비해 높은 점수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보면, 역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이혼·사별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았으며, 육체노동자가 비육체 노동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경우에도 임시직이 정규직 등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표 3-18).

〈표 3-18〉 성인의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자본

(단위: 점)

구 분		사회적 지지 정도[1]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2]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상대[3]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전 체		6.3±1.52		6.4±1.44		6.2±1.50	
성별	남성	6.3±1.51	T=-0.11	6.3±1.46	T=-3.53***	6.1±1.51	T=-3.07**
	여성	6.3±1.52		6.4±1.41		6.2±1.48	
연령별	19~29세	6.6±1.46	F=55.45***	6.6±1.44	F=28.58***	6.4±1.43	F=33.10***
	30~39세	6.6±1.39		6.5±1.36		6.4±1.45	
	40~49세	6.4±1.46		6.4±1.36		6.2±1.42	
	50~59세	6.3±1.47		6.4±1.37		6.2±1.47	
	60~64세	6.0±1.60		6.2±1.53		6.1±1.55	
	65~69세	5.9±1.53		6.2±1.54		5.9±1.57	
	70세 이상	5.6±1.64		5.8±1.58		5.6±1.64	
지역별	동	6.3±1.52	T=-1.23	6.4±1.46	T=-2.54*	6.2±1.51	T=-2.31*

구 분		사회적 지지 정도[1]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2]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상대[3]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읍·면	6.4±1.54		6.5±1.32		6.3±1.44	
세대별	1세대	6.0±1.59	F=81.71***	6.1±1.54	F=53.79***	5.9±1.60	F=41.72***
	2세대	6.5±1.45		6.5±1.38		6.3±1.44	
	3세대	6.4±1.68		6.4±1.46		6.1±1.57	
혼인 상태별	미혼	6.6±1.46	F=106.89***	6.5±1.43	F=36.59***	6.3±1.47	F=47.51***
	유배우	6.4±1.48		6.4±1.41		6.2±1.47	
	별거·이혼·사별	5.4±1.78		5.9±1.65		5.6±1.76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6.4±1.44	F=20.91***	6.5±1.37	F=10.12***	6.3±1.39	F=10.18***
	비맞벌이	6.3±1.49		6.3±1.43		6.1±1.52	
	비해당	5.7±1.52		6.0±1.55		5.9±1.54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6.8±1.32	F=90.53***	6.6±1.29	F=35.05***	6.4±1.36	F=36.30***
	육체노동자	6.2±1.50		6.3±1.44		6.1±1.49	
	무직	6.2±1.61		6.3±1.51		6.1±1.57	
근로 형태별	정규직	6.6±1.40	F=37.56***	6.5±1.34	F=24.54***	6.3±1.41	F=16.66***
	임시직	5.9±1.56		6.0±1.55		5.9±1.54	
	자영업	6.3±1.48		6.4±1.39		6.2±1.46	
	기타	6.0±2.18		6.3±1.99		5.6±1.91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5.9±1.67	F=103.10***	5.9±1.67	F=47.75***	5.7±1.67	F=51.69***
	19~59세 고졸	6.2±1.49		6.3±1.40		6.1±1.48	
	19~59세 대재이상	6.7±1.37		6.6±1.34		6.4±1.38	
	60세 이상 초졸	5.4±1.65		5.9±1.61		5.6±1.65	
	60세 이상 중졸	5.7±1.54		5.9±1.56		5.7±1.55	
	60세 이상 고졸이상	6.2±1.58		6.2±1.51		6.0±1.61	
소득별	200만원 미만	5.5±1.64	F=199.56***	5.8±1.63	F=98.98***	5.6±1.65	F=84.95***
	200~400만원 미만	6.3±1.45		6.3±1.41		6.1±1.52	
	400~600만원 미만	6.6±1.38		6.6±1.31		6.4±1.35	
	600만 원 이상	7.1±1.41		6.8±1.36		6.6±1.38	
종교활동	하지 않음	6.3±1.51	T=-0.36	6.4±1.43	T=-0.96	6.2±1.49	T=-0.59
	하고 있음	6.3±1.55		6.4±1.47		6.2±1.52	

주: 1) 0점(사회적 지지를 전혀 받지 않고 있음) ~ 10점(사회적 지지를 매우 많이 받고 있음)으로 측정한 점수
2) 0점(도움을 받을 가능성 전혀 없음) ~ 10점(도움을 받을 가능성 매우 높음)으로 축정한 점수
3) 0점(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전혀 없음) ~ 10점(상의할 수 있는 사람 매우 많음)으로 측정한 점수
4) * : p〈0.05, ** : p〈0.01, *** : p〈0.001

평소에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는지 파악해보았다. 의사소통은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기본적인 틀 하에서 실제 정서적·

심리적 교감을 가지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사소통은 개인이 느끼는 사회·심리적 불안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 넓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별도로 파악해 보았다.

의사소통의 정도를 0점(전혀 없음)~10점(매우 많음)까지의 점수로 조사하는데, 이 경우도 소통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소통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과의 소통점수는 6.8점, 가족이외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점수는 6.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의 소통점수가 6.0점, 친구들과의 소통점수가 7.1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청소년의 경우는 가족보다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성인은 주변사람들보다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의사소통 점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즉, 19세 및 20대의 소통점수는 7.1점인데 비해, 60~64세 6.5점, 65~69세 6.4점, 70대 이상 6.0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가족과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도 적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 6.9점, 유배우 6.8점, 별거·이혼·사별 5.9점 등으로 별거·이혼·사별 등의 의사소통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주변사람들과의 의사소통점수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및 20대의 경우 7.0점, 60~64세 6.3점, 65~69세 6.2점, 70대 이상 5.8점 등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경우 가족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과도 의사소통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9).

〈표 3-19〉 성인의 가족 및 주변사람과의 소통정도[1)]

(단위: 점)

구분		가족과의 소통 정도		가족 이외 주변사람과의 소통 정도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전 체		6.8±1.45		6.6±1.46	
성별	남성	6.8±1.49	T=-2.54*	6.6±1.48	T=-1.82
	여성	6.8±1.39		6.6±1.44	
연령별	19~29세	7.1±1.36	F=70.00***	7.0±1.41	F=82.09***
	30~39세	7.1±1.30		6.9±1.34	
	40~49세	6.9±1.34		6.7±1.33	
	50~59세	6.8±1.35		6.6±1.34	
	60~64세	6.5±1.54		6.3±1.46	
	65~69세	6.4±1.62		6.2±1.59	
	70세 이상	6.0±1.66		5.8±1.70	
지역별	동	6.8±1.45	T=-2.42*	6.6±1.48	T=-2.35*
	읍·면	6.9±1.41		6.7±1.35	
세대별	1세대	6.4±1.64	F=105.48***	6.3±1.59	F=84.72***
	2세대	7.0±1.33		6.8±1.37	
	3세대	6.9±1.53		6.5±1.68	
혼인 상태별	미혼	6.9±1.44	F=98.14***	7.0±1.42	F=120.66***
	유배우	6.8±1.37		6.6±1.41	
	별거·이혼·사별	5.9±1.84		5.8±1.73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7.0±1.32	F=27.38***	6.7±1.38	F=14.48***
	비맞벌이	6.8±1.38		6.5±1.43	
	비해당	6.3±1.76		6.3±1.58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7.2±1.23	F=76.15***	7.0±1.29	F=66.88***
	육체노동자	6.7±1.43		6.5±1.42	
	무직	6.6±1.55		6.5±1.57	
근로 형태별	정규직	7.0±1.30	F=29.60***	6.8±1.35	F=25.00***
	임시직	6.5±1.49		6.3±1.48	
	자영업	6.8±1.41		6.6±1.40	
	기타	6.7±2.28		6.5±1.55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6.2±1.80	F=102.82***	5.9±1.51	F=111.08***
	19~59세 고졸	6.8±1.36		6.6±1.39	
	19~59세 대재이상	7.1±1.28		7.0±1.31	
	60세 이상 초졸	6.0±1.73		5.9±1.70	
	60세 이상 중졸	6.1±1.58		5.9±1.63	
	60세 이상 고졸이상	6.5±1.54		6.3±1.51	
소득별	200만원 미만	6.0±1.76	F=221.89***	5.9±1.68	F=178.61***
	200~400만원 미만	6.7±1.38		6.6±1.44	
	400~600만원 미만	7.1±1.22		6.9±1.26	
	600만 원 이상	7.6±1.16		7.2±1.30	
종교활동	하지 않음	6.8±1.44	T=1.55	6.6±1.45	T=0.97
	하고 있음	6.8±1.45		6.6±1.50	

주: 1) 0점(소통 전혀 없음) ~ 10점(소통 매우 많음)으로 측정한 점수
2) * : p〈0.05, ** : p〈0.01, *** : p〈0.001

지금까지 언급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한 인식, 가족 및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정도 등에 따라 사회·심리적 불안의 점수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의 각각의 변수들은 0~10점의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이 점수에 대해 절대적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단 간 비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측정된 값을 바탕으로 임의적으로 등급을 구분해 보았는데, 이 등급은 단순히 비교만을 위한 등급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우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점수는 0~4점, 5~7점, 8~10점 등 3등급으로 구분해 보았으며,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한 인식, 가족 및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정도 등은 0~5점, 6~10점 등 2등급으로 구분해 보았다.

사회적 지지 정도에 대한 인식 점수가 0~4점인 집단의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5.9점, 5~7점인 집단은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5.5점, 8~10점인 집단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는 4.9점 등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인식할수록 사회·심리적 불안도 낮게 나타났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점수가 0~5점인 집단의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5.7점, 6~10점인 집단의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5.3점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에서와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한 인식점수가 0~5점인 집단의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5.6점, 6~10점인 집단의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5.3점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점수가 0~5점인 집단의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5.8점, 6~10점인 집단의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5.3점으

로 나타났으며, 주변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점수가 0~5점인 집단의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5.7점, 6~10점인 집단의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5.3점으로 나타나 의사소통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등급 간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0).

〈표 3-20〉 성인의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자본과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1)]

(단위: 점)

구 분		자신의 삶의 불안정도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사회적 지지 정도[2)]	0~4점	5.9±1.96	F=98.52***
	5~7점	5.5±1.72	
	8~10점	4.9±2.13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2)]	0~5점	5.7±1.76	T=8.23***
	6~10점	5.3±1.90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상대[2)]	0~5점	5.6±1.78	T=5.92***
	6~10점	5.3±1.90	
가족과의 소통 정도[2)]	0~5점	5.8±1.77	T=8.69***
	6~10점	5.3±1.88	
가족 이외 주변사람과의 소통 정도[2)]	0~5점	5.7±1.80	T=7.65***
	6~10점	5.3±1.88	

주: 1)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0점 ~ 10점으로 측정한 점수
3) * : p〈0.05, ** : p〈0.01, *** : p〈0.001

5. 범죄피해·트라우마 경험

본 연구에서의 사회·심리적 불안은 정신의학적 진단에 의한 불안장애를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요소로부터 개인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게 느껴지는지를 의미한다.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건이 공황 장애, 사회공포증, 강박증 등 여러 가지 불안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개인은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안장애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다 불안감을 갖게 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 피해 경험과 트라우마에 따른 사회·심리적 불안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였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7.4%였다.

이를 청소년과 비교해 보면, 청소년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범죄의 피해를 당해 본 경험률이 5.2%, 일생동안의 트라우마 경험률이 16.4%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성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차이나 외부적 충격을 받아들이는 정신적 태도나 자세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청소년들의 경우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친구들과 다투었거나 하는 등의 사소한 경험들을 범죄의 경험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로부터 오는 정신적 충격도 성인들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짐작된다(표 3-21).

〈표 3-21〉 성인의 범죄 피해 및 트라우마 경험률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합계		7,000	100.0
범죄 피해	있음	274	3.9
	없음	6,454	92.2
	잘 모르겠음	271	3.9
트라우마	있음	519	7.4
	없음	6,481	92.6

범죄 피해와 트라우마 경험에 따라 사회·심리적 불안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범죄피해 경험에 따라서 불안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범죄 피해 경험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응답을 회피한 경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이 5.8점으로 범죄피해가 없었던 경우가 5.4점인 것에 비해 높다. 트라우마는 개인의 불안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트라우마를 경험한 경우가 5.8점으로 경험하지 않는 경우보다 0.4점 높았다(표 3-22).

〈표 3-22〉 성인의 범죄 피해 및 트라우마 경험과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1)]

(단위: 점)

구 분		자신의 삶의 불안정도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범죄 피해	있음	5.8±0.11	F=0.85
	없음	5.4±0.03	
	잘 모르겠음	5.7±0.11	
트라우마	있음	5.8±0.09	T=18.56***
	없음	5.4±0.03	

주: 1) * : p〈0.05, ** : p〈0.01, *** : p〈0.001

제3절 성인의 사회·심리적 영향요인과 불안의 다변량 분석

1. 성인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요인 간 상관분석

청소년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경제적 특성들과 개인의 삶에 대한 불안,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의 변수들에 대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변량 분석에 독립변수로 포함되어야 할 변수가 매우 많다. 따라서 이 변수들을 일시에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기보다는 교차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던 변수들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우선 이 변수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0-order corre-

lation) 분석을 실시한 다음 다중공선성 등을 고려하여 독립변수로 포함할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독립변수로 반영해야 할 변수들이 매우 많아 편의상 세부 영역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변수들을 일차적으로 선별한 다음 최종적으로 이 변수들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맞벌이 유무, 직업유무, 가구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인간관계(가족·이웃·직장에서의 관계), 자아존중감, 목표 달성 가능성, 가정의 사회적 계층수준, 가정·학교·직장 등에 대한 소속감,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사회 평등정도, 사람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정도, 신체적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사회적 지지, 가족끼리 소통정도, 가족이외의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정도, 주변으로부터의 도움 정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노후준비 등의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가 높게 산출된 일부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았으며(r=0.590), 사회적 계층이 높을수록 목표달성 가능성이 높았다(r=0.494).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을수록 목표달성 가능성이 높았고(r=0.726),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속하였다(r=0.481).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며(r=0.502),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r=0.595). 가족과의 소통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r=0.510),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이 많을수록 가족과의 소통이 많았다(r=0.633). 평소 어려움에 처한 경우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주변사람들과 소통이 많았으며(r=0.565),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634)(표 3-23).

〈표 3-23〉 성인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

구분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개인특성	성별[1]																														
	연령별[2]	-.051*																													
	혼인상태구분[3]	.082**	-.671*																												
	맞벌이 여부별[4]	.008	-.254*	.c																											
	직업유무[5]	-.347*	.161**	.024	-.593*																										
	학력[6]	.179**	-.701*	.335**	.207**	-.264*																									
	가구소득[7]	.043**	-.456*	.176**	.334**	-.260*	.590**																								
가족/지역 사회와의 관계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정도[8]	-.029*	-.116*	-.003	.034*	-.007	.175**	.188**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원만정도[9]	.001	-.006	-.030*	.011	.c	.057**	.087**	.331**																						
	이웃주민들과의 원만정도[10]	-.104*	.133**	-.143*	-.014	.049**	-.053*	-.012	.253**	.295**																					
	가족과의 활동[11]	-.063*	-.169*	-.159*	.083**	-.038*	.254**	.285**	.269**	.123**	.072**																				
자아의식/ 대인신뢰도/ 행복지수	자아존중감[12]	.024*	-.126*	.041**	.062**	-.077*	.175**	.201**	.229**	.188**	.095**	.186**																			
	목표달성가능성[13]	.057**	-.466*	.243**	.150**	-.161*	.455**	.379**	.201**	.138**	.038**	.163**	.207**																		
	사회적 계층[14]	.002	-.213*	.044**	.074**	-.079*	.345**	.413**	.211**	.114**	.101**	.179**	.186**	.494**																	
	계층상승 가능성[15]	.038**	-.481*	.264**	.137**	-.141*	.445**	.386**	.184**	.107**	.028*	.177**	.207**	.726**	.481**																
	가정, 학교, 직장 소속감[16]	.051**	-.270*	.060**	.137**	-.173*	.317**	.327**	.219**	.165**	.082**	.225**	.264**	.373**	.314**	.377**															
	삶의 행복정도[17]	-.010	-.169*	-.002	.051**	-.044*	.232**	.243**	.337**	.249**	.185**	.252**	.279**	.330**	.351**	.327**	.343**														
	사회평등정도[18]	-.050*	-.031*	-.007	.000	.011	.091**	.127**	.136**	.119**	.177**	.052**	.137**	.232**	.299**	.237**	.162**	.318**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19]	-.050*	-.029*	-.009	.016	-.003	.073**	.090**	.169**	.150**	.195**	.045**	.128**	.227**	.247**	.238**	.193**	.338**	.491**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20]	-.045*	-.048*	-.012	.018	-.022	.104**	.157**	.187**	.170**	.190**	.103**	.160**	.234**	.244**	.245**	.188**	.299**	.502**	.595**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21]	-.048*	-.031*	-.013	.037**	-.009	.081**	.077**	.132**	.112**	.162**	.041**	.110**	.189**	.211**	.188**	.142**	.265**	.492**	.500**	.510**										
개인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신체적 건강상태[22]	.091**	-.482*	.260**	.146**	-.179*	.456**	.380**	.234**	.144**	.025*	.217**	.277**	.410**	.285**	.425**	.330**	.338**	.170**	.183**	.245**	.146**									
사회적지지 및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지[23]	-.001	-.201*	.061**	.046**	-.069*	.260**	.291**	.266**	.170**	.146**	.240**	.289**	.299**	.270**	.282**	.311**	.330**	.204**	.192**	.289**	.166**	.331**								
	사회적 자본[24]	-.051*	.103**	-.065*	-.023	.036**	-.029*	.046**	.127**	.107**	.169**	.051**	.188**	.067**	.148**	.070**	.063**	.180**	.210**	.216**	.193**	.190**	.068**	.155**							
	가족과의 소통[25]	-.022	-.245*	.112**	.065**	-.067*	.260**	.271**	.242**	.193**	.146**	.193**	.255**	.309**	.244**	.319**	.288**	.302**	.176**	.202**	.283**	.155**	.378**	.450**	.179**						
	주변사람들과의 소통[26]	-.030*	-.215*	.026*	.077**	-.085*	.256**	.305**	.343**	.172**	.136**	.288**	.278**	.303**	.260**	.306**	.312**	.331**	.146**	.170**	.287**	.138**	.358**	.510**	.140**	.633**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27]	-.042*	-.144*	.039**	.044**	-.027*	.177**	.211**	.253**	.198**	.196**	.203**	.231**	.270**	.238**	.271**	.229**	.308**	.231**	.221**	.322**	.214**	.280**	.488**	.177**	.565**	.520**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28]	-.037*	-.152*	.038**	.056**	-.043*	.188**	.197**	.243**	.191**	.190**	.196**	.224**	.274**	.240**	.273**	.211**	.303**	.272**	.266**	.362**	.248**	.283**	.442**	.187**	.549**	.491**	.634**			
사회 심리적 불안	노후준비[29]	-.004	.261**	-.314*	.035*	-.073*	-.184*	-.151*	-.094*	-.041*	-.024*	.030*	-.082*	-.223*	-.204*	-.229*	-.115*	-.129*	-.125*	-.118*	-.082*	-.100*	-.135*	-.072*	-.091*	-.093*	-.072*	-.063*	-.076*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30]	.024*	.069**	-.010	.018	-.016	-.121*	-.169*	-.206*	-.135*	-.100*	-.117*	-.214*	-.164*	-.198*	-.160*	-.190*	-.277*	-.147*	-.159*	-.123*	-.138*	-.166*	-.164*	-.158*	-.125*	-.174*	-.137*	-.106*	.312**	

주: 1) 변수: 성별(남자=1, 여자=0), 혼인상태(혼인=1, 미혼=0), 맞벌이 여부(예=1, 아니오=0), 직업유무(유=1, 무=0), 자아존중감감(C1-1~C1-10 변수 합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0~10), 사회적지지(0~10), 사회적 자본(2-1~2-7 변수 합계), 가족과의 소통(0~10), 주변사람들과의 소통(0~10),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 받는 정도(0~10),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0~10),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0~10)

2) *p〈0.05, **: p〈0.01, ***: p〈0.001

2.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사회·심리적 불안 영역의 다변량분석

개인의 삶에 대한 불안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특성, 그리고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정도,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원만정도, 이웃주민들과의 원만정도, 가족과의 활동, 이웃주민과의 활동, 직장동료와의 활동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통계치가 15.289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2는 0.044로서 횡단면 분석임을 고려하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회귀분석은 단순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를 사전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편의상의 분석이기 때문에 R^2 등의 진단통계치들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을 불안해하였으며,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불안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웃과의 관계는 자신의 삶의 불안과 관련이 없었는데, 일반적인 성인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 일상생활에서 이웃과의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의 원만함을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척도로 얼마나 활동의 빈도가 잦은가를 함께 평가하였으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정도와 가족, 이웃, 직장동료와의 활동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표 3-24).

〈표 3-24〉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Ⅰ)

항목	종속변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8.928	.410		21.802	.000
성	-.053	.074	-.014	-.721	.471
연령	-.001	.003	-.007	-.395	.693
맞벌이 여부	.113	.075	.029	1.500	.134
가구소득	-.168	.024	-.131	-7.065	.000

항목	종속변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정도	-.450	.079	-.106	-5.696	.000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원만정도	-.303	.102	-.056	-2.961	.003
이웃주민들과의 원만정도	-.095	.087	-.020	-1.102	.270
가족과의 활동	-.051	.043	-.024	-1.196	.232
이웃주민과의 활동	-.052	.038	-.025	-1.358	.175
직장동료와의 활동	.045	.037	.024	1.223	.221
R=0.210 R^2=0.044 F-statistic=15.289, p=0.000					

주: 성(남자=1, 여자=0), 맞벌이 여부(예=1, 아니오=0)

3. 자아존중감·대인신뢰도·행복지수와 사회·심리적 불안 영역의 다변량 분석

개인의 삶에 대한 불안을 종속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목표달성 가능성, 사회적 계층, 계층상승 가능성, 가정·학교·직장 소속감, 삶의 행복도, 사회평등도, 사람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 사회 안정성 등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며 유의확률 0.01을 기준으로 성, 연령, 목표달성가능성, 계층상승 가능성, 사회평등정도,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자존감이 높을수록, 본인의 사회적 계층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가정·학교·직장 소속감, 삶의 행복도,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5).

〈표 3-25〉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Ⅱ)

항목	종속변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12.018	.334		35.970	.000
성	.085	.051	.023	1.672	.095
연령	-.007	.003	-.042	-2.574	.010
맞벌이 여부	.240	.054	.064	4.402	.000
가구소득	-.078	.020	-.065	-3.914	.000
자아존중감	-.092	.008	-.164	-10.971	.000
목표달성가능성	-.017	.060	-.006	-.281	.779
사회적 계층	-.202	.050	-.069	-4.062	.000
계층상승 가능성	.055	.063	.018	.877	.380
가정, 학교, 직장 소속감	-.200	.050	-.062	-4.038	.000
삶의 행복정도	-.614	.077	-.125	-7.937	.000
사회평등정도	-.034	.056	-.010	-.605	.545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	-.206	.068	-.055	-3.044	.002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061	.023	.049	2.692	.007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	-.126	.060	-.036	-2.116	.034
$R=0.330$, $R^2=0.109$ F-statistic=42.233, p=0.000					

주: 성(남자=1, 여자=0), 맞벌이 여부(예=1, 아니오=0), 자아존중감(변수 합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0~10), 사회적 자본(변수 합산)

4. 사회적지지 및 사회적 자본과 사회·심리적 불안 영역의 다변량 분석

그 다음으로 개인의 특성,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정도, 사회적 자본의 크기, 가족과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정도 등이 자신의 삶의 불안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앞서 분석한 결과와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변수들과 불안과의 관련성은 최종 모형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과 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은 낮아졌다.

가족과의 소통이 많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었으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많아질 경우에는 불안이 반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나, 평소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변수는 개인의 불안정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3-26).

〈표 3-26〉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Ⅲ)

항목	종속변수 :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7.864	.234		33.538	.000
성	.051	.052	.014	.988	.323
연령	.000	.002	-.001	-.052	.958
맞벌이 여부	.217	.056	.058	3.911	.000
가구소득	-.135	.019	-.112	-6.944	.000
사회적 지지 인식정도	-.053	.021	-.042	-2.512	.012
사회적 자본	-.207	.018	-.163	-11.233	.000
가족 소통정도	-.149	.026	-.109	-5.668	.000
가족 외 주변사람 소통정도	.073	.026	.056	2.796	.005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 받는 정도	-.060	.026	-.045	-2.290	.022
평소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정도	.045	.024	.035	1.865	.062
R=0.257, R^2=0.066 F-statistic=34.281, p=0.000					

주: 성(남자=1, 여자=0), 혼인상태(혼인=1, 미혼=0), 맞벌이 여부(예=1, 아니오=0), 사회적지지(0~10), 사회적 자본(2-1~2-7 변수 합계), 가족과의 소통(0~10), 주변사람들과의 소통(0~10),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 받는 정도(0~10),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0~10)

5. 모든 영역의 변수를 고려한 다변량 분석

앞의 각 영역별 회귀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가구소득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대체로 자신의 삶에 분명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아지는 경향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구성원들과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의 원만함은 개인의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사회적 계층수준이 높고, 가정·학교·직장에서의 소속감, 삶의 행복도가 높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점수가 낮을수록, 주변과의 소통이 빈번할수록 불안을 증가시켰다.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변수 중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은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후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3-27).

〈표 3-27〉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Ⅳ)

항목	종속변수 :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확률
(상수)	12.071	.450		26.842	.000
성별	-.057	.070	-.015	-.803	.422
연령별	-.003	.003	-.018	-1.021	.307
맞벌이 여부별	.091	.073	.024	1.247	.212
가구소득	-.092	.024	-.072	-3.792	.000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정도	-.180	.078	-.043	-2.299	.022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원만정도	-.129	.097	-.024	-1.328	.184
자아존중감	-.075	.011	-.134	-7.083	.000
사회적 계층	-.173	.055	-.059	-3.163	.002
가정, 학교, 직장 소속감	-.211	.061	-.063	-3.459	.001
삶의 행복정도	-.490	.095	-.098	-5.148	.000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	-.118	.079	-.032	-1.487	.137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071	.027	.058	2.661	.008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	-.086	.069	-.025	-1.245	.213
사회적 지지	.041	.025	.032	1.637	.102
사회적 자본	-.137	.022	-.110	-6.182	.000
가족과의 소통	-.069	.031	-.050	-2.222	.026
주변사람들과의 소통	.112	.030	.084	3.715	.000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	-.016	.028	-.012	-.552	.581
R=0.331, R^2=0.110 F-statistic=22.572, p=0.000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삶의 행복정도를 독립변수로 고려했을 때 R^2가 0.043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삶의 행복도가 사회·심리적 불안과 관련한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본, 가정·학교·직장의 소속감, 가구소득 등의 변수가 추가됨에 따른 R^2의 증가분이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행복도가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며, 이보다는 설명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본, 가정·학교·직장의 소속감, 가구소득 등도 주요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3-28).

〈표 3-28〉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V)

모형	항목	종속변수 :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1	(상수)	8.396	.250		33.607	.000	R=0.206, R^2=0.043 F-statistic=147.656, p=0.000
	삶의 행복정도	-1.028	.085	-.206	-12.151	.000	
2	(상수)	9.815	.294		33.433	.000	R=0.255, R^2=0.065 F-statistic=115.508, p=0.000
	삶의 행복정도	-.857	.086	-.172	-9.991	.000	
	자아존중감	-.555	.062	-.154	-8.936	.000	
3	(상수)	10.093	.294		34.336	.000	R=0.282, R^2=0.079 F-statistic=95.279, p=0.000
	삶의 행복정도	-.780	.086	-.157	-9.085	.000	
	자아존중감	-.471	.063	-.131	-7.507	.000	
	사회적 자본	-.154	.021	-.123	-7.163	.000	
4	(상수)	10.492	.302		34.691	.000	R=0.295, R^2=0.087 F-statistic=78.956, p=0.000
	삶의 행복정도	-.680	.088	-.137	-7.767	.000	
	자아존중감	-.419	.063	-.116	-6.616	.000	
	사회적 자본	-.155	.021	-.124	-7.239	.000	
	가정, 학교, 직장 소속감	-.307	.058	-.091	-5.262	.000	
5	(상수)	10.581	.302		34.981	.000	R=0.303, R^2=0.092 F-statistic=66.887, p=0.000
	삶의 행복정도	-.645	.088	-.130	-7.353	.000	
	자아존중감	-.399	.063	-.111	-6.311	.000	
	사회적 자본	-.151	.021	-.121	-7.088	.000	
	가정,학교,직장 소속감	-.255	.059	-.076	-4.296	.000	
	가구소득	-.092	.022	-.072	-4.133	.000	

제4절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위험

본 절에서는 앞선 제2장의 제4절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위험”의 분석틀과 같은 분석내용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위험(risk)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심리적 불안이 정신건강 상의 위해 등 개인적 위기증상이나 범죄적 위험을 유발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기여하는 것은 분명한 만큼 이러한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개인적 위험으로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장애, 자살생각(suicide ideation),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건강을 고려하였으며, 사회적 위험으로는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을 고려하였다. 사회적 위험으로는 범죄 등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에 대해 파악해 보려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험을 응답자 개인에 대한 설문으로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만을 파악하였다.

한편,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진 변수들은 단순히 사회·심리적 불안 뿐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장애, 자살생각,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일탈 충동 등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정신건강 상의 위해나 사회적 일탈 충동 등은 사회·심리적 불안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인신뢰도, 자아존중감, 소속감,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도, 사회적지지, 사회적 자본, 의사소통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정신건강 상의 위해 등 개인적 위기증상과 사회적 위험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개인·사회적 위험

가.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심리적 불안이 적은 경우에 비해 높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요인(stressor) 발생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도 크다. 우선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성인이 34.7%, 매우 많이 느낀다는 성인이 3.2%로 나타났고,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매우 많이 느끼는 성인은 37.9%였다. 스

트레스를 조금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성인이 56.2%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90% 이상의 대부분 성인들이 스트레스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성인 계층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매우 많이 느끼고 있다는 비율이 약 40%에 이른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 성인들이 취업준비, 직장 내 갈등, 가정 내 갈등 등으로 인해 정신적 압박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들의 특성에 따라 세분해보면, 여자 성인보다 남자 성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매우 많이 느낀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연령대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비율과, 매우 많이 느낀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60세 이상의 경우 그 이전 연령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매우 많이 느낀다는 비율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이외 지역(동/읍·면), 가구구성 형태 등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표 3-29).

〈표 3-29〉 성인의 스트레스 정도

(단위: 명. %)

구분		총 합계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끼는 편임		많이 느끼는 편임		매우 많이 느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7,000	416	5.9	3,934	56.2	2,427	34.7	223	3.2
성별	남성	3,469	180	5.2	1,768	51.0	1,388	40.0	132	3.8
	여성	3,531	236	6.7	2,166	61.3	1,039	29.4	91	2.6
연령별	19~29세	1,275	70	5.5	696	54.6	460	36.1	49	3.8
	30~39세	1,304	38	2.9	694	53.2	528	40.5	45	3.5
	40~49세	1,443	52	3.6	769	53.3	575	39.9	47	3.3
	50~59세	1,383	63	4.6	749	54.2	518	37.5	52	3.8
	60~64세	541	42	7.8	360	66.6	125	23.1	13	2.4
	65~69세	288	36	12.6	183	63.7	63	22.0	5	1.6
	70세 이상	767	115	15.0	483	62.9	158	20.6	11	1.5

구분		총 합계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끼는 편임		많이 느끼는 편임		매우 많이 느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지역별	동	5,937	355	6.0	3,383	57.0	2,006	33.8	192	3.2
	읍·면	1,063	61	5.7	551	51.8	421	39.6	31	2.9
세대별	1세대	1,853	188	10.1	1,121	60.5	496	26.8	48	2.6
	2세대	4,900	213	4.4	2,669	54.5	1,853	37.8	165	3.4
	3세대	247	15	6.2	144	58.2	78	31.5	10	4.1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73	4.8	812	53.4	566	37.2	69	4.5
	유배우	5,004	287	5.7	2,863	57.2	1,717	34.3	137	2.7
	별거·이혼·사별	476	56	11.7	260	54.5	144	30.2	17	3.5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59	2.7	1,107	51.0	931	42.9	76	3.5
	비맞벌이	2,684	208	7.8	1,663	62.0	754	28.1	59	2.2
	비해당	148	21	13.8	94	63.0	32	21.5	2	1.6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38	2.4	801	50.2	702	44.0	54	3.4
	육체노동자	2,921	109	3.7	1,549	53.0	1,146	39.2	117	4.0
	무직	2,484	269	10.8	1,584	63.8	579	23.3	52	2.1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51	2.0	1,272	50.6	1,105	43.9	89	3.5
	임시직	648	36	5.6	313	48.3	260	40.1	39	6.0
	자영업	1,343	60	4.4	758	56.4	483	36.0	42	3.1
	기타	8	1	7.5	6	79.7	0	0.0	1	12.7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6	4.5	70	56.5	40	32.1	9	6.9
	19~59세 고졸	2,179	91	4.2	1,185	54.4	819	37.6	83	3.8
	19~59세 대재이상	3,101	126	4.1	1,652	53.3	1,221	39.4	102	3.3
	60세 이상 초졸	459	73	15.9	293	63.9	86	18.8	6	1.4
	60세 이상 중졸	550	61	11.0	353	64.1	125	22.7	12	2.2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60	10.2	381	64.9	135	23.0	11	1.9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134	11.5	703	60.6	286	24.6	37	3.2
	200~400만원 미만	2,735	132	4.8	1,547	56.6	980	35.8	77	2.8
	400~600만원 미만	2,525	109	4.3	1,366	54.1	967	38.3	84	3.3
	600만 원 이상	580	42	7.3	318	54.8	194	33.5	25	4.4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248	4.8	2,828	55.0	1,897	36.9	172	3.3
	하고 있음	1,855	168	9.1	1,106	59.6	529	28.5	51	2.8

사회·심리적 불안점수 그룹별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면,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0~3점인 집단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와 매우 많이 느낀다의 비율이 27.5%이고, 4~6점인 집단에서는 34.3%, 7~10점인 집단에서는 49.2%로 나타나 불안정도가 클수록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0).

〈표 3-30〉 성인의 사회적 불안점수와 스트레스 정도

(단위: 명, %)

자신 삶에 대한 불안정도	계	스트레스 정도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1,328	168	12.7	795	59.9	346	26.1	19	1.4	X^2= 341.395***
4~6점	3,396	167	4.9	2,063	60.7	1,098	32.3	68	2.0	
7~10점	2,275	81	3.6	1,075	47.3	983	43.2	136	6.0	

주: 1)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p〈0.05, **: p〈0.01, ***: p〈0.001

나.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우울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매우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데, 사회·심리적 불안도 그중 하나이다. 타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사회·심리적 불안 효과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분석이 필요하나 이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교차분석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이다. CES-D는 지난 일주일간 경험한 우울 증상에 대해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척도로, 본 조사에서는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각 응답항목에 대해 '극히 드물다' 0점, '가끔 있었다' 1점, '종종 있었다' 2점, '대부분 그랬다' 3점으로 점수화하여, 16점 미만일 경우 정상군으로, 16점 이상일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해석하였다. 조사 결과 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9%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그런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군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70세 이상 노인에서 12.2%로 나타나 후기 노인의 우울 문제가 두드러졌다. 또한 불안정

한 결혼상태인 경우, 무직인 경우, 정시직보다 임시직인 경우,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위험군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결과를 세분해서 볼 때, 집단 간 위험군 비율상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소득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경우 위험군의 비율이 10.1%이지만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위험군의 비율은 1.4%에 불과하였다(표 3-31).

우울척도 점수 결과에 따라 정상군과 위험군으로 나누지 않고 본 원 점수에 대한 결과도 앞선 정상군, 위험군으로 나누어 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표 3-32).

〈표 3-31〉 성인의 우울 증상 (2개 그룹)

(단위 : 명, %)

구분		총 합계	정상군		위험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7,000	6,726	96.1	274	3.9
성별	남성	3,469	3,351	96.6	118	3.4
	여성	3,531	3,375	95.6	156	4.4
연령별	19~29세	1,275	1,245	97.7	29	2.3
	30~39세	1,304	1,276	97.8	28	2.2
	40~49세	1,443	1,410	97.8	32	2.2
	50~59세	1,383	1,324	95.8	59	4.2
	60~64세	541	524	96.8	17	3.2
	65~69세	288	273	94.9	15	5.1
	70세 이상	767	674	87.8	93	12.2
지역별	동	5,937	5,705	96.1	232	3.9
	읍·면	1,063	1,020	96.0	43	4.0
세대별	1세대	1,853	1,733	93.5	120	6.5
	2세대	4,900	4,767	97.3	133	2.7
	3세대	247	226	91.4	21	8.6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1,483	97.5	37	2.5
	유배우	5,004	4,832	96.6	172	3.4
	별거·이혼·사별	476	411	86.3	65	13.7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2,107	97.0	65	3.0
	비맞벌이	2,684	2,590	96.5	94	3.5
	비해당	148	135	91.2	13	8.8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1,565	98.2	29	1.8
	육체노동자	2,921	2,822	96.6	99	3.4
	무직	2,484	2,337	94.1	146	5.9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2,463	97.9	54	2.1
	임시직	648	616	95.1	32	4.9
	자영업	1,343	1,301	96.8	43	3.2
	기타	8	8	100.0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111	89.7	13	10.3
	19~59세 고졸	2,179	2,106	96.6	73	3.4
	19~59세 대재이상	3,101	3,038	98.0	63	2.0
	60세 이상 초졸	459	400	87.3	58	12.7
	60세 이상 중졸	550	502	91.2	48	8.8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568	96.8	19	3.2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1,043	89.9	117	10.1
	200~400만원 미만	2,735	2,639	96.5	96	3.5
	400~600만원 미만	2,525	2,472	97.9	53	2.1
	600만 원 이상	580	572	98.6	8	1.4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4,943	96.1	202	3.9
	하고 있음	1,855	1,782	96.1	73	3.9

〈표 3-32〉 성인의 우울 증상 (원 점수)

(단위: 점)

구분		우울 증상 점수 평균±표준편차
전 체		6.6±4.44
성별	남성	6.4±4.38
	여성	6.8±4.50
연령별	19~29세	5.7±4.21
	30~39세	5.7±4.03
	40~49세	6.3±4.11
	50~59세	6.7±4.34
	60~64세	7.2±4.50
	65~69세	7.2±4.69
	70세 이상	9.0±5.12
지역별	동	6.6±4.47
	읍·면	6.5±4.31
세대별	1세대	7.5±4.84
	2세대	6.2±4.21
	3세대	7.4±4.76
혼인 상태별	미혼	5.9±4.32
	유배우	6.5±4.28
	별거·이혼·사별	9.3±5.38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6.1±4.15
	비맞벌이	6.7±4.31
	비해당	8.5±4.87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5.7±3.91
	육체노동자	6.5±4.34
	무직	7.1±4.79
근로 형태별	정규직	5.9±4.01
	임시직	7.6±4.71
	자영업	6.3±4.20
	기타	6.5±4.92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7.5±5.94
	19~59세 고졸	6.5±4.30
	19~59세 대재이상	5.8±4.00
	60세 이상 초졸	9.1±4.95
	60세 이상 중졸	8.4±5.12
	60세 이상 고졸이상	6.8±4.42
소득별	200만원 미만	8.7±5.17
	200~400만원 미만	6.4±4.31
	400~600만원 미만	6.0±4.02
	600만 원 이상	5.3±3.80
종교활동	하지 않음	6.4±4.45
	하고 있음	6.9±4.41

사회·심리적 불안점수 등급에 따라 어느 정도 우울정도를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면,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0~3점인 집단에서는 우울증상 위험군의 비율이 0.9%였으며, 4~6점인 집단에서는 2.2%, 7~10점인 집단에서는 8.2%로 나타나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33).

〈표 3-33〉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우울 정도

(단위: 명, %)

불안 점수 구분	계	우울				통계값
		정상군		위험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1,328	1,316	99.1	12	0.9	X^2=167.207***
4~6점	3,396	3,320	97.8	76	2.2	
7~10점	2,275	2,089	91.8	186	8.2	

주: 1)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p〈0.05, **: p〈0.01, ***: p〈0.001

다.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신의학적 측면의 불안장애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불안장애 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Zung 자가평가불안척도 SAS (20문항)를 사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여 보았다. 산출된 점수를 바탕으로 정상범위, 경증~중간 정도 불안, 심한 불안, 매우 심한 불안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아 정상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91.5%, 경증~중간 정도 불안 8.3%, 심한 불안 0.2% 등으로 나타났다.

심한 불안 또는 매우 심한 불안의 비율은 남자 성인의 경우 0.1%, 여자 성인의 경우 0.4%로서 여자 성인이 남자 성인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불안장애의 정상범위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 지역 및 세대, 가구구성 형태, 종교 활동 여부 등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표 3-34).

〈표 3-34〉 성인의 불안장애 등급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총 합계	정상범위		경증~중간정도 불안		심한 불안		매우 심한 불안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7,000	6,405	91.5	580	8.3	15	0.2	1	0.0
성별	남성	3,469	3,222	92.9	245	7.1	2	0.1	0	0.0
	여성	3,531	3,183	90.1	335	9.5	12	0.4	1	0.0
연령별	19~29세	1,275	1,213	95.1	62	4.9	0	0.0	0	0.0
	30~39세	1,304	1,250	95.9	52	4.0	1	0.1	0	0.0
	40~49세	1,443	1,344	93.2	98	6.8	1	0.0	0	0.0
	50~59세	1,383	1,269	91.8	111	8.0	3	0.2	0	0.0
	60~64세	541	459	84.8	82	15.1	0	0.1	0	0.0
	65~69세	288	255	88.6	31	10.9	1	0.5	0	0.0
	70세 이상	767	615	80.1	143	18.6	9	1.1	1	0.1
지역별	동	5,937	5,453	91.8	472	7.9	11	0.2	1	0.0
	읍·면	1,063	952	89.5	108	10.1	3	0.3	0	0.0
세대별	1세대	1,853	1,595	86.1	252	13.6	5	0.3	0	0.0
	2세대	4,900	4,582	93.5	310	6.3	7	0.1	1	0.0
	3세대	247	227	92.0	17	7.1	2	1.0	0	0.0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1,448	95.3	70	4.6	2	0.1	0	0.0
	유배우	5,004	4,572	91.4	422	8.4	10	0.2	0	0.0
	별거·이혼·사별	476	385	80.8	88	18.5	3	0.6	1	0.2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2,025	93.3	145	6.7	1	0.1	0	0.0
	비맞벌이	2,684	2,423	90.3	252	9.4	9	0.3	0	0.0
	비해당	148	124	83.3	25	16.7	0	0.0	0	0.0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1,533	96.2	61	3.8	0	0.0	0	0.0
	육체노동자	2,921	2,678	91.7	239	8.2	4	0.1	0	0.0
	무직	2,484	2,193	88.3	279	11.2	10	0.4	1	0.0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2,396	95.2	120	4.8	1	0.0	0	0.0
	임시직	648	574	88.6	73	11.2	1	0.2	0	0.0
	자영업	1,343	1,233	91.8	108	8.0	2	0.2	0	0.0
	기타	8	8	100.0	0	0.0	0	0.0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110	88.6	12	9.8	2	1.6	0	0.0
	19~59세 고졸	2,179	2,009	92.2	168	7.7	2	0.1	0	0.0
	19~59세 대재이상	3,101	2,957	95.4	143	4.6	0	0.0	0	0.0

구분		총 합계	정상범위		경증~중간정도 불안		심한 불안		매우 심한 불안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60세 이상 초졸	459	366	79.7	86	18.8	7	1.4	0	0.0
	60세 이상 중졸	550	438	79.7	107	19.5	4	0.7	1	0.1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524	89.3	63	10.7	0	0.0	0	0.0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949	81.8	199	17.2	11	1.0	1	0.1
	200~400만원 미만	2,735	2,509	91.7	223	8.2	3	0.1	0	0.0
	400~600만원 미만	2,525	2,380	94.3	144	5.7	0	0.0	0	0.0
	600만 원 이상	580	567	97.8	12	2.1	1	0.1	0	0.0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4,732	92.0	407	7.9	7	0.1	0	0.0
	하고 있음	1,855	1,673	90.2	173	9.3	8	0.4	1	0.0

사회·심리적 불안점수 등급에 따라 불안장애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면,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0~3점인 집단에서는 불안장애점수는 31.07점으로 나타났으며, 4~6점인 집단에서는 34.22점, 7~10점인 집단에서는 37.02점으로 나타나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불안장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불안장애 점수와 사회·심리적 불안의 점수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양 변수 간에 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3-35).

〈표 3-35〉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불안장애 등급

(단위: 점)

자신 삶에 대한 불안정도	계	불안장애	
		M±SD	통계값
0~3점	1,328	31.07±5.83	F=344.503***
4~6점	3,396	34.22±6.43	
7~10점	2,275	37.02±7.32	

주: 1) 사회·심리적 불안점수는 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p〈0.05, **: p〈0.01, ***: p〈0.001

라.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심리적 불안은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성인들의 자살생각 경험도 조사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과 단순히 죽고 싶다는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경우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자살생각에 대한 질문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설문조사에서 자살생각을 해본 경험자가 매우 적게 조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을 자살생각으로 해석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구체적으로 자살 계획을 세워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중 10.6%였고, 자살시도까지 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자살계획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2.9%로 나타났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55.0%)이나 가족갈등(33.1%)라고 하였다(표 3-36).

〈표 3-36〉 성인의 자살 생각 여부 및 이유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총 합계		434	100.0
자살 계획	예	46	10.6
	아니오	388	89.4
자살 시도	소계	46	100.0
	예	24	52.9
	아니오	22	47.1
자살시도 이유	소계	24	100.0
	경제적 어려움	13	55.0
	가족갈등	8	33.1
	현재 앓고 있는 질환	3	11.7

구분		인원	비율
	직장생활 (업무 및 대인관계 등)	2	9.3
	주변과의 단절(외로움)	2	9.5
	가족의 건강문제	1	5.3
	학업 및 취업문제(진로 등)	1	4.7
	가족해체(사별/이혼/자녀의 이민 등)	1	4.5
	생활환경문제 (거주 등)	1	4.1
	기타	1	4.4

〈표 3-37〉 성인의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단위: 명, %)

구분		총 합계	예		아니오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7,000	434	6.2	6,566	93.8
성별	남성	3,469	212	6.1	3,256	93.9
	여성	3,531	221	6.3	3,310	93.7
연령별	19~29세	1,275	56	4.4	1,219	95.6
	30~39세	1,304	49	3.8	1,255	96.2
	40~49세	1,443	87	6.1	1,355	93.9
	50~59세	1,383	97	7.0	1,286	93.0
	60~64세	541	35	6.5	506	93.5
	65~69세	288	25	8.8	262	91.2
	70세 이상	767	83	10.9	684	89.1
지역별	동	5,937	387	6.5	5,550	93.5
	읍·면	1,063	46	4.4	1,017	95.6
세대별	1세대	1,853	151	8.1	1,702	91.9
	2세대	4,900	263	5.4	4,638	94.6
	3세대	247	20	8.3	227	91.7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72	4.7	1,448	95.3
	유배우	5,004	271	5.4	4,733	94.6
	별거·이혼·사별	476	91	19.0	385	81.0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113	5.2	2,059	94.8
	비맞벌이	2,684	149	5.5	2,535	94.5
	비해당	148	10	6.6	139	93.4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68	4.3	1,526	95.7
	육체노동자	2,921	179	6.1	2,743	93.9
	무직	2,484	187	7.5	2,297	92.5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01	4.0	2,415	96.0
	임시직	648	70	10.8	578	89.2
	자영업	1,343	74	5.5	1,269	94.5
	기타	8	2	22.1	6	77.9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20	16.5	104	83.5
	19~59세 고졸	2,179	158	7.3	2,021	92.7
	19~59세 대재이상	3,101	111	3.6	2,989	96.4

구분		총 합계	예		아니오	
			인원	비율	인원	비율
	60세 이상 초졸	459	56	12.3	403	87.7
	60세 이상 중졸	550	54	9.8	496	90.2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34	5.7	553	94.3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146	12.6	1,015	87.4
	200~400만원 미만	2,735	166	6.1	2,569	93.9
	400~600만원 미만	2,525	108	4.3	2,416	95.7
	600만 원 이상	580	14	2.4	566	97.6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296	5.7	4,849	94.3
	하고 있음	1,855	138	7.4	1,717	92.6

사회·심리적 불안점수에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분포를 분석해 보면,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0~3점인 집단에서는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였으며, 4~6점인 집단에서는 3.8%, 7~10점인 집단에서는 타 집단보다는 높은 12.0%로 나타나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38).

〈표 3-38〉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여부

(단위: 명, %)

자신 삶에 대한 불안정도	계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1,328	25	1.9	1,303	98.1	X^2=223.450***
4~6점	3,396	128	3.8	3,268	96.2	
7~10점	2,275	280	12.0	1,995	87.7	

주: 1)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점수는 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p〈0.05, **: p〈0.01, ***: p〈0.001

마.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사회·심리적 불안은 범죄 등 사회적 일탈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지난 1년간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지난 1년간 사회적 일탈충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0%로 나타났으며, 여자 성인(6.3%)이 남자 성인(7.8%)보다 사회적 일탈충동 경험률이 낮았다.

또한 20대와(8.9%)와 40대(8.1%)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회적 일탈의 충동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특이한 점은 동지역 거주자(7.5%)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읍·면지역 거주자(4.3%)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며, 또한 근로형태별로 임시직 종사자(12.3%)가 정규직 종사자(6.3%)보다는 사회적 일탈 충동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3-39).

〈표 3-39〉 성인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단위: 명, %)

구분		총 합계	있음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7,000	492	7.0	6,508	93.0
성별	남성	3,469	271	7.8	3,198	92.2
	여성	3,531	221	6.3	3,310	93.7
연령별	19~29세	1,275	113	8.9	1,162	91.1
	30~39세	1,304	91	7.0	1,213	93.0
	40~49세	1,443	117	8.1	1,325	91.9
	50~59세	1,383	93	6.7	1,290	93.3
	60~64세	541	31	5.8	509	94.2
	65~69세	288	12	4.1	276	95.9
	70세 이상	767	35	4.5	733	95.5
지역별	동	5,937	446	7.5	5,491	92.5
	읍·면	1,063	45	4.3	1,017	95.7
세대별	1세대	1,853	106	5.7	1,747	94.3
	2세대	4,900	366	7.5	4,534	92.5
	3세대	247	20	8.2	227	91.8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134	8.8	1,386	91.2
	유배우	5,004	327	6.5	4,677	93.5
	별거·이혼·사별	476	31	6.6	444	93.4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146	6.7	2,026	93.3
	비맞벌이	2,684	171	6.4	2,513	93.6
	비해당	148	9	6.3	139	93.7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109	6.8	1,485	93.2
	육체노동자	2,921	235	8.0	2,686	92.0
	무직	2,484	148	6.0	2,335	94.0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72	6.8	2,344	93.2
	임시직	648	80	12.3	568	87.7

구분		총 합계	있음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자영업	1,343	89	6.7	1,254	93.3
	기타	8	3	33.8	5	66.2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12	9.4	112	90.6
	19~59세 고졸	2,179	174	8.0	2,005	92.0
	19~59세 대재이상	3,101	228	7.4	2,873	92.6
	60세 이상 초졸	459	21	4.5	438	95.5
	60세 이상 중졸	550	32	5.8	518	94.2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25	4.3	562	95.7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85	7.3	1,076	92.7
	200~400만원 미만	2,735	183	6.7	2,553	93.3
	400~600만원 미만	2,525	187	7.4	2,338	92.6
	600만 원 이상	580	37	6.4	542	93.6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393	7.6	4,752	92.4
	하고 있음	1,855	99	5.3	1,756	94.7

사회·심리적 불안점수 등급에 따라 일탈충동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면,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0~3점인 집단에서는 일탈충동경험을 느낀 적이 있다는 비율이 3.2%였고, 4~6점인 집단에서는 5.4%, 7~10점인 집단에서는 11.6%로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일탈충동 경험을 느낀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표 3-40).

〈표 3-40〉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여부

(단위: 명, %)

자신 삶에 대한 불안정도	계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통계값
		있음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1,328	43	3.2	1,285	96.8	X^2=115.072
4~6점	3,396	185	5.4	3,211	94.6	
7~10점	2,275	264	11.6	2,011	88.4	

주: 1) 0(전혀 불안하지 않음) ~ 10점(매우 불안함)으로 측정한 점수
2) *: p〈0.05, **: p〈0.01, ***: p〈0.001

바.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분노 조절

분노조절 장애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여기에도 사회·

심리적 불안이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평소 분노 조절이 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평소에 분노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절되는 편이라고 응답한 성인이 73.5%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 조절된다고 응답한 성인이 11.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분노조절이 잘되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분노조절이 잘 안 되는 편이라는 성인이 14.3%에 이르고, 전혀 조절되지 않는다는 성인도 0.5%에 달하였다.

분노조절이 전혀 조절되지 않는다 또는 조절되지 않는 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여자 성인보다 남자 성인에게서 높았으며, 특히 가구월 소득에서 저소득층인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에 다른 소득층들에 비해서 분노조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3-41).

〈표 3-41〉 성인의 본인의 분노조절

(단위: 명, %)

구분		총 합계	전혀 조절되지 않음		조절되지 않는 편임		조절되는 편임		매우 잘 조절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7,000	32	0.5	1,001	14.3	5,142	73.5	824	11.8
성별	남성	3,469	21	0.6	544	15.7	2,518	72.6	386	11.1
	여성	3,531	12	0.3	458	13.0	2,624	74.3	438	12.4
연령별	19~29세	1,275	8	0.6	186	14.6	872	68.4	209	16.4
	30~39세	1,304	6	0.5	168	12.9	971	74.4	159	12.2
	40~49세	1,443	3	0.2	197	13.7	1,088	75.4	154	10.7
	50~59세	1,383	4	0.3	193	14.0	1,034	74.8	151	10.9
	60~64세	541	4	0.8	79	14.7	409	75.5	49	9.0
	65~69세	288	3	1.1	39	13.6	215	74.8	30	10.5
	70세 이상	767	4	0.5	138	18.0	554	72.3	71	9.2
지역별	동	5,937	30	0.5	851	14.3	4,370	73.6	685	11.5
	읍·면	1,063	2	0.2	150	14.1	772	72.6	139	13.1
세대별	1세대	1,853	14	0.8	300	16.2	1,362	73.5	177	9.6
	2세대	4,900	18	0.4	674	13.8	3,598	73.4	610	12.4
	3세대	247	0	0.0	27	11.1	183	73.9	37	15.1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8	0.6	214	14.1	1,064	70.0	234	15.4
	유배우	5,004	23	0.5	717	14.3	3,719	74.3	545	10.9
	별거·이혼·사별	476	1	0.2	71	14.9	360	75.5	45	9.4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9	0.4	274	12.6	1,651	76.0	238	11.0
	비맞벌이	2,684	12	0.5	418	15.6	1,956	72.9	297	11.1

구분		총 합계	전혀 조절되지 않음		조절되지 않는 편임		조절되는 편임		매우 잘 조절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비해당	148	2	1.5	25	16.6	112	75.3	10	6.6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6	0.3	181	11.4	1,145	71.8	262	16.4
	육체노동자	2,921	17	0.6	458	15.7	2,171	74.3	275	9.4
	무직	2,484	9	0.4	363	14.6	1,825	73.5	287	11.5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0	0.4	307	12.2	1,861	73.9	339	13.5
	임시직	648	6	0.9	139	21.4	445	68.7	59	9.0
	자영업	1,343	7	0.5	192	14.3	1,005	74.9	138	10.3
	기타	8	0	0.0	1	12.7	5	65.2	2	22.1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0	0.0	30	24.0	83	66.6	12	9.4
	19~59세 고졸	2,179	13	0.6	311	14.3	1,640	75.2	216	9.9
	19~59세 대재이상	3,101	9	0.3	403	13.0	2,242	72.3	447	14.4
	60세 이상 초졸	459	3	0.6	80	17.5	347	75.6	29	6.3
	60세 이상 중졸	550	5	1.0	94	17.0	406	73.7	45	8.3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3	0.5	83	14.1	426	72.5	75	12.8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10	0.9	231	19.9	821	70.7	98	8.5
	200~400만원 미만	2,735	14	0.5	399	14.6	2,064	75.5	258	9.4
	400~600만원 미만	2,525	3	0.1	319	12.6	1,865	73.9	337	13.3
	600만 원 이상	580	5	0.9	53	9.1	391	67.5	131	22.6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27	0.5	739	14.4	3,777	73.4	603	11.7
	하고 있음	1,855	5	0.3	263	14.2	1,366	73.6	221	11.9

또한,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가 0~3점인 집단에서는 분노조절이 매우 잘 조절된다는 비율이 20.2%였고, 7~10점인 집단에서는 8.4%로 나타나, 불안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조절이 잘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3-42).

〈표 3-42〉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 점수와 분노 조절

(단위: 명, %)

불안 점수 구분	계	분노조절								통계값
		전혀 조절되지 않음		조절되지 않는 편임		조절되는 편임		매우 잘 조절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1,328	7	0.5	75	5.6	978	73.6	268	20.2	X^2=222.977***
4~6점	3,396	7	0.2	491	14.5	2534	74.6	364	10.7	
7~10점	2,275	18	0.8	435	19.1	1630	71.6	192	8.4	

주: *: p〈0.05, **: p〈0.01, ***: p〈0.001

2.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개인·사회적 위험

가.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와 개인·사회적 위험

성인을 대상으로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원만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가족관계 원만정도를 독립변수, 성인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기 위해 가족관계 원만정도를 응답에 따라 4개로 분류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가족구성원과 매우 원만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5.3%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15.22점, 불안장애 정도는 45.40점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가족구성원과의 원만정도가 매우 원만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2%,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즉,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스트레스에 덜 취약함을 알 수 있으며, 우울도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장애도 낮아졌다.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집단과 원만한 집단 간의 자살 생각은 특히나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가족 내의 부정적인 관계가 충동적인 사회적 일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3).

〈표 3-43〉 성인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의 원만함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7	2	11.8	1	5.9	8	47.1	6	35.3	X^2= 298.957***	15.22±6.50	F= 230.594***	42.40±8.68	F= 151.194***
그렇지 않다	400	16	4.0	169	42.3	164	41.0	51	12.8		11.36±5.41		40.85±8.23	
그렇다	5,599	291	5.2	3,161	56.5	2,016	36.0	131	2.3		6.43±4.21		34.39±6.73	
매우 그렇다	983	108	11.0	602	61.2	239	24.3	34	3.2		5.18±3.81		32.66±6.03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계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7	7	41.2	10	58.8	X^2= 303.187***	9	52.9	8	47.1	X^2= 107.386
그렇지 않다	400	101	25.3	299	74.8		63	15.8	337	84.3	
그렇다	5,599	286	5.1	5,313	94.9		367	6.6	5,232	93.4	
매우 그렇다	984	41	6.2	943	95.8		53	5.4	931	94.6	

주: *: p〈0.05, **: p〈0.01, ***: p〈0.001

나.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와 개인·사회적 위험

가족구성원과의 원만함에 이어서 직장에서의 대인관계가 얼마나 원만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성인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이 달라지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원만함을 응답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에 따른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의 원만정도에서 '매우 원만하다'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매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5.2%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4.92점, 불안장애 정도는 32.37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가족구성원과의 원만정도에서 '매우 원만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0%, '원만하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즉,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난 결과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결과이다. 물론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보다는 그 관련성이 미약하지만, 직장에서의 대인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우울, 불안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자살 생각과 일탈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표 3-44).

〈표 3-44〉 성인의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의 원만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원만 정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5	0	0.0	1	20.0	2	40.0	2	40.0	X^2= 193.334***	15.81±7.06	F= 66.029***	41.59±10.41	F= 42.754***
그렇지 않다	166	0	0.0	58	34.9	76	45.8	32	19.3		10.01±4.69		39.01±7.04	
그렇다	3,991	117	2.9	2,092	52.4	1,663	41.7	119	3.0		6.21±4.11		33.82±6.53	
매우 그렇다	355	31	8.7	199	56.1	107	30.1	18	5.1		4.92±3.90		32.37±6.41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원만 정도	계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5	2	40.0	3	60.0	X^2= 60.695***	0	0.0	5	100.0	X^2= 27.409***
그렇지 않다	166	28	16.9	138	83.1		30	18.1	136	81.9	
그렇다	3,990	209	5.2	3,781	94.8		289	7.2	3,701	92.8	
매우 그렇다	354	8	2.3	346	97.7		24	6.98	330	93.2	

주: *: p〈0.05, **: p〈0.01, ***: p〈0.001

다. 가족 간 활동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

앞서 살펴본 가족과 관계는 스스로 판단하는 관계이므로, 그 관계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보기 위한 문항으로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만나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얼마나 빈번한지를 살펴보았다. 평소 가족과의 활동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았다.

가족과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8.1%로 높기는 하였으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이나 불안장애에 있어서는 짐작한 것처럼 활동이 빈번할수록 문제가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과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에 자살 생각은 22.1%에 이르러, 역시 가족과의 관계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일 것으로 재확인 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일탈 충동은 가족과의 만남이 없을 때 높고 활동의 빈도가 늘어갈수록 문제 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주3회 이상으로 활동이 가장 빈번한 집단에서 사회적 일탈 충동의 경험이 12.8%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족과의 활동이 완전하게 가족관계가 원만함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표 3-45).

〈표 3-45〉 성인의 가족 간 활동 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가족 간 활동정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안함	358	29	8.1	174	48.6	125	34.9	30	8.4	X^2= 69.235***	10.12±5.63	F= 101.919***	39.11±8.73	F= 65.558***
월 1회이하	2,015	105	5.2	1,178	58.5	666	33.1	66	3.3		7.25±4.46		35.32±7.07	
월 1~2회	2,779	150	5.4	1,513	54.4	1,031	37.1	85	3.1		6.25±4.23		34.22±6.66	
주 1~2회	1,630	110	6.7	956	58.7	530	32.5	34	2.1		5.57±4.05		33.14±6.40	
주 3회 이상	218	22	10.1	113	51.8	74	33.9	9	4.1		5.51±3.59		34.06±5.93	

가족 간 활동정도	계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통계값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통계값
		예		아니오			있음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안함	358	79	22.1	279	77.9	X^2= 175.882***	41	11.5	317	88.5	X^2= 47.571***
월 1회이하	2,016	134	6.6	1,882	93.4		163	8.1	1,852	91.9	
월 1~2회	2,779	149	5.4	2,630	94.6		194	7.0	2,585	93.0	
주 1~2회	1,629	63	3.9	1,566	96.1		66	4.1	1,563	95.9	
주 3회 이상	218	209	4.1	9	95.9		28	12.8	190	87.2	

주: *: p〈0.05, **: p〈0.01, ***: p〈0.001

라. 본인의 주관적 사회적 계층에 대한 인식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

성인의 현재 본인이 사회적으로 어느 계층에 속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계층 인식도를 독립변수, 성인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계층 인식도를 최하위, 하위, 중위, 중상위 및 최상위의 5개로 분류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현재의 본인의 사회적 계층 인식도에서 '최하위'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거나 매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45.0%로 나타났고,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55.0%로 나타나 최하위 계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계층 인식도에서 '최하위' 집단의 우울정도는 12.33점, 불안장애 정도는 41.05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본인 사회적 계층의 인식도에서 '최하위'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6%,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4.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즉, 현재 본인의 사회적 계층 인식도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으며, 불안장애 점수도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탈 충동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우울정도나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률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회적 계층이 '중위' 이후 '최상위'로 갈수록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표 3-46).

〈표 3-46〉 성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사회적 계층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최하위	160	20	12.5	68	42.5	49	30.6	23	14.4	X^2= 140.051***	12.33±6.19	F= 102.512***	41.05±9.05	F= 55.128***
하위	2,109	105	5.0	1210	57.4	696	33.0	98	4.6		7.23±4.53		35.29±7.04	
중위	4,063	245	6.0	2,328	57.3	1,415	34.8	75	1.8		5.98±4.13		33.81±6.63	
중상위	659	45	6.8	322	48.9	265	40.2	27	4.1		6.49±4.21		34.91±6.82	
최상위	9	1	11.1	6	66.7	2	22.2	0	0.0		8.29±3.10		28.15±8.68	

사회적 계층	계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최하위	160	49	30.6	111	69.4	X^2= 246.766***	23	14.5	136	85.5	X^2= 52.945
하위	2,109	196	9.3	1,913	90.7		204	9.7	1,905	90.3	
중위	4,063	168	4.1	3,895	95.9		234	5.8	3,830	94.2	
중상위	659	18	2.7	641	97.3		30	4.6	629	95.4	
최상위	9	2	22.2	7	77.8		0	0.0	8	100.0	

주: *: p〈0.05, **: p〈0.01, ***: p〈0.001

마. 가정, 학교, 직장 및 사회의 소속감 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

성인의 가정, 학교, 직장 및 사회의 소속감 정도를 독립변수, 성인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기 위해 소속정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가정, 학교, 직장 및 사회의의 소속감 정도에서 소속감을 '매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4.3%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4.67점, 불안장애 정도는 31.31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가정, 학교, 직장 및 사회의 소속감 정도에서 소속감을 '매우 적게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6%,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8.2%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즉, 가정, 학교, 직장 및 사회의 소속감 정도에서 소속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으며, 우울정도와 불안장애도 낮게 나타났고, 가정, 학교, 직장 및 사회의 소속감 정도에서 소속감을 적게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표 3-47).

〈표 3-47〉 성인의 가정, 학교, 직장 및 사회의 소속감 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가정/학교/직장, 사회 소속감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적게 느낌	110	16	14.5	48	43.6	29	26.4	17	15.5	X^2= 186.662****	12.42±6.79	F= 226.195****	42.13±8.77	F= 204.307****
적게 느낌	1,968	97	4.9	1209	61.4	581	29.5	81	4.1		8.15±4.67		37.03±6.99	
많이 느낌	4,509	258	5.7	2,457	54.5	1,701	37.7	93	2.1		2.89±3.99		33.55±6.49	
매우 많이 느낌	414	45	10.9	221	53.4	116	28.0	32	7.7		4.67±3.94		31.31±6.27	

가정/학교/직장, 사회 소속감	계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적게 느낌	109	29	26.6	80	73.4	X^2= 160.425****	20	18.2	90	81.8	X^2=27.791 ****
적게 느낌	1,967	197	10.0	1,770	90.0		159	8.1	1,808	91.9	
많이 느낌	4,509	189	4.2	4,320	95.8		285	6.3	4,224	93.7	
매우 많이 느낌	415	19	4.6	396	95.4		28	6.8	386	93.2	

주: *: p〈0.05, **: p〈0.01, ***: p〈0.001

바. 주관적 삶의 행복도와 개인·사회적 위험

본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성인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의 응답 분포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주관적 삶의 행복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보았다.

본인의 삶의 행복도를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75.7%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4.55점, 불안장애 정도는 31.95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의 경우에는 본인의 삶의 행복도를 '매우 불행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0%,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0%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즉, 본인의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으며, 우울정도와 불안장애도 낮게 나타났고, 본인의 삶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표 3-48).

〈표 3-48〉 성인의 주관적 삶의 행복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본인 삶의 행복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불행	20	1	5.0	4	20.0	4	20.0	11	55.0	X^2= 480.584***	18.93±7.82	F= 397.026***	47.00±8.77	F= 233.274***
불행	896	18	2.0	391	43.6	401	44.8	86	9.6		10.55±4.81		39.62±7.57	
행복	5,868	355	6.0	3,417	58.2	1,979	33.7	117	2.0		5.98±3.98		33.81±6.48	
매우 행복	218	43	19.7	122	56.0	43	19.7	10	4.6		4.55±3.90		31.95±6.07	

본인 삶의 행복도	계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불행	20	13	65.0	7	35.0	X^2= 720.208***	5	25.0	15	75.0	X^2= 193.751***
불행	895	219	24.5	676	75.5		157	17.5	738	82.5	
행복	5,868	198	3.4	5,670	96.6		329	5.6	5,539	94.4	
매우 행복	217	4	1.8	213	98.2		1	0.5	216	99.5	

주: *: p〈0.05, **: p〈0.01, ***: p〈0.001

사. 대인 신뢰도와 개인·사회적 위험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인 신뢰정도를 독립변수, 성인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기 위해 사람들의 신뢰정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대인 신뢰정도에서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72.7%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6.05점, 불안장애 정도는 34.03점으로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대인 신뢰정도에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0%,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2.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하는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으며, 우울정도와 불안장애도 낮게 나타났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자살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표 3-49).

〈표 3-49〉 성인의 대인 신뢰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대인 신뢰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혀 신뢰할 수 없음	75	1	1.3	21	28.0	35	46.7	18	24.0	X^2= 266.971***	12.03±7.09	F= 87.793***	41.37±9.69	F= 41.690***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	2,132	83	3.9	1,085	50.9	840	39.4	124	5.8		7.44±4.76		35.34±7.18	
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	4,738	324	6.8	2,796	59.0	1539	32.5	79	1.7		6.08±4.11		34.07±6.68	
매우 신뢰할 수 있음	55	8	14.5	32	58.2	13	23.6	2	3.6		6.05±4.77		34.03±8.31	

대인 신뢰도	계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통계값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통계값
		예		아니오			있음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혀 신뢰할 수 없음	75	24	32.0	51	68.0	X^2= 188.246***	17	22.7	58	77.3	X^2= 103.936***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	2,132	219	10.3	1,913	89.7		231	10.8	1,900	89.2	
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	4,738	188	4.0	4,550	96.0		241	5.1	4,497	94.9	
매우 신뢰할 수 있음	55	2	3.6	53	96.4		2	3.6	53	96.4	

주: *: p〈0.05, **: p〈0.01, ***: p〈0.001

아. 우리 사회의 신뢰도와 개인·사회적 위험

일반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에 이어서 우리사회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른 성인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의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점수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사회 신뢰정도가 가장 높은 '7~10점' 집단에서는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3.0%로 나타났고, 우울도도 5.90점, 불안장애 정도 34.14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사회 신뢰정도가 가장 낮은 '0~3점' 집단에서는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사회를 신뢰하는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으며, 우울정도와 불안장애도 낮게 나타났고, 우리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3-50).

〈표 3-50〉 성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사회에 대한 신뢰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593	25	4.2	293	49.4	211	35.6	64	10.8	X^2= 143.458****	8.28±5.80	F= 82.163****	35.97±8.21	F= 17.528****
4~6점	3,607	209	5.8	2,058	57.1	1,225	34.0	115	3.2		6.78±4.38		34.60±6.92	
7~10점	2,800	183	6.5	1583	56.5	991	35.4	43	1.5		5.90±4.05		34.14±6.64	

사회에 대한 신뢰도	계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통계값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통계값
		예		아니오			있음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593	114	19.2	479	80.8	X^2= 210.373****	104	17.5	489	82.5	X^2= 119.232****
4~6점	3,606	223	6.2	3,383	93.8		250	6.9	3,357	93.1	
7~10점	2,800	96	3.4	2,704	96.6		138	4.9	2,663	95.1	

주: *: p〈0.05, **: p〈0.01, ***: p〈0.001

자. 우리 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와 함께 현재의 우리사회가 얼마나 안정된 사회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성인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의 안정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현재 우리사회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8.1%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5.65점, 불안장애 정도는 33.46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우리사회가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2.1%,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우리사회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우울정도와 불안장애의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사회를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오히려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표 3-51).

〈표 3-51〉 성인의 우리 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사회 안정성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혀 안정적이지 않음	132	5	3.8	35	26.5	56	42.4	36	27.3	X^2= 341.170***	10.44±6.13	F= 59.639***	38.35±9.20	F= 20.935***
안정적이지 않음	2,341	102	4.4	1308	55.9	817	34.9	114	4.9		7.11±4.62		35.00±7.00	
조금 안정적	4,482	303	6.8	2566	57.3	1,541	34.4	72	1.6		6.16±4.20		34.19±6.80	
매우 안정적	44	6	13.6	24	54.5	13	29.5	1	2.3		5.65±4.21		33.46±7.32	

사회 안정성	계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혀 안정적이지 않음	131	29	22.1	102	77.9	X^2= 151.484****	31	23.5	101	76.5	X^2= 101.909
안정적이지 않음	2,342	229	9.8	2,113	90.2		224	9.6	2,118	90.4	
조금 안정적	4,482	173	3.9	4,309	96.1		237	5.3	4,246	94.7	
매우 안정적	44	2	4.5	42	95.5		0	0.0	44	100.0	

주: *: p〈0.05, **: p〈0.01, ***: p〈0.001

차. 사회적 지지와 개인·사회적 위험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정도를 독립변수, 성인의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 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기 위해 사회의 지지정도를 3개군(0~3점, 4~6점, 7~10점)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사회 지지정도에서 '7~10점'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3.7%로 나타났고, 우울도도 5.49점, 불안장애 정도 33.13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사회적 지지정도에서 '0~3점'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3%,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며, 우울정도와 불안장애가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오히려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표 3-52).

〈표 3-52〉 성인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과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사회적 지지정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382	27	7.1	160	41.9	150	39.3	45	11.8	X^2= 134.680***	10.62±5.86	F= 349.051***	39.70±8.40	F= 232.498***
4~6점	2,912	143	4.9	1659	57.0	1,004	34.5	106	3.6		7.38±4.42		35.64±6.94	
7~10점	3,706	246	6.6	2115	57.1	1,273	34.3	72	1.9		5.49±3.87		33.13±6.36	

사회적 지지정도	계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통계값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통계값
		예		아니오			있음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382	89	23.3	293	76.7	X^2= 288.904***	63	16.5	319	83.5	X^2= 63.399***
4~6점	2,912	242	8.3	2,670	91.7		218	7.5	2,693	92.5	
7~10점	3,706	103	2.8	3,603	97.2		211	5.7	3,495	94.3	

주: *: p〈0.05, **: p〈0.01, ***: p〈0.001

카. 가족과의 소통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정도에 따른 개인·사회적 위험의 크기를 보기 위하여 우선 평소 가족끼리 소통(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전화를 이용한 소통을 포함)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개인·사회적 위험의 크기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가족과의 소통정도를 3개군(0~3점, 4~6점, 7~10점)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상, 불안장애. 자살생각 경험여부, 일탈충동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가족과의 소통점수가 가장 높았던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2.9%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5.74점, 불안장애 정도는 33.47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자살생각 경험여부와 사회적 일탈충동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가족과의 소통정도에서 '0~3점' 집단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7%,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즉, 가족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정도, 우울정도와 불안장애가 낮았으며, 가족과의 소통을 적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오히려 자살 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표 3-53).

〈표 3-53〉 성인의 가족과의 소통정도와 개인·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단위: 명, %, 점)

가족 간 소통정도	계	스트레스 정도									CES-D		불안장애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통계값	M±SD	통계값	M±SD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218	18	8.3	78	35.8	97	44.5	25	11.5	X^2= 102.412****	11.91±6.59	F=354.379	41.39±7.28	F= 232.173****
4~6점	2,123	112	5.3	1,211	57.0	704	33.2	96	4.5		7.80±4.55		36.15±7.11	
7~10점	4,658	286	6.1	2,645	56.8	1,626	34.9	101	2.2		5.74±3.93		33.47±6.40	

가족 간 소통정도	계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 경험				
		예		아니오		통계값	있음		없음		통계값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3점	219	76	34.7	143	65.3	X^2= 417.723****	43	19.7	175	80.3	X^2= 71.015****
4~6점	2,123	205	9.7	1,918	90.3		179	8.4	1,944	91.6	
7~10점	2,659	153	3.3	4,506	96.7		270	5.8	4,389	94.2	

주: *: p〈0.05, **: p〈0.01, ***: p〈0.001

3.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개인·사회적 위험에 대한 다변량 분석

성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신건강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술통계상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낸 변수로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맞벌이 유무, 직업유무, 가구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인간관계(가족·이웃·직장에서의 관계), 자아존중감, 목표 달성 가능성, 본인이 속한 사회적 계층수준, 가정·학교·직장 등에의 소속감,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사회 평등정도, 사람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정도, 신체적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사회적 지지, 가족끼리 소통정도, 친구들과 소통정도, 주변으로부터의 도움 정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신건강(스트레스, CES-D, 불안장애, 죽고 싶다는 생각 등)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0-order correlation) 중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면서 상관계수가 비교적 큰 몇 개의 변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삶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계층이 높다고 생각했으며(r=0.351)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았다(r=0.343).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았고(r=0.595),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할수록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r=0.500). 가족과의 소통이 많을수록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했다(r=0.316).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r=0.488), 가족과 많은 소통을 한다(r=0.520). 특히, 불안장애 점수가 높을수록 CES-D 점수가 높았으며(r=0.754), 자존감 점수가 높을수록 CES-D 점수가 낮았고(r=-0.394), 불안장애 점수 또한 낮게 나타났다(r=-0.390)(표 3-54).

〈표 3-54〉 성인의 사회적 불안과 개인·사회적 위험 간의 상관관계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개인특성	성별[1]																																			
	연령별[2]	-.051																																		
	혼인상태구분[3]	-.082	.671**																																	
	맞벌이 여부별[4]	.008	-.254	.c																																
	직업유무[5]	.347**	-.161	.024	.593**																															
	학력[6]	.169**	-.627	-.266	.177**	.295**																														
	가구소득[7]	.043**	-.456	-.176	.334**	.260**	.555**																													
가족·지역사회와의 관계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정도[8]	-.029	-.116	.003	.034*	.007	.174**	.188**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원만정도[9]	.001	-.006	.030*	.011	.c	.060**	.087**	.331**																											
	이웃주민들과의 원만정도[10]	-.104	.133**	.143**	-.014	-.049	-.044	-.012	.253**	.295**																										
	가족과의 활동[11]	-.063	-.169	.159**	.083**	.038**	.249**	.285**	.269**	.123**	.072**																									
자아의식·대인신뢰도·행복지수	자아존중감[12]	.024*	-.126	-.041	.062**	.077**	.171**	.201**	.229**	.188**	.095**	.186**																								
	목표달성가능성[13]	.057**	-.466	-.243	.150**	.161**	.427**	.379**	.201**	.138**	.038**	.163**	.207**																							
	사회적 계층[14]	.002	-.213	-.044	.074**	.079**	.332**	.413**	.211**	.114**	.101**	.179**	.186**	.494**																						
	계층상승 가능성[15]	.038**	-.481	-.264	.137**	.141**	.419**	.386**	.184**	.107**	.028*	.177**	.207**	.726**	.481**																					
	가정, 학교, 직장 소속감[16]	.051**	-.270	-.060	.137**	.173**	.300**	.327**	.219**	.165**	.082**	.225**	.264**	.373**	.314**	.377**																				
	삶의 행복정도[17]	-.010	-.169	.002	.051**	.044**	.218**	.243**	.337**	.249**	.185**	.252**	.279**	.330**	.351**	.327**	.343**																			
	사회평등정도[18]	-.050	-.031	.007	.000	-.011	.103**	.127**	.136**	.119**	.177**	.052**	.137**	.232**	.299**	.237**	.162**	.318**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19]	-.050	-.029	.009	.016	.003	.077**	.090**	.169**	.150**	.195**	.045**	.128**	.227**	.247**	.238**	.193**	.338**	.491**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20]	-.045	-.048	.012	.018	.022	.110**	.157**	.187**	.170**	.190**	.103**	.160**	.234**	.244**	.245**	.188**	.299**	.502**	.595**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21]	-.048	-.031	.013	.037**	.009	.087**	.077**	.132**	.112**	.162**	.041**	.110**	.189**	.211**	.188**	.142**	.265**	.492**	.500**	.510**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개인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신체적 건강상태[22]	.091*	-.482	-.260	.146*	.179*	.420*	.380*	.234*	.144*	.025*	.217*	.277*	.410*	.285*	.425*	.330*	.338*	.170*	.183*	.245*	.146*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지[23]	-.001	-.201	-.061	.046*	.069*	.253*	.291*	.266*	.170*	.146*	.240*	.289*	.299*	.270*	.282*	.311*	.330*	.204*	.192*	.289*	.166*	.331*													
	사회적 자본[24]	-.051	.103*	.065*	-.023	-.036	-.012	.046*	.127*	.107*	.169*	.051*	.188*	.067*	.148*	.070*	.063*	.180*	.210*	.216*	.193*	.190*	.068*	.155*												
	가족과의 소통[25]	-.030	-.215	-.026	.077*	.085*	.250*	.305*	.343*	.172*	.136*	.288*	.278*	.303*	.260*	.306*	.312*	.331*	.146*	.170*	.287*	.138*	.358*	.510*	.140*											
	주변사람들과의 소통[26]	-.022	-.245	-.112	.065*	.067*	.248*	.271*	.242*	.193*	.146*	.193*	.255*	.309*	.244*	.319*	.288*	.302*	.176*	.202*	.283*	.155*	.378*	.450*	.179*	.633*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 받는 정도[27]	-.042	-.144	-.039	.044*	.027*	.174*	.211*	.253*	.198*	.196*	.203*	.231*	.270*	.238*	.271*	.229*	.308*	.231*	.221*	.322*	.214*	.280*	.488*	.177*	.520*	.565*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28]	-.037	-.152	-.038	.056*	.043*	.182*	.197*	.243*	.191*	.190*	.196*	.224*	.274*	.240*	.273*	.211*	.303*	.272*	.266*	.362*	.248*	.283*	.442*	.187*	.491*	.549*	.634*								
사회·심리적 불안	노후준비[29]	-.004	.261*	.314*	.035*	.073*	-.168	-.151	-.094	-.041	-.024	.030*	-.082	-.223	-.204	-.229	-.115	-.129	-.125	-.118	-.082	-.100	-.135	-.072	-.091	-.072	-.093	-.063	-.076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30]	.024*	.069*	.010	.018	.016	-.120	-.169	-.206	-.135	-.100	-.117	-.214	-.164	-.198	-.160	-.190	-.277	-.147	-.159	-.123	-.138	-.166	-.164	-.158	-.174	-.125	-.137	-.106	.312*						
정신건강	스트레스[31]	.114*	-.137	-.050	.178*	.213*	.139*	.087*	-.139	-.124	-.143	-.034	-.080	.034*	-.016	.034*	.007	-.185	-.141	-.156	-.083	-.119	.010	-.092	-.151	-.077	-.063	-.110	-.086	.068*	.228*					
	CES-D[32]	-.045	.198*	.063*	-.066	-.090	-.198	-.219	-.256	-.182	-.102	-.211	-.394	-.200	-.161	-.193	-.287	-.362	-.148	-.174	-.163	-.143	-.359	-.327	-.217	-.329	-.294	-.253	-.220	.131*	.349*	.297*				
	불안장애[33]	-.087	.260*	.144*	-.093	-.121	-.237	-.231	-.212	-.143	-.052	-.164	-.390	-.167	-.106	-.162	-.280	-.288	-.073	-.113	-.072	-.083	-.366	-.278	-.203	-.274	-.244	-.181	-.146	.153*	.325*	.225*	.754*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34]	-.003	.078*	.013	-.008	-.041	-.109	-.129	-.141	-.096	-.079	-.109	-.161	-.139	-.148	-.139	-.129	-.290	-.149	-.149	-.168	-.143	-.174	-.206	-.112	-.228	-.193	-.195	-.205	.070*	.191*	.162*	.310*	.256*		
	사회적 일탈 경험[35]	.030*	-.048	-.038	.007	.031*	.014	-.001	-.082	-.046	-.064	-.046	-.093	-.057	-.082	-.039	-.044	-.161	-.146	-.118	-.116	-.112	-.054	-.090	-.141	-.098	-.085	-.128	-.165	.041*	.131*	.120*	.164*	.123*	.253*	

주 1) 변수: 성별(남자=1, 여자=0), 혼인상태(혼인=1, 미혼=0), 맞벌이 여부(예=1, 아니오=0), 직업유무(유=1, 무=0), 자아존중감감(C1-1~C1-10 변수 합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0~10), 사회적지지(0~10), 사회적 자본(2-1~2-7 변수 합계), 가족과의 소통(0~10), 주변사람들과의 소통(0~10),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 받는 정도(0~10),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0~10),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0~10),CES-D(E2-1~E2-11 변수 합산), 불안장애(E3-1~E3-20 변수 합산),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예=1, 아니오=0), 사회적 일탈 경험(있음=1, 없음=0)

2) *p<0.05, **: p<0.01, ***: p<0.001

가. 사회·심리적 불안과 우울 및 불안장애에 대한 다변량 분석

우울척도(CES-D)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술통계에서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인간관계(가족·이웃·직장에서의 관계), 자아존중감, 목표 달성 가능성, 본인이 속한 사회적 계층수준, 가정·학교·직장 등에의 소속감,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사회 평등정도, 사람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정도, 신체적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사회적 지지, 가족끼리 소통정도, 친구들과 소통정도, 주변으로부터의 도움 정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신건강(스트레스, CES-D, 불안장애, 죽고 싶다는 생각 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보정하고 우울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수록 우울척도 점수가 증가하였다. 제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성인은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소들에 대해 각기 다른 정도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복합적 느껴지는 불안은 결국 정신적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신건강은 다시 불안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불안과 정신건강은 반복적으로 상호 연관됨으로써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모형에 함께 포함된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가족구성원과 원만하고, 가족과의 활동이 빈번할수록 우울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가족 내의 갈등이 불안과 우울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요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우울의 정도가 완화되므로, 사회적 지지가 취약한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표 3-55).

〈표 3-55〉 우울척도(CES-D)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항목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922	1.720		-.536	.592
성	-.247	.112	-.029	-2.216	.027
연령	.012	.006	.029	1.932	.053
혼인상태	-.951	1.426	-.007	-.667	.505
맞벌이 여부	-.238	.111	-.028	-2.144	.032
학력	.110	.052	.032	2.134	.033
가구소득	.029	.039	.010	.730	.465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정도	-.265	.121	-.028	-2.191	.029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원만정도	-.092	.151	-.008	-.611	.541
이웃주민들과의 원만정도	.116	.128	.011	.912	.362
가족과의 활동	-.126	.059	-.026	-2.122	.034
자아존중감	-.127	.017	-.102	-7.380	.000
목표달성가능성	.048	.111	.007	.433	.665
사회적 계층	-.012	.092	-.002	-.133	.894
계층상승 가능성	-.005	.115	-.001	-.047	.963
가정, 학교, 직장 소속감	.082	.094	.011	.873	.383
삶의 행복정도	-.393	.148	-.035	-2.659	.008
사회평등정도	.079	.102	.011	.780	.436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	.057	.122	.007	.464	.643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081	.042	-.030	-1.952	.051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	.078	.108	.010	.721	.471
신체적 건강상태	-.161	.084	-.025	-1.914	.056
사회적 지지	-.117	.039	-.041	-3.031	.002
사회적 자본	-.046	.034	-.017	-1.344	.179
가족과의 소통	-.009	.048	-.003	-.197	.844
주변사람들과의 소통	-.037	.047	-.012	-.798	.425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정도	-.113	.046	-.038	-2.423	.015

항목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	.092	.044	.032	2.078	.038
노후준비	-.003	.025	-.001	-.105	.916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132	.028	.059	4.698	.000
스트레스	.709	.081	.106	8.771	.000
불안장애	.370	.009	.595	42.402	.000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1.032	.221	.055	4.667	.000
사회적 일탈 경험	.157	.189	.010	.829	.407

R=0.773, R^2=0.593
F-statistic=147.703, p=0.000

주: 성(남자=1, 여자=0), 혼인상태(혼인=1, 미혼=0), 맞벌이 여부(예=1, 아니오=0), 자아존중감(변수 합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0~10), 사회적지지(0~10), 사회적 자본(변수 합계), 가족과의 소통(0~10), 주변사람들과의 소통(0~10),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 받는 정도(0~10),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0~10),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0~10),CES-D(변수 합산), 불안장애(변수 합산),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예=1, 아니오=0), 사회적 일탈 경험(있음=1, 없음=0)

Zung의 불안장애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술통계에서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인간관계(가족·이웃·직장에서의 관계), 자아존중감, 목표 달성 가능성, 본인이 속한 사회적 계층수준, 가정·학교·직장 등에의 소속감,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사회 평등정도, 사람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정도, 신체적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사회적 지지, 가족끼리 소통정도, 친구들과 소통정도, 주변으로부터의 도움 정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신건강(스트레스, CES-D, 불안장애, 죽고 싶다는 생각 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안장애는 우울과 함께 정신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은 우울 뿐 아니라 역시 불안장애의 점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함께 살펴본 여러 가지 요인들 중 주목되는 부

분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수록 불안장애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고, 안정되지 못한 생활환경은 결국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관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주지의 인프라, 주변인 등의 사회적 자본이 불안장애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56).

〈표 3-56〉 Zung의 불안장애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항목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28.680	2.721		10.541	.000
성	-.566	.179	-.041	-3.157	.002
연령	.040	.010	.061	4.143	.000
혼인상태	3.089	2.294	.015	1.347	.178
맞벌이 여부	-.235	.179	-.017	-1.314	.189
학력	-.089	.083	-.016	-1.065	.287
가구소득	-.073	.063	-.016	-1.147	.251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정도	.503	.194	.033	2.588	.010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원만정도	-.269	.243	-.014	-1.107	.268
이웃주민들과의 원만정도	.226	.205	.013	1.100	.271
가족과의 활동	.153	.096	.020	1.597	.110
자아존중감	-.296	.028	-.147	-10.765	.000
목표달성가능성	.345	.179	.031	1.932	.053
사회적 계층	.700	.148	.066	4.724	.000
계층상승 가능성	.377	.185	.032	2.037	.042
가정, 학교, 직장 소속감	-.921	.151	-.076	-6.119	.000
삶의 행복정도	.156	.238	.009	.656	.512
사회평등정도	.271	.164	.024	1.655	.098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	-.296	.196	-.022	-1.511	.131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232	.067	.053	3.457	.001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	-.174	.174	-.014	-1.001	.317
신체적 건강상태	-.519	.135	-.051	-3.857	.000
사회적 지지	-.092	.062	-.020	-1.478	.140
사회적 자본	-.371	.055	-.083	-6.757	.000
가족과의 소통	-.068	.077	-.014	-.876	.381

항목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주변사람들과의 소통	.043	.075	.009	.568	.570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 받는 정도	.204	.075	.043	2.736	.006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	.121	.071	.026	1.691	.091
노후준비	.013	.040	.004	.327	.743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274	.045	.076	6.058	.000
스트레스	.514	.131	.048	3.917	.000
CES-D	.957	.023	.595	42.402	.000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	.065	.357	.002	.182	.856
사회적 일탈 경험	.640	.304	.024	2.106	.035
$R=0.773$, $R^2=0.598$ F-statistic=147.861, p=0.000					

주: 성(남자=1, 여자=0), 혼인상태(혼인=1, 미혼=0), 맞벌이 여부(예=1, 아니오=0), 자아존중감(변수 합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0~10), 사회적지지(0~10), 사회적 자본(변수 합계), 가족과의 소통(0~10), 주변사람들과의 소통(0~10),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 받는 정도(0~10),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0~10),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0~10),CES-D(변수 합산), 불안장애(변수 합산),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예=1, 아니오=0), 사회적 일탈 경험(있음=1, 없음=0)

나. 사회·심리적 불안과 죽고 싶다는 생각에 대한 다변량 분석

우울과 불안장애에 이어 마지막으로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기술통계에서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인간관계(가족·이웃·직장에서의 관계), 자아존중감, 목표 달성 가능성, 본인이 속한 사회적 계층수준, 가정·학교·직장 등에의 소속감,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 사회 평등정도, 사람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정도, 신체적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사회적 지지, 가족끼리 소통정도, 친구들과 소통정도, 주변으로부터의 도움 정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신건강(스트레스, CES-D, 불안장애, 죽고 싶다는 생각 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들을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은 모형에 포함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배제하고 자살 생각에 분명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그 영향의 정도는 스트레스, CES-D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강력하였다. 그런데 불안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던 여러 요인들이 대체로 이 모형 내에서는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표 3-57).

〈표 3-57〉 성인의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항목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상수)	-.211	.216	.956	1	.328	.810
성	.009	.012	.558	1	.455	1.009
연령	-1.790	1.477	1.469	1	.226	.167
혼인상태	.185	.224	.683	1	.408	1.203
맞벌이 여부	-.040	.103	.149	1	.699	.961
학력	.019	.080	.058	1	.809	1.020
가구소득	.771	.218	12.512	1	.000	2.163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정도	.074	.273	.074	1	.785	1.077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원만정도	-.160	.225	.507	1	.477	.852
이웃주민들과의 원만정도	.088	.118	.557	1	.456	1.092
가족과의 활동	-.042	.031	1.792	1	.181	.959
자아존중감	.041	.202	.041	1	.839	1.042
목표달성가능성	-.067	.179	.141	1	.707	.935
사회적 계층	.266	.217	1.506	1	.220	1.305
계층상승 가능성	.161	.170	.892	1	.345	1.175
가정, 학교, 직장 소속감	-.742	.239	9.627	1	.002	.476
삶의 행복정도	-.040	.191	.043	1	.836	.961
사회평등정도	.253	.225	1.268	1	.260	1.288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	-.015	.078	.038	1	.846	.985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352	.196	3.239	1	.072	.703
사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	.143	.152	.880	1	.348	1.154
신체적 건강상태	-.085	.071	1.436	1	.231	.919
사회적 지지	-.036	.062	.335	1	.563	.965
사회적 자본	-.096	.085	1.263	1	.261	.909

항목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가족과의 소통	-.041	.083	.239	1	.625	.960
주변사람들과의 소통	-.098	.084	1.352	1	.245	.907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 받는 정도	-.103	.081	1.599	1	.206	.902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	-.050	.052	.938	1	.333	.951
노후준비	.201	.062	10.421	1	.001	1.223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474	.156	9.243	1	.002	1.606
스트레스	.108	.029	14.070	1	.000	1.115
CES-D	.008	.019	.188	1	.665	1.008
불안장애	1.336	.223	35.750	1	.000	3.805
사회적 일탈 경험	-2.386	2.267	1.108	1	.293	.092
Cox와 Snell의 R^2=0.089 Nagelkerke R^2=0.270						
Hosmer와 Lemeshow 검정 X^2=14.207, 자유도=8, p=0.077						

주: 성(남자=1, 여자=0), 혼인상태(혼인=1, 미혼=0), 맞벌이 여부(예=1, 아니오=0), 자아존중감(변수 합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0~10), 사회적지지(0~10), 사회적 자본(변수 합계), 가족과의 소통(0~10), 주변사람들과의 소통(0~10),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 받는 정도(0~10),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0~10),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0~10),CES-D(변수 합산), 불안장애(변수 합산), 자살(죽고 싶다는 생각(예=1, 아니오=0), 사회적 일탈 경험(있음=1, 없음=0)

제5절 사회·심리적 불안 해소 방법 및 정책적 지원요구

1. 불안 해소 방법

사회·심리적 불안과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언제라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노력이나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심리적 불안을 혼자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불안장애 등 정신의학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문제

해결을 주로 개인적인 의료기관 이용에 의존하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스티그마(stigma)가 강하여 우울 치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회피하려 경향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아직까지 질병의 단계로 발전되지 않은 사회·심리적 불안이라 하더라도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이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소 사회·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응답자의 10% 이상이 선택한 주요 방법과 그 외에 의미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불안해소방법으로 수면이나 휴식을 들었으며, 그 다음은 TV 시청(48.4%)이어서, 사실상 응답자들이 불안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수면이나 휴식이 55.7%,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44.6%, 게임 32.2% 등으로 나타나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전반적으로 불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화(23.3%), 산책(20.4%), 스포츠 활동(15.6%), 쇼핑(15.6%), 여행(13.7%)과 같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활동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불안 해소에 효과적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아울러, 음주(18.7%), 흡연(7.8%), 폭식(1.5%), 약물(0.2%), 도박(0.2%)과 같은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불안 해소보다는 불안으로 나타난 부정적 결과로 해석되며, 응답자 중 일부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으나 실태가 사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표 3-58).

〈표 3-58〉 성인들의 심리적 불안 해소 방법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1]	구 분	인원	비율[1]
총 계	7,000	100.0	쇼핑	1,090	15.6
수면이나 휴식	3,962	56.6	여행	960	13.7
TV시청	3,388	48.4	인터넷, 스마트폰	850	12.1
대화	1,631	23.3	흡연	548	7.8
산책	1,429	20.4	폭식	108	1.5
음주	1,308	18.7	약물	16	0.2
스포츠 활동	1,091	15.6	도박	9	0.1

주: 1) 각 방법에 대한 중복응답 비율

2. 정책적 지원 희망 사항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19세 이상 성인이 기대하는 국가의 지원은 무엇인가를 짚어보았다. 앞서 불안의 주요 요소가 경제와 건강 문제였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이와 관련된 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다.

개인과 사회적 측면의 불안을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적인 불안 요소 해소를 위한 요구로는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이 응답자의 6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및 지원이 응답자의 49.0%로 뒤를 이었는데, 이는 고용대책 및 경제적 지원(41.5%)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 정신 건강관리(17.4%)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적 건강은 다양한 불안 요소 중에서 최우선적 요인은 아니었지만 불안의 정도는 높은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표 3-59).

〈표 3-59〉 성인의 개인적인 불안요소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희망 사항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1]
총 합계	7,000	100.0
충분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 대비를 위한 상담 및 지원	4,672	66.7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및 지원	3,431	49.0
취업 및 소득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생활경제문제 극복을 위한) 고용대책 및 경제적 지원	2,903	41.5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상담 및 지원	2,583	36.9
생활안전환경의 (치안, 유흥업소, 혐오시설 등) 개선	1,562	22.3
가족관계 및 해체 등 위험 및 위기가족 지원	1,427	20.4
정신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 및 지원	1,220	17.4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지원	1,212	17.3
자녀교육, 가족부양 및 간병 지원	1,164	16.6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보완 및 위반자 처벌 강화	555	7.9
이웃과의 대인관계에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지원	261	3.7
정치 개선	1	0.0
미혼자 결혼 지원	1	0.0
군대 문제 개선	1	0.0
상식이 통하는 사회	1	0.0

주: 1) 각 사항에 대한 중복응답 비율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은 주요 사회적 불안요인의 순위와 같다. 즉 경기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대한 요구가 응답자의 70.2%로 가장 많았고, 감염병 관리가 42.4%, 안전 문제 대응이 36.2%였다.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지원 요구는 응답자의 19.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3-60).

〈표 3-60〉 성인의 사회적인 불안요소 해소를 위한 국가적 지원 희망 사항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1]
총 계	7,000	100.0
경기활성화 및 성장 촉진	4,911	70.2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및 식중독 관리 강화	2,971	42.4
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 대응	2,531	36.2
사회안전망 강화	1,991	28.4
정치 및 대외관계 강화	1,527	21.8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 지원	1,394	19.9
학대, 폭력 등 범죄 문제에 대한 국가안전체계 강화	1,358	19.4
환경 보호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1,236	17.7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대책 강화	1,215	17.4
계층, 집단 및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993	14.2
교육 및 입시제도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549	7.8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보완 및 위반자 처벌 강화	321	4.6

주: 1) 각 사항에 대한 중복응답 비율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신건강 문제로 개인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는 더 긴급한 다른 불안으로 인해 심각성을 인지하거나 대응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사 결과를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전국에 센터 수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 그 역할에 대한 국가와 전문가의 고민도 계속되고 있어서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1.6%만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공공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경험은 2.9%로 미미하며, 아직

은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은 공공기관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주로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이나 지역사회 체육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표 3-61, 표 3-62).

〈표 3-61〉 성인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인식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합 계		7,000	100.0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인식 여부	알고 있음	1,513	21.6
	모름	5,487	78.4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여부	있음	206	2.9
	없음	6,794	97.1

〈표 3-62〉 성인의 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도움 필요성

(단위: 명, %)

구 분		인원	비율
합 계		7,000	100.0
공공기관 도움 필요성	예	3,416	48.8
	아니오	3,584	51.2
희망하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소 계	3,416	100.0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1,678	49.1
	지역사회 체육 프로그램 강화	1,647	48.2
	가정방문을 통한 정신건강관리	1,191	34.9
	문화활동(영화관람 등) 지원	1,167	34.2
	지역사회 내 자조모임 확대 지원	1,152	33.7
	지역사회 멘토 지정 운영	821	24.0
	홍보물 가정 배포	1	0.0
	선물	1	0.0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어떤 사회이든 사회·심리적 불안의 요인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구성원 개개인마다 각기 다른 사회·심리적 불안요인을 가지고 있다.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원인들에 노출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분포는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은 학술적인 측면에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심리적 불안과 관련된 변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결과로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위기증상과 위험이 유발되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우리 사회 자체와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종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들의 25.3%가 가장 크게 불안을 느끼는 개인적인 문제로 노후준비 부족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18.4%가 취업 및 소득, 15.0%가 신체적 건강, 12.1%가 자녀교육·가족부양·간병을 들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준비나 취업 및 소득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 가장 불안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노후준비로 인한 불안은 특히 앞으로 노인계층에 진입할 50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미 노인이 된 60대 이상의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족한 노후준비로 인해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계층의 경우 그것이 불안의 요소라기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 등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취업 및 소득에 대한 불안은 20대에서 높게 나타나 최근의 경기침체와 취업난이 젊은 연령층의 사회·심리적 불안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젊은 계층이 겪는 취업 및 소득기회 확보의 어려움은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 사회·심리적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신체적 건강을 불안요소로 지적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었기도 하지만 중장년층이나 노인계층에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개인적 문제로 인한 불안의 정도를 '전혀 불안하지 않다'(0)~'매우 불안하다'(10)의 척도로 측정해 보면,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한 불안은 6.1점, 취업 및 소득으로 인한 불안은 5.9점, 자녀교육·가족부양·간병으로 인한 불안은 4.5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에 대한 평균점수로서, 연령계층별로 구분해서 본다면 각각의 원인별로 점수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9세 이상 성인들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사회적 문제로는 36.6%가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21.7%가 MERS 등 고위험 감염병 발생, 8.8%가 안전문제, 5.9%가 사회안전망 취약, 5.7%가 정치 및 대외 관계 등을 들

었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4.8%), 높은 자살률(3.6%), 학대·폭력 등 범죄(3.3%), 계층·집단·세대간 갈등(2.7%),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2.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와 고위험 감염병 발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는 나머지 요인들이 불안의 요소로서 중요성이 떨어진다기보다 그 만큼 상대적으로 경기침체, 고위험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각각의 사회문제로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전혀 불안하지 않다'(0)~'매우 불안하다'(10)의 척도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6.9점, MERS 등 고위험 감염병 6.4점, 안전문제 6.2점, 사회안전망 취약 5.5점, 정치 및 대외 관계 5.7점, 저출산 문제와 인구고령화 5.4점, 학대·폭력 등 범죄 5.5점, 계층·집단·세대간 갈등 5.2점,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5.6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불안요소의 분포에서와 같은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소년의 경우는 가장 큰 개인의 불안요소로 32.9%가 학업문제, 28.0%가 미래에 대한 불안, 6.5%가 가정경제 문제, 5.3%가 외모문제 등을 들었으며, 그 외 신체적 건강(5.1%), 정신적 건강(4.9%),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간섭(4.5%),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4.3%), 이성관계(3.7%) 등이 뒤를 이었다. 학업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외모문제도 불안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어 있는 외모중시 풍조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성인과 유사하게 학업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일부 원인에 분포가 집중되고 나머지 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여준다. 그러나 나머지 원인이 가정경제 문제, 외모문제, 신체적 건강, 정신

적 건강,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간섭,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이성관계 등으로 다양하고 그 비율도 비슷하다.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의 정도를 '전혀 불안하지 않다'(0)~'매우 불안하다'(10)의 척도로 측정해 보면, 학업문제에 따른 불안 6.3점, 미래에 대한 불안 6.9점, 가정경제 문제 3.6점, 외모문제 4.5점, 신체적 건강 3.3점, 정신적 건강 3.7점,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3.7점,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2.9점, 이성관계 3.0점 등이다. 여기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6점대인 반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대를 보였다.

청소년들이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회적 문제로는 17.6%가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을 들었으며, 17.0%가 정치 및 대외관계, 13.4%가 안전문제, 10.7%가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10.4%가 MERS 등 고위험 감염병, 9.8%가 학대·폭력 등 범죄를 들었다.

성인들의 경우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MERS 등 고위험 감염병으로 그 분포가 집중되는 데 비해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회적 문제로 인한 불안의 정도를 보면, 빈번한 교육제도 및 입시제도 변경 6.1점을 제외하고는 5점대 이하의 점수를 보임으로써 불안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불안(6.9점), 학업문제에 따른 불안(6.3점) 등 개인적 문제로 인한 불안의 정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인의 경우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불안, 청소년의 경우는 학업문제로 인한 불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불안의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인과

청소년 모두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많이 할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할만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밀접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가지고 주변으로부터 심리적·정서적·물질적 지지를 충분히 받을 경우 개인 차원에서 느끼는 불안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가치관을 가질수록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 보다 높은 사회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인간에 대한 대인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등은 모두 사회·심리적 불안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심리적인 불안이 높을수록 흡연·음주 등 건강하지 못한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일탈 충동 경험이나 자살생각 등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병리적 현상이 사회·심리적 불안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이라는 변인과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결과들은 일반적인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사회·심리적 불안이 인간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이지만 그 원인의 많은 부분과 불안의 정도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만큼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도 사회·심리적 불안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다음 절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제2절 정책제언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이 여러 사회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회정책 영역에서 걸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불안의 완화를 위해 국민들의 요구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우선 성인들의 경우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6.7%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49.0%였다. 아울러 취업 및 소득 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용대책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1.5%,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6.9%였다. 이외에도 생활안전 환경의 개선(22.3%), 위기가족 지원(20.4%),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지원(17.4%), 자녀교육·가족부양·간병 지원(16.6%)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충과 보건의료체계 개선, 고용 및 취업대책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이 소득보장정책, 보건의료정책, 고용 및 취업대책 등 해당정책 영역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회·심리적 불안요인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불안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발생한 불안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야 한다. 이는 정신건강 정책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성인들의 경우 불안을 느낄 경우 수면이나 휴식, TV 시청, 대화, 산책, 음주 등을 통해 해소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수면이나 휴식, TV 시청을 한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결국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없이 혼자서 극복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도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진학·취업 등 미래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8%, 학업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2.4%, 생활경제문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5%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2.3%,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7.0%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학교생활 및 교육관계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22.7%), 가족갈등 및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지원(20.3%),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17.4%), 이성문제 상담(8.5%) 등이 있었다.

청소년들의 응답을 기초로 해 볼 때 진학·취업 등 미래문제에 대한 상담, 학업상담 및 지원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또한 불안을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면이나 휴식,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학교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의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도 강화되어

야 할 것이다.

사회·심리적 불안 관리를 위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에서의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센터들은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정서적·심리적 문제 등도 포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s: EAP)에서도 정서문제나 심리적 불안 등의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혜자, 한덕웅. (2005). 자기차이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pp.349~374.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구훈정, 양은주, 권정혜. (2012). 사회불안 상황과 관련된 미묘한 회피 빈도 검증 척도(SAFE)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pp.693~712.

권미경, 안혜영, 송미령, 장미영. (2006).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2(2), pp.180~188.

김남재. (2004). 한국판 사회공포증과 불안 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pp.1011~1027.

김영조. (2001). 고용조정의 공정성 및 고용조정의 강도가 잔류 구성원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사·조직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9(2), pp.93~130.

김정민, 이정희. (2008). 또래 수용, 우정의 질 및 학업수행이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4), pp.1747~1767.

김지윤, 박명숙, 오두남. (2014). 한국판 노인불안도구(K-GAI)의 신뢰도와 타당도. 근관절건강학회지, 21(1), pp.75~84.

노용진, 김동배. (2003). 고용조정방식이 생존자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인사관리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27(3). pp.55~83.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pp.249~443.

민지선. (2009). 노인 애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박상언, 이영면. (2004). 고용조정을 경험한 조직에서 사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과 신뢰 그리고 직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3(2), pp.503~529.
박통희, 김민강. (2008). 공무원의 신분불안과 조직시민행동-조직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정책학회보, 17(4), 275~32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3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
서주연, 정남운. (2011).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대상 신뢰가 자녀와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pp.387~403.
안주희. (2009). 후기 근대사회 현대인의 불안과 강박에 대한 탐색 -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8(2), pp.73~99.
연합뉴스. (2015. 04. 24). 한국, 행복지수 158개국 중 47위...1위 스위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4/0200000000AKR20150424061051009.HTML 에서 2015. 10. 19 인출.
유봉애, 옥경희. (201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pp.511~538.
이은주. (2013).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과 사회적지지, 우울감 및 죽음불안의 구조적 관계.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수원.
이명희. (2003). 여성독거노인의 생활불안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유봉애, 옥경희. (201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pp.511~538.
임성우, 가영희.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응집력과 사회 적응력 및 불안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5(1), pp.29~39.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6%88%EC%9E%A5%EC%95%A0. 2015.11.2. 인출.
장호익. (2007). 노인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 정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조수철, 정영, 홍강의, 신민섭, 성영훈. (2001). 시험불안과 우울,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pp.225~236.

최인철, 김범준. (2005).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최현보. (2014). 노인의 노화불안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OECD. (2015). *OECD Better Life Index - Edition 2015*.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2015. 11. 2 인출.

부록

부록 1. 청소년 조사표

본 조사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ID						

한국사회의 사회 · 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요인과 일반국민의 정신건강 등 실태파악을 통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4세~ 18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말씀해 주시는 모든 응답내용은「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됨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모든 개인적 건강정보 및 기타정보는 코드화되어 오직 코드번호로만 식별될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하실지 여부는 전적으로 여려분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조사 도중에 조사의 중단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조사를 중단 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의 중단을 원하실 때에는 조사원에게 중단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고, 이유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중단 시 이미 조사된 귀하의 자료는 모두 파기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8월

KIHASA

◇연 구 기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책임자: 정진욱 부연구위원
◇조사수행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

설문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미란 연구원 044)287-8193
제수미 전문연구원 044)287-8120
윤시몬 전문연구원 044)287-8213

조사 진행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마크로밀엠브레인: 김영철 차장 02)3406-3971
엄윤희 과장 02)3406-3914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요인 및 정신적 건강생활 실태조사 참여.자료 활용 동의서

■ 본인은「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제공 목적]
① 정신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국가통계 생산
② 국민의 개인적 및 사회불안 요인 및 관련 요인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개입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정책서비스 제공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모색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가구특성 및 응답자 일반사항
- 연령, 동거 가구원, 학력, 종교여부

[민감정보 수집 항목] - 샘플(안)
○ 가구특성 및 일반적 사항
- 연령, 동거 가구원, 학력, 종교여부 등
○ 가족,학교 등에서의 관계
- 가족과의 관계, 학교 선생님, 친구의 관계, 가족, 학교 내 문제, 문제해결 경험 등
○ 자아의식.대인신뢰도.행복지수
- 자아의식 측정지표, 대인신뢰도, 행복지수, 우리사회의 평등 및 신뢰도와 안정정도 등
○ 개인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 주관적건강상태, 흡연여부, 음주여부, 수면시간, 아침식사 횟수 등
○ 정신건강
-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우울 측정지표, 불안 측정지표, 자살유혹 경험(계획, 시도경험, 시도요인 등) 등
○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자본
- 사회적지지 인식정도, 사회적자본 측정문항(지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등) 등
○ 사회심리적 불안
- 개인 불안요인, 사회적 불안요인, 자신의 미래전망 인식도, 우리나라의 미래전망, 개인불안 해소방안, 범죄피해 경험, 사회적 일탈 중등경험, 평소 본인의 분노조절 정도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입력된 정보외의 조사 참고자료(검증을 위해 파악한 응답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등)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① 예(동의) ②아니오(비동의) ☞조사중단

A. 개인/가구특성

문1.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문2. 나이는 올 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출생년도 ( )년

문3.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 시·도 ( ) 시 ( ) 읍
( ) 군 ( ) 면
( ) 구 ( ) 동

문4.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1) 아버지 2) 어머니
3) 할아버지 4) 할머니
5) 형제자매 6) 형제자매의 배우자
7) 형제자매의 자녀 8) 기타 친인척
9) 가족외 다른 사람(친구 등) 10) 기타 ( )
11) 혼자 거주(동거가족 없음, 1인 가구)

군대, 유학 등으로 일시적 이지만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 제외

문5. 종교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1) 하지 않음(무교 포함) 2) 월 1회 이하 3) 월 1~2회 4) 주 1~2회 5) 주 3회 이상

인터넷, 라디오, TV등의 종교공부는 제외

B. 가족 / 학교 등에서의 관계

문 1. 전반적으로 보아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문 2. 전반적으로 보아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문 3. 가족이나 학교 내의 다툼(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다툼(갈등)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함 ☞(3-1번으로 가세요) 2) 필요 없음 ☞(4번으로 가세요)
3) 경우에 따라 다름 ☞(3-1번으로 가세요)

갈등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정서적 대립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단절, 침묵, 의도적 무시와 따돌림, 신체적·언어적인 유형·무형의 폭력 등을 가리킵니다.

문 3-1. [B3의 1), 3) 응답자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1) 가족 및 친척 2) 친구 3) 선생님
4) 학교상담실 5)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6) 청소년 복지센터
7)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8) 기타( )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혹은 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대상으로 응답합니다.

문 4.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왕따)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1)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그렇다 ☞(4-1번으로 가세요)
2)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4-1번으로 가세요)
3)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그렇다 ☞(4-1번으로 가세요)
4)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아니다 ☞(5번으로 가세요)

문 4-1. 따돌림(왕따)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 때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였습니까?

1) 전혀 받지 않음 2) 약간 받았음 3) 심하게 받았음 4) 매우 심하게 받았음

문 4-2. 따돌림(왕따)을 당할 때 주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있었다 ☞(4-3번으로 가세요)
2) 아니오, 없었다 ☞(5번으로 가세요)

문 4-3. 따돌림(왕따)을 당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1) 가족 및 친척 2) 친구(선배 등) 3) 선생님
4) 학교상담실 5)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6) 청소년 복지센터
7)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8) 기타( )

문 5. 학업성적과 관련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있었다 ☞(5-1번으로 가세요)
2) 아니오, 없었다 ☞(6번으로 가세요)

문 5-1. 학업성적과 관련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1) 가족 및 친척 2) 친구(선배 등) 3) 선생님
4) 학교상담실 5)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6) 청소년 복지센터
7)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8) 학원강사 9) 기타( )

문 6. 이성관계(남자/여자친구)와 관련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있었다 ☞**(6-1번으로 가세요)**
2) 아니오, 없었다 ☞**(7번으로 가세요)**

문 6-1. 이성관계(남자/여자친구)와 관련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1) 가족 및 친척 2) 친구(선배 등) 3) 선생님
4) 학교상담실 5)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6) 청소년 복지센터
7)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8) 기타( )

문 7.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으로 인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있었다 ☞**(7-1번으로 가세요)**
2) 아니오, 없었다 ☞**(8번으로 가세요)**

문 7-1.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으로 인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1) 가족 및 친척 2) 친구(선배 등) 3) 선생님
4) 학교상담실 5)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6) 청소년 복지센터
7)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8) 기타( )

문 8. 진학·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있었다 ☞**(8-1번으로 가세요)**
2) 아니오, 없었다 ☞**(9번으로 가세요)**

문 8-1. 진학·진로문제에 관하여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1) 가족 및 친척 2) 친구(선배 등) 3) 선생님
4) 학교상담실 5)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6) 청소년 복지센터
7)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8) 학원강사 9) 기타( )

문 9.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1) 따돌림(왕따) 2) 학업성적 3) 이성관계(남자/여자친구)
4)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5) 진학·진로문제 6) 외모
7) 집안의 경제문제 8) 건강문제 9) 부모의 별거, 이혼 등(가족해체)
10) 기타( )

C. 자아의식 / 대인신뢰도 / 행복지수

문1. **다음의 항목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문항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1-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1-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1-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1-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1-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1-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2. **현재 자신의 여건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2) 낮다 3) 높다 4) 매우 높다

문3. **여러분의 가정은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최하위 2) 하위 3) 중위 4) 중상위 5)최상위

문4. **가정, 학교, 등에 소속감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1) 매우 적게 느낀다 2) 적게 느낀다 3)많이 느낀다 4)매우 많이 느낀다

문5. **본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행함 2) 불행함 3) 행복함 4) 매우 행복함

문6.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평등 2) 불평등 3) 평등 4) 매우 평등

문7.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신뢰할 수 없음 2)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 3) 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 4) 매우 신뢰할 수 있음

문8.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믿을 수 없음	←	→	매우 믿을 수 있음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9. 우리사회가 얼마나 안정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안정적이지 않음 2) 안정적이지 않음 3) 조금 안정적임 4) 매우 안정적임

D.개인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 일반적 건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현재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문2.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까?

1) 과거에 피웠고, 지금도 피우고 있다
2)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피우지 않는다
3) 과거에는 피우지 않았으나, 지금은 피운다
4) 과거에도 피우지 않았고, 지금도 피우지 않는다

문3. 현재 술(1잔 이상)을 마시고 있습니까?

1) 과거에 마셨고, 현재도 마시고 있다
2) 과거에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3) 과거에는 마시지 않았으나, 현재는 마신다
4) 과거에도 마시지 않았고, 현재도 마시지 않는다

문4.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주무십니까?

_____시간

문4-1. 최근 3개월 동안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1) 없음 2) 월 1-2회 3) 주 1-2회 4) 주 3-4회 5) 거의 매일

문5. 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를(우유나 주스만 먹은 것은 제외) 한 날은 며칠입니까?

1) 0일 2) 1일 3) 2일
4) 3일 5) 4일 6) 5일
7) 6일 8) 7일

빵, 선식 또는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으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식사에 포함합니다.

E.정신건강

문 1.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1) 거의 느끼지 않음　2) 조금 느끼는 편임　3) 많이 느끼는 편임　4) 매우 많이 느낌

문 2. 지난 1주일(7일) 동안 귀하께서 경험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항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2- 1.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2-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2- 4.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 5. 잠을 설쳤다	①	②	③	④
2- 6.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2- 7.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2- 8.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2-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11. 무엇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 3. 아래 각 문항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아니다	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3-1.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3-2. 나는 공연히 두려워진다	①	②	③	④
3-3. 나는 사소한 일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3-4. 나는 신경이 약해져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①	②	③	④
3-5. 나는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다	①	②	③	④
3-6. 나는 손발이 떨리고 안절부절하다	①	②	③	④
3-7. 나는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혹시 허리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3-8. 나는 이유없이 몸이 약하고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3-9. 나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하게 오래앉아 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3-10.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①	②	③	④
3-11. 어지러워서 고생한다.	①	②	③	④
3-12. 나는 졸도하거나 졸도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3-13. 나는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다	①	②	③	④
3-14. 나는 손에 쥐가 나거나 저려서 고생을 한다.	①	②	③	④
3-15. 나는 소화가 안되어 고생을 한다	①	②	③	④
3-16. 나는 소변을 자주 본다	①	②	③	④
3-17. 내 손은 보통 덥고 땀이 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18. 나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화끈 거린다.	①	②	③	④
3-19. 나는 쉽게 잠이 들고 깊이 잔다.	①	②	③	④
3-20. 나는 꿈자리가 사납다.	①	②	③	④

문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적 충격(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란 폭력, 강간, 공격, 재해, 전쟁, 학살,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의미합니다. 죽음이나 이와 비슷한 위험을 실제로 겪거나 직면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상해를 목격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 무력감, 공포 등에 대한 경험을 말합니다.
>
> 단순한 정신적 충격은 아닙니다.

1) 있음 2) 없음

문 5.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1) 예 ☞**(5-1번으로 가세요)** 2) 아니오 ☞**(PART F로 가세요)**

문 5-1. [문5의 1) 응답자만]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1) 경제적 어려움 2) 현재 앓고 있는 질환
3) 가족갈등 4)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
5) 생활환경문제 (거주 등) 6) 학업 및 취업문제(진로 등)
7) 가족의 건강문제 8) 이성문제
9) 주변과의 단절(외로움) 10) 기타( )

문 6. [문5의 1) 응답자만] 지금까지 살면서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7번으로 가세요)** 2) 아니오 ☞**(PART F로 가세요)**

문 7. [문6의 1) 응답자만] 지금까지 살면서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1) 예 ☞**(7-1번으로 가세요)** 2) 아니오 ☞**(PART F로 가세요)**

문 7-1. [문 7의 1) 응답자만]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1) 경제적 어려움 2) 현재 앓고 있는 질환
3) 가족갈등 4)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
5) 생활환경문제 (거주 등) 6) 학업 및 취업문제(진로 등)
7) 가족의 건강문제 8) 이성문제
9) 주변과의 단절(외로움) 10) 기타( )

F. 사회적지지 / 사회적자본

문 1.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회적 지지란 다른 사람(가족, 친척, 선생님, 친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일상적인 문제와 감정을 함께 나누고, 정보와 애정을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받고 있지 않음	←						→			매우 많이 받고 있음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2. 가족끼리 소통(SNS, 전화를 이용한 소통 포함)을 얼마정도 하시는 편입니까?

매우 적음	←						→	매우 많음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소통은 대화, 왕래, 교류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문 3. 친구들과 소통(SNS, 전화를 이용한 소통 포함)을 얼마정도 하십니까?

매우 적음	←						→	매우 많음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4. 평소 어려움에 처한 경우,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음	←						→	매우 많음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주변은 가족과 이웃을 모두 포함합니다.

문 5. 평소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음	←						→	매우 많음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6. 정기적으로 동아리 활동(운동 등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정기적인 모임이 아닌 일시적 모임은 제외합니다.

G. 사회심리적 불안

문 1. 최근 1년간 다음의 <u>개인적인 문제</u> 중 가장 크게 불안을 느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신체적 건강
2) 정신적 건강
3)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간섭(가족관계상 문제)
4) 가족해체(부모 이혼, 별거 등)
5) 가정경제문제
6) 학업문제(성적/시험압박 등)
7)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학교폭력, 왕따 등)
8) 이성관계
9) 외모문제
10) 미래에 대한 불안(진학, 취업문제 등)
11)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노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 악플, 신상털기, 보이스 피싱 등)
12) 기타(　　)

문 1-1. 최근 1년간 다음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불안 요인	불안의 정도										
1)	학업문제 (예. 성적/시험 압박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2)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예. 학교폭력, 왕따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3)	이성관계 (예. 이성친구(여자/남자친구) 문제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4)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간섭 (예. 가족과의 의사소통, 유대감, 대화단절 문제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5)	외모 (예. 외모에 대한 불만족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6)	미래에 대한 불안 (예. 진학, 취업문제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7)	가족해체 (예. 부모의 이혼, 사별, 별거,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분리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8)	가정경제문제 (예. 경제적 곤란, 아르바이트 문제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9)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예. 사생활노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 악플, 신상털기, 보이스 피싱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0)	신체적 건강 (예. 장애, 질병, 비만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1)	정신적 건강 (예. 스트레스, 우울, 중독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2)	기타 ( )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2. 최근 1년간 다음의 사회 문제 중 가장 크게 불안을 느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2)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3) 안전문제(세월호, 싱크홀 등)
4)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5) 정치 및 대외관계(북한위협, 정치불안 등)
6)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자살, 도박, 중독 등)
7) 학대, 폭력 등 범죄
8) 사회안전망 취약(가족동반자살, 복지사각지대 등)
9) 저출산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노인문제 증가, 사회활력 감소 등)
10) 계층, 집단 및 세대간 갈등(노사갈등, 대규모 파업, 폭력시위 등)
11)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대학입시 전형 및 교육과정 개정 등)
12)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노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 악플, 신상털기, 보이스 피싱 등)
13) 기타( )

문 2-1. 최근 1년간 다음의 사회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회 불안 요인	불안의 정도
1)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예. 메르스, SARS, 신종플루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2)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예. 일자리부족, 소득감소, 신용불량자 증가)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3)	안전문제 (예. 세월호 침몰, 원전사고, 교량붕괴, 싱크홀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4)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예. 기후변화, 자연재해, 물, 에너지 부족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5)	정치 및 대외관계 (예. 정치불안, 북한의 위협, 핵위협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6)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 (예. 자살, 도박, 알코올 중독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7)	학대, 폭력 등 범죄 (예. 성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살인, 강도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8)	사회안전망 취약 (예. 세모녀 사건, 가족동반자살 등 복지사각으로 인한 문제점)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9)	저출산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 (예. 노인문제 증가, 복지부담 증가, 사회활력 감소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0)	계층, 집단 및 세대간 갈등 (예. 노사갈등, 대규모 파업, 폭력시위, 집단이기주의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사회 불안 요인	불안의 정도
11)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예. 대학입시 전형 및 교육과정 개정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2)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예. 사생활노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 악플, 신상털기, 보이스 피싱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3)	기타 ( )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3.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4.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5. 평소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주로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 수면이나 휴식 2) 스포츠 활동 3) 노래방
4) TV시청 5) 장기나 바둑 6) 독서
7) 드라이브 8) 여행 9) 감상 및 관람(영화, 음악, 미술 등)
10) 취미활동 11) 대화 12) 외식
13) 쇼핑 14) 종교활동 15) (방에) 혼자 있음
16) 산책 17) 인터넷, 스마트폰 18) 게임
19) 약물 20) 도박 21) 음주
22) 흡연 23) 남의 물건을 훔침 24) 폭식
25) 의료기관 및 보건소 상담 26) 기타( )
27) 없음

문 6.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지난 한 해 동안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3) 잘 모르겠음

범죄는 오물방치, 음주소란 등 경범죄까지 모두 포함

문 7. 지난 한 해 동안 뚜렷한 이유 없이 사회적 일탈(과격한 행동 등)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음 2) 없음

문 8. 평소에 본인의 분노조절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조절되지 않음 2) 조절되지 않는 편임 3) 조절되는 편임 4) 매우 잘 조절됨

H.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문 1.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 신체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및 지원
2) 정신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 및 지원
3) 가족 갈등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지원
4) 가족해체 등 위기 가족 지원
5) 생활경제문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
6) 학업상담 및 지원
7)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8) 이성문제 상담 및 지원
9) 미래 문제(진학, 취업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10)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보완 및 위반자 처벌 강화
11) 기타( )

문 2.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및 식중독 관리 강화
2) 경기활성화 및 성장 촉진
3) 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 대응
4) 환경 보호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5) 정치 및 대외관계 강화
6)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 지원
7) 학대, 폭력 등 범죄 문제에 대한 국가안전체계 강화
8) 사회안전망 강화
9)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대책 강화
10) 계층, 집단 및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11) 교육 및 입시제도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12)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보완 및 위반자 처벌 강화
13) 기타( )

문 3.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른다

문 4. 정신건강문제로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문 5.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5-1번으로 가세요)** 2) 아니오 ☞**(PART I로 가세요)**

문 5-1. **공공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중복선택 가능)**

1) 지역사회 체육 프로그램 강화
2) 지역사회 내 자조모임 확대 지원
3) 가정방문을 통한 정신건강관리
4)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5) 문화활동(영화관람 등) 지원
6) 지역사회 멘토 지정 운영
7) 기타 ( )

I. 일반사항

문1.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중학교 재학
2) 중학교 중퇴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재학
5) 고등학교 중퇴
6) 고등학교 졸업
7) 대학교 재학
8) 기타( )

[응답자 및 설문지 관리 정보]		
응답자	성명 :	전화 :) -
응답자 주소	_____시(도) _____구(군)	
※ 내부용	IP주소:	GPS위치:

부록 2. 성인 조사표

본 조사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ID						

한국사회의 사회 · 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요인과 일반국민의 정신건강 등 실태파악을 통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말씀해 주시는 모든 응답내용은「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됨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모든 개인적 건강정보 및 기타정보는 코드화되어 오직 코드번호로만 식별될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하실지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조사 도중에 조사의 중단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조사를 중단 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의 중단을 원하실 때에는 조사원에게 중단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고, 이유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중단 시 이미 조사된 귀하의 자료는 모두 파기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8월

KIHASA

◇연 구 기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책임자: 정진욱 부연구위원
◇조사수행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

설문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미란 연구원 044)287-8193
채수미 전문연구원 044)287-8120
윤시몬 전문연구원 044)287-8213

조사 진행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마크로밀엠브레인: 김영철 차장 02)3406-3971
엄윤희 과장 02)3406-3914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요인 및 정신적 건강생활 실태조사 참여·자료 활용 동의서

■ 본인은「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제공 목적]
① 정신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국가통계 생산
② 국민의 개인적 및 사회불안 요인 및 관련 요인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개입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정책서비스 제공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모색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가구특성 및 응답자 일반사항
- 연령, 지역, 혼인상태, 가구원수, 동거형태, 종교활동, 맞벌이 여부, 직업, 근로형태, 학력, 가구 월 소득 등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가구특성 및 일반적 사항
- 연령, 혼인상태, 가구원수, 맞벌이여부, 직업, 근로형태, 가족 중 간병인 필요여부, 학력, 가구월소득, 종교여부 등
○ 가족.직장.지역사회와의 관계
-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요인, 직장내 스트레스, 이웃관계, 이웃간 갈등요인, 이웃간 갈등해결방안 및 해결책, 가족·이웃주민 및 직장동료와의 활동빈도, 평소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 등
○ 자아의식.대인신뢰도.행복지수
- 자아의식 측정지표, 대인신뢰도, 행복지수, 본인 사회계층 인식도, 향후 현재계층보다 향상 가능성, 우리사회의 평등 및 신뢰도와 안정정도 등
○ 개인건강 및 생활습관.형태(음주습관)
주관적건강상태, 흡연여부, 음주중독 측정지표(AUDIT K) 등
○ 정신건강
-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우울 측정지표, 자살유혹 경험(계획, 시도경험, 시도요인 등) 등
○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자본
- 사회적지지 인식정도, 사회적자본 측정문항(지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등) 등
○ 사회심리적 불안
- 개인 불안요인 및 불안요인, 사회적 불안요인, 자신의 미래전망 인식도, 우리나라의 미래전망, 향후 근무가능 연수 등, 개인불안 해소방안, 향후 노후준비의 충분성, 범죄피해 경험, 사회적 일탈 충동경험, 평소 본인의 분노조절 정도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입력된 정보외의 조사 참고자료(검증을 위해 파악한 응답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등)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는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① 예(동의) ②아니오(비동의) ☞*조사중단*

A. 개인/가구특성

문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문 2. 귀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출생년도 : ( )년

문 3.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 ) 시.도	( ) 시	( ) 읍
	( ) 군	( ) 면
	( ) 구	( ) 동

문 4. 귀하의 혼인 상태는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1) 미혼 2) 기혼(유배우, 동거) 3) 별거 또는 이혼
4) 사별 5) 기타( )

문 5. 본인을 포함하여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_____명

문 6.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1) 배우자 2)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4) 자녀 5) 자녀의 배우자 6) 형제자매의 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7) 부(아버지, 시아버지, 장인) 8) 모(어머니, 시어머니 장모)
9) 조부(할아버지, 시할아버지, 장조부) 10) 조모(할머니, 시할머니, 장조모)
11) 손자녀 12) 기타 친인척 13) 비혈연 동거인
14) 기타 ( ) 15) 혼자 거주(동거가족 없음, 1인 가구)

[문5의 응답값이 "1"일 경우 15) 만 응답 가능 / 문5의 응답 가구원 수가 최대 보기 선택]

문 7. 귀하는 종교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인터넷, 라디오, TV등의 종교공부는 제외

1) 하지 않음(무교 포함) 2) 월 1회 이하 3) 월 1~2회 4) 주 1~2회 5) 주 3회 이상

문 8. [A4의 2) 응답자만] 귀하는 맞벌이 부부 이십니까?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수입이 있으면 맞벌이

1) 예 2) 아니오 3) 비해당

문 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직업군인 포함) 11) 주부 12) 무직
13) 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14) 기타 ( )

※ 자영업, 가족종사자의 경우는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업종을 응답해주세요.
예: 자영업자 중 음식업 종사자(식당, 치킨집 등)는 **서비스 종사자**를 선택
상점 종사자(슈퍼마켓, 옷가게 등)은 **판매 종사자**를 선택

문 9-1. [A9의 1)~9) 응답자만] 귀하의 근로형태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정식직원으로 근무　2) 임시직원으로 근무　3) 자영업　4) 기타 (　　)

문 9-2. 귀하가 종사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주로 종사했던 직종은 어떤 종류입니까?

육체노동과 관련된 직종	←						→		지적활동과 관련된 직종
1	2	3	4	5	6	7	8	9	10

99) 비해당(직장에 다닌 적이 없음)

현재 직장에 다니면 현재직종을 기준,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과거직종을 기준

B. 가족 / 지역사회와의 관계

문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보아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문 2. A9의 1)~9) 응답자만] 귀하는 전반적으로 보아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문 3. 귀하는 전반적으로 보아 이웃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문 4. 귀하는 아래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문항	안함	월 1회 이하	월 1~2회	주 1~2회	주 3회 이상
4-1. 가족과의 활동 (예. 가족과의 외출, 산책, 쇼핑, 외식, 운동 등)	①	②	③	④	⑤
4-2. 이웃주민과의 활동 (예. 이웃주민과의 친목모임, 주민동호회, 스포츠 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4-3. 직장동료와의 활동 [A9의 1)~9) 응답자만] (예. 직장동호회, 업무 외 모임, 연락 등의 교류 등)	①	②	③	④	⑤

문 5. 귀하는 가족이나 직장 내의 다툼(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다툼(갈등)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3자의 개입(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함 ☞(5-1번으로 가세요)　2) 필요 없음 ☞(6번으로 가세요)
3) 경우에 따라 다름 ☞(5-1번으로 가세요)

갈등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정서적 대립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단절, 침묵, 의도적 무시와 따돌림, 신체적·언어적인 유형·무형의 폭력 등을 가리킵니다.

문 5-1. [B5의 1), 3) 응답자만] 개입이 필요하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1) 가족 및 친척　2) 이웃 및 친구
3) 회사직원(상사, 동료, 후배 등)　4)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5)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6)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7) 학교상담실　8) 기타(　　)

문 6. 귀하께서는 보통 누구랑 같이 식사 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1)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2) 부모 3) 배우자
4) 자녀 5) 자녀의 배우자 6) 손녀
7) 형제자매 8) 친족 9) 직장동료
10) 친구 11) 이웃 12) 지인
13) 혼자 14) 기타( )

C. 자아의식 / 대인신뢰도 / 행복지수

문 1. 다음의 항목은 귀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조사 시점 기준]

문항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1-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1-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1-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1-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1-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1-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2. 귀하는 현재 자신의 여건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2) 낮다 3) 높다 4) 매우 높다

문 3. 귀하는 현재 본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최하위 2) 하위 3) 중위 4) 중상위 5)최상위

가구가 아닌 본인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4. 귀하는 현재보다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2) 낮다 3) 높다 4) 매우 높다

문 5. 귀하는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에 소속감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1) 매우 적게 느낀다 2) 적게 느낀다 3) 많이 느낀다 4)매우 많이 느낀다

문 6. 귀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행함 2) 불행함 3) 행복함 4) 매우 행복함

문 7. 귀하는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평등 2) 불평등 3) 평등 4) 매우 평등

문 8.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신뢰할 수 없음 2)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 3) 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 4) 매우 신뢰할 수 있음

문 9. 귀하는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믿을 수 없음	←						→	매우 믿을 수 있음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10. 귀하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안정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안정적이지 않음 2) 안정적이지 않음 3) 조금 안정적임 4) 매우 안정적임

D. 개인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 일반적 건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 귀하는 현재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문 2. 아래의 각 문항에서 오늘 귀하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2-1. 운동능력	1) 나는 걷는데 지장이 없다 2) 나는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3) 나는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2-2. 자기관리	1)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다 2)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3)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2-3. 일상 활동 (예: 일 공부, 가사일 가족 또는 여가활동)	1)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2)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3) 나는 일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
2-4. 통증/불편	1) 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2) 나는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3)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2-5. 불안/우울	1)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2)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3) 나는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문 3.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1) 그렇다 ☞**(3-1번으로 가세요)** 2) 아니다 ☞**(4번으로 가세요)**

문 3-1. [D3의 1)응답자만]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한달에 1갑(20개비)일 경우 0.7개비로 입력

1) 매일 피움 (하루 평균 흡연량 개비)
2) 가끔 피움 (하루 평균 흡연량 개비) ※ 가끔 피우더라도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여 기재해주세요.
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문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9번으로 가세요)** 2) 있음 ☞**(5번으로 가세요)**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문 5. [D4의 2) 응답자만]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술을 얼마나 자주 드셨습니까?

1) 전혀 마시지 않음 ☞**(9번으로 가세요)**
2) 월 1회 이하 3) 월 2-4회
4) 주 2-3회 5) 주 4회 이상

문 6. [D4의 2) 응답자만]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실 때는 보통 한 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까?

1) 1-2잔 2) 3-4잔 3) 5-6잔 4) 7-9잔 5) 10잔 이상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문 7. [D4의 2) 응답자만]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음주(술)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없다	월1회 미만	월1회	주1회	거의 매일
7-1. 한 번에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2.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3. 평소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4. 술을 마신 다음날 정신을 차리기 위해 다시 해장술을 마신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5.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6. 음주 때문에 전날 밤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해당하는 빈도가 없으면, 가장 근접한 경험정도에 표시합니다.

문 8. [D4의 2) 응답자만] 다음은 귀하의 음주(술)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없다	과거에 있었지만 지난 1년간 없었다	지난 1년간 있었다
8-1. 본인의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8-2. 본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걱정을 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 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문 9.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주무십니까? _____시간

문 9-1. 최근 3개월 동안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1) 없음 2) 월 1-2회 3) 주 1-2회 4) 주 3-4회 5) 거의 매일

E. 정신건강

문 1.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1) 거의 느끼지 않음　2) 조금 느끼는 편임　3) 많이 느끼는 편임　4) 매우 많이 느낌

문 2. 지난 1주일(7일) 동안 귀하께서 경험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항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2- 1.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2-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2- 4.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 5. 잠을 설쳤다	①	②	③	④
2- 6.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2- 7.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2- 8.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2-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11. 무엇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 3. 아래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아니다	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3-1.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3-2. 나는 공연히 두려워진다	①	②	③	④
3-3. 나는 사소한 일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3-4. 나는 신경이 약해져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①	②	③	④
3-5. 나는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다	①	②	③	④
3-6. 나는 손발이 떨리고 안절부절하다	①	②	③	④
3-7. 나는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혹시 허리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3-8. 나는 이유없이 몸이 약하고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3-9. 나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하게 오래앉아 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3-10.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①	②	③	④
3-11. 어지러워서 고생한다.	①	②	③	④
3-12. 나는 졸도하거나 졸도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3-13. 나는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다	①	②	③	④
3-14. 나는 손에 쥐가 나거나 저려서 고생을 한다	①	②	③	④
3-15. 나는 소화가 안되어 고생을 한다	①	②	③	④
3-16. 나는 소변을 자주 본다	①	②	③	④
3-17. 내 손은 보통 덥고 땀이 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18. 나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화끈 거린다	①	②	③	④
3-19. 나는 쉽게 잠이 들고 깊이 잔다	①	②	③	④
3-20. 나는 꿈자리가 사납다	①	②	③	④

문4.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적 충격(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란 폭력, 강간, 공격, 재해, 전쟁, 학살,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의미합니다. 죽음이나 이와 비슷한 위험을 실제로 겪거나 직면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상해를 목격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 무력감, 공포 등에 대한 경험을 말합니다. 단순한 정신적 충격은 아닙니다.

1) 있음　　2) 없음

문 5. **귀하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1) 예 ☞**(5-1번으로 가세요)**　　2) 아니오 ☞**(PART F로 가세요)**

문 5-1. [E5의 1) 응답자만] 귀하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1) 경제적 어려움　　2) 현재 앓고 있는 질환
3) 가족갈등　　4) 직장생활 (업무 및 대인관계 등)
5) 생활환경문제 (거주 등)　　6) 학업 및 취업문제(진로 등)
7) 가족의 건강문제　　8) 이성문제
9) 주변과의 단절(외로움)　　10) 기타(　　)

문 6. **[E5의 1) 응답자만] 귀하께서 지금까지 살면서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7번으로 가세요)**　　2) 아니오 ☞**(PART F로 가세요)**

문 7. **[E6의 1) 응답자만] 귀하께서 지금까지 살면서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1) 예 ☞**(7-1번으로 가세요)**　　2) 아니오 ☞**(PART F로 가세요)**

문 7-1. [E7의 1) 응답자만] 귀하가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1) 경제적 어려움　　2) 현재 앓고 있는 질환
3) 가족갈등　　4) 직장생활 (업무 및 대인관계 등)
5) 생활환경문제 (거주 등)　　6) 학업 및 취업문제(진로 등)
7) 가족의 건강문제　　8) 이성문제
9) 주변과의 단절(외로움)　　10) 기타(　　)

F.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자본

문 1. 귀하께서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적 지지란 다른 사람(가족, 친척, 선생님, 친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일상적인 문제와 감정을 함께 나누고, 정보와 애정을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받고 있지 않음	←						→			매우 많이 받고 있음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2. 다음 문항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항	예	아니오
2-1.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2-.2 이웃에 경조사가 있을 때 주민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전통이 있다	①	②
2-3. 우리 동네의 전반적 안전수준(자연재해, 교통사고, 농작업 사고, 범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2-4. 우리 동네의 자연환경(공기질, 수질 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2-5. 우리 동네의 생활환경(전기,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스포츠시설 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2-6. 우리 동네의 대중교통 여건(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2-7. 우리 동네의 의료서비스 여건(보건소, 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문 3. 귀하께서는 가족끼리 소통(SNS, 전화를 이용한 소통 포함)을 얼마정도 하시는 편입니까?

매우 적음	←						→			매우 많음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소통은 대화, 왕래, 교류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문 4. 귀하는 가족 이외 주변사람들과 소통(SNS, 전화를 이용한 소통 포함)을 얼마정도 하십니까?

매우 적음	←						→			매우 많음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5. 귀하는 평소 어려움에 처한 경우,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음	←						→			매우 많음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주변은 가족과 이웃을 모두 포함합니다.

문 6. 귀하는 평소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음	←						→			매우 많음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7. 귀하는 정기적으로 동호회 활동(운동 등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정기적인 모임이 아닌 일시적 모임은 제외합니다.

G. 사회심리적 불안

문 1. 귀하는 최근 1년간 다음의 개인적인 문제 중 가장 크게 불안을 느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노후준비 (예. 연금, 저축, 자산 등)
2) 신체적 건강 (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중증질환, 장애 등)
3) 가족관계 및 해체 (예. 가족갈등, 이혼, 별거 등)
4) 직장내의 갈등문제 (예. 대인관계, 열악한 근무여건 등)
5)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문제 (예. 기억력 감퇴, 체력 저하, 치매, 가족 및 이웃과의 대화 및 교류 단절, 세대 간 교류 단절, 고독 등)
6) 취업 및 소득 (예. 실업, 부채, 빈곤 등)
7) 생활안전 (예. 주변치안, 유흥업소, 혐오시설 등)
8) 정신적 건강 (예. 스트레스, 우울, 중독 등)
9) 자녀교육, 가족부양 및 간병 (예. 자녀교육, 가족부양, 간병 등)
10) 이웃과의 관계 (예. 갈등, 층간소음, 흡연 및 주차문제 등)
11)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예. 사생활노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 악플, 신상털기, 보이스 피싱 등)
12) 기타(　　)

문 1-1. 귀하는 최근 1년간 다음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불안 요인	불안의 정도										
1)	취업 및 소득 (예. 실업, 부채, 빈곤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2)	노후준비 (예. 연금, 저축, 자산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3)	생활안전 (예. 주변치안, 유흥업소, 혐오시설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4)	신체적 건강 (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중증질환, 장애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5)	정신적 건강 (예. 스트레스, 우울, 중독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6)	가족관계 및 해체 (예. 가족갈등, 이혼, 별거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개인적인 불안 요인	불안의 정도
7)	자녀교육, 가족부양 및 간병 (예. 자녀교육, 가족부양, 간병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8)	직장내의 갈등문제 (예. 대인관계, 열악한 근무여건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9)	이웃과의 관계 (예. 갈등, 층간소음, 흡연 및 주차문제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0)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문제 (예. 기억력 감퇴, 체력 저하, 치매, 가족 및 이웃과의 대화 및 교류 단절, 세대 간 교류 단절, 고독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1)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예. 사생활노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 악플, 신상털기, 보이스 피싱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2)	기타 (_____)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2. 귀하는 최근 1년간 다음의 사회 문제 중 가장 크게 불안을 느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2)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3) 안전문제(세월호, 싱크홀 등)
4)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5) 정치 및 대외관계(북한위협, 정치불안 등)
6)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자살, 도박, 중독 등)
7) 학대, 폭력 등 범죄
8) 사회안전망 취약(가족동반자살, 복지사각지대 등)
9) 저출산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노인문제 증가, 사회활력 감소 등)
10) 계층, 집단 및 세대간 갈등(노사갈등, 대규모 파업, 폭력시위 등)
11)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대학입시 전형 및 교육과정 개정 등)
12)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노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 악플, 신상털기, 보이스 피싱 등)
13) 기타( )

문 2-1. 귀하는 최근 1년간 다음의 사회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회 불안 요인	불안의 정도
1)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예. 메르스, SARS, 신종플루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2)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예. 일자리부족, 소득감소, 신용불량자 증가)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3)	안전문제 (예. 세월호 침몰, 원전사고, 교량붕괴, 싱크홀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4)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예. 기후변화, 자연재해, 물, 에너지 부족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사회 불안 요인	불안의 정도										
5)	정치 및 대외관계 (예. 정치불안, 북한의 위협, 핵위협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6)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 (예. 자살, 도박, 알코올 중독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7)	학대, 폭력 등 범죄 (예. 성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살인, 강도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8)	사회안전망 취약 (예. 세모녀 사건, 가족동반자살 등 복지 사각으로 인한 문제점)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9)	저출산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 (예. 노인문제 증가, 복지부담 증가, 사회활력 감소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0)	계층, 집단 및 세대간 갈등 (예. 노사갈등, 대규모 파업, 폭력시위, 집단이기주의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1)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예. 대학입시 전형 및 교육과정 개정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2)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예. 사생활노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 악플, 신상털기, 보이스 피싱 등)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3)	기타 (　　)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3. 귀하께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4.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음	←						→	매우 불안함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 5. 귀하께서는 앞으로 몇 년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　　)년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현재 직업 없음

문 6. 귀하는 평소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주로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 수면이나 휴식 2) 스포츠 활동 3) 노래방
4) TV시청 5) 장기나 바둑 6) 독서
7) 드라이브 8) 여행 9) 감상 및 관람(영화, 음악, 미술 등)
10) 취미활동 11) 대화 12) 외식
13) 쇼핑 14) 종교 활동 15) (방에) 혼자 있음
16) 산책 17) 인터넷, 스마트폰 18) 게임
19) 약물 20) 도박 21) 음주
22) 흡연 23) 남의 물건을 훔침 24) 폭식
25) 의료기관 및 보건소 상담 26) 기타( )
27) 없음

문 7. 귀하께서는 본인의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전혀 충분하지 않음 2) 충분하지 않은 편임 3) 충분한 편임 4) 매우 충분함

문 8.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지난 한 해 동안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3) 잘 모르겠음

범죄는 오물방치, 음주소란 등 경범죄까지 모두 포함

문 9. 귀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뚜렷한 이유 없이 사회적 일탈(과격한 행동 등)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1) 있음 2) 없음

문 10. 귀하께서는 평소에 본인의 분노조절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조절되지 않음 2) 조절되지 않는 편임 3) 조절되는 편임 4) 매우 잘 조절됨

H.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문 1.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 충분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 대비를 위한 상담 및 지원
2)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신 및 지원
3) 가족관계 및 해체 등 위험 및 위기가족 지원
4)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지원
5)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상담 및 지원
6) 취업 및 소득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생활경제문제 극복을 위한) 고용대책 및 경제적 지원
7) 생활안전환경의 (치안, 유흥업소, 혐오시설 등) 개선
8) 정신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 및 지원
9) 자녀교육, 가족부양 및 간병 지원
10) 이웃과의 대인관계에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지원
11)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보완 및 위반자 처벌 강화
12) 기타( )

문 2.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및 식중독 관리 강화
2) 경기활성화 및 성장 촉진
3) 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 대응
4) 환경 보호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5) 정치 및 대외관계 강화
6)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 지원
7) 학대, 폭력 등 범죄 문제에 대한 국가안전체계 강화
8) 사회안전망 강화
9)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대책 강화
10) 계층, 집단 및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11) 교육 및 입시제도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12)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보완 및 위반자 처벌 강화
13) 기타( )

문 3.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른다

문 4. 귀하는 정신건강문제로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문 5. 귀하께서는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5-1번으로 가세요)** 2) 아니오 ☞**(PART Ⅰ로 가세요)**

문 5-1. 공공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중복선택 가능)

1) 지역사회 체육 프로그램 강화 2) 지역사회 내 자조모임 확대 지원
3) 가정방문을 통한 정신건강관리 4)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5) 문화활동(영화관람 등) 지원 6) 지역사회 멘토 지정 운영
7) 기타 ( )

Ⅰ. 일반사항

문 1. 귀하의 학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재학 중
5)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재학 중
7) 대학원 졸업 이상

문 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귀하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월 평균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200만원 미만
3) 200만원~300만원 미만
4) 300만원~400만원 미만
5) 400만원~500만원 미만
6) 500만원~600만원 미만
7) 600만원~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문 3. 귀댁의 소득수준은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소득 ← → 고소득

0	1	2	3	4	5	6	7	8	9	10

[응답자 및 설문지 관리 정보]		
응답자	성명 :	전화 :) -
응답자 주소	_____시(도) _____구(군)	
면접원	성명 :	면접 일시 : 2015년 8월 일/ (시 분 ~ 시 분)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3. 청소년 조사 세부결과표

〈부표 3-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

구분		총 합계	학업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가정경제문제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1,644	32.9	1,399	28.0	323	6.5
성별	남성	2,613	905	34.6	621	23.8	166	6.4
	여성	2,387	739	31.0	777	32.6	157	6.6
연령별	만 14세	950	302	31.8	229	24.1	37	3.9
	만 15세	978	317	32.5	278	28.4	61	6.3
	만 16세	994	342	34.4	247	24.8	70	7.1
	만 17세	1,021	377	36.9	288	28.2	77	7.5
	만 18세	1,058	306	28.9	357	33.7	78	7.4
지역별	동	4,696	1,543	32.9	1,327	28.3	305	6.5
	읍·면	304	101	33.1	72	23.5	18	6.0
세대별	1세대	70	13	19.1	14	20.0	7	10.1
	2세대	4,270	1420	33.2	1196	28.0	279	6.5
	3세대	660	211	32.0	189	28.6	38	5.7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553	31.7	467	26.7	88	5.0
	중학교 중퇴/졸업	153	53	34.8	26	17.0	10	6.6
	고등학교 재학	2,808	995	35.4	810	28.9	189	6.7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3	10.9	47	41.0	11	9.3
	대학교 재학	175	30	16.9	49	27.6	25	14.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577	33.4	1326	28.0	303	6.4
	학교 다니지 않음	268	66	24.6	73	27.2	21	7.7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122	33.0	961	28.3	215	6.3
	하고 있음	1,600	522	32.6	437	27.3	108	6.8

구분		총 합계	외모문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간섭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266	5.3	257	5.1	246	4.9	227	4.5
성별	남성	2,613	140	5.4	182	7.0	133	5.1	118	4.5
	여성	2,387	126	5.3	75	3.1	113	4.7	108	4.5
연령별	만 14세	950	74	7.8	61	6.5	50	5.3	41	4.3
	만 15세	978	54	5.6	58	5.9	38	3.9	50	5.1
	만 16세	994	55	5.6	52	5.2	57	5.7	44	4.4

구분		총 합계	외모문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간섭	
			명	%	명	%	명	%	명	%
	만 17세	1,021	38	3.7	47	4.6	39	3.8	33	3.2
	만 18세	1,058	44	4.1	39	3.7	62	5.9	59	5.6
지역별	동	4,696	242	5.2	239	5.1	228	4.9	218	4.6
	읍·면	304	24	7.7	18	5.9	18	6.0	9	2.9
세대별	1세대	70	4	5.0	7	10.1	4	6.0	1	1.2
	2세대	4,270	223	5.2	215	5.0	211	4.9	200	4.7
	3세대	660	39	5.9	35	5.3	31	4.6	25	3.8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118	6.8	108	6.2	78	4.5	79	4.5
	중학교 중퇴/졸업	153	7	4.4	15	9.9	13	8.4	6	4.2
	고등학교 재학	2,808	126	4.5	123	4.4	127	4.5	128	4.6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4	3.8	4	3.2	15	13.1	5	4.2
	대학교 재학	175	10	5.5	7	4.0	13	7.5	8	4.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254	5.4	238	5.0	218	4.6	215	4.6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1	4.1	19	7.0	28	10.4	11	4.2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92	5.6	177	5.2	146	4.3	152	4.5
	하고 있음	1,600	74	4.6	80	5.0	100	6.3	74	4.6

구분		총 합계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이성관계		가족해체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215	4.3	186	3.7	113	2.3	40	0.8
성별	남성	2,613	65	2.5	137	5.2	58	2.2	27	1.0
	여성	2,387	149	6.3	50	2.1	55	2.3	13	0.5
연령별	만 14세	950	42	4.5	33	3.5	23	2.4	14	1.5
	만 15세	978	45	4.6	31	3.2	19	1.9	11	1.1
	만 16세	994	54	5.4	31	3.2	28	2.8	7	0.7
	만 17세	1,021	43	4.2	48	4.7	20	1.9	4	0.4
	만 18세	1,058	31	2.9	43	4.1	24	2.2	4	0.4
지역별	동	4,696	199	4.2	176	3.8	102	2.2	36	0.8
	읍·면	304	16	5.1	10	3.3	11	3.8	4	1.4
세대별	1세대	70	3	4.2	10	14.1	3	4.5	1	1.2
	2세대	4,270	189	4.4	151	3.5	86	2.0	29	0.7
	3세대	660	23	3.5	25	3.8	24	3.6	11	1.6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83	4.7	59	3.4	38	2.2	22	1.2

구분		총 합계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이성관계		가족해체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명	%	명	%	명	%	명	%
	중학교 중퇴/졸업	153	3	2.0	8	4.9	8	5.0	2	1.3
	고등학교 재학	2,808	119	4.2	97	3.5	57	2.0	14	0.5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4	3.8	4	3.3	3	2.4	3	2.5
	대학교 재학	175	5	3.0	19	11.0	8	4.5	0	0.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207	4.4	175	3.7	103	2.2	35	0.7
	학교 다니지 않음	268	7	2.8	11	4.2	10	3.9	5	1.9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43	4.2	127	3.7	78	2.3	25	0.7
	하고 있음	1,600	72	4.5	59	3.7	35	2.2	15	0.9

구분		총 합계	기타		없다		모름		통계값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11	0.2	64	1.3	10	0.2	
성별	남성	2,613	6	0.2	51	2.0	3	0.1	X^2= 179.069***
	여성	2,387	5	0.2	12	0.5	6	0.3	
연령별	만 14세	950	4	0.4	36	3.8	3	0.3	X^2= 203.679***
	만 15세	978	2	0.3	11	1.1	2	0.2	
	만 16세	994	0	0.0	6	0.6	0	0.0	
	만 17세	1,021	2	0.2	4	0.4	2	0.2	
	만 18세	1,058	3	0.2	7	0.7	3	0.3	
지역별	동	4,696	10	0.2	61	1.3	10	0.2	X^2= 18.953
	읍·면	304	1	0.3	3	0.9	0	0.0	
세대별	1세대	70	1	1.8	1	1.2	1	1.3	X^2= 131.426***
	2세대	4,270	10	0.2	53	1.2	9	0.2	
	3세대	660	0	0.0	10	1.5	0	0.0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6	0.4	43	2.5	4	0.2	X^2= 243.110***
	중학교 중퇴/졸업	153	0	0.0	3	1.7	0	0.0	
	고등학교 재학	2,808	4	0.1	16	0.6	4	0.1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	0.9	1	0.8	1	0.8	
	대학교 재학	175	0	0.0	1	0.5	1	0.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0	0.2	60	1.3	9	0.2	X^2= 44.839***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	0.4	3	1.3	1	0.3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7	0.2	46	1.4	8	0.2	X^2= 21.643
	하고 있음	1,600	4	0.3	18	1.1	2	0.1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

구분		총 합계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정치 및 대외관계		안전문제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880	17.6	849	17.0	668	13.4	533	10.7
성별	남성	2,613	401	15.3	494	18.9	269	10.3	343	13.1
	여성	2,387	480	20.1	355	14.9	400	16.7	190	7.9
연령별	만 14세	950	114	12.0	158	16.6	137	14.4	61	6.4
	만 15세	978	158	16.1	173	17.7	141	14.4	74	7.6
	만 16세	994	215	21.7	181	18.2	111	11.2	106	10.7
	만 17세	1,021	215	21.0	152	14.9	135	13.2	121	11.9
	만 18세	1,058	178	16.8	185	17.5	144	13.7	170	16.1
지역별	동	4,696	819	17.4	789	16.8	629	13.4	513	10.9
	읍·면	304	61	20.1	60	19.7	39	12.9	20	6.4
세대별	1세대	70	9	13.4	11	16.0	10	14.7	4	6.3
	2세대	4,270	768	18.0	715	16.8	563	13.2	467	10.9
	3세대	660	103	15.6	123	18.6	95	14.4	62	9.3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238	13.6	308	17.6	251	14.4	123	7.0
	중학교 중퇴/졸업	153	18	11.6	19	12.7	22	14.5	13	8.3
	고등학교 재학	2,808	596	21.2	477	17.0	355	12.6	352	12.5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5	12.8	16	14.3	11	9.5	14	12.0
	대학교 재학	175	14	8.0	28	16.1	30	17.0	31	17.4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848	17.9	813	17.2	635	13.4	506	10.7
	학교 다니지 않음	268	32	12.1	36	13.4	33	12.3	26	9.9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610	17.9	570	16.8	435	12.8	358	10.5
	하고 있음	1,600	271	16.9	279	17.5	233	14.6	175	10.9

구분		총 합계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학대, 폭력 등 범죄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519	10.4	490	9.8	200	4.0	180	3.6
성별	남성	2,613	268	10.3	191	7.3	125	4.8	108	4.2
	여성	2,387	251	10.5	299	12.5	76	3.2	71	3.0
연령별	만 14세	950	145	15.3	110	11.6	43	4.5	38	4.0
	만 15세	978	104	10.6	115	11.8	46	4.7	43	4.4
	만 16세	994	102	10.2	86	8.7	43	4.3	33	3.3
	만 17세	1,021	80	7.9	99	9.7	37	3.6	32	3.1

구분		총 합계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		학대, 폭력 등 범죄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명	%	명	%	명	%	명	%
	만 18세	1,058	88	8.3	80	7.5	32	3.1	34	3.2
지역별	동	4,696	492	10.5	468	10.0	183	3.9	166	3.5
	읍·면	304	26	8.7	22	7.2	17	5.5	14	4.5
세대별	1세대	70	8	12.1	6	9.0	7	9.5	4	6.2
	2세대	4,270	438	10.3	417	9.8	165	3.9	161	3.8
	3세대	660	72	11.0	66	10.1	29	4.4	14	2.2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222	12.7	211	12.1	75	4.3	73	4.2
	중학교 중퇴/졸업	153	25	16.1	12	7.7	12	7.9	7	4.6
	고등학교 재학	2,808	238	8.5	245	8.7	101	3.6	87	3.1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0	9.0	12	10.8	8	7.2	5	4.1
	대학교 재학	175	22	12.5	10	5.5	3	2.0	8	4.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483	10.2	465	9.8	180	3.8	168	3.6
	학교 다니지 않음	268	35	13.0	24	9.0	20	7.6	12	4.4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365	10.7	344	10.1	128	3.8	129	3.8
	하고 있음	1,600	154	9.6	146	9.1	73	4.5	51	3.2

구분		총 합계	저출산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계층, 집단 및 세대간 갈등		사회안전망 취약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161	3.2	158	3.2	137	2.7	108	2.2
성별	남성	2,613	99	3.8	86	3.3	90	3.4	54	2.1
	여성	2,387	62	2.6	71	3.0	47	2.0	54	2.3
연령별	만 14세	950	36	3.7	42	4.5	18	1.9	13	1.4
	만 15세	978	25	2.6	32	3.3	18	1.8	18	1.9
	만 16세	994	30	3.0	29	2.9	22	2.2	23	2.3
	만 17세	1,021	28	2.8	40	3.9	38	3.7	22	2.2
	만 18세	1,058	41	3.9	14	1.3	41	3.9	31	2.9
지역별	동	4,696	151	3.2	143	3.0	128	2.7	104	2.2
	읍·면	304	10	3.4	15	4.9	9	2.9	4	1.2
세대별	1세대	70	3	3.7	0	0.0	3	3.8	2	2.5
	2세대	4,270	132	3.1	141	3.3	113	2.6	93	2.2
	3세대	660	26	3.9	17	2.5	22	3.3	13	2.0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57	3.3	69	3.9	33	1.9	30	1.7
	중학교 중퇴/졸업	153	4	2.3	10	6.7	5	3.3	3	1.9

구분		총 합계	저출산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계층, 집단 및 세대간 갈등		사회안전망 취약	
			명	%	명	%	명	%	명	%
	고등학교 재학	2,808	86	3.1	73	2.6	83	3.0	64	2.3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4	3.1	4	3.4	5	4.7	4	3.1
	대학교 재학	175	10	6.0	2	1.0	10	5.5	8	4.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54	3.3	143	3.0	126	2.7	101	2.1
	학교 다니지 않음	268	7	2.6	14	5.3	10	3.9	6	2.4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01	3.0	102	3.0	96	2.8	77	2.3
	하고 있음	1,600	60	3.7	56	3.5	41	2.6	31	1.9

구분		총 합계	기타		없다		모름		통계값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44	0.9	58	1.2	15	0.3	
성별	남성	2,613	30	1.2	46	1.8	9	0.3	X^2= 189.867***
	여성	2,387	14	0.6	12	0.5	6	0.3	
연령별	만 14세	950	9	0.9	23	2.4	3	0.3	X^2= 263.696***
	만 15세	978	7	0.8	20	2.0	3	0.3	
	만 16세	994	9	0.9	2	0.2	2	0.2	
	만 17세	1,021	12	1.1	5	0.5	4	0.4	
	만 18세	1,058	8	0.7	9	0.8	3	0.2	
지역별	동	4,696	40	0.9	55	1.2	15	0.3	X^2= 39.443*
	읍·면	304	4	1.5	4	1.2	0	0.0	
세대별	1세대	70	0	0.0	1	1.2	1	1.7	X^2= 57.126
	2세대	4,270	38	0.9	46	1.1	14	0.3	
	3세대	660	7	1.0	11	1.7	0	0.0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13	0.7	39	2.2	6	0.3	X^2= 269.946***
	중학교 중퇴/졸업	153	2	1.4	1	0.5	1	0.6	
	고등학교 재학	2,808	28	1.0	15	0.5	6	0.2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2	1.7	3	3.0	2	1.5	
	대학교 재학	175	0	0.0	0	0.0	0	0.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40	0.9	54	1.1	12	0.3	X^2= 41.058*
	학교 다니지 않음	268	4	1.5	4	1.6	3	1.0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31	0.9	44	1.3	11	0.3	X^2= 23.884
	하고 있음	1,600	13	0.8	14	0.9	4	0.3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원만함

구분		총 합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141	2.8	404	8.1	2,834	56.7	1,621	32.4	
성별	남성	2,613	83	3.2	190	7.3	1,488	56.9	853	32.6	X^2= 6.770
	여성	2,387	59	2.5	214	9.0	1,347	56.4	767	32.1	
연령별	만 14세	950	32	3.4	51	5.4	499	52.5	368	38.7	X^2= 47.714***
	만 15세	978	21	2.2	78	8.0	527	53.9	352	36.0	
	만 16세	994	27	2.7	87	8.8	580	58.4	300	30.2	
	만 17세	1,021	26	2.6	96	9.4	599	58.6	300	29.4	
	만 18세	1,058	35	3.3	92	8.7	629	59.5	301	28.5	
지역별	동	4,696	129	2.7	385	8.2	2,648	56.4	1,534	32.7	X^2= 5.811
	읍·면	304	12	3.9	19	6.4	187	61.3	86	28.4	
세대별	1세대	70	4	5.6	10	13.7	34	48.4	23	32.3	X^2= 16.289*
	2세대	4,270	117	2.7	323	7.6	2,450	57.4	1,379	32.3	
	3세대	660	20	3.0	72	10.9	350	53.0	219	33.1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51	2.9	116	6.6	928	53.1	652	37.3	X^2= 52.630***
	중학교 중퇴/졸업	153	2	1.1	23	14.7	86	56.4	43	27.9	
	고등학교 재학	2,808	79	2.8	234	8.3	1,646	58.6	848	30.2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6	5.0	15	12.8	72	62.9	22	19.2	
	대학교 재학	175	4	2.0	17	9.4	101	57.5	54	31.1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34	2.8	367	7.8	2,675	56.6	1,554	32.9	X^2= 17.653**
	학교 다니지 않음	268	7	2.8	37	13.9	159	59.2	65	24.2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91	2.7	278	8.2	1,935	56.9	1,096	32.2	X^2= 1.088
	하고 있음	1,600	50	3.1	126	7.9	899	56.2	524	32.8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 관계 원만함

구분		총 합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95	1.9	287	5.7	3,077	61.5	1,541	30.8	
성별	남성	2,613	57	2.2	132	5.1	1,541	59.0	883	33.8	X^2= 28.346***
	여성	2,387	38	1.6	155	6.5	1,536	64.4	658	27.6	
연령별	만 14세	950	21	2.2	40	4.2	526	55.4	364	38.3	X^2= 56.953***
	만 15세	978	11	1.2	47	4.8	604	61.8	316	32.3	

구분		총 합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만 16세	994	17	1.7	65	6.5	601	60.5	310	31.2	
	만 17세	1,021	17	1.6	70	6.9	665	65.2	269	26.3	
	만 18세	1,058	29	2.7	66	6.2	680	64.3	283	26.7	
지역별	동	4,696	92	2.0	272	5.8	2,885	61.5	1,446	30.8	X^2= 2.819
	읍·면	304	2	0.7	16	5.2	191	62.8	95	31.4	
세대별	1세대	70	4	5.6	5	7.1	35	49.7	26	37.6	X^2= 12.879*
	2세대	4,270	79	1.9	233	5.5	2,650	62.1	1,307	30.6	
	3세대	660	12	1.8	49	7.4	391	59.3	208	31.5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31	1.8	76	4.4	1,012	58.0	627	35.9	X^2= 167.707***
	중학교 중퇴/졸업	153	1	0.8	16	10.2	98	63.6	39	25.4	
	고등학교 재학	2,808	48	1.7	161	5.7	1,786	63.6	813	29.0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3	11.1	26	23.0	62	54.2	13	11.6	
	대학교 재학	175	2	1.0	8	4.6	117	66.4	49	28.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81	1.7	245	5.2	2,915	61.6	1,489	31.5	X^2= 77.225***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4	5.2	42	15.7	160	59.6	52	19.5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69	2.0	212	6.2	2,085	61.3	1,034	30.4	X^2= 6.071
	하고 있음	1,600	25	1.6	76	4.7	991	62.0	507	31.7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5〉 다툼(갈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개입(도움) 필요

구분	명	%
총 합계	5,000	100.0
필요함	1,188	23.8
필요 없음	754	15.1
경우에 따라 다름	3,058	61.2

〈부표 3-6〉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툼(갈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개입(도움) 필요

구분		총 합계	필요함		필요 없음		경우에 따라 다름		통계값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1,188	23.8	754	15.1	3,058	61.2	
성별	남성	2,613	723	27.7	429	16.4	1,461	55.9	X^2=66.344***
	여성	2,387	465	19.5	325	13.6	1,597	66.9	

구분		총 합계	필요함		필요 없음		경우에 따라 다름		통계값
			명	%	명	%	명	%	
연령별	만 14세	950	226	23.8	118	12.4	606	63.8	X^2=12.983
	만 15세	978	229	23.4	146	14.9	603	61.7	
	만 16세	994	251	25.2	155	15.6	588	59.2	
	만 17세	1,021	240	23.5	179	17.5	602	58.9	
	만 18세	1,058	242	22.9	156	14.7	660	62.3	
지역별	동	4,696	1,110	23.6	702	15.0	2,883	61.4	X^2=1.807
	읍·면	304	78	25.7	51	16.9	175	57.5	
세대별	1세대	70	14	19.8	16	23.6	40	56.6	X^2=3.608
	2세대	4,270	1,015	23.8	642	15.0	2,613	61.2	
	3세대	660	160	24.2	96	14.5	405	61.4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409	23.4	230	13.2	1,107	63.4	X^2=22.102**
	중학교 중퇴/졸업	153	45	29.1	35	22.9	74	48.0	
	고등학교 재학	2,808	671	23.9	436	15.5	1,701	60.6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26	22.4	24	20.9	65	56.7	
	대학교 재학	175	38	21.5	26	15.0	112	63.6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118	23.6	692	14.6	2,919	61.7	X^2=13.880***
	학교 다니지 않음	268	70	26.3	59	22.0	139	51.7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754	22.2	540	15.9	2,107	62.0	X^2=16.836***
	하고 있음	1,600	434	27.1	214	13.4	952	59.5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7〉 개입(도움) 필요 시 역할

구분	명	%
총 합계	4,246	100.0
친구	1,380	32.5
가족 및 친척	1,297	30.5
선생님	630	14.8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577	13.6
학교상담실	183	4.3
청소년 복지센터	113	2.7
경찰	29	0.7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23	0.5
기타	15	0.4

〈부표 3-8〉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입(도움) 필요 시 역할

구분		총 합계	친구		가족 및 친척		선생님	
			명	%	명	%	명	%
총 합계		4,246	1,380	32.5	1,297	30.5	630	14.8
성별	남성	2,184	637	29.2	684	31.3	441	20.2
	여성	2,062	743	36.0	613	29.7	189	9.2
연령별	만 14세	832	242	29.1	280	33.6	175	21.0
	만 15세	831	257	30.9	274	33.0	127	15.2
	만 16세	839	272	32.4	262	31.3	102	12.1
	만 17세	842	288	34.3	226	26.9	119	14.1
	만 18세	902	321	35.6	254	28.2	108	12.0
지역별	동	3,993	1,303	32.6	1,225	30.7	579	14.5
	읍·면	253	77	30.4	72	28.4	51	20.1
세대별	1세대	53	21	38.9	11	20.8	9	17.0
	2세대	3,628	1,166	32.2	1,114	30.7	542	14.9
	3세대	565	193	34.1	172	30.4	79	14.0
학력별	중학교 재학	1,516	452	29.8	510	33.7	278	18.3
	중학교 중퇴/졸업	118	35	30.0	36	30.6	17	14.7
	고등학교 재학	2,372	799	33.7	680	28.6	315	13.3
	고등학교 중퇴/졸업	91	32	35.3	25	27.7	10	11.2
	대학교 재학	149	61	41.2	46	30.6	10	6.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037	1,312	32.5	1,236	30.6	602	14.9
	학교 다니지 않음	209	68	32.3	61	29.4	27	13.2
종교활동	하지 않음	2,861	922	32.2	871	30.4	407	14.2
	하고 있음	1,386	458	33.0	426	30.7	222	16.1

구분		총 합계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학교상담실		청소년 복지센터	
			명	%	명	%	명	%
총 합계		4,246	577	13.6	183	4.3	113	2.7
성별	남성	2,184	234	10.7	95	4.4	58	2.7
	여성	2,062	343	16.6	87	4.2	55	2.7
연령별	만 14세	832	70	8.4	36	4.3	19	2.3
	만 15세	831	97	11.6	47	5.6	21	2.6
	만 16세	839	116	13.8	45	5.3	23	2.7
	만 17세	842	143	17.0	27	3.2	26	3.0
	만 18세	902	152	16.8	28	3.1	24	2.6
지역별	동	3,993	541	13.6	175	4.4	105	2.6
	읍·면	253	36	14.1	7	2.8	8	3.0
세대별	1세대	53	7	13.6	2	4.0	2	4.0
	2세대	3,628	490	13.5	162	4.5	97	2.7

구분		총 합계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학교상담실		청소년 복지센터	
			명	%	명	%	명	%
	3세대	565	79	14.1	19	3.3	14	2.5
학력별	중학교 재학	1,516	151	9.9	73	4.8	35	2.3
	중학교 중퇴/졸업	118	12	10.4	7	6.0	7	6.3
	고등학교 재학	2,372	377	15.9	93	3.9	64	2.7
	고등학교 중퇴/졸업	91	15	17.0	3	2.9	4	4.9
	대학교 재학	149	22	14.7	7	4.7	2	1.2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037	549	13.6	173	4.3	101	2.5
	학교 다니지 않음	209	28	13.2	10	4.7	12	5.7
종교활동	하지 않음	2,861	412	14.4	126	4.4	74	2.6
	하고 있음	1,386	165	11.9	57	4.1	39	2.8

구분		총 합계	경찰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센터		기타		통계값
			명	%	명	%	명	%	
총 합계		4,246	29	0.7	23	0.5	15	0.4	
성별	남성	2,184	19	0.9	6	0.3	10	0.5	X^2=144.907***
	여성	2,062	10	0.5	17	0.8	5	0.2	
연령별	만 14세	832	1	0.2	5	0.6	4	0.5	X^2=139.987***
	만 15세	831	3	0.4	5	0.6	1	0.1	
	만 16세	839	11	1.3	5	0.6	4	0.4	
	만 17세	842	6	0.7	2	0.2	5	0.6	
	만 18세	902	8	0.9	6	0.7	2	0.2	
지역별	동	3,993	28	0.7	22	0.6	14	0.3	X^2=11.260
	읍·면	253	1	0.4	1	0.4	1	0.4	
세대별	1세대	53	1	1.6	0	0.0	0	0.0	X^2=16.631
	2세대	3,628	25	0.7	19	0.5	13	0.4	
	3세대	565	3	0.5	4	0.7	2	0.4	
학력별	중학교 재학	1,516	5	0.3	9	0.6	3	0.2	X^2=124.871***
	중학교 중퇴/졸업	118	1	1.0	0	0.0	1	1.1	
	고등학교 재학	2,372	22	0.9	13	0.5	10	0.4	
	고등학교 중퇴/졸업	91	1	1.0	0	0.0	0	0.0	
	대학교 재학	149	1	0.6	1	0.6		0.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037	27	0.7	23	0.6	14	0.3	X^2=30.039*
	학교 다니지 않음	209	2	1.0	0	0.0	1	0.6	
종교활동	하지 않음	2,861	17	0.6	17	0.6	14	0.5	X^2=13.551
	하고 있음	1,386	12	0.9	6	0.4	1	0.1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9〉 따돌림(왕따)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및 주변 도움 받은 경험, 도움 요청 대상

구분		명	%
총 합계		5,000	100.0
스트레스 정도	소계	1,665	100.0
	전혀 받지 않음	44	2.6
	약간 받았음	414	24.9
	심하게 받았음	682	40.9
	매우 심하게 받았음	526	31.6
주변의 도움	소계	1,665	100.0
	예	711	42.7
	아니오	954	57.3
도움 요청	소계	711	100.0
	친구(선배 등)	311	43.8
	가족 및 친척	176	24.7
	선생님	162	22.9
	학교상담실	38	5.3
	청소년 복지센터	12	1.7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5	0.7
	경찰	4	0.6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1	0.2
	117신고	1	0.1

〈부표 3-10〉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왕따)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및 주변 도움 받은 경험, 도움 요청 대상

구분		총 합계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그렇다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그렇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아니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52	1.0	1,567	31.3	46	0.9	3,335	66.7	
성별	남성	2,613	27	1.0	604	23.1	27	1.0	1,955	74.8	X^2= 172.991***
	여성	2,387	25	1.1	963	40.3	19	0.8	1,380	57.8	
연령별	만 14세	950	10	1.1	209	22.0	11	1.2	720	75.7	X^2= 62.243***
	만 15세	978	9	0.9	292	29.8	4	0.4	673	68.8	
	만 16세	994	12	1.2	332	33.4	12	1.2	637	64.1	
	만 17세	1,021	10	1.0	357	35.0	8	0.8	646	63.3	
	만 18세	1,058	11	1.0	377	35.7	11	1.0	660	62.3	
지역별	동	4,696	50	1.1	1,480	31.5	42	0.9	3,123	66.5	X^2= 2.208
	읍·면	304	2	0.6	87	28.5	4	1.3	212	69.6	
세대별	1세대	70	2	2.7	27	38.6	3	4.4	38	54.3	X^2= 14.977*
	2세대	4,270	43	1.0	1,340	31.4	35	0.8	2,852	66.8	
	3세대	660	7	1.1	201	30.4	8	1.1	445	67.4	

구분		총 합계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그렇다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그렇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아니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17	1.0	440	25.2	15	0.8	1,275	73.0	X^2= 71.372***
	중학교 중퇴/졸업	153	3	1.7	55	35.9	2	1.2	94	61.2	
	고등학교 재학	2,808	32	1.1	940	33.5	27	0.9	1,810	64.5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	0.8	55	48.3	2	1.6	57	49.4	
	대학교 재학	175	0	0.0	77	44.1	1	0.5	97	55.4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49	1.0	1,457	30.8	42	0.9	3,182	67.3	X^2= 14.052**
	학교 다니지 않음	268	3	1.3	110	41.2	4	1.4	151	56.2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31	0.9	1,051	30.9	28	0.8	2,290	67.3	X^2= 4.056
	하고 있음	1,600	21	1.3	516	32.3	18	1.1	1,045	65.3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1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왕따)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구분		총 합계	전혀 받지 않음		약간 받았음		심하게 받았음		매우 심하게 받았음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1,665	44	2.6	414	24.9	682	40.9	526	31.6	
성별	남성	658	31	4.7	201	30.6	270	41.0	156	23.8	X^2= 52.863***
	여성	1,007	13	1.3	213	21.1	412	40.9	369	36.7	
연령별	만 14세	231	9	3.9	66	28.4	86	37.1	70	30.5	X^2= 25.707*
	만 15세	305	7	2.4	92	30.1	130	42.5	76	25.0	
	만 16세	357	13	3.7	79	22.2	140	39.2	125	34.9	
	만 17세	375	4	1.0	90	24.0	170	45.4	111	29.6	
	만 18세	398	11	2.6	88	22.0	156	39.2	144	36.1	
지역별	동	1,573	40	2.5	396	25.2	646	41.1	491	31.2	X^2= 3.490
	읍·면	92	4	4.4	18	19.0	36	38.7	35	37.8	
세대별	1세대	32	4	12.0	5	16.0	11	33.1	12	38.9	X^2= 14.768*
	2세대	1,418	33	2.4	353	24.9	582	41.1	450	31.7	
	3세대	215	7	3.1	56	26.1	89	41.2	64	29.6	
학력별	중학교 재학	472	15	3.1	139	29.6	187	39.6	130	27.7	X^2= 20.994
	중학교 중퇴/졸업	60	2	3.3	22	37.3	25	41.7	11	17.7	
	고등학교 재학	998	25	2.5	223	22.3	415	41.6	335	33.6	
	고등학교 중퇴/졸업	58	1	1.5	15	25.2	22	37.5	21	35.9	
	대학교 재학	78	1	1.1	15	19.1	33	42.7	29	37.1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1,548	41	2.6	377	24.4	635	41.0	495	32.0	X^2= 3.336
	학교 다니지 않음	118	3	2.4	37	31.3	47	39.6	31	26.7	
종교활동	하지 않음	1,110	27	2.4	270	24.3	458	41.3	355	32.0	X^2= 1.180
	하고 있음	555	17	3.0	144	25.9	224	40.3	171	30.7	

〈부표 3-1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왕따) 당할 때 주변의 도움 받은 경험

구분		총 합계	예, 있었다		아니오, 없었다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1,665	711	42.7	954	57.3	
성별	남성	658	256	38.9	402	61.1	X^2=6.323*
	여성	1,007	455	45.1	553	54.9	
연령별	만 14세	231	91	39.5	140	60.5	X^2=12.832*
	만 15세	305	145	47.6	160	52.4	
	만 16세	357	155	43.4	202	56.6	
	만 17세	375	175	46.6	200	53.4	
	만 18세	398	145	36.5	253	63.5	
지역별	동	1,573	674	42.9	899	57.1	X^2=0.337
	읍·면	92	37	39.9	56	60.1	
세대별	1세대	32	14	42.3	18	57.7	X^2=1.354
	2세대	1,418	613	43.3	804	56.7	
	3세대	215	84	39.0	131	61.0	
학력별	중학교 재학	472	211	44.8	260	55.2	X^2=4.046
	중학교 중퇴/졸업	60	22	36.9	38	63.1	
	고등학교 재학	998	427	42.8	571	57.2	
	고등학교 중퇴/졸업	58	23	40.2	35	59.8	
	대학교 재학	78	27	34.9	51	65.1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1,548	666	43.0	882	57.0	X^2=0.925
	학교 다니지 않음	118	45	38.5	72	61.5	
종교활동	하지 않음	1,110	458	41.3	652	58.7	X^2=2.828
	하고 있음	555	253	45.5	302	54.5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1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왕따)으로부터 도움 요청 대상

구분		총 합계	친구 (선배 등)		가족 및 친척		선생님	
			명	%	명	%	명	%
총 합계		711	311	43.8	176	24.7	162	22.9
성별	남성	256	101	39.4	55	21.5	77	30.1
	여성	455	210	46.3	121	26.5	85	18.8
연령별	만 14세	91	37	40.8	18	20.0	23	25.1
	만 15세	145	70	48.0	33	22.7	34	23.1
	만 16세	155	63	40.9	38	24.6	39	25.1
	만 17세	175	76	43.5	44	25.3	43	24.5

구분		총 합계	친구 (선배 등)		가족 및 친척		선생님	
			명	%	명	%	명	%
	만 18세	145	66	45.1	42	29.2	24	16.8
지역별	동	674	303	45.0	165	24.4	151	22.3
	읍·면	37	8	22.9	11	29.8	12	32.4
세대별	1세대	14	3	19.5	6	41.3	3	23.8
	2세대	613	268	43.6	150	24.4	145	23.6
	3세대	84	41	49.0	20	24.2	15	17.5
학력별	중학교 재학	211	98	46.6	42	19.9	51	24.0
	중학교 중퇴/졸업	22	9	41.2	7	30.1	4	16.3
	고등학교 재학	427	185	43.4	109	25.6	100	23.3
	고등학교 중퇴/졸업	23	8	34.1	8	34.6	3	11.3
	대학교 재학	27	11	38.7	10	35.8	6	22.3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666	294	44.2	161	24.2	156	23.5
	학교 다니지 않음	45	17	37.5	15	32.4	6	13.7
종교활동	하지 않음	458	207	45.3	110	24.0	99	21.6
	하고 있음	253	104	41.2	66	26.0	64	25.2

구분		총 합계	학교상담실		청소년 복지센터		의사, 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	
			명	%	명	%	명	%
총 합계		711	38	5.3	12	1.7	5	0.7
성별	남성	256	14	5.6	5	2.0	2	0.7
	여성	455	23	5.2	7	1.5	3	0.7
연령별	만 14세	91	10	11.3	3	2.8	0	0.0
	만 15세	145	5	3.4	2	1.1	2	1.1
	만 16세	155	6	3.9	5	3.2	0	0.0
	만 17세	175	7	4.0	2	1.1	2	1.1
	만 18세	145	10	6.6	1	.6	2	1.2
지역별	동	674	35	5.2	10	1.5	5	0.8
	읍·면	37	3	7.2	2	5.5	0	0.0
세대별	1세대	14	0	0.0	1	9.0	1	6.3
	2세대	613	31	5.0	10	1.6	4	0.7
	3세대	84	7	8.3	1	1.0	0	0.0
학력별	중학교 재학	211	14	6.8	4	2.0	1	0.4
	중학교 중퇴/졸업	22	2	8.0	1	4.5	0	0.0
	고등학교 재학	427	20	4.7	5	1.1	3	0.6
	고등학교 중퇴/졸업	23	2	7.4	2	9.0	1	3.7

구분		총 합계	학교상담실		청소년 복지센터		의사, 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	
			명	%	명	%	명	%
	대학교 재학	27	0	0.0	0	0.0	1	3.2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666	34	5.2	9	1.3	4	0.7
	학교 다니지 않음	45	3	7.7	3	6.8	1	1.9
종교활동	하지 않음	458	26	5.7	8	1.7	3	0.6
	하고 있음	253	12	4.7	4	1.6	3	1.1

구분		총 합계	경찰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117신고		통계값
			명	%	명	%	명	%	
총 합계		711	4	0.6	1	0.2	1	0.1	
성별	남성	256	2	0.7	0	0.0	0	0.0	X^2=14.448
	여성	455	2	0.5	1	0.3	1	0.2	
연령별	만 14세	91	0	0.0	0	0.0	0	0.0	X^2=33.062
	만 15세	145	0	0.0	0	0.0	1	0.6	
	만 16세	155	2	1.6	1	0.8	0	0.0	
	만 17세	175	1	0.6	0	0.0	0	0.0	
	만 18세	145	1	0.6	0	0.0	0	0.0	
지역별	동	674	4	0.6	1	0.2	0	0.0	X^2=28.814***
	읍·면	37	0	0.0	0	0.0	1	2.2	
세대별	1세대	14	0	0.0	0	0.0	0	0.0	X^2=19.782
	2세대	613	4	0.7	1	0.2	1	0.1	
	3세대	84	0	0.0	0	0.0	0	0.0	
학력별	중학교 재학	211	0	0.0	0	0.0	1	0.4	X^2=31.206
	중학교 중퇴/졸업	22	0	0.0	0	0.0	0	0.0	
	고등학교 재학	427	4	1.0	1	0.3	0	0.0	
	고등학교 중퇴/졸업	23	0	0.0	0	0.0	0	0.0	
	대학교 재학	27	0	0.0	0	0.0	0	0.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666	4	0.6	1	0.2	1	0.1	X^2=12.903
	학교 다니지 않음	45	0	0.0	0	0.0	0	0.0	
종교활동	하지 않음	458	4	0.9	1	0.3	0	0.0	X^2=7.266
	하고 있음	253	0	0.0	0	0.0	1	0.3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14〉 학업 성적 관련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 받음

구분		명	%
총 합계		5,000	100.0
도움 요청 경험	예	2,373	47.5
	아니오	2,627	52.5
도움 요청	소계	2,373	100.0
	선생님	849	35.8
	친구(선배 등)	649	27.4
	가족 및 친척	422	17.8
	학교상담실	259	10.9
	학원강사	99	4.2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53	2.3
	청소년 복지센터	21	0.9
	인터넷	12	0.5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6	0.2
	기타	2	0.1

〈부표 3-15〉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 성적 관련 도움 요청 경험

구분		총 합계	예		아니오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5,000	2,373	47.5	2,627	52.5	
성별	남성	2,613	1,130	43.3	1,483	56.7	X^2=38.992***
	여성	2,387	1,243	52.1	1,144	47.9	
연령별	만 14세	950	336	35.4	614	64.6	X^2=84.665***
	만 15세	978	457	46.8	520	53.2	
	만 16세	994	472	47.5	522	52.5	
	만 17세	1,021	537	52.6	484	47.4	
	만 18세	1,058	571	54.0	487	46.0	
지역별	동	4,696	2,226	47.4	2,470	52.6	X^2=0.104
	읍·면	304	147	48.3	157	51.7	
세대별	1세대	70	27	38.1	43	61.9	X^2=2.691
	2세대	4,270	2,024	47.4	2,246	52.6	
	3세대	660	322	48.8	338	51.2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698	40.0	1,049	60.0	X^2=62.671***
	중학교 중퇴/졸업	153	74	48.0	80	52.0	
	고등학교 재학	2,808	1,449	51.6	1,359	48.4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54	47.2	61	52.8	
	대학교 재학	175	96	54.9	79	45.1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2,243	47.4	2,487	52.6	X^2=0.012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28	47.7	140	52.3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511	44.4	1,889	55.6	X^2=38.832***
	하고 있음	1,600	862	53.9	738	46.1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16〉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 성적 관련 도움 요청 상대

구분		총 합계	선생님		친구 (선배 등)		가족 및 친척	
			명	%	명	%	명	%
총 합계		2,373	849	35.8	649	27.4	422	17.8
성별	남성	1,130	460	40.7	254	22.5	223	19.8
	여성	1,243	390	31.4	395	31.8	199	16.0
연령별	만 14세	336	90	26.7	80	23.7	87	26.0
	만 15세	457	152	33.3	113	24.7	100	21.9
	만 16세	472	169	35.9	142	30.0	73	15.5
	만 17세	537	219	40.9	149	27.7	75	14.0
	만 18세	571	218	38.2	167	29.2	86	15.1
지역별	동	2,226	789	35.4	618	27.8	391	17.6
	읍·면	147	60	41.0	31	21.3	31	20.9
세대별	1세대	27	6	21.4	10	36.0	6	22.4
	2세대	2,024	727	35.9	541	26.8	364	18.0
	3세대	322	117	36.3	98	30.5	52	16.3
학력별	중학교 재학	698	210	30.1	169	24.2	170	24.4
	중학교 중퇴/졸업	74	31	41.7	20	27.4	13	17.5
	고등학교 재학	1,449	550	38.0	420	29.0	215	14.9
	고등학교 중퇴/졸업	54	21	37.9	12	22.1	6	12.0
	대학교 재학	96	38	39.1	27	28.2	17	17.2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2,243	798	35.6	616	27.5	402	17.9
	학교 다니지 않음	128	51	40.1	32	25.1	19	15.2
종교활동	하지 않음	1,511	555	36.7	424	28.1	252	16.6
	하고 있음	862	295	34.2	226	26.2	171	19.8

구분		총 합계	학교상담실		학원강사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명	%	명	%	명	%
총 합계		2,373	259	10.9	99	4.2	53	2.3
성별	남성	1,130	88	7.8	57	5.0	30	2.6
	여성	1,243	172	13.8	42	3.4	24	1.9
연령별	만 14세	336	43	12.9	20	6.1	8	2.3
	만 15세	457	55	12.0	21	4.5	8	1.8
	만 16세	472	51	10.9	17	3.6	15	3.1
	만 17세	537	57	10.5	21	3.8	9	1.6
	만 18세	571	53	9.3	20	3.5	14	2.5
지역별	동	2,226	242	10.9	96	4.3	52	2.3
	읍·면	147	17	11.5	2	1.5	1	0.9
세대별	1세대	27	3	9.8	1	3.6	0	0.0

구분		총 합계	학교상담실		학원강사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명	%	명	%	명	%
	2세대	2,024	222	11.0	87	4.3	49	2.4
	3세대	322	35	10.8	11	3.4	4	1.3
학력별	중학교 재학	698	84	12.1	35	5.0	15	2.2
	중학교 중퇴/졸업	74	7	9.3	1	1.7	1	1.3
	고등학교 재학	1,449	155	10.7	53	3.7	33	2.3
	고등학교 중퇴/졸업	54	6	11.8	3	5.5	2	4.1
	대학교 재학	96	7	7.3	6	6.4	2	1.8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2,243	246	11.0	94	4.2	50	2.2
	학교 다니지 않음	128	13	10.4	4	3.3	3	2.5
종교활동	하지 않음	1,511	159	10.5	67	4.4	31	2.0
	하고 있음	862	100	11.6	32	3.7	23	2.6

구분		총 합계	청소년 복지센터		인터넷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센터		기타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2,373	21	0.9	12	0.5	6	0.2	2	0.1	
성별	남성	1,130	8	0.7	7	0.6	2	0.2	2	0.2	X^2= 66.806***
	여성	1,243	13	1.0	5	0.4	4	0.3	0	0.0	
연령별	만 14세	336	4	1.2	1	0.4	1	0.4	1	0.4	X^2= 79.787***
	만 15세	457	7	1.4	0	0.0	2	0.4	0	0.0	
	만 16세	472	0	0.0	5	1.0	0	0.0	0	0.0	
	만 17세	537	4	0.7	1	0.2	2	0.4	1	0.2	
	만 18세	571	6	1.1	5	0.9	1	0.2	0	0.0	
지역별	동	2,226	17	0.8	12	0.6	5	0.2	2	0.1	X^2= 13.776
	읍·면	147	3	2.4	0	0.0	1	0.6	0	0.0	
세대별	1세대	27	2	6.7	0	0.0	0	0.0	0	0.0	X^2= 21.604
	2세대	2,024	16	0.8	11	0.5	6	0.3	2	0.1	
	3세대	322	3	0.8	2	0.5	0	0.0	0	0.0	
학력별	중학교 재학	698	9	1.3	1	0.2	3	0.4	1	0.2	X^2= 74.765***
	중학교 중퇴/졸업	74	1	1.1	0	0.0	0	0.0	0	0.0	
	고등학교 재학	1,449	8	0.6	10	0.7	3	0.2	1	0.1	
	고등학교 중퇴/졸업	54	3	4.9	1	1.7	0	0.0	0	0.0	
	대학교 재학	96	0	0.0	0	0.0	0	0.0	0	0.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2,243	17	0.8	11	0.5	6	0.3	2	0.1	X^2= 6.270
	학교 다니지 않음	128	3	2.7	1	0.7	0	0.0	0	0.0	
종교활동	하지 않음	1,511	11	0.7	10	0.6	3	0.2	1	0.1	X^2= 11.352
	하고 있음	862	9	1.1	3	0.3	3	0.4	1	0.1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17〉 이성 관련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 받음

구분		명	%
총 합계		5,000	100.0
도움 요청 경험	예	1,367	27.3
	아니오	3,633	72.7
도움 요청	소계	1,367	100.0
	친구(선배 등)	1,209	88.5
	가족 및 친척	94	6.9
	선생님	23	1.7
	학교상담실	17	1.3
	청소년 복지센터	8	0.6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7	0.5
	인터넷	4	0.3
	종교인	2	0.1
	학원선생님	1	0.1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1	0.1

〈부표 3-18〉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성 관련 도움 요청 경험

구분		총 합계	예		아니오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5,000	1,367	27.3	3,633	72.7	
성별	남성	2,613	601	23.0	2,012	77.0	X^2=51.888***
	여성	2,387	766	32.1	1,621	67.9	
연령별	만 14세	950	199	20.9	751	79.1	X^2=43.458***
	만 15세	978	254	25.9	724	74.1	
	만 16세	994	253	25.4	741	74.6	
	만 17세	1,021	324	31.7	697	68.3	
	만 18세	1,058	338	32.0	720	68.0	
지역별	동	4,696	1,296	27.6	3,400	72.4	X^2=2.587
	읍·면	304	71	23.4	233	76.6	
세대별	1세대	70	24	34.9	46	65.1	X^2=1.757
	2세대	4,270	1,164	27.3	3,105	72.7	
	3세대	660	178	26.9	482	73.1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412	23.6	1,335	76.4	X^2=26.064***
	중학교 중퇴/졸업	153	46	30.0	107	70.0	
	고등학교 재학	2,808	804	28.6	2,004	71.4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40	34.6	75	65.4	
	대학교 재학	175	64	36.5	111	63.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280	27.1	3,450	72.9	X^2=3.229
	학교 다니지 않음	268	86	32.0	182	68.0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852	25.1	2,548	74.9	X^2=27.833***
	하고 있음	1,600	515	32.2	1,085	67.8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19〉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성 관련 도움 요청 상대

구분		총 합계	친구 (선배 등)		가족 및 친척		선생님	
			명	%	명	%	명	%
총 합계		1,367	1,209	88.5	94	6.9	23	1.7
성별	남성	601	508	84.6	56	9.4	14	2.3
	여성	766	701	91.5	38	4.9	9	1.2
연령별	만 14세	199	161	81.2	18	9.1	5	2.6
	만 15세	254	229	90.3	17	6.8	7	2.6
	만 16세	253	228	90.5	16	6.2	5	1.9
	만 17세	324	285	88.0	20	6.3	5	1.5
	만 18세	338	306	90.4	23	6.7	2	0.5
지역별	동	1,296	1,145	88.4	90	6.9	23	1.8
	읍·면	71	65	90.7	4	6.1	0	0.0
세대별	1세대	24	19	76.5	5	19.8	0	0.0
	2세대	1,164	1,028	88.3	81	6.9	20	1.7
	3세대	178	163	91.6	8	4.7	3	1.7
학력별	중학교 재학	412	359	87.2	30	7.4	9	2.1
	중학교 중퇴/졸업	46	33	72.4	5	10.5	4	8.5
	고등학교 재학	804	724	90.1	51	6.3	9	1.2
	고등학교 중퇴/졸업	40	33	82.9	3	7.5	1	2.7
	대학교 재학	64	59	91.8	5	8.2	0	0.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1,280	1,142	89.2	86	6.7	18	1.4
	학교 다니지 않음	86	66	77.3	8	9.1	5	5.8
종교활동	하지 않음	852	772	90.7	48	5.7	13	1.6
	하고 있음	515	437	84.9	46	8.9	10	1.9

구분		총 합계	학교 상담실		청소년 복지센터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명	%	명	%	명	%
총 합계		1,367	17	1.3	8	0.6	7	0.5
성별	남성	601	4	0.7	6	0.9	5	0.9
	여성	766	13	1.7	2	0.3	2	0.3
연령별	만 14세	199	8	3.9	4	1.9	1	0.6
	만 15세	254	1	0.3	0	0.0	0	0.0
	만 16세	253	1	0.5	0	0.0	1	0.5
	만 17세	324	5	1.5	2	0.6	4	1.2
	만 18세	338	3	0.8	2	0.5	1	0.3
지역별	동	1,296	17	1.3	6	0.5	7	0.6
	읍·면	71	0	0.0	1	1.8	0	0.0
세대별	1세대	24	0	0.0	1	3.7	0	0.0

구분		총 합계	학교 상담실		청소년 복지센터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명	%	명	%	명	%
	2세대	1,164	16	1.4	5	0.5	7	0.6
	3세대	178	1	0.7	1	0.7	0	0.0
학력별	중학교 재학	412	9	2.1	3	0.6	1	0.3
	중학교 중퇴/졸업	46	2	3.9	2	4.7	0	0.0
	고등학교 재학	804	7	0.9	2	0.2	5	0.6
	고등학교 중퇴/졸업	40	0	0.0	1	2.3	1	2.2
	대학교 재학	64	0	0.0	0	0.0	0	0.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1,280	15	1.2	4	0.4	6	0.5
	학교 다니지 않음	86	2	2.1	3	3.6	1	1.0
종교활동	하지 않음	852	10	1.2	4	0.4	3	0.4
	하고 있음	515	7	1.4	4	0.7	4	0.8

구분		총 합계	인터넷		종교인		학원 선생님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센터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1,367	4	0.3	2	0.1	1	0.1	1	0.1	
성별	남성	601	3	0.5	2	0.3	1	0.2	1	0.2	X^2= 28.644***
	여성	766	1	0.1	0	0.0	0	0.0	0	0.0	
연령별	만 14세	199	0	0.0	0	0.0	1	0.6	0	0.0	X^2= 60.083**
	만 15세	254	0	0.0	0	0.0	0	0.0	0	0.0	
	만 16세	253	1	0.5	0	0.0	0	0.0	0	0.0	
	만 17세	324	0	0.0	2	0.6	0	0.0	1	0.3	
	만 18세	338	3	0.8	0	0.0	0	0.0	0	0.0	
지역별	동	1,296	4	0.3	2	0.1	1	0.1	0	0.0	X^2= 22.617**
	읍·면	71	0	0.0	0	0.0	0	0.0	1	1.4	
세대별	1세대	24	0	0.0	0	0.0	0	0.0	0	0.0	X^2= 25.201
	2세대	1,164	4	0.3	2	0.2	1	0.1	0	0.0	
	3세대	178	0	0.0	0	0.0	0	0.0	1	0.5	
학력별	중학교 재학	412	0	0.0	0	0.0	1	0.3	0	0.0	X^2= 88.349***
	중학교 중퇴/졸업	46	0	0.0	0	0.0	0	0.0	0	0.0	
	고등학교 재학	804	4	0.5	2	0.2	0	0.0	0	0.0	
	고등학교 중퇴/졸업	40	0	0.0	0	0.0	0	0.0	1	2.5	
	대학교 재학	64	0	0.0	0	0.0	0	0.0	0	0.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1,280	4	0.3	2	0.2	1	0.1	0	0.0	X^2= 44.272***
	학교 다니지 않음	86	0	0.0	0	0.0	0	0.0	1	1.1	
종교활동	하지 않음	852	1	0.1	0	0.0	0	0.0	0	0.0	X^2= 17.332*
	하고 있음	515	3	0.6	2	0.4	1	0.2	1	0.2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20〉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관련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 받음

구분		명	%
총 합계		5,000	100.0
도움 요청 경험	예	982	19.6
	아니오	4,018	80.4
도움 요청	소계	982	100.0
	친구(선배 등)	555	56.5
	선생님	125	12.7
	가족 및 친척	123	12.6
	학교상담실	105	10.7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37	3.7
	청소년 복지센터	23	2.3
	인터넷	4	0.4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3	0.4
	종교인	3	0.3
	학원선생님	3	0.3

〈부표 3-2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관련 도움 요청 경험

구분		총 합계	예		아니오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5,000	982	19.6	4,018	80.4	
성별	남성	2,613	440	16.8	2,173	83.2	X^2=27.211***
	여성	2,387	542	22.7	1,845	77.3	
연령별	만 14세	950	127	13.4	823	86.6	X^2=41.683***
	만 15세	978	177	18.1	800	81.9	
	만 16세	994	196	19.7	798	80.3	
	만 17세	1,021	238	23.3	783	76.7	
	만 18세	1,058	244	23.0	814	77.0	
지역별	동	4,696	918	19.5	3,778	80.5	X^2=0.409
	읍·면	304	64	21.1	240	78.9	
세대별	1세대	70	22	31.8	48	68.2	X^2=7.978*
	2세대	4,270	819	19.2	3,451	80.8	
	3세대	660	141	21.4	519	78.6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264	15.1	1,483	84.9	X^2=36.091***
	중학교 중퇴/졸업	153	36	23.3	118	76.7	
	고등학교 재학	2,808	612	21.8	2,195	78.2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28	24.1	87	75.9	
	대학교 재학	175	42	24.0	133	76.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919	19.4	3,811	80.6	X^2=2.672
	학교 다니지 않음	268	63	23.6	205	76.4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591	17.4	2,810	82.6	X^2=34.500***
	하고 있음	1,600	391	24.5	1,208	75.5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2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님 관련 도움 요청 상대

구분		총 합계	친구 (선배 등)		선생님		가족 및 친척	
			명	%	명	%	명	%
총 합계		982	555	56.5	125	12.7	123	12.6
성별	남성	440	208	47.3	69	15.7	78	17.6
	여성	542	347	64.1	56	10.4	46	8.5
연령별	만 14세	127	61	48.4	19	15.2	24	19.2
	만 15세	177	104	58.5	20	11.0	20	11.0
	만 16세	196	110	56.0	27	13.5	21	10.5
	만 17세	238	136	57.1	27	11.5	29	12.3
	만 18세	244	144	59.2	33	13.4	30	12.2
지역별	동	918	528	57.6	115	12.5	112	12.2
	읍·면	64	27	41.8	11	16.4	11	17.9
세대별	1세대	22	11	50.1	2	7.6	3	15.0
	2세대	819	459	56.1	102	12.4	105	12.8
	3세대	141	85	60.2	22	15.5	15	10.7
학력별	중학교 재학	264	145	55.0	34	13.0	36	13.6
	중학교 중퇴/졸업	36	14	39.7	6	16.3	9	24.9
	고등학교 재학	612	351	57.4	81	13.2	72	11.8
	고등학교 중퇴/졸업	28	16	59.1	2	6.2	1	4.4
	대학교 재학	42	28	66.9	3	6.2	5	12.3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919	525	57.1	118	12.8	113	12.3
	학교 다니지 않음	63	31	48.2	8	11.9	10	16.0
종교활동	하지 않음	591	352	59.5	74	12.5	65	11.0
	하고 있음	391	203	52.0	51	13.0	59	15.0

구분		총 합계	학교상담실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청소년 복지센터	
			명	%	명	%	명	%
총 합계		982	105	10.7	37	3.7	23	2.3
성별	남성	440	48	11.0	18	4.2	13	3.0
	여성	542	57	10.5	18	3.4	9	1.7
연령별	만 14세	127	11	9.0	3	2.0	5	4.1
	만 15세	177	23	13.1	5	2.8	4	2.3
	만 16세	196	27	13.6	6	3.2	2	1.3
	만 17세	238	29	12.2	9	3.7	6	2.4
	만 18세	244	15	6.1	14	5.9	5	2.1
지역별	동	918	95	10.3	34	3.7	21	2.3
	읍·면	64	11	16.4	3	4.8	2	2.7
세대별	1세대	22	1	5.3	3	11.7	2	10.3

구분		총 합계	학교상담실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청소년 복지센터	
			명	%	명	%	명	%
	2세대	819	91	11.1	32	3.8	17	2.1
	3세대	141	13	9.4	3	1.8	3	2.5
학력별	중학교 재학	264	29	11.1	7	2.5	8	2.9
	중학교 중퇴/졸업	36	3	8.4	2	5.7	2	4.9
	고등학교 재학	612	66	10.8	24	3.9	11	1.7
	고등학교 중퇴/졸업	28	3	10.2	3	10.6	3	9.5
	대학교 재학	42	4	10.5	1	2.1	0	0.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919	100	10.8	32	3.4	18	2.0
	학교 다니지 않음	63	6	9.2	5	7.8	4	6.9
종교활동	하지 않음	591	57	9.6	25	4.2	12	2.1
	하고 있음	391	48	12.4	12	3.0	11	2.7

구분		총 합계	인터넷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센터		종교인		학원선생님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982	4	0.4	3	0.4	3	0.3	3	0.3	
성별	남성	440	0	0.0	3	0.8	0	0.0	2	0.4	X^2= 46.138***
	여성	542	4	0.7	0	0.0	3	0.6	1	0.1	
연령별	만 14세	127	1	1.0	1	1.1	0	0.0	0	0.0	X^2= 43.571
	만 15세	177	0	0.0	0	0.0	1	0.4	2	0.9	
	만 16세	196	0	0.0	1	0.6	3	1.3	0	0.0	
	만 17세	238	1	0.4	0	0.0	0	0.0	1	0.4	
	만 18세	244	2	0.7	1	0.4	0	0.0	0	0.0	
지역별	동	918	4	0.4	3	0.4	3	0.4	3	0.3	X^2= 8.391
	읍·면	64	0	0.0	0	0.0	0	0.0	0	0.0	
세대별	1세대	22	0	0.0	0	0.0	0	0.0	0	0.0	X^2= 17.238
	2세대	819	4	0.5	3	0.4	3	0.4	3	0.3	
	3세대	141	0	0.0	0	0.0	0	0.0	0	0.0	
학력별	중학교 재학	264	1	0.5	1	0.5	1	0.3	2	0.6	X^2= 36.840
	중학교 중퇴/졸업	36	0	0.0	0	0.0	0	0.0	0	0.0	
	고등학교 재학	612	2	0.3	2	0.3	3	0.4	1	0.2	
	고등학교 중퇴/졸업	28	0	0.0	0	0.0	0	0.0	0	0.0	
	대학교 재학	42	1	2.1	0	0.0	0	0.0	0	0.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919	4	0.4	3	0.4	3	0.4	3	0.3	X^2= 10.270
	학교 다니지 않음	63	0	0.0	0	0.0	0	0.0	0	0.0	
종교활동	하지 않음	591	2	0.4	3	0.6	0	0.0	0	0.0	X^2= 19.788*
	하고 있음	391	2	0.5	0	0.0	3	0.9	3	0.7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23〉 진학/진로 관련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 받음

구분		명	%
총 합계		5,000	100.0
도움 요청 경험	예	3,698	74.0
	아니오	1,302	26.0
도움 요청	소계	3,698	100.0
	선생님	1,863	50.4
	가족 및 친척	627	16.9
	학교상담실	595	16.1
	친구(선배 등)	307	8.3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114	3.1
	학원강사	108	2.9
	청소년 복지센터	42	1.1
	인터넷	27	0.7
	기타	16	0.4

〈부표 3-2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학/진로 관련 도움 요청 경험

구분		총 합계	예		아니오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5,000	3,698	74.0	1,302	26.0	
성별	남성	2,613	1,765	67.5	848	32.5	X^2=117.673***
	여성	2,387	1,934	81.0	453	19.0	
연령별	만 14세	950	529	55.6	422	44.4	X^2=226.045***
	만 15세	978	717	73.4	260	26.6	
	만 16세	994	772	77.7	222	22.3	
	만 17세	1,021	810	79.4	211	20.6	
	만 18세	1,058	870	82.3	188	17.7	
지역별	동	4,696	3,472	73.9	1,223	26.1	X^2=0.023
	읍·면	304	226	74.3	78	25.7	
세대별	1세대	70	41	58.9	29	41.1	X^2=8.920*
	2세대	4,270	3,172	74.3	1,098	25.7	
	3세대	660	485	73.5	175	26.5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1,119	64.1	628	35.9	X^2=169.983***
	중학교 중퇴/졸업	153	97	63.0	57	37.0	
	고등학교 재학	2,808	2,247	80.0	560	20.0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81	70.7	34	29.3	
	대학교 재학	175	153	87.5	22	12.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3,520	74.4	1,210	25.6	X^2=8.436**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78	66.3	90	33.7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2,444	71.9	956	28.1	X^2=24.287***
	하고 있음	1,600	1,255	78.4	345	21.6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25〉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학/진로 관련 도움 요청 상대

구분		총 합계	선생님		가족 및 친척		학교상담실	
			명	%	명	%	명	%
총 합계		3,698	1,863	50.4	627	16.9	595	16.1
성별	남성	1,765	980	55.5	310	17.6	215	12.2
	여성	1,934	883	45.7	317	16.4	380	19.6
연령별	만 14세	529	195	36.9	136	25.7	104	19.7
	만 15세	717	332	46.3	152	21.2	130	18.1
	만 16세	772	374	48.5	97	12.6	164	21.3
	만 17세	810	443	54.7	119	14.7	111	13.7
	만 18세	870	518	59.5	123	14.1	86	9.9
지역별	동	3,472	1,741	50.1	587	16.9	559	16.1
	읍·면	226	122	53.9	40	17.7	37	16.2
세대별	1세대	41	20	48.9	5	12.3	8	19.6
	2세대	3,172	1,601	50.5	538	17.0	513	16.2
	3세대	485	242	49.9	84	17.2	74	15.3
학력별	중학교 재학	1,119	469	41.9	261	23.3	210	18.7
	중학교 중퇴/졸업	97	43	44.1	21	21.8	14	14.2
	고등학교 재학	2,247	1,219	54.2	304	13.5	349	15.5
	고등학교 중퇴/졸업	81	31	38.7	18	22.3	11	13.6
	대학교 재학	153	101	65.7	22	14.3	12	8.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3,520	1,788	50.8	587	16.7	571	16.2
	학교 다니지 않음	178	74	41.6	39	22.1	25	13.9
종교활동	하지 않음	2,444	1,252	51.2	398	16.3	382	15.6
	하고 있음	1,255	611	48.7	228	18.2	213	17.0

구분		총 합계	친구 (선배 등)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학원강사	
			명	%	명	%	명	%
총 합계		3,698	307	8.3	114	3.1	108	2.9
성별	남성	1,765	101	5.7	64	3.6	63	3.5
	여성	1,934	205	10.6	50	2.6	46	2.4
연령별	만 14세	529	35	6.5	22	4.1	22	4.1
	만 15세	717	59	8.2	15	2.0	15	2.0
	만 16세	772	69	8.9	32	4.1	16	2.0
	만 17세	810	65	8.0	25	3.1	27	3.4
	만 18세	870	80	9.2	21	2.4	29	3.3
지역별	동	3,472	296	8.5	112	3.2	104	3.0
	읍·면	226	11	4.8	3	1.2	4	1.9

구분		총 합계	친구 (선배 등)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학원강사	
			명	%	명	%	명	%
세대별	1세대	41	4	9.6	2	5.2	1	2.1
	2세대	3,172	257	8.1	97	3.1	91	2.9
	3세대	485	45	9.3	15	3.1	16	3.4
학력별	중학교 재학	1,119	85	7.6	34	3.0	34	3.0
	중학교 중퇴/졸업	97	8	8.0	4	4.3	5	5.3
	고등학교 재학	2,247	196	8.7	68	3.0	62	2.8
	고등학교 중퇴/졸업	81	11	13.4	5	6.5	1	1.1
	대학교 재학	153	7	4.7	3	1.7	7	4.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3,520	288	8.2	105	3.0	102	2.9
	학교 다니지 않음	178	19	10.5	9	5.3	6	3.4
종교활동	하지 않음	2,444	213	8.7	70	2.9	75	3.1
	하고 있음	1,255	94	7.5	45	3.5	33	2.7

구분		총 합계	청소년 복지센터		인터넷		기타		통계값
			명	%	명	%	명	%	
총 합계		3,698	42	1.1	27	0.7	16	0.4	
성별	남성	1,765	18	1.0	9	0.5	4	0.2	X^2= 93.842***
	여성	1,934	24	1.2	18	0.9	11	0.6	
연령별	만 14세	529	9	1.7	4	0.7	3	0.5	X^2= 184.972***
	만 15세	717	7	1.0	6	0.8	2	0.2	
	만 16세	772	11	1.4	6	0.8	4	0.5	
	만 17세	810	8	1.0	5	0.6	7	0.9	
	만 18세	870	7	0.8	6	0.7	1	0.1	
지역별	동	3,472	34	1.0	27	0.8	14	0.4	X^2= 41.485***
	읍·면	226	8	3.5	0	0.0	2	0.9	
세대별	1세대	41	1	2.2	0	0.0	0	0.0	X^2= 14.499
	2세대	3,172	38	1.2	22	0.7	14	0.4	
	3세대	485	3	0.6	4	0.9	2	0.3	
학력별	중학교 재학	1,119	14	1.2	9	0.8	4	0.4	X^2= 136.243***
	중학교 중퇴/졸업	97	1	1.2	0	0.0	1	1.0	
	고등학교 재학	2,247	25	1.1	14	0.6	10	0.4	
	고등학교 중퇴/졸업	81	2	2.2	2	2.2	0	0.0	
	대학교 재학	153	0	0.0	1	0.6	1	0.6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3,520	39	1.1	25	0.7	15	0.4	X^2= 16.684
	학교 다니지 않음	178	3	1.7	2	1.0	1	0.5	
종교활동	하지 않음	2,444	20	0.8	22	0.9	12	0.5	X^2= 27.609*
	하고 있음	1,255	22	1.7	5	0.4	4	0.3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26〉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

구분	명	%
총 합계	5,000	100.0
진학·진로문제	1,962	39.2
학업성적	1,245	24.9
집안의 경제문제	431	8.6
외모	299	6.0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248	5.0
이성관계(남자/여자친구)	245	4.9
따돌림(왕따)	155	3.1
건강문제	138	2.8
부모의 별거, 이혼 등(가족해체)	113	2.3
대인관계(교우문제)	35	0.7
정신 및 성격 문제	18	0.4
가족갈등	9	0.2
전반적인 학교생활	5	0.1
기타	20	0.4
없다	63	1.3
모름	17	0.3

〈부표 3-27〉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

구분		총 합계	진학·진로문제		학업성적		집안의 경제문제		외모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1,962	39.2	1,245	24.9	431	8.6	299	6.0
성별	남성	2,613	953	36.5	708	27.1	190	7.3	140	5.3
	여성	2,387	1,009	42.3	537	22.5	241	10.1	159	6.7
연령별	만 14세	950	287	30.2	286	30.1	56	5.9	82	8.6
	만 15세	978	399	40.8	239	24.4	79	8.0	63	6.5
	만 16세	994	385	38.8	288	29.0	93	9.3	59	5.9
	만 17세	1,021	394	38.6	270	26.5	89	8.7	41	4.0
	만 18세	1,058	497	47.0	161	15.3	114	10.8	54	5.1
지역별	동	4,696	1,838	39.1	1,182	25.2	403	8.6	271	5.8
	읍·면	304	124	40.7	63	20.8	28	9.2	28	9.2
세대별	1세대	70	26	37.1	7	10.4	8	11.3	5	7.8
	2세대	4,270	1,690	39.6	1,070	25.1	358	8.4	253	5.9
	3세대	660	246	37.3	168	25.4	65	9.8	41	6.1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625	35.8	462	26.5	124	7.1	134	7.7
	중학교 중퇴/졸업	153	49	31.9	47	30.7	15	10.1	10	6.6
	고등학교 재학	2,808	1,166	41.5	711	25.3	245	8.7	134	4.8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50	43.6	9	8.2	23	19.7	7	6.3
	대학교 재학	175	71	40.6	14	7.9	24	13.9	13	7.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863	39.4	1,187	25.1	393	8.3	281	6.0

구분		총 합계	진학·진로문제		학업성적		집안의 경제문제		외모	
			명	%	명	%	명	%	명	%
	학교 다니지 않음	268	99	36.9	56	21.1	38	14.2	17	6.5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346	39.6	834	24.5	286	8.4	205	6.0
	하고 있음	1,600	616	38.5	411	25.7	144	9.0	94	5.9

구분		총 합계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이성관계 (남자/여자친구)		따돌림 (왕따)		건강문제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248	5.0	245	4.9	155	3.1	138	2.8
성별	남성	2,613	147	5.6	191	7.3	56	2.1	89	3.4
	여성	2,387	101	4.2	54	2.2	99	4.2	49	2.0
연령별	만 14세	950	57	6.0	45	4.7	31	3.2	27	2.8
	만 15세	978	41	4.2	48	4.9	27	2.8	26	2.7
	만 16세	994	41	4.1	42	4.2	25	2.6	25	2.6
	만 17세	1,021	51	4.9	51	5.0	37	3.6	31	3.0
	만 18세	1,058	58	5.5	59	5.6	34	3.2	28	2.7
지역별	동	4,696	234	5.0	229	4.9	144	3.1	133	2.8
	읍·면	304	13	4.4	16	5.2	11	3.6	4	1.5
세대별	1세대	70	3	3.7	8	12.0	6	8.2	2	2.5
	2세대	4,270	220	5.2	200	4.7	134	3.1	115	2.7
	3세대	660	25	3.8	36	5.5	15	2.3	21	3.2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94	5.4	82	4.7	55	3.1	48	2.7
	중학교 중퇴/졸업	153	4	2.5	12	7.7	3	1.8	3	2.2
	고등학교 재학	2,808	130	4.6	126	4.5	85	3.0	79	2.8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6	5.4	7	5.9	4	3.8	1	0.8
	대학교 재학	175	13	7.5	18	10.0	8	4.5	6	3.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238	5.0	225	4.8	148	3.1	133	2.8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0	3.7	18	6.9	7	2.6	4	1.6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75	5.1	154	4.5	99	2.9	107	3.1
	하고 있음	1,600	73	4.6	91	5.7	56	3.5	31	1.9

구분		총 합계	부모의 별거, 이혼 등 (가족해체)		대인관계 (교우문제)		정신 및 성격 문제		가족갈등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113	2.3	35	0.7	18	0.4	9	0.2
성별	남성	2,613	59	2.3	10	0.4	3	0.1	1	0.0
	여성	2,387	54	2.2	25	1.1	15	0.6	8	0.3
연령별	만 14세	950	29	3.1	9	1.0	1	0.1	0	0.0
	만 15세	978	23	2.3	6	0.6	2	0.2	1	0.1
	만 16세	994	16	1.6	5	0.5	4	0.4	4	0.4
	만 17세	1,021	27	2.6	9	0.9	5	0.5	0	0.0

구분		총 합계	부모의 별거, 이혼 등 (가족해체)		대인관계 (교우문제)		정신 및 성격 문제		가족갈등	
			명	%	명	%	명	%	명	%
	만 18세	1,058	18	1.7	6	0.6	6	0.6	4	0.4
지역별	동	4,696	104	2.2	34	0.7	18	0.4	9	0.2
	읍·면	304	9	3.0	1	0.3	0	0.0	0	0.0
세대별	1세대	70	2	2.6	0	0.0	0	0.0	0	0.0
	2세대	4,270	85	2.0	32	0.8	16	0.4	7	0.2
	3세대	660	26	3.9	3	0.5	1	0.2	2	0.3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44	2.5	14	0.8	2	0.1	1	0.0
	중학교 중퇴/졸업	153	7	4.4	0	0.0	0	0.0	1	0.8
	고등학교 재학	2,808	57	2.0	19	0.7	12	0.4	6	0.2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2	1.5	1	0.8	2	1.6	0	0.0
	대학교 재학	175	3	1.5	1	0.5	2	1.0	1	0.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04	2.2	34	0.7	16	0.3	8	0.2
	학교 다니지 않음	268	9	3.2	1	0.3	2	0.7	1	0.4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80	2.4	22	0.7	13	0.4	6	0.2
	하고 있음	1,600	33	2.0	13	0.8	5	0.3	3	0.2

구분		총 합계	전반적인 학교생활		기타		없다		모름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5	0.1	20	0.4	63	1.3	17	0.3	
성별	남성	2,613	1	0.0	13	0.5	47	1.8	5	0.2	X^2= 182.302***
	여성	2,387	4	0.2	6	0.3	16	0.7	11	0.5	
연령별	만 14세	950	3	0.3	6	0.7	25	2.7	5	0.5	X^2= 237.525***
	만 15세	978	0	0.0	7	0.7	17	1.7	2	0.2	
	만 16세	994	0	0.0	1	0.1	4	0.4	1	0.1	
	만 17세	1,021	1	0.1	1	0.1	9	0.9	6	0.6	
	만 18세	1,058	2	0.2	4	0.4	8	0.7	3	0.3	
지역별	동	4,696	5	0.1	20	0.4	57	1.2	17	0.4	X^2= 18.401
	읍·면	304	0	0.0	0	0.0	6	2.1	0	0.0	
세대별	1세대	70	0	0.0	1	1.8	1	1.2	1	1.3	X^2= 69.565*
	2세대	4,270	5	0.1	17	0.4	55	1.3	13	0.3	
	3세대	660	0	0.0	2	0.3	7	1.1	3	0.4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3	0.1	13	0.7	40	2.3	7	0.4	X^2= 228.002***
	중학교 중퇴/졸업	153	0	0.0	1	0.6	1	0.8	0	0.0	
	고등학교 재학	2,808	3	0.1	5	0.2	19	0.7	9	0.3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0	0.0	1	0.8	1	0.8	1	0.8	
	대학교 재학	175	0	0.0	0	0.0	2	1.0	0	0.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5	0.1	18	0.4	61	1.3	16	0.3	X^2= 44.935**
	학교 다니지 않음	268	0	0.0	2	0.7	2	0.8	1	0.3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5	0.2	9	0.3	48	1.4	11	0.3	X^2= 30.238
	하고 있음	1,600	0	0.0	10	0.6	15	0.9	5	0.3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28〉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신의 목표 달성 가능성

구분		총 합계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122	2.4	1,747	34.9	2,601	52.0	531	10.6	
성별	남성	2,613	53	2.0	829	31.7	1,398	53.5	333	12.7	X^2= 45.353***
	여성	2,387	69	2.9	917	38.4	1,203	50.4	198	8.3	
연령별	만 14세	950	16	1.6	277	29.1	535	56.3	123	13.0	X^2= 45.196***
	만 15세	978	14	1.4	337	34.5	518	53.0	109	11.1	
	만 16세	994	32	3.2	352	35.4	509	51.3	100	10.1	
	만 17세	1,021	31	3.1	414	40.5	486	47.6	90	8.8	
	만 18세	1,058	29	2.7	368	34.7	553	52.3	109	10.3	
지역별	동	4,696	115	2.4	1,658	35.3	2,425	51.6	497	10.6	X^2= 5.498
	읍·면	304	7	2.3	88	29.0	176	57.7	33	10.9	
세대별	1세대	70	2	3.0	20	29.2	41	58.9	6	8.9	X^2= 4.564
	2세대	4,270	109	2.5	1,484	34.8	2,225	52.1	451	10.6	
	3세대	660	11	1.7	242	36.6	334	50.6	73	11.1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25	1.4	547	31.3	956	54.7	218	12.5	X^2= 60.700***
	중학교 중퇴/졸업	153	5	3.5	69	44.6	67	43.5	13	8.4	
	고등학교 재학	2,808	81	2.9	1,022	36.4	1,436	51.1	269	9.6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9	8.2	50	44.0	44	38.4	11	9.4	
	대학교 재학	175	1	0.5	58	33.0	97	55.1	20	11.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07	2.3	1,627	34.4	2,489	52.6	507	10.7	X^2= 25.597***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5	5.5	119	44.4	111	41.3	24	8.9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88	2.6	1,225	36.0	1,726	50.8	361	10.6	X^2= 7.925*
	하고 있음	1,600	34	2.1	521	32.6	875	54.7	169	10.6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29〉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 사회적 계층

구분		총 합계	최하위		하위		중위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89	1.8	1,219	24.4	2,871	57.4
성별	남성	2,613	49	1.9	621	23.8	1,445	55.3
	여성	2,387	40	1.7	598	25.0	1,426	59.8
연령별	만 14세	950	8	0.8	137	14.4	575	60.5
	만 15세	978	11	1.2	197	20.1	591	60.4
	만 16세	994	19	2.0	265	26.7	561	56.5
	만 17세	1,021	21	2.1	281	27.6	574	56.2
	만 18세	1,058	29	2.7	339	32.0	571	53.9
지역별	동	4,696	81	1.7	1,152	24.5	2,674	57.0
	읍·면	304	8	2.6	67	22.1	196	64.5

구분		총 합계	최하위		하위		중위	
			명	%	명	%	명	%
세대별	1세대	70	3	4.2	22	30.9	27	39.3
	2세대	4,270	72	1.7	1,025	24.0	2,472	57.9
	3세대	660	14	2.1	172	26.0	371	56.2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17	1.0	294	16.8	1,057	60.5
	중학교 중퇴/졸업	153	7	4.5	50	32.3	74	48.3
	고등학교 재학	2,808	54	1.9	782	27.9	1,592	56.7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5	4.5	45	39.1	51	44.4
	대학교 재학	175	5	3.0	47	27.0	97	55.1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77	1.6	1,124	23.8	2,746	58.1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2	4.5	94	35.2	125	46.6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60	1.8	799	23.5	1,981	58.3
	하고 있음	1,600	29	1.8	420	26.2	890	55.6

구분		총 합계	중상		최상위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5,000	775	15.5	46	0.9	
성별	남성	2,613	458	17.5	40	1.5	X^2=42.124***
	여성	2,387	317	13.3	6	0.2	
연령별	만 14세	950	214	22.5	17	1.7	X^2=161.181***
	만 15세	978	173	17.7	6	0.6	
	만 16세	994	137	13.8	11	1.1	
	만 17세	1,021	137	13.4	8	0.8	
	만 18세	1,058	114	10.8	5	0.5	
지역별	동	4,696	747	15.9	42	0.9	X^2=14.838**
	읍·면	304	28	9.2	5	1.5	
세대별	1세대	70	16	22.5	2	3.1	X^2=15.885*
	2세대	4,270	661	15.5	39	0.9	
	3세대	660	98	14.9	5	0.8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359	20.5	20	1.1	X^2=147.323***
	중학교 중퇴/졸업	153	20	13.2	3	1.7	
	고등학교 재학	2,808	358	12.7	21	0.7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2	10.1	2	1.8	
	대학교 재학	175	25	14.5	1	0.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742	15.7	42	0.9	X^2=35.518***
	학교 다니지 않음	268	32	11.9	5	1.7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527	15.5	33	1.0	X^2=5.005
	하고 있음	1,600	248	15.5	13	0.8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30〉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속감

구분		총 합계	매우 적게 느낀다		적게 느낀다		많이 느낀다		매우 많이 느낀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153	3.1	1,206	24.1	3,030	60.6	611	12.2	
성별	남성	2,613	89	3.4	629	24.1	1,546	59.2	349	13.3	X^2= 9.577*
	여성	2,387	64	2.7	577	24.2	1,484	62.2	263	11.0	
연령별	만 14세	950	29	3.1	173	18.2	582	61.3	165	17.4	X^2= 85.497***
	만 15세	978	22	2.3	218	22.3	597	61.1	140	14.3	
	만 16세	994	32	3.2	221	22.3	623	62.7	117	11.8	
	만 17세	1,021	25	2.5	283	27.7	621	60.8	92	9.0	
	만 18세	1,058	44	4.1	311	29.4	607	57.4	97	9.1	
지역별	동	4,696	142	3.0	1,133	24.1	2,844	60.6	576	12.3	X^2= 0.504
	읍·면	304	11	3.7	72	23.7	186	61.1	35	11.4	
세대별	1세대	70	6	8.2	20	29.3	37	53.0	7	9.5	X^2= 10.294
	2세대	4,270	128	3.0	1,013	23.7	2,605	61.0	524	12.3	
	3세대	660	20	3.0	172	26.1	388	58.8	81	12.2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45	2.6	347	19.9	1,074	61.5	280	16.0	X^2= 106.374***
	중학교 중퇴/졸업	153	6	3.9	49	32.0	78	50.7	21	13.4	
	고등학교 재학	2,808	82	2.9	717	25.5	1,721	61.3	289	10.3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4	12.6	43	37.9	48	41.5	9	8.0	
	대학교 재학	175	5	3.0	47	26.9	110	62.6	13	7.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32	2.8	1,111	23.5	2,905	61.4	581	12.3	X^2= 40.813***
	학교 다니지 않음	268	20	7.6	93	34.5	125	46.8	30	11.1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20	3.5	853	25.1	2,042	60.1	385	11.3	X^2= 19.282***
	하고 있음	1,600	33	2.1	353	22.0	988	61.8	226	14.1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3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구분		총 합계	매우 불행함		불행함		행복함		매우 행복함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66	1.3	804	16.1	3,512	70.2	618	12.4	
성별	남성	2,613	37	1.4	404	15.5	1,780	68.1	392	15.0	X^2= 36.093***
	여성	2,387	29	1.2	400	16.7	1,732	72.6	226	9.5	
연령별	만 14세	950	5	0.5	111	11.7	621	65.4	213	22.4	X^2= 164.790***
	만 15세	978	7	0.8	144	14.7	682	69.8	144	14.8	
	만 16세	994	22	2.2	158	15.9	712	71.6	103	10.3	
	만 17세	1,021	15	1.4	190	18.6	741	72.6	75	7.4	
	만 18세	1,058	18	1.7	201	19.0	756	71.5	83	7.9	
지역별	동	4,696	60	1.3	756	16.1	3,303	70.3	577	12.3	X^2= 1.500
	읍·면	304	6	2.0	48	15.9	209	68.6	41	13.5	

구분		총 합계	매우 불행함		불행함		행복함		매우 행복함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세대별	1세대	70	3	3.8	12	16.5	49	69.8	7	9.9	X^2= 6.425
	2세대	4,270	54	1.3	684	16.0	3,010	70.5	521	12.2	
	3세대	660	10	1.4	108	16.4	453	68.6	90	13.6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11	0.6	225	12.9	1,177	67.4	334	19.1	X^2= 183.544***
	중학교 중퇴/졸업	153	5	3.1	27	17.4	102	66.6	20	12.9	
	고등학교 재학	2,808	42	1.5	491	17.5	2,033	72.4	242	8.6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8	6.9	36	31.0	64	55.6	7	6.5	
	대학교 재학	175	1	0.5	26	14.5	136	77.5	13	7.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54	1.1	741	15.7	3,346	70.7	589	12.5	X^2= 38.792***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3	4.7	62	23.2	166	61.9	27	10.1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49	1.4	582	17.1	2,375	69.9	394	11.6	X^2= 13.019**
	하고 있음	1,600	18	1.1	222	13.9	1,137	71.1	223	14.0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3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리 사회의 평등함

구분		총 합계	매우 불평등		불평등		평등		매우 평등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1,047	20.9	2,923	58.5	968	19.4	62	1.2	
성별	남성	2,613	612	23.4	1,422	54.4	525	20.1	54	2.1	X^2= 62.902***
	여성	2,387	435	18.2	1,500	62.9	443	18.6	8	0.3	
연령별	만 14세	950	150	15.8	510	53.7	265	27.9	24	2.6	X^2= 125.131***
	만 15세	978	192	19.6	555	56.8	222	22.7	8	0.8	
	만 16세	994	203	20.4	588	59.2	187	18.8	16	1.6	
	만 17세	1,021	235	23.0	638	62.5	145	14.2	3	0.3	
	만 18세	1,058	266	25.2	632	59.8	149	14.0	11	1.0	
지역별	동	4,696	983	20.9	2,749	58.5	906	19.3	58	1.2	X^2= 0.279
	읍·면	304	64	21.1	174	57.2	62	20.4	4	1.2	
세대별	1세대	70	12	16.8	40	57.2	18	26.0	0	0.0	X^2= 3.528
	2세대	4,270	894	20.9	2,505	58.7	817	19.1	53	1.2	
	3세대	660	141	21.4	377	57.1	133	20.1	9	1.3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305	17.4	966	55.3	446	25.5	30	1.7	X^2= 100.738***
	중학교 중퇴/졸업	153	37	24.0	75	48.9	39	25.2	3	1.9	
	고등학교 재학	2,808	637	22.7	1,708	60.8	436	15.5	26	0.9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35	30.2	60	52.2	17	14.9	3	2.7	
	대학교 재학	175	33	18.9	113	64.6	29	16.5	0	0.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975	20.6	2,788	58.9	911	19.3	56	1.2	X^2= 10.000*
	학교 다니지 않음	268	71	26.7	135	50.3	56	20.8	6	2.3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740	21.8	1,990	58.5	627	18.4	44	1.3	X^2= 8.192*
	하고 있음	1,600	307	19.2	933	58.3	341	21.3	19	1.2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3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람들의 신뢰도

구분		총 합계	전혀 신뢰할 수 없음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		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		매우 신뢰할 수 있음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164	3.3	2,046	40.9	2,702	54.0	88	1.8	
성별	남성	2,613	98	3.7	998	38.2	1,445	55.3	72	2.8	X^2= 46.062***
	여성	2,387	66	2.8	1,048	43.9	1,257	52.7	16	0.7	
연령별	만 14세	950	22	2.3	304	32.0	596	62.8	28	2.9	X^2= 69.244***
	만 15세	978	29	3.0	395	40.4	541	55.3	12	1.3	
	만 16세	994	40	4.1	418	42.0	510	51.4	25	2.5	
	만 17세	1,021	38	3.7	445	43.6	528	51.7	10	1.0	
	만 18세	1,058	34	3.2	484	45.8	526	49.8	13	1.2	
지역별	동	4,696	154	3.3	1,912	40.7	2,548	54.3	81	1.7	X^2= 2.397
	읍·면	304	9	3.1	135	44.2	153	50.4	7	2.3	
세대별	1세대	70	1	1.7	27	39.1	40	57.5	1	1.7	X^2= 3.580
	2세대	4,270	137	3.2	1,739	40.7	2,320	54.3	74	1.7	
	3세대	660	26	3.9	280	42.4	341	51.7	14	2.1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44	2.5	619	35.4	1,046	59.9	37	2.1	X^2= 58.031***
	중학교 중퇴/졸업	153	8	5.5	65	42.2	74	48.2	6	4.1	
	고등학교 재학	2,808	101	3.6	1,228	43.7	1,439	51.2	40	1.4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8	6.7	55	47.8	50	43.9	2	1.6	
	대학교 재학	175	3	1.5	80	45.4	91	51.6	3	1.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48	3.1	1,927	40.7	2,575	54.4	80	1.7	X^2= 12.795**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6	6.0	120	44.6	124	46.4	8	3.0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21	3.6	1,410	41.5	1,818	53.5	51	1.5	X^2= 7.924*
	하고 있음	1,600	43	2.7	637	39.8	883	55.2	37	2.3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3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리 사회의 안정성

구분		총 합계	전혀 안정적이지 않음		안정적이지 않음		조금 안정적임		매우 안정적임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562	11.2	2,438	48.8	1,931	38.6	68	1.4	
성별	남성	2,613	316	12.1	1,191	45.6	1,047	40.1	60	2.3	X^2= 51.308***
	여성	2,387	246	10.3	1,248	52.3	884	37.0	9	0.4	
연령별	만 14세	950	70	7.4	384	40.4	475	49.9	21	2.3	X^2= 122.363***
	만 15세	978	91	9.3	450	46.1	426	43.5	11	1.1	

구분		총 합계	전혀 안정적이지 않음		안정적이지 않음		조금 안정적임		매우 안정적임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만 16세	994	115	11.6	507	51.1	354	35.6	17	1.7	
	만 17세	1,021	136	13.3	529	51.8	349	34.2	7	0.7	
	만 18세	1,058	150	14.2	567	53.6	329	31.1	12	1.2	
지역별	동	4,696	528	11.2	2,287	48.7	1,817	38.7	64	1.4	X^2= 0.156
	읍·면	304	34	11.3	152	49.8	115	37.6	4	1.4	
세대별	1세대	70	8	10.7	22	31.0	40	57.0	1	1.3	X^2= 13.345*
	2세대	4,270	476	11.2	2,080	48.7	1,657	38.8	56	1.3	
	3세대	660	78	11.9	336	50.9	235	35.6	11	1.6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138	7.9	757	43.3	822	47.1	30	1.7	X^2= 107.096***
	중학교 중퇴/졸업	153	24	15.8	62	40.5	65	42.6	2	1.1	
	고등학교 재학	2,808	363	12.9	1,470	52.4	942	33.6	32	1.1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9	16.3	58	50.3	36	31.5	2	1.9	
	대학교 재학	175	17	10.0	91	52.0	64	36.5	3	1.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518	11.0	2,318	49.0	1,829	38.7	64	1.4	X^2= 6.891
	학교 다니지 않음	268	43	16.0	120	44.7	101	37.8	4	1.5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406	11.9	1,623	47.7	1,325	39.0	46	1.4	X^2= 7.279
	하고 있음	1,600	156	9.8	815	51.0	606	37.9	22	1.4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35〉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신체적 건강상태

구분		총 합계	매우 나쁨		나쁨		보통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34	0.7	524	10.5	1,771	35.4
성별	남성	2,613	18	0.7	263	10.1	857	32.8
	여성	2,387	16	0.7	261	10.9	914	38.3
연령별	만 14세	950	5	0.5	88	9.3	313	33.0
	만 15세	978	6	0.6	74	7.5	346	35.4
	만 16세	994	7	0.7	111	11.2	356	35.9
	만 17세	1,021	7	0.7	121	11.9	366	35.8
	만 18세	1,058	9	0.8	130	12.3	390	36.9
지역별	동	4,696	31	0.7	492	10.5	1,657	35.3
	읍·면	304	3	0.9	32	10.4	114	37.4
세대별	1세대	70	4	5.5	13	17.9	17	24.7
	2세대	4,270	21	0.5	446	10.5	1,520	35.6

구분		총 합계	매우 나쁨		나쁨		보통	
			명	%	명	%	명	%
	3세대	660	8	1.3	65	9.9	234	35.4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9	0.5	148	8.4	589	33.7
	중학교 중퇴/졸업	153	3	1.7	18	11.4	54	35.1
	고등학교 재학	2,808	20	0.7	318	11.3	998	35.5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2	1.5	21	18.0	60	52.6
	대학교 재학	175	0	0.0	20	11.5	69	39.1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29	0.6	486	10.3	1,656	35.0
	학교 다니지 않음	268	4	1.6	38	14.2	114	42.6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23	0.7	362	10.6	1,225	36.0
	하고 있음	1,600	11	0.7	163	10.2	546	34.1

구분		총 합계	좋음		매우 좋음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5,000	1,944	38.9	727	14.5	
성별	남성	2,613	1,027	39.3	448	17.1	X^2=36.931***
	여성	2,387	916	38.4	280	11.7	
연령별	만 14세	950	365	38.4	179	18.8	X^2= 50.853***
	만 15세	978	381	39.0	171	17.5	
	만 16세	994	379	38.1	141	14.1	
	만 17세	1,021	411	40.3	116	11.4	
	만 18세	1,058	408	38.5	121	11.5	
지역별	동	4,696	1,819	38.7	696	14.8	X^2=5.439
	읍·면	304	125	41.0	31	10.3	
세대별	1세대	70	26	37.9	10	13.9	X^2=39.205***
	2세대	4,270	1,658	38.8	623	14.6	
	3세대	660	259	39.2	94	14.3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685	39.2	316	18.1	X^2=76.881***
	중학교 중퇴/졸업	153	55	35.5	25	16.2	
	고등학교 재학	2,808	1,106	39.4	365	13.0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22	19.5	10	8.4	
	대학교 재학	175	74	42.5	12	6.9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865	39.4	693	14.6	X^2=18.624***
	학교 다니지 않음	268	77	28.7	35	12.9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311	38.5	480	14.1	X^2=2.920
	하고 있음	1,600	633	39.6	247	15.4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36〉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

구분		총 합계	과거에 피웠고, 지금도 피우고 있다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피우지 않는다		과거에는 피우지 않았으나, 지금은 피운다		과거에도 피우지 않았고, 지금도 피우지 않는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170	3.4	307	6.1	87	1.7	4,436	88.7	
성별	남성	2,613	135	5.2	229	8.7	76	2.9	2,173	83.2	X^2= 173.623***
	여성	2,387	35	1.5	78	3.3	11	0.5	2,263	94.8	
연령별	만 14세	950	5	0.5	44	4.7	6	0.7	894	94.1	X^2= 125.131***
	만 15세	978	14	1.4	49	5.0	7	0.7	907	92.8	
	만 16세	994	33	3.3	69	6.9	15	1.5	878	88.3	
	만 17세	1,021	43	4.2	75	7.4	25	2.5	877	85.9	
	만 18세	1,058	75	7.1	69	6.6	33	3.1	880	83.2	
지역별	동	4,696	156	3.3	290	6.2	84	1.8	4,166	88.7	X^2= 3.371
	읍·면	304	15	4.8	17	5.6	3	0.9	270	88.8	
세대별	1세대	70	8	10.7	9	13.3	7	10.2	46	65.8	X^2= 54.424***
	2세대	4,270	145	3.4	251	5.9	73	1.7	3,800	89.0	
	3세대	660	17	2.6	46	7.0	7	1.0	590	89.4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14	0.8	84	4.8	9	0.5	1,640	93.9	X^2= 169.135***
	중학교 중퇴/졸업	153	8	5.3	13	8.4	7	4.8	125	81.5	
	고등학교 재학	2,808	117	4.2	197	7.0	57	2.0	2,436	86.8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9	16.2	7	6.0	4	3.6	85	74.2	
	대학교 재학	175	12	6.9	6	3.5	10	5.5	148	84.1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43	3.0	287	6.1	76	1.6	4,224	89.3	X^2= 50.394***
	학교 다니지 않음	268	27	10.0	20	7.4	11	4.3	210	78.4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13	3.3	184	5.4	59	1.7	3,044	89.5	X^2= 9.679*
	하고 있음	1,600	57	3.6	122	7.7	28	1.7	1,392	87.0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37〉 음주 경험

구분		총 합계	과거에 마셨고, 현재도 마시고 있다		과거에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과거에는 마시지 않았으나, 현재는 마신다		과거에도 마시지 않았고, 현재도 마시지 않는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360	7.2	344	6.9	438	8.8	3,857	77.1	
성별	남성	2,613	203	7.8	200	7.7	252	9.7	1,958	74.9	X^2= 15.628**
	여성	2,387	157	6.6	144	6.1	186	7.8	1,900	79.6	

구분		총 합계	과거에 마셨고, 현재도 마시고 있다		과거에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과거에는 마시지 않았으나, 현재는 마신다		과거에도 마시지 않았고, 현재도 마시지 않는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연령별	만 14세	950	9	0.9	36	3.7	23	2.4	883	92.9	X^2= 561.528***
	만 15세	978	31	3.2	46	4.7	35	3.5	866	88.6	
	만 16세	994	62	6.2	80	8.1	65	6.6	787	79.2	
	만 17세	1,021	93	9.1	89	8.7	106	10.4	733	71.8	
	만 18세	1,058	166	15.7	94	8.9	209	19.7	589	55.7	
지역별	동	4,696	329	7.0	318	6.8	414	8.8	3,634	77.4	X^2= 6.232
	읍·면	304	31	10.2	26	8.6	24	7.8	223	73.4	
세대별	1세대	70	18	25.4	9	12.4	15	21.4	29	40.8	X^2= 66.827***
	2세대	4,270	311	7.3	287	6.7	369	8.6	3,303	77.4	
	3세대	660	32	4.8	49	7.4	54	8.1	526	79.7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32	1.9	72	4.1	49	2.8	1,593	91.2	X^2= 841.979***
	중학교 중퇴/졸업	153	14	8.9	14	9.4	11	7.3	114	74.4	
	고등학교 재학	2,808	237	8.4	233	8.3	271	9.7	2,067	73.6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30	26.5	11	9.9	18	15.7	55	47.8	
	대학교 재학	175	47	26.9	13	7.6	89	50.6	26	14.9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316	6.7	318	6.7	409	8.6	3,687	78.0	X^2= 45.311***
	학교 다니지 않음	268	44	16.5	26	9.6	29	10.9	169	63.0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255	7.5	221	6.5	300	8.8	2,624	77.2	X^2= 3.843
	하고 있음	1,600	105	6.6	124	7.7	138	8.6	1,233	77.1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38〉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시간

구분		총 합계	6시간 미만		6시간		7시간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894	17.9	1,291	25.8	1,359	27.2
성별	남성	2,613	383	14.7	614	23.5	737	28.2
	여성	2,387	511	21.4	677	28.4	622	26.0
연령별	만 14세	950	68	7.2	152	16.0	281	29.6
	만 15세	978	99	10.1	205	21.0	314	32.2
	만 16세	994	184	18.5	314	31.6	260	26.2
	만 17세	1,021	253	24.8	324	31.7	255	25.0
	만 18세	1,058	290	27.4	295	27.9	248	23.4
지역별	동	4,696	853	18.2	1206	25.7	1276	27.2
	읍·면	304	41	13.5	85	28.0	82	27.1

구분		총 합계	6시간 미만		6시간		7시간	
			명	%	명	%	명	%
세대별	1세대	70	12	17.8	20	28.1	15	21.9
	2세대	4,270	769	18.0	1,102	25.8	1,161	27.2
	3세대	660	112	16.9	170	25.7	183	27.6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127	7.3	314	18.0	548	31.4
	중학교 중퇴/졸업	153	25	16.2	28	18.5	35	22.8
	고등학교 재학	2,808	712	25.4	890	31.7	696	24.8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5	12.8	22	18.9	31	26.7
	대학교 재학	175	15	8.4	37	21.0	49	28.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854	18.1	1,240	26.2	1,293	27.3
	학교 다니지 않음	268	40	14.7	50	18.7	66	24.4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641	18.9	856	25.2	922	27.1
	하고 있음	1,600	253	15.8	435	27.2	437	27.3

구분		총 합계	8시간		9시간 이상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5,000	973	19.5	483	9.7	
성별	남성	2,613	594	22.7	285	10.9	X^2=84.268***
	여성	2,387	379	15.9	198	8.3	
연령별	만 14세	950	285	30.0	164	17.2	X^2=472.960***
	만 15세	978	253	25.9	106	10.9	
	만 16세	994	156	15.7	79	7.9	
	만 17세	1,021	123	12.0	66	6.5	
	만 18세	1,058	156	14.8	68	6.5	
지역별	동	4,696	909	19.4	452	9.6	X^2=4.601
	읍·면	304	64	21.1	31	10.3	
세대별	1세대	70	9	13.2	13	19.0	X^2=9.355
	2세대	4,270	829	19.4	408	9.6	
	3세대	660	135	20.4	62	9.3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504	28.9	253	14.5	X^2=586.380***
	중학교 중퇴/졸업	153	47	30.8	18	11.8	
	고등학교 재학	2,808	350	12.5	160	5.7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23	20.4	24	21.3	
	대학교 재학	175	48	27.5	26	15.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903	19.1	440	9.3	X^2=25.399***
	학교 다니지 않음	268	71	26.3	42	15.8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662	19.5	319	9.4	X^2=8.193
	하고 있음	1,600	311	19.4	164	10.3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39〉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3개월 동안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한 횟수

구분		총 합계	없음		월 1-2회		주 1-2회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2,824	56.5	1,233	24.7	630	12.6
성별	남성	2,613	1,624	62.1	542	20.8	306	11.7
	여성	2,387	1,200	50.3	691	29.0	323	13.5
연령별	만 14세	950	611	64.3	185	19.4	92	9.7
	만 15세	978	604	61.8	217	22.2	107	10.9
	만 16세	994	536	53.9	270	27.2	134	13.5
	만 17세	1,021	539	52.8	282	27.7	134	13.1
	만 18세	1,058	534	50.5	280	26.4	162	15.4
지역별	동	4,696	2,647	56.4	1,161	24.7	592	12.6
	읍·면	304	177	58.2	72	23.8	37	12.2
세대별	1세대	70	32	45.9	18	25.9	14	20.2
	2세대	4,270	2,423	56.8	1,058	24.8	525	12.3
	3세대	660	369	55.9	157	23.8	91	13.8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1,112	63.7	363	20.8	175	10.0
	중학교 중퇴/졸업	153	81	52.8	32	20.6	26	16.7
	고등학교 재학	2,808	1,508	53.7	751	26.7	377	13.4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42	36.6	32	28.3	26	22.5
	대학교 재학	175	81	46.0	54	31.0	26	15.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2,701	57.1	1,169	24.7	578	12.2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23	45.9	64	23.9	52	19.2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947	57.3	809	23.8	419	12.3
	하고 있음	1,600	877	54.8	424	26.5	211	13.2

구분		총 합계	주 3-4회		거의 매일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5,000	212	4.2	100	2.0	
성별	남성	2,613	96	3.7	44	1.7	X^2=75.387***
	여성	2,387	116	4.9	56	2.4	
연령별	만 14세	950	42	4.4	19	2.0	X^2=75.138***
	만 15세	978	36	3.7	14	1.4	
	만 16세	994	40	4.1	13	1.3	
	만 17세	1,021	36	3.5	29	2.9	
	만 18세	1,058	57	5.4	25	2.3	

구분		총 합계	주 3-4회		거의 매일		통계값
			명	%	명	%	
지역별	동	4,696	202	4.3	93	2.0	X^2=1.181
	읍·면	304	10	3.3	7	2.5	
세대별	1세대	70	5	6.7	1	1.3	X^2=8.089
	2세대	4,270	180	4.2	83	1.9	
	3세대	660	27	4.1	16	2.5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66	3.8	30	1.7	X^2=91.344***
	중학교 중퇴/졸업	153	10	6.8	5	3.1	
	고등학교 재학	2,808	117	4.2	54	1.9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1	9.2	4	3.4	
	대학교 재학	175	7	4.0	7	4.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90	4.0	92	1.9	X^2=27.266***
	학교 다니지 않음	268	21	7.8	9	3.2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51	4.4	74	2.2	X^2=7.335
	하고 있음	1,600	61	3.8	27	1.7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40〉 최근 7일 동안 아침 식사 한 날

구분	명	%
총 합계	5,000	100.0
0일	1,035	20.7
1일	362	7.2
2일	438	8.8
3일	344	6.9
4일	254	5.1
5일	521	10.4
6일	423	8.5
7일	1,623	32.5

〈부표 3-41〉 정기적 동호회 활동

구분	명	%
총 합계	5,000	100.0
예	1,898	38.0
아니오	3,102	62.0

〈부표 3-4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기적 동호회 활동

구분		총 합계	예		아니오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5,000	1,898	38.0	3,102	62.0	
성별	남성	2,613	1,181	45.2	1,432	54.8	X^2=121.727***
	여성	2,387	717	30.0	1,670	70.0	
연령별	만 14세	950	421	44.3	529	55.7	X^2=105.025***
	만 15세	978	384	39.3	593	60.7	
	만 16세	994	430	43.3	564	56.7	
	만 17세	1,021	398	39.0	623	61.0	
	만 18세	1,058	264	25.0	793	75.0	
지역별	동	4,696	1,786	38.0	2,910	62.0	X^2=0.209
	읍·면	304	112	36.7	193	63.3	
세대별	1세대	70	28	40.3	42	59.7	X^2=2.898
	2세대	4,270	1,600	37.5	2,670	62.5	
	3세대	660	270	40.8	391	59.2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736	42.2	1,010	57.8	X^2=39.415***
	중학교 중퇴/졸업	153	61	39.7	93	60.3	
	고등학교 재학	2,808	1,013	36.1	1,795	63.9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9	17.0	95	83.0	
	대학교 재학	175	66	37.7	109	62.3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815	38.4	2,914	61.6	X^2=7.838**
	학교 다니지 않음	268	80	30.0	188	70.0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194	35.1	2,206	64.9	X^2=36.449***
	하고 있음	1,600	704	44.0	896	56.0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4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경험

구분		총 합계	있음		없음		잘 모름		통계값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261	5.2	4,163	83.3	576	11.5	
성별	남성	2,613	118	4.5	2,184	83.6	311	11.9	X^2=5.680
	여성	2,387	142	6.0	1,980	82.9	265	11.1	
연령별	만 14세	950	45	4.7	802	84.4	104	10.9	X^2=2.727
	만 15세	978	47	4.9	812	83.1	118	12.0	
	만 16세	994	55	5.5	829	83.4	110	11.0	
	만 17세	1,021	58	5.7	847	83.0	116	11.3	
	만 18세	1,058	55	5.2	873	82.5	129	12.2	
지역별	동	4,696	248	5.3	3,903	83.1	544	11.6	X^2=1.454
	읍·면	304	12	4.1	260	85.4	32	10.5	

구분		총 합계	있음		없음		잘 모름		통계값
			명	%	명	%	명	%	
세대별	1세대	70	6	8.1	59	85.0	5	6.9	X^2=3.971
	2세대	4,270	226	5.3	3,545	83.0	498	11.7	
	3세대	660	29	4.3	559	84.6	73	11.0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82	4.7	1,461	83.6	204	11.7	X^2=10.505
	중학교 중퇴/졸업	153	8	4.9	125	81.5	21	13.6	
	고등학교 재학	2,808	150	5.4	2,346	83.5	312	11.1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11	9.9	84	73.4	19	16.7	
	대학교 재학	175	10	5.5	147	83.5	19	11.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242	5.1	3,953	83.6	535	11.3	X^2=5.723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9	7.1	209	78.0	40	14.9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69	5.0	2,858	84.0	374	11.0	X^2=4.575
	하고 있음	1,600	92	5.7	1,305	81.6	202	12.6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4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일탈 충동

구분		총 합계	있음		없음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5,000	1,441	28.8	3,559	71.2	
성별	남성	2,613	658	25.2	1,955	74.8	X^2=35.691***
	여성	2,387	784	32.8	1,603	67.2	
연령별	만 14세	950	200	21.1	750	78.9	X^2=61.812***
	만 15세	978	241	24.6	737	75.4	
	만 16세	994	299	30.1	695	69.9	
	만 17세	1,021	344	33.7	677	66.3	
	만 18세	1,058	358	33.8	700	66.2	
지역별	동	4,696	1,361	29.0	3,335	71.0	X^2=0.821
	읍·면	304	81	26.5	224	73.5	
세대별	1세대	70	16	22.7	54	77.3	X^2=1.319
	2세대	4,270	1,231	28.8	3,039	71.2	
	3세대	660	194	29.4	466	70.6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395	22.6	1,352	77.4	X^2=55.014***
	중학교 중퇴/졸업	153	45	29.3	108	70.7	
	고등학교 재학	2,808	899	32.0	1,909	68.0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46	40.0	69	60.0	
	대학교 재학	175	57	32.5	118	67.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350	28.6	3,379	71.4	X^2=3.615
	학교 다니지 않음	268	91	33.9	177	66.1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958	28.2	2,442	71.8	X^2=2.145
	하고 있음	1,600	483	30.2	1,117	69.8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45〉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본인의 분노조절

구분		총 합계	전혀 조절되지 않음		조절되지 않는 편임		조절되는 편임		매우 잘 조절됨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5,000	39	0.8	775	15.5	3,025	60.5	1,162	23.2	
성별	남성	2,613	25	1.0	341	13.1	1,502	57.5	745	28.5	X^2= 97.665***
	여성	2,387	13	0.6	434	18.2	1,523	63.8	417	17.5	
연령별	만 14세	950	11	1.2	121	12.7	565	59.5	253	26.6	X^2= 22.277*
	만 15세	978	7	0.7	157	16.1	590	60.3	224	22.9	
	만 16세	994	4	0.4	155	15.6	616	62.0	219	22.0	
	만 17세	1,021	5	0.5	177	17.3	598	58.6	241	23.6	
	만 18세	1,058	12	1.2	165	15.6	656	62.0	225	21.2	
지역별	동	4,696	37	0.8	722	15.4	2,862	60.9	1,075	22.9	X^2= 7.177
	읍·면	304	2	0.7	52	17.2	163	53.6	87	28.6	
세대별	1세대	70	1	1.2	16	23.6	36	51.4	17	23.8	X^2= 5.023
	2세대	4,270	32	0.7	665	15.6	2,585	60.5	988	23.1	
	3세대	660	6	0.9	93	14.1	404	61.2	157	23.8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16	0.9	255	14.6	1,033	59.2	442	25.3	X^2= 34.987***
	중학교 중퇴/졸업	153	3	2.2	22	14.6	98	63.7	30	19.5	
	고등학교 재학	2,808	14	0.5	443	15.8	1,722	61.3	628	22.4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4	3.1	27	23.4	70	60.7	15	12.8	
	대학교 재학	175	1	0.5	28	16.0	101	57.6	45	25.9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32	0.7	726	15.3	2,856	60.4	1,116	23.6	X^2= 19.429***
	학교 다니지 않음	268	7	2.6	49	18.4	167	62.4	44	16.6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24	0.7	520	15.3	2,053	60.4	803	23.6	X^2= 1.714
	하고 있음	1,600	15	0.9	255	15.9	972	60.7	359	22.4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46〉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구분		총 합계	알고 있음		모름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5,000	1,573	31.5	3,427	68.5	
성별	남성	2,613	862	33.0	1,751	67.0	X^2=6.092*
	여성	2,387	710	29.8	1,677	70.2	
연령별	만 14세	950	351	37.0	599	63.0	X^2=36.996***
	만 15세	978	336	34.4	641	65.6	
	만 16세	994	319	32.1	675	67.9	
	만 17세	1,021	296	29.0	725	71.0	
	만 18세	1,058	271	25.6	787	74.4	
지역별	동	4,696	1,470	31.3	3,225	68.7	X^2=0.666
	읍·면	304	102	33.6	202	66.4	

구분		총 합계	알고 있음		모름		통계값
			명	%	명	%	
세대별	1세대	70	19	26.8	51	73.2	X^2=0.647
	2세대	4,270	1,348	31.6	2,922	68.4	
	3세대	660	206	31.2	454	68.8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614	35.2	1,132	64.8	X^2=22.947***
	중학교 중퇴/졸업	153	56	36.5	98	63.5	
	고등학교 재학	2,808	826	29.4	1,981	70.6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27	23.4	88	76.6	
	대학교 재학	175	48	27.6	127	72.4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1,489	31.5	3,241	68.5	X^2=0.031
	학교 다니지 않음	268	83	30.9	185	69.1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1,022	30.0	2,379	70.0	X^2=9.715**
	하고 있음	1,600	551	34.4	1,049	65.6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47〉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이용

구분		총 합계	있음		없음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5,000	93	1.9	4,907	98.1	
성별	남성	2,613	60	2.3	2,553	97.7	X^2=6.297*
	여성	2,387	32	1.4	2,354	98.6	
연령별	만 14세	950	21	2.2	930	97.8	X^2=1.532
	만 15세	978	20	2.1	957	97.9	
	만 16세	994	16	1.6	978	98.4	
	만 17세	1,021	19	1.9	1,001	98.1	
	만 18세	1,058	17	1.6	1,041	98.4	
지역별	동	4,696	90	1.9	4,606	98.1	X^2=1.352
	읍·면	304	3	1.0	301	99.0	
세대별	1세대	70	2	3.1	68	96.9	X^2=0.698
	2세대	4,270	77	1.8	4,193	98.2	
	3세대	660	14	2.1	647	97.9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35	2.0	1,711	98.0	X^2=10.709*
	중학교 중퇴/졸업	153	7	4.6	147	95.4	
	고등학교 재학	2,808	45	1.6	2,763	98.4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4	3.9	110	96.1	
	대학교 재학	175	1	0.5	175	99.5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81	1.7	4,649	98.3	X^2=8.032**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1	4.3	257	95.7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57	1.7	3,344	98.3	X^2=1.965
	하고 있음	1,600	36	2.2	1,564	97.8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48〉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도움 필요성

구분		총 합계	예		아니오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5,000	3,222	64.4	1,778	35.6	
성별	남성	2,613	1,502	57.5	1,111	42.5	X^2=114.953***
	여성	2,387	1,719	72.0	668	28.0	
연령별	만 14세	950	568	59.8	382	40.2	X^2=23.002***
	만 15세	978	625	63.9	353	36.1	
	만 16세	994	616	62.0	378	38.0	
	만 17세	1,021	694	68.0	327	32.0	
	만 18세	1,058	719	68.0	339	32.0	
지역별	동	4,696	3,038	64.7	1,657	35.3	X^2=2.534
	읍·면	304	183	60.1	121	39.9	
세대별	1세대	70	35	50.8	34	49.2	X^2=5.870
	2세대	4,270	2,763	64.7	1,506	35.3	
	3세대	660	423	64.0	238	36.0	
학력별	중학교 재학	1,747	1,086	62.2	661	37.8	X^2=21.370***
	중학교 중퇴/졸업	153	82	53.5	71	46.5	
	고등학교 재학	2,808	1,865	66.4	943	33.6	
	고등학교 중퇴/졸업	115	66	57.6	49	42.4	
	대학교 재학	175	123	70.1	53	29.9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4,730	3,073	65.0	1,657	35.0	X^2=10.511**
	학교 다니지 않음	268	148	55.3	120	44.7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00	2,174	63.9	1,226	36.1	X^2=1.154
	하고 있음	1,600	1,048	65.5	552	34.5	

주: * : p〈0.05, ** : p〈0.01, *** : p〈0.001

〈부표 3-49〉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희망하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구분		총 합계	문화활동 (영화관람 등) 지원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체육 프로그램 강화	
			명	%	명	%	명	%
총 합계		3,222	2,150	66.8	2,029	63.0	1,109	34.4
성별	남성	1,502	864	57.5	836	55.7	607	40.4
	여성	1,719	1,286	74.8	1,192	69.3	502	29.2
연령별	만 14세	568	388	68.3	315	55.5	216	38.0
	만 15세	625	403	64.5	390	62.4	223	35.7
	만 16세	616	439	71.3	398	64.6	218	35.4
	만 17세	694	476	68.6	436	62.8	231	33.3
	만 18세	719	445	61.8	490	68.1	221	30.8
지역별	동	3,038	2,039	67.1	1,914	63.0	1,044	34.4
	읍·면	183	112	61.0	114	62.4	65	35.7

구분		총 합계	문화활동 (영화관람 등) 지원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체육 프로그램 강화	
			명	%	명	%	명	%
세대별	1세대	35	23	64.0	22	62.9	7	18.5
	2세대	2,763	1,855	67.1	1,749	63.3	948	34.3
	3세대	423	273	64.5	257	60.9	155	36.6
학력별	중학교 재학	1,086	727	67.0	633	58.3	398	36.7
	중학교 중퇴/졸업	82	46	56.3	46	56.4	37	45.1
	고등학교 재학	1,865	1,256	67.4	1,220	65.4	618	33.1
	고등학교 중퇴/졸업	66	45	68.2	44	67.0	25	37.2
	대학교 재학	123	76	61.6	85	69.4	32	25.8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3,073	2,059	67.0	1,938	63.1	1,048	34.1
	학교 다니지 않음	148	91	61.6	91	61.1	62	41.6
종교활동	하지 않음	2,174	1,453	66.8	1,381	63.5	742	34.1
	하고 있음	1,048	697	66.6	647	61.8	367	35.0

구분		총 합계	지역사회 멘토 지정 운영		가정방문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		지역사회 내 자조모임 확대 지원		기타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3,222	759	23.6	747	23.2	412	12.8	13	0.4
성별	남성	1,502	277	18.5	366	24.3	222	14.8	10	0.7
	여성	1,719	482	28.0	382	22.2	190	11.1	3	0.1
연령별	만 14세	568	132	23.3	120	21.2	76	13.3	4	0.7
	만 15세	625	125	19.9	144	23.1	86	13.8	5	0.8
	만 16세	616	157	25.5	146	23.7	83	13.4	1	0.2
	만 17세	694	162	23.4	151	21.8	89	12.9	2	0.3
	만 18세	719	184	25.6	185	25.8	78	10.9	1	0.1
지역별	동	3,038	720	23.7	700	23.0	393	12.9	13	0.4
	읍·면	183	39	21.4	47	25.9	19	10.3	0	0.0
세대별	1세대	35	10	28.5	10	29.2	2	5.2	0	0.0
	2세대	2,763	648	23.5	630	22.8	353	12.8	9	0.3
	3세대	423	101	24.0	107	25.3	57	13.5	3	0.8
학력별	중학교 재학	1,086	239	22.0	246	22.7	156	14.3	9	0.8
	중학교 중퇴/졸업	82	13	16.3	13	15.9	9	10.9	0	0.0
	고등학교 재학	1,865	459	24.6	438	23.5	228	12.2	4	0.2
	고등학교 중퇴/졸업	66	15	23.2	18	27.9	5	8.0	0	0.0
	대학교 재학	123	33	26.5	32	25.7	14	11.4	0	0.0
재학여부	학교 재학 중	3,073	731	23.8	716	23.3	398	12.9	13	0.4
	학교 다니지 않음	148	29	19.4	32	21.3	14	9.6	0	0.0
종교활동	하지 않음	2,174	492	22.7	503	23.2	265	12.2	4	0.2
	하고 있음	1,048	267	25.5	244	23.3	147	14.0	8	0.8

부록 4. 성인 조사 세부결과표

〈부표 4-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

구분		총 합계	자녀교육, 가족부양 및 간병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문제		직장내의 갈등문제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848	12.1	509	7.3	448	6.4
성별	남성	3,469	320	9.2	211	6.1	274	7.9
	여성	3,531	528	15.0	298	8.4	174	4.9
연령별	19~29세	1,275	36	2.9	5	0.4	158	12.4
	30~39세	1,304	370	28.4	24	1.8	147	11.3
	40~49세	1,443	336	23.3	58	4.0	90	6.2
	50~59세	1,383	86	6.2	118	8.5	38	2.8
	60~64세	541	8	1.6	87	16.0	6	1.2
	65~69세	288	6	2.2	44	15.2	2	0.8
	70세 이상	767	5	0.7	174	22.7	6	0.8
지역별	동	5,937	745	12.5	425	7.2	377	6.4
	읍·면	1,063	103	9.7	84	7.9	71	6.7
세대별	1세대	1,853	26	1.4	271	14.6	71	3.9
	2세대	4,900	804	16.4	220	4.5	362	7.4
	3세대	247	18	7.4	19	7.5	15	6.1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8	0.5	17	1.1	199	13.1
	유배우	5,004	829	16.6	417	8.3	243	4.9
	별거·이혼·사별	476	11	2.3	75	15.8	6	1.2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424	19.5	106	4.9	142	6.5
	비맞벌이	2,684	395	14.7	296	11.0	101	3.8
	비해당	148	10	6.7	15	10.3	0	0.0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268	16.8	49	3.1	252	15.8
	육체노동자	2,921	300	10.3	169	5.8	177	6.1
	무직	2,484	279	11.2	291	11.7	19	0.8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382	15.2	74	2.9	357	14.2
	임시직	648	64	9.9	44	6.8	44	6.8
	자영업	1,343	122	9.1	100	7.4	28	2.1
	기타	8	1	10.4	0	0.0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3	2.6	11	8.8	5	3.7
	19~59세 고졸	2,179	307	14.1	118	5.4	114	5.2
	19~59세 대재이상	3,101	518	16.7	75	2.4	314	10.1
	60세 이상 초졸	459	3	0.7	82	17.9	3	0.7
	60세 이상 중졸	550	8	1.4	107	19.4	5	1.0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9	1.6	116	19.7	6	1.1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18	1.6	184	15.8	15	1.3
	200~400만원 미만	2,735	357	13.0	173	6.3	181	6.6
	400~600만원 미만	2,525	392	15.5	121	4.8	201	8.0
	600만원 이상	580	81	13.9	31	5.4	51	8.7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640	12.4	334	6.5	373	7.2
	하고 있음	1,855	208	11.2	175	9.4	75	4.0

〈부표 4-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 측면의 불안 요소-계속

구분		총 합계	생활안전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정신적 건강		가족관계 및 해체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274	3.9	243	3.5	218	3.1	190	2.7
성별	남성	3,469	143	4.1	118	3.4	119	3.4	94	2.7
	여성	3,531	131	3.7	125	3.5	99	2.8	96	2.7
연령별	19~29세	1,275	71	5.6	137	10.7	61	4.8	30	2.4
	30~39세	1,304	69	5.3	45	3.4	41	3.1	27	2.0
	40~49세	1,443	55	3.8	31	2.2	49	3.4	57	3.9
	50~59세	1,383	43	3.1	19	1.4	34	2.5	37	2.7
	60~64세	541	18	3.3	5	1.0	7	1.3	15	2.7
	65~69세	288	8	2.8	1	0.4	11	3.7	7	2.6
	70세 이상	767	10	1.3	4	0.6	17	2.2	18	2.3
지역별	동	5,937	239	4.0	190	3.2	169	2.9	153	2.6
	읍·면	1,063	35	3.3	53	5.0	49	4.6	37	3.5
세대별	1세대	1,853	51	2.8	42	2.3	52	2.8	43	2.3
	2세대	4,900	208	4.2	199	4.1	147	3.0	140	2.9
	3세대	247	15	6.0	2	0.7	18	7.4	7	2.9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88	5.8	142	9.3	79	5.2	31	2.0
	유배우	5,004	178	3.6	100	2.0	121	2.4	132	2.6
	별거·이혼·사별	476	8	1.7	1	0.3	18	3.8	27	5.7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72	3.3	38	1.7	49	2.3	57	2.6
	비맞벌이	2,684	103	3.8	58	2.2	67	2.5	71	2.7
	비해당	148	3	2.0	4	2.8	4	2.9	4	2.8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85	5.4	81	5.1	63	4.0	49	3.1
	육체노동자	2,921	110	3.8	67	2.3	77	2.6	71	2.4
	무직	2,484	78	3.2	95	3.8	78	3.1	70	2.8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25	5.0	110	4.4	93	3.7	51	2.0
	임시직	648	18	2.9	12	1.9	17	2.6	23	3.6
	자영업	1,343	52	3.9	25	1.9	30	2.3	46	3.4
	기타	8	0	0.0	0	0.0	0	0.0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7	5.7	1	0.6	3	2.2	4	2.9
	19~59세 고졸	2,179	67	3.1	43	2.0	70	3.2	64	2.9
	19~59세 대재이상	3,101	165	5.3	189	6.1	110	3.6	83	2.7
	60세 이상 초졸	459	8	1.8	0	0.0	11	2.4	14	3.1
	60세 이상 중졸	550	13	2.4	0	0.0	12	2.2	9	1.7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15	2.5	11	1.8	11	1.9	17	2.9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25	2.2	15	1.3	37	3.2	28	2.4
	200~400만원 미만	2,735	102	3.7	74	2.7	90	3.3	79	2.9
	400~600만원 미만	2,525	125	5.0	109	4.3	69	2.7	63	2.5
	600만원 이상	580	22	3.8	45	7.8	22	3.8	20	3.5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215	4.2	187	3.6	163	3.2	138	2.7
	하고 있음	1,855	59	3.2	56	3.0	55	3.0	52	2.8

〈부표 4-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인 측면의 불안 요소

구분		개인적인 문제 불안 점수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총 합계		52.2±17.44	
성별	남성	52.3±17.74	T=0.59
	여성	52.1±17.13	
연령별	19~29세	47.0±18.01	F=26.14***
	30~39세	52.7±17.68	
	40~49세	54.3±17.08	
	50~59세	53.7±16.69	
	60~64세	54.3±17.57	
	65~69세	52.1±15.95	
	70세 이상	51.9±16.77	
지역별	동	52.0±17.42	T=-1.73
	읍·면	53.0±17.50	
세대별	1세대	51.6±17.29	F=3.37*
	2세대	52.5±17.45	
	3세대	50.2±18.12	
혼인 상태별	미혼	46.9±17.68	F=90.75***
	유배우	53.7±17.19	
	별거·이혼·사별	52.7±15.96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54.3±17.35	F=2.77
	비맞벌이	53.2±17.20	
	비해당	54.7±14.27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53.3±18.32	F=12.84***
	육체노동자	52.8±16.93	
	무직	50.8±17.35	
근로 형태별	정규직	53.6±17.91	F=3.56*
	임시직	52.4±16.19	
	자영업	52.0±17.07	
	기타	45.2±14.87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51.1±13.45	F=9.34***
	19~59세 고졸	53.8±17.39	
	19~59세 대재이상	50.8±17.75	
	60세 이상 초졸	53.2±15.36	
	60세 이상 중졸	53.6±16.94	
	60세 이상 고졸이상	51.6±18.03	
소득별	200만원 미만	53.5±16.26	F=10.33***
	200~400만원 미만	52.6±16.82	
	400~600만원 미만	51.9±17.96	
	600만원 이상	48.8±19.69	
종교활동	하지 않음	52.5±17.31	T=2.26*
	하고 있음	51.4±17.77	

〈부표 4-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

구분		총 합계	사회안전망 취약		정치 및 대외관계		저출산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문제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414	5.9	398	5.7	339	4.8	252	3.6
성별	남성	3,469	198	5.7	196	5.7	154	4.5	133	3.8
	여성	3,531	216	6.1	202	5.7	185	5.2	119	3.4
연령별	19~29세	1,275	86	6.8	66	5.2	36	2.8	50	3.9
	30~39세	1,304	65	5.0	58	4.4	66	5.1	47	3.6
	40~49세	1,443	78	5.4	71	4.9	54	3.7	43	3.0
	50~59세	1,383	71	5.1	85	6.2	63	4.6	38	2.8
	60~64세	541	33	6.2	41	7.5	26	4.9	24	4.4
	65~69세	288	21	7.4	22	7.7	28	9.9	10	3.6
	70세 이상	767	60	7.8	55	7.2	65	8.5	40	5.2
지역별	동	5,937	352	5.9	324	5.5	307	5.2	208	3.5
	읍·면	1,063	62	5.8	74	6.9	33	3.1	44	4.2
세대별	1세대	1,853	120	6.5	134	7.2	128	6.9	87	4.7
	2세대	4,900	284	5.8	251	5.1	189	3.9	155	3.2
	3세대	247	10	4.0	13	5.2	22	9.0	10	4.1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100	6.6	82	5.4	42	2.8	66	4.3
	유배우	5,004	282	5.6	286	5.7	255	5.1	158	3.2
	별거·이혼·사별	476	32	6.7	30	6.3	42	8.8	29	6.0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99	4.5	113	5.2	110	5.1	59	2.7
	비맞벌이	2,684	179	6.7	165	6.1	137	5.1	90	3.4
	비해당	148	4	3.0	8	5.5	7	4.9	9	5.9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112	7.0	79	5.0	75	4.7	56	3.5
	육체노동자	2,921	131	4.5	171	5.9	131	4.5	90	3.1
	무직	2,484	170	6.9	148	5.9	133	5.4	106	4.3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58	6.3	126	5.0	113	4.5	88	3.5
	임시직	648	36	5.6	39	6.0	34	5.2	28	4.4
	자영업	1,343	50	3.7	85	6.4	60	4.4	29	2.1
	기타	8	0	0.0	0	0.0	0	0.0	1	12.7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6	4.7	13	10.2	3	2.5	5	3.8
	19~59세 고졸	2,179	106	4.9	128	5.9	95	4.3	59	2.7
	19~59세 대재이상	3,101	188	6.1	139	4.5	121	3.9	114	3.7
	60세 이상 초졸	459	36	8.0	30	6.6	50	11.0	25	5.6
	60세 이상 중졸	550	40	7.2	31	5.7	46	8.4	28	5.1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38	6.6	57	9.7	24	4.0	20	3.5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87	7.5	82	7.1	96	8.2	62	5.3
	200~400만원 미만	2,735	141	5.1	173	6.3	123	4.5	89	3.3
	400~600만원 미만	2,525	160	6.3	116	4.6	102	4.0	83	3.3
	600만원 이상	580	27	4.6	27	4.7	19	3.2	19	3.2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305	5.9	290	5.6	229	4.5	201	3.9
	하고 있음	1,855	109	5.9	108	5.8	110	5.9	51	2.8

〈부표 4-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 - 계속

구분		총 합계	학대, 폭력 등 범죄		계층, 집단 및 세대간 갈등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		빈번한 교육 및 입시제도 변경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234	3.3	189	2.7	186	2.7	137	2.0
성별	남성	3,469	81	2.3	121	3.5	96	2.8	59	1.7
	여성	3,531	153	4.3	68	1.9	90	2.5	78	2.2
연령별	19~29세	1,275	62	4.9	48	3.8	35	2.7	29	2.3
	30~39세	1,304	69	5.3	37	2.9	41	3.1	38	2.9
	40~49세	1,443	44	3.0	40	2.8	30	2.1	53	3.7
	50~59세	1,383	23	1.7	27	2.0	39	2.8	13	0.9
	60~64세	541	11	1.9	9	1.6	13	2.4	0	0.1
	65~69세	288	4	1.3	9	3.1	12	4.3	2	0.6
	70세 이상	767	21	2.7	18	2.4	16	2.1	2	0.3
지역별	동	5,937	198	3.3	157	2.6	157	2.6	121	2.0
	읍·면	1,063	35	3.3	32	3.0	29	2.7	17	1.6
세대별	1세대	1,853	36	1.9	40	2.2	45	2.4	6	0.3
	2세대	4,900	189	3.9	142	2.9	133	2.7	128	2.6
	3세대	247	9	3.8	6	2.5	7	2.9	3	1.4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75	4.9	58	3.8	43	2.8	26	1.7
	유배우	5,004	151	3.0	117	2.3	136	2.7	109	2.2
	별거·이혼·사별	476	8	1.6	14	3.0	7	1.4	2	0.5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55	2.5	47	2.2	43	2.0	51	2.4
	비맞벌이	2,684	96	3.6	64	2.4	87	3.2	57	2.1
	비해당	148	0	0.0	6	3.7	6	4.1	0	0.2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53	3.3	61	3.9	50	3.1	33	2.1
	육체노동자	2,921	76	2.6	76	2.6	65	2.2	42	1.4
	무직	2,484	105	4.2	51	2.1	72	2.9	62	2.5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72	2.9	85	3.4	67	2.7	52	2.0
	임시직	648	31	4.8	24	3.6	17	2.6	13	2.0
	자영업	1,343	26	2.0	28	2.1	29	2.2	10	0.8
	기타	8	0	0.0	0	0.0	1	16.9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3	2.1	5	3.8	1	0.7	1	1.1
	19~59세 고졸	2,179	61	2.8	54	2.5	46	2.1	49	2.3
	19~59세 대재이상	3,101	134	4.3	94	3.0	97	3.1	82	2.6
	60세 이상 초졸	459	12	2.6	12	2.5	6	1.2	2	0.4
	60세 이상 중졸	550	17	3.1	13	2.4	20	3.7	1	0.1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6	1.1	12	2.0	16	2.6	2	0.3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19	1.6	30	2.6	27	2.3	7	0.6
	200~400만원 미만	2,735	98	3.6	77	2.8	73	2.7	52	1.9
	400~600만원 미만	2,525	96	3.8	66	2.6	72	2.9	69	2.7
	600만원 이상	580	21	3.6	16	2.8	14	2.5	10	1.7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172	3.3	143	2.8	128	2.5	107	2.1
	하고 있음	1,855	62	3.3	46	2.5	58	3.1	30	1.6

〈부표 4-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측면의 불안 요소 - 계속

구분		총 합계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빈부격차		없다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137	2.0	1	0.0	16	0.2
성별	남성	3,469	59	1.7	1	0.0	13	0.4
	여성	3,531	78	2.2	0	0.0	3	0.1
연령별	19~29세	1,275	60	4.7	0	0.0	6	0.4
	30~39세	1,304	19	1.4	0	0.0	3	0.2
	40~49세	1,443	22	1.5	1	0.0	1	0.0
	50~59세	1,383	14	1.0	0	0.0	3	0.2
	60~64세	541	8	1.4	0	0.0	0	0.0
	65~69세	288	4	1.3	0	0.0	2	0.5
	70세 이상	767	10	1.4	0	0.0	3	0.3
지역별	동	5,937	111	1.9	1	0.0	14	0.2
	읍·면	1,063	26	2.5	0	0.0	2	0.2
세대별	1세대	1,853	19	1.0	1	0.0	6	0.3
	2세대	4,900	111	2.3	0	0.0	9	0.2
	3세대	247	7	2.7	0	0.0	1	0.3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62	4.1	0	0.0	6	0.4
	유배우	5,004	72	1.4	1	0.0	9	0.2
	별거·이혼·사별	476	4	0.8	0	0.0	1	0.1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22	1.0	1	0.0	2	0.1
	비맞벌이	2,684	40	1.5	0	0.0	6	0.2
	비해당	148	10	6.7	0	0.0	1	1.0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18	1.1	0	0.0	1	0.1
	육체노동자	2,921	37	1.3	1	0.0	9	0.3
	무직	2,484	82	3.3	0	0.0	6	0.2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30	1.2	1	0.0	2	0.1
	임시직	648	13	2.0	0	0.0	4	0.6
	자영업	1,343	12	0.9	0	0.0	5	0.3
	기타	8	0	0.0	0	0.0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1	0.6	0	0.0	0	0.2
	19~59세 고졸	2,179	28	1.3	0	0.0	6	0.3
	19~59세 대재이상	3,101	86	2.8	1	0.0	6	0.2
	60세 이상 초졸	459	7	1.4	0	0.0	1	0.2
	60세 이상 중졸	550	4	0.7	0	0.0	3	0.5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11	1.9	0	0.0	1	0.1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18	1.5	0	0.0	5	0.4
	200~400만원 미만	2,735	44	1.6	0	0.0	5	0.2
	400~600만원 미만	2,525	69	2.7	1	0.0	4	0.1
	600만원 이상	580	6	1.1	0	0.0	2	0.4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103	2.0	1	0.0	11	0.2
	하고 있음	1,855	33	1.8	0	0.0	4	0.2

〈부표 4-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인 측면의 불안 요소

구분		사회적인 문제 불안 점수	
		평균±표준편차	통계값
총 합계		67.9±17.87	
성별	남성	67.9±18.05	T=-0.02
	여성	67.9±17.70	
연령별	19~29세	66.9±18.46	F=8.78***
	30~39세	69.6±17.20	
	40~49세	69.5±17.64	
	50~59세	68.0±17.58	
	60~64세	67.6±18.61	
	65~69세	66.9±16.74	
	70세 이상	64.7±18.31	
지역별	동	68.1±17.79	T=1.76
	읍·면	67.0±18.30	
세대별	1세대	66.0±18.04	F=17.53***
	2세대	68.8±17.70	
	3세대	66.2±18.77	
혼인 상태별	미혼	66.6±17.46	F=15.25***
	유배우	68.6±17.97	
	별거·이혼·사별	64.9±17.58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69.1±18.53	F=1.70
	비맞벌이	68.2±17.56	
	비해당	69.1±17.04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69.3±18.74	F=5.97**
	육체노동자	67.8±17.80	
	무직	67.3±17.35	
근로 형태별	정규직	69.5±18.10	F=8.05***
	임시직	66.7±18.24	
	자영업	66.9±18.04	
	기타	63.1±19.97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65.8±14.24	F=5.35***
	19~59세 고졸	68.7±17.87	
	19~59세 대재이상	68.4±17.78	
	60세 이상 초졸	66.1±17.38	
	60세 이상 중졸	65.6±18.15	
	60세 이상 고졸이상	66.5±18.82	
소득별	200만원 미만	66.1±17.70	F=5.10**
	200~400만원 미만	68.1±17.18	
	400~600만원 미만	68.4±18.13	
	600만원 이상	68.7±19.96	
종교활동	하지 않음	68.2±17.91	T=1.67
	하고 있음	67.3±17.76	

주: * p〈0.05, ** p〈0.01, *** p〈0.001

〈부표 4-5〉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원만함

구분		총 합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17	0.2	400	5.7	5,599	80.0	984	14.1	
성별	남성	3,469	13	0.4	219	6.3	2,766	79.7	471	13.6	X^2= 10.427*
	여성	3,531	4	0.1	181	5.1	2,834	80.2	513	14.5	
연령별	19~29세	1,275	5	0.4	40	3.1	1,019	79.9	211	16.5	X^2= 138.708***
	30~39세	1,304	2	0.1	39	3.0	1,054	80.8	210	16.1	
	40~49세	1,443	2	0.2	74	5.1	1,146	79.4	221	15.3	
	50~59세	1,383	4	0.3	87	6.3	1,095	79.2	197	14.2	
	60~64세	541	1	0.2	52	9.7	442	81.7	45	8.3	
	65~69세	288	0	0.0	19	6.5	238	82.7	31	10.9	
	70세 이상	767	3	0.4	89	11.6	606	79.0	70	9.1	
지역별	동	5,937	15	0.3	340	5.7	4,724	79.6	858	14.4	X^2= 5.345
	읍·면	1,063	2	0.2	60	5.7	875	82.3	126	11.9	
세대별	1세대	1,853	9	0.5	193	10.4	1,472	79.5	178	9.6	X^2= 146.052***
	2세대	4,900	7	0.2	189	3.9	3,938	80.4	765	15.6	
	3세대	247	0	0.0	18	7.1	189	76.3	41	16.6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7	0.5	63	4.1	1,231	81.0	219	14.4	X^2= 228.279***
	유배우	5,004	3	0.1	246	4.9	4,018	80.3	737	14.7	
	별거·이혼·사별	476	7	1.5	91	19.1	350	73.6	28	5.8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1	0.1	90	4.1	1,735	79.9	346	15.9	X^2= 16.244*
	비맞벌이	2,684	1	0.1	142	5.3	2,162	80.6	378	14.1	
	비해당	148	0	0.0	14	9.4	121	81.7	13	8.8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3	0.2	39	2.5	1,269	79.6	282	17.7	X^2= 64.630***
	육체노동자	2,921	9	0.3	203	7.0	2,359	80.7	350	12.0	
	무직	2,484	5	0.2	158	6.3	1,971	79.3	351	14.1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8	0.3	87	3.4	2,033	80.8	388	15.4	X^2= 96.790***
	임시직	648	2	0.3	82	12.6	503	77.7	61	9.4	
	자영업	1,343	2	0.1	74	5.5	1,085	80.8	182	13.5	
	기타	8	0	0.0	0	0.0	7	83.1	1	16.9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3	2.3	18	14.7	99	79.9	4	3.1	X^2= 264.410***
	19~59세 고졸	2,179	6	0.3	146	6.7	1,762	80.8	266	12.2	
	19~59세 대재이상	3,101	4	0.1	76	2.4	2,453	79.1	568	18.3	
	60세 이상 초졸	459	1	0.2	61	13.3	365	79.6	32	7.0	
	60세 이상 중졸	550	2	0.3	59	10.7	447	81.2	43	7.8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2	0.3	40	6.8	474	80.7	71	12.1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10	0.8	162	14.0	908	78.2	81	7.0	X^2= 303.170***
	200~400만원 미만	2,735	4	0.2	142	5.2	2,250	82.3	339	12.4	
	400~600만원 미만	2,525	3	0.1	85	3.4	2,007	79.5	430	17.0	
	600만원 이상	580	0	0.0	10	1.7	435	75.1	134	23.2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13	0.2	284	5.5	4,176	81.2	672	13.1	X^2= 18.442***
	하고 있음	1,855	4	0.2	116	6.2	1,423	76.7	312	16.8	

〈부표 4-6〉 직장에서 대인관계 원만함

구분		총 합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4,515	5	0.1	166	3.7	3,990	88.4	354	7.8	
성별	남성	2,819	2	0.1	108	3.8	2,485	88.2	224	7.9	X^2=2.759
	여성	1,697	4	0.2	58	3.4	1,505	88.7	131	7.7	
연령별	19~29세	701	4	0.5	36	5.2	608	86.8	53	7.5	X^2=26.680
	30~39세	1,019	1	0.1	26	2.6	898	88.2	94	9.2	
	40~49세	1,161	1	0.1	39	3.3	1,033	89.0	88	7.6	
	50~59세	1,058	0	0.0	43	4.1	937	88.6	78	7.4	
	60~64세	298	0	0.0	13	4.3	261	87.7	24	8.0	
	65~69세	125	0	0.0	5	3.7	110	88.2	10	8.2	
	70세 이상	154	0	0.0	4	2.7	142	92.0	8	5.4	
지역별	동	3,843	5	0.1	144	3.7	3,380	88.0	314	8.2	X^2=5.328
	읍·면	673	0	0.0	22	3.3	610	90.7	40	6.0	
세대별	1세대	952	1	0.1	41	4.3	834	87.5	77	8.1	X^2=4.805
	2세대	3,426	4	0.1	116	3.4	3,041	88.8	264	7.7	
	3세대	137	0	0.0	8	6.1	115	84.1	13	9.7	
혼인 상태별	미혼	977	5	0.5	43	4.4	853	87.4	76	7.7	X^2=27.105***
	유배우	3,349	1	0.0	109	3.2	2,968	88.6	271	8.1	
	별거·이혼·사별	190	0	0.0	14	7.3	169	88.8	8	4.0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50	0	0.0	66	3.1	1,907	88.7	177	8.2	X^2=3.289
	비맞벌이	1,169	1	0.1	41	3.5	1,033	88.4	94	8.0	
	비해당	30	0	0.0	1	3.5	28	92.8	1	3.7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3	0.2	45	2.8	1,392	87.3	155	9.7	X^2=16.608**
	육체노동자	2,921	3	0.1	121	4.1	2,598	88.9	200	6.8	
근로 형태별	무직	2,516	3	0.1	68	2.7	2,221	88.3	224	8.9	X^2=60.166***
	임시직	648	2	0.3	53	8.2	563	86.8	30	4.7	
	자영업	1,343	0	0.0	45	3.3	1,199	89.2	100	7.5	
	기타	8	0	0.0	0	0.0	8	100.0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89	1	1.1	4	4.5	77	86.0	7	8.4	X^2=33.045**
	19~59세 고졸	1,639	1	0.1	81	4.9	1,445	88.2	112	6.9	
	19~59세 대재이상	2,210	3	0.1	60	2.7	1,955	88.5	192	8.7	
	60세 이상 초졸	91	0	0.0	3	3.6	83	91.4	5	5.0	
	60세 이상 중졸	175	0	0.0	8	4.7	159	91.2	7	4.2	
	60세 이상 고졸이상	311	0	0.0	10	3.2	270	87.0	31	9.8	
소득별	200만원 미만	411	1	0.2	36	8.8	358	87.2	15	3.8	X^2=56.558***
	200~400만원 미만	1,801	2	0.1	64	3.6	1,609	89.3	127	7.0	
	400~600만원 미만	1,860	3	0.1	48	2.6	1,648	88.6	162	8.7	
	600만원 이상	443	0	0.0	18	4.0	375	84.6	50	11.4	
종교활동	하지 않음	3,483	3	0.1	125	3.6	3,089	88.7	266	7.6	X^2=2.309
	하고 있음	1,032	2	0.2	41	4.0	901	87.3	89	8.6	

〈부표 4-7〉 이웃주민들과의 관계 원만함

구분		총 합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35	0.5	672	9.6	5,863	83.8	430	6.1	
성별	남성	3,469	23	0.7	419	12.1	2,870	82.7	158	4.5	X^2=76.188***
	여성	3,531	12	0.3	254	7.2	2,993	84.8	272	7.7	
연령별	19~29세	1,275	13	1.0	212	16.6	1,003	78.7	47	3.7	X^2=158.526***
	30~39세	1,304	10	0.7	146	11.2	1,091	83.6	58	4.4	
	40~49세	1,443	9	0.6	119	8.3	1,223	84.7	92	6.4	
	50~59세	1,383	3	0.2	91	6.6	1,190	86.1	98	7.1	
	60~64세	541	0	0.0	37	6.9	458	84.7	45	8.4	
	65~69세	288	0	0.0	16	5.6	248	86.3	23	8.1	
	70세 이상	767	1	0.1	50	6.5	651	84.8	66	8.6	
지역별	동	5,937	35	0.6	575	9.7	4,953	83.4	375	6.3	X^2=8.937*
	읍·면	1,063	0	0.0	98	9.2	911	85.7	55	5.1	
세대별	1세대	1,853	5	0.3	168	9.1	1,537	82.9	143	7.7	X^2=17.650**
	2세대	4,900	28	0.6	483	9.8	4,123	84.1	266	5.4	
	3세대	247	1	0.5	22	8.9	203	82.2	21	8.4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18	1.2	250	16.4	1,203	79.1	50	3.3	X^2=146.555***
	유배우	5,004	15	0.3	382	7.6	4,266	85.2	341	6.8	
	별거·이혼·사별	476	1	0.3	41	8.6	395	82.9	39	8.2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4	0.2	179	8.2	1,849	85.2	139	6.4	X^2=7.375
	비맞벌이	2,684	12	0.4	194	7.2	2,291	85.3	188	7.0	
	비해당	148	0	0.0	9	6.0	126	84.7	14	9.3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9	0.6	174	10.9	1,331	83.5	79	5.0	X^2=25.047***
	육체노동자	2,921	15	0.5	280	9.6	2,472	84.6	155	5.3	
	무직	2,484	10	0.4	218	8.8	2,060	82.9	196	7.9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7	0.7	279	11.1	2,110	83.8	111	4.4	X^2=47.004***
	임시직	648	5	0.8	86	13.3	531	82.0	25	3.9	
	자영업	1,343	3	0.2	88	6.6	1,155	86.0	97	7.2	
	기타	8	0	0.0	1	12.7	7	87.3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2	1.5	13	10.4	104	83.7	5	4.4	X^2=65.236***
	19~59세 고졸	2,179	8	0.4	215	9.9	1,824	83.7	132	6.1	
	19~59세 대재이상	3,101	24	0.8	341	11.0	2,578	83.1	158	5.1	
	60세 이상 초졸	459	0	0.0	35	7.7	396	86.3	28	6.1	
	60세 이상 중졸	550	1	0.1	30	5.4	468	85.1	52	9.4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0	0.0	39	6.6	493	84.0	55	9.3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3	0.2	114	9.8	966	83.2	78	6.7	X^2=32.225***
	200~400만원 미만	2,735	15	0.5	237	8.6	2,345	85.7	139	5.1	
	400~600만원 미만	2,525	12	0.5	238	9.4	2,105	83.4	169	6.7	
	600만원 이상	580	5	0.8	83	14.4	448	77.3	44	7.5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27	0.5	529	10.3	4,331	84.2	259	5.0	X^2=48.514***
	하고 있음	1,855	8	0.4	144	7.8	1,532	82.6	171	9.2	

〈부표 4-8〉 가족/직장/이웃과의 활동

구분	총 합계	안함		월 1회 이하		월 1~2회		주 1~2회		주 3회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가족과의 활동	7,000	358	5.1	2,015	28.8	2,779	39.7	1,629	23.3	218	3.1
이웃주민과의 활동	7,000	3,108	44.4	2,285	32.6	1,154	16.5	370	5.3	83	1.2
직장동료와의 활동	4,515	707	15.7	1,413	31.3	1,668	36.9	631	14.0	97	2.2

〈부표 4-9〉 다툼(갈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개입 필요

구분	명	%
총 합계	7,000	100.0
필요함	1,788	25.5
필요 없음	2,934	41.9
경우에 따라 다름	2,278	32.5

〈부표 4-10〉 다툼(갈등)에 대한 개입의 역할

구분	명	%
총 합계	4,066	100.0
가족 및 친척	1,636	40.2
의사, 상담사 등 관련전문가	838	20.6
이웃 및 친구	767	18.9
회사직원(상사, 동료, 후배 등)	301	7.4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292	7.2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180	4.4
학교상담실	23	0.6
경찰	15	0.4
기타	15	0.4

〈부표 4-11〉 함께 식사하는 사람

구분	명	%
총 합계	7,000	100.0
배우자	4,661	66.6
자녀	3,379	48.3
부모	1,439	20.6
직장동료	1,344	19.2
친구	1,226	17.5
혼자	952	13.6
형제자매	765	10.9
지인	334	4.8
이웃	329	4.7
손녀	107	1.5
친족	91	1.3
자녀의 배우자	90	1.3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41	0.6

〈부표 4-12〉 자신의 목표 달성 가능성

구분		총 합계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401	5.7	2,741	39.2	3,656	52.2	202	2.9	
성별	남성	3,469	169	4.9	1,310	37.8	1,868	53.8	122	3.5	X^2=25.175***
	여성	3,531	232	6.6	1,431	40.5	1,788	50.6	80	2.3	
연령별	19~29세	1,275	13	1.0	222	17.4	936	73.4	103	8.1	X^2=1855.904***
	30~39세	1,304	11	0.9	334	25.6	917	70.3	42	3.2	
	40~49세	1,443	29	2.0	544	37.7	841	58.3	28	2.0	
	50~59세	1,383	46	3.4	693	50.1	619	44.8	24	1.7	
	60~64세	541	56	10.4	336	62.1	145	26.8	4	0.7	
	65~69세	288	51	17.9	178	61.8	58	20.0	1	0.3	
	70세 이상	767	193	25.2	433	56.5	140	18.2	1	0.1	
지역별	동	5,937	345	5.8	2,344	39.5	3,063	51.6	186	3.1	X^2=12.835**
	읍·면	1,063	56	5.3	397	37.4	593	55.8	16	1.5	
세대별	1세대	1,853	261	14.1	951	51.3	613	33.1	28	1.5	X^2=610.892***
	2세대	4,900	124	2.5	1,687	34.4	2,922	59.6	167	3.4	
	3세대	247	16	6.4	103	41.5	121	49.0	8	3.1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23	1.5	310	20.4	1,075	70.7	112	7.4	X^2=818.046***
	유배우	5,004	268	5.4	2,169	43.3	2,479	49.5	88	1.8	
	별거·이혼·사별	476	110	23.0	262	55.0	103	21.6	2	0.4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47	2.2	849	39.1	1,221	56.2	54	2.5	X^2=161.602***
	비맞벌이	2,684	199	7.4	1,240	46.2	1,211	45.1	34	1.3	
	비해당	148	23	15.5	79	53.2	46	31.3	0	0.0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12	0.8	382	23.9	1,115	69.9	85	5.4	X^2=510.354***
	육체노동자	2,921	117	4.0	1,296	44.4	1,463	50.1	45	1.5	
	무직	2,484	271	10.9	1,063	42.8	1,077	43.4	72	2.9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38	1.5	759	30.2	1,617	64.3	102	4.0	X^2=250.242***
	임시직	648	51	7.9	331	51.1	265	40.9	1	0.2	
	자영업	1,343	40	3.0	586	43.6	691	51.5	27	2.0	
	기타	8	0	0.0	2	24.0	5	59.1	1	16.9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17	14.0	73	58.7	34	27.3	0	0.0	X^2=1887.690***
	19~59세 고졸	2,179	50	2.3	1,004	46.1	1,101	50.5	24	1.1	
	19~59세 대재이상	3,101	32	1.0	716	23.1	2,179	70.3	173	5.6	
	60세 이상 초졸	459	134	29.1	251	54.7	74	16.2	0	0.0	
	60세 이상 중졸	550	107	19.5	344	62.5	99	18.0	0	0.0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61	10.3	352	60.0	169	28.8	5	0.9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258	22.3	653	56.3	245	21.1	4	0.4	X^2=1237.656***
	200~400만원 미만	2,735	99	3.6	1,157	42.3	1,421	51.9	58	2.1	
	400~600만원 미만	2,525	40	1.6	813	32.2	1,572	62.3	100	3.9	
	600만원 이상	580	4	0.6	117	20.2	419	72.2	41	7.0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248	4.8	1,943	37.8	2,801	54.4	152	3.0	X^2=55.103***
	하고 있음	1,855	152	8.2	797	43.0	855	46.1	50	2.7	

〈부표 4-13〉 본인이 속한 사회적 계층

구분		총 합계	최하위		하위		중위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160	2.3	2,109	30.1	4,063	58.0
성별	남성	3,469	78	2.2	1,057	30.5	1,987	57.3
	여성	3,531	82	2.3	1,052	29.8	2,077	58.8
연령별	19~29세	1,275	11	0.8	289	22.6	834	65.4
	30~39세	1,304	8	0.6	342	26.2	846	64.8
	40~49세	1,443	17	1.2	363	25.1	895	62.0
	50~59세	1,383	13	0.9	368	26.6	840	60.8
	60~64세	541	21	3.8	229	42.3	253	46.8
	65~69세	288	22	7.6	134	46.5	121	42.0
	70세 이상	767	69	9.0	385	50.2	275	35.9
지역별	동	5,937	145	2.4	1,799	30.3	3,410	57.4
	읍·면	1,063	14	1.4	310	29.1	653	61.5
세대별	1세대	1,853	109	5.9	810	43.7	817	44.1
	2세대	4,900	47	1.0	1,234	25.2	3,093	63.1
	3세대	247	3	1.4	65	26.5	153	61.9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18	1.2	371	24.4	975	64.2
	유배우	5,004	80	1.6	1,488	29.7	2,943	58.8
	별거·이혼·사별	476	62	13.1	250	52.6	145	30.4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18	0.8	560	25.8	1,361	62.7
	비맞벌이	2,684	46	1.7	858	32.0	1,527	56.9
	비해당	148	15	10.4	70	47.0	55	37.3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0	0.0	283	17.8	1,061	66.6
	육체노동자	2,921	59	2.0	1,002	34.3	1,669	57.1
	무직	2,484	101	4.1	824	33.2	1,333	53.7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0	0.4	637	25.3	1,573	62.5
	임시직	648	41	6.3	266	41.0	316	48.8
	자영업	1,343	8	0.6	381	28.4	834	62.1
	기타	8	0	0.0	1	12.7	7	87.3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4	3.2	68	54.7	48	38.3
	19~59세 고졸	2,179	38	1.7	712	32.7	1,273	58.4
	19~59세 대재이상	3,101	6	0.2	582	18.8	2,094	67.5
	60세 이상 초졸	459	60	13.0	258	56.2	127	27.7
	60세 이상 중졸	550	37	6.6	294	53.4	203	37.0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15	2.6	196	33.4	319	54.3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124	10.7	651	56.1	355	30.6
	200~400만원 미만	2,735	27	1.0	933	34.1	1,583	57.9
	400~600만원 미만	2,525	8	0.3	473	18.7	1,756	69.6
	600만원 이상	580	0	0.0	51	8.8	370	63.8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107	2.1	1,536	29.9	3,026	58.8
	하고 있음	1,855	52	2.8	573	30.9	1,038	56.0

〈부표 4-13〉 본인이 속한 사회적 계층 - 계속

구분		총 합계	중상		최상위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7,000	659	9.4	9	0.1	
성별	남성	3,469	344	9.9	3	0.1	X^2=3.815
	여성	3,531	315	8.9	6	0.2	
연령별	19~29세	1,275	141	11.1	1	0.1	X^2=619.086***
	30~39세	1,304	108	8.3	1	0.1	
	40~49세	1,443	168	11.7	0	0.0	
	50~59세	1,383	157	11.4	4	0.3	
	60~64세	541	38	7.1	0	0.0	
	65~69세	288	11	3.9	0	0.0	
	70세 이상	767	35	4.6	3	0.3	
지역별	동	5,937	574	9.7	9	0.1	X^2=11.883*
	읍·면	1,063	86	8.1	0	0.0	
세대별	1세대	1,853	114	6.2	2	0.1	X^2=412.679***
	2세대	4,900	520	10.6	6	0.1	
	3세대	247	25	10.2	0	0.0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156	10.2	1	0.1	X^2=447.789***
	유배우	5,004	487	9.7	7	0.1	
	별거·이혼·사별	476	17	3.6	1	0.2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229	10.6	4	0.2	X^2=132.422***
	비맞벌이	2,684	249	9.3	3	0.1	
	비해당	148	8	5.3	0	0.0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249	15.6	1	0.1	X^2=299.189***
	육체노동자	2,921	189	6.5	3	0.1	
	무직	2,484	222	8.9	4	0.2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294	11.7	2	0.1	X^2=245.700***
	임시직	648	25	3.8	0	0.0	
	자영업	1,343	119	8.8	2	0.1	
	기타	8	0	0.0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5	3.7	0	0.0	X^2=1004.948***
	19~59세 고졸	2,179	155	7.1	2	0.1	
	19~59세 대재이상	3,101	415	13.4	4	0.1	
	60세 이상 초졸	459	14	3.1	0	0.0	
	60세 이상 중졸	550	16	3.0	0	0.0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54	9.3	3	0.4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30	2.6	0	0.0	X^2=1398.287***
	200~400만원 미만	2,735	191	7.0	1	0.0	
	400~600만원 미만	2,525	282	11.2	5	0.2	
	600만원 이상	580	156	27.0	2	0.4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471	9.1	5	0.1	X^2=8.577
	하고 있음	1,855	189	10.2	4	0.2	

〈부표 4-14〉 올라갈 가능성

구분		총 합계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379	5.4	3,244	46.3	3,259	46.6	118	1.7	
성별	남성	3,469	188	5.4	1,530	44.1	1,686	48.6	64	1.8	X^2=14.550**
	여성	3,531	191	5.4	1,713	48.5	1,573	44.5	54	1.5	
연령별	19~29세	1,275	15	1.2	273	21.4	903	70.9	83	6.5	X^2=1922.447***
	30~39세	1,304	18	1.3	410	31.4	855	65.6	21	1.6	
	40~49세	1,443	29	2.0	649	45.0	755	52.3	10	0.7	
	50~59세	1,383	52	3.7	829	59.9	501	36.3	1	0.1	
	60~64세	541	46	8.4	392	72.5	103	19.0	0	0.1	
	65~69세	288	52	18.1	192	66.6	43	15.0	1	0.2	
	70세 이상	767	168	21.9	500	65.1	99	12.9	1	0.1	
지역별	동	5,937	331	5.6	2,763	46.5	2,734	46.1	109	1.8	X^2=9.586*
	읍·면	1,063	48	4.5	481	45.2	525	49.4	9	0.9	
세대별	1세대	1,853	258	13.9	1,088	58.7	491	26.5	16	0.9	X^2=654.909***
	2세대	4,900	112	2.3	2,034	41.5	2,656	54.2	98	2.0	
	3세대	247	10	3.9	122	49.2	112	45.5	4	1.4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26	1.7	381	25.1	1,025	67.4	88	5.8	X^2=900.221***
	유배우	5,004	254	5.1	2,557	51.1	2,165	43.3	28	0.6	
	별거·이혼·사별	476	98	20.7	306	64.2	70	14.7	2	0.4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51	2.4	1,014	46.7	1,092	50.3	14	0.7	X^2=152.183***
	비맞벌이	2,684	178	6.6	1,456	54.3	1,037	38.6	13	0.5	
	비해당	148	25	17.2	87	58.6	36	24.2	0	0.0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12	0.8	487	30.6	1,050	65.9	44	2.8	X^2=499.175***
	육체노동자	2,921	118	4.0	1,523	52.1	1,265	43.3	15	0.5	
	무직	2,484	249	10.0	1,233	49.7	943	38.0	58	2.3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45	1.8	921	36.6	1,500	59.6	52	2.1	X^2=245.478***
	임시직	648	45	7.0	387	59.8	215	33.1	1	0.1	
	자영업	1,343	40	3.0	699	52.0	597	44.4	7	0.5	
	기타	8	0	0.0	4	48.6	4	51.4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15	11.7	85	68.4	25	19.9	0	0.0	X^2=1718.168***
	19~59세 고졸	2,179	68	3.1	1,167	53.5	934	42.9	11	0.5	
	19~59세 대재이상	3,101	31	1.0	909	29.3	2,056	66.3	105	3.4	
	60세 이상 초졸	459	109	23.8	302	65.8	48	10.4	0	0.0	
	60세 이상 중졸	550	97	17.6	383	69.7	70	12.7	0	0.0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60	10.2	398	67.9	127	21.6	2	0.3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246	21.2	719	62.0	190	16.4	5	0.4	X^2=1275.391***
	200~400만원 미만	2,735	96	3.5	1,406	51.4	1,205	44.1	28	1.0	
	400~600만원 미만	2,525	34	1.3	979	38.8	1,461	57.9	50	2.0	
	600만원 이상	580	3	0.5	139	24.0	403	69.5	35	6.0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237	4.6	2,273	44.2	2,534	49.2	101	2.0	X^2=81.580***
	하고 있음	1,855	142	7.7	970	52.3	726	39.1	17	0.9	

〈부표 4-15〉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에 대한 소속감

구분	명	%
합계	7,000	100.0
매우 적게 느낀다	110	1.6
적게 느낀다	1,967	28.1
많이 느낀다	4,509	64.4
매우 많이 느낀다	414	5.9

〈부표 4-16〉 소속감

구분		총 합계	매우 적게 느낀다		적게 느낀다		많이 느낀다		매우 많이 느낀다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110	1.6	1,967	28.1	4,509	64.4	414	5.9	
성별	남성	3,469	59	1.7	871	25.1	2,323	67.0	216	6.2	X^2=30.817***
	여성	3,531	50	1.4	1,096	31.0	2,187	61.9	198	5.6	
연령별	19~29세	1,275	10	0.8	232	18.2	956	75.0	77	6.1	X^2=815.764***
	30~39세	1,304	7	0.6	243	18.7	965	74.0	89	6.8	
	40~49세	1,443	7	0.5	296	20.5	1,034	71.6	106	7.3	
	50~59세	1,383	12	0.9	384	27.8	899	65.0	87	6.3	
	60~64세	541	11	2.1	237	43.7	260	48.2	33	6.0	
	65~69세	288	20	7.1	132	45.7	128	44.4	8	2.7	
	70세 이상	767	41	5.4	442	57.7	268	34.9	16	2.0	
지역별	동	5,937	96	1.6	1,681	28.3	3,802	64.0	358	6.0	X^2=2.892
	읍·면	1,063	14	1.3	286	26.9	707	66.5	56	5.3	
세대별	1세대	1,853	72	3.9	797	43.0	921	49.7	63	3.4	X^2=413.595***
	2세대	4,900	35	0.7	1,087	22.2	3,445	70.3	333	6.8	
	3세대	247	3	1.3	82	33.2	143	58.0	18	7.5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15	1.0	304	20.0	1,115	73.3	86	5.7	X^2=281.955***
	유배우	5,004	66	1.3	1,412	28.2	3,205	64.0	321	6.4	
	별거·이혼·사별	476	28	5.9	251	52.7	190	39.9	7	1.5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9	0.4	474	21.8	1,515	69.7	174	8.0	X^2=161.197***
	비맞벌이	2,684	46	1.7	872	32.5	1,622	60.4	143	5.3	
	비해당	148	11	7.7	65	43.9	68	45.8	4	2.7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2	0.1	228	14.3	1,222	76.7	142	8.9	X^2=349.279***
	육체노동자	2,921	32	1.1	811	27.8	1,921	65.7	158	5.4	
	무직	2,484	76	3.1	928	37.4	1,366	55.0	113	4.6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7	0.3	408	16.2	1,926	76.5	175	7.0	X^2=320.039***
	임시직	648	17	2.7	269	41.6	338	52.1	24	3.6	
	자영업	1,343	7	0.5	359	26.8	875	65.2	101	7.5	
	기타	8	2	24.4	2	23.0	4	52.6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3	2.4	48	38.6	69	55.6	4	3.5	X^2=883.513***
	19~59세 고졸	2,179	21	1.0	584	26.8	1,456	66.8	119	5.4	
	19~59세 대재이상	3,101	13	0.4	524	16.9	2,328	75.1	235	7.6	
	60세 이상 초졸	459	30	6.4	285	62.2	136	29.6	8	1.8	
	60세 이상 중졸	550	25	4.6	291	52.9	225	40.9	9	1.7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18	3.1	234	39.9	296	50.4	39	6.6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72	6.2	628	54.1	433	37.3	27	2.3	X^2=925.232***
	200~400만원 미만	2,735	23	0.8	790	28.9	1,808	66.1	114	4.2	
	400~600만원 미만	2,525	11	0.4	493	19.5	1,840	72.9	181	7.2	
	600만원 이상	580	4	0.6	55	9.5	428	73.8	93	16.0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78	1.5	1,416	27.5	3,382	65.7	269	5.2	X^2=23.380***
	하고 있음	1,855	32	1.7	551	29.7	1,127	60.8	145	7.8	

〈부표 4-17〉 행복감

구분		총 합계	매우 불행함		불행함		행복함		매우 행복함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19	0.3	895	12.8	5,868	83.8	217	3.1	
성별	남성	3,469	15	0.4	442	12.8	2,909	83.8	103	3.0	X^2=5.564
	여성	3,531	5	0.1	452	12.8	2,960	83.8	114	3.2	
연령별	19~29세	1,275	2	0.2	115	9.0	1,105	86.6	54	4.2	X^2=263.205***
	30~39세	1,304	0	0.0	102	7.8	1,146	87.9	57	4.4	
	40~49세	1,443	3	0.2	150	10.4	1,243	86.1	47	3.3	
	50~59세	1,383	6	0.4	168	12.2	1,169	84.5	40	2.9	
	60~64세	541	2	0.3	89	16.4	439	81.2	12	2.1	
	65~69세	288	1	0.5	59	20.6	225	78.3	2	0.6	
	70세 이상	767	6	0.8	212	27.7	542	70.7	7	0.8	
지역별	동	5,937	14	0.2	774	13.0	4,953	83.4	196	3.3	X^2=9.679*
	읍·면	1,063	5	0.5	121	11.4	916	86.1	21	2.0	
세대별	1세대	1,853	11	0.6	384	20.7	1,422	76.8	35	1.9	X^2=166.268***
	2세대	4,900	8	0.2	475	9.7	4,241	86.6	175	3.6	
	3세대	247	0	0.0	36	14.5	205	82.8	7	2.7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5	0.3	166	10.9	1,300	85.5	49	3.2	X^2=262.320***
	유배우	5,004	8	0.2	560	11.2	4,272	85.4	164	3.3	
	별거·이혼·사별	476	6	1.3	169	35.5	297	62.3	4	0.9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2	0.1	198	9.1	1,895	87.3	77	3.5	X^2=25.892***
	비맞벌이	2,684	6	0.2	333	12.4	2,261	84.3	84	3.1	
	비해당	148	0	0.0	29	19.8	115	77.7	4	2.5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0	0.0	113	7.1	1,408	88.3	73	4.6	X^2=87.483***
	육체노동자	2,921	9	0.3	405	13.9	2,446	83.7	61	2.1	
	무직	2,484	10	0.4	376	15.1	2,014	81.1	83	3.3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	0.1	217	8.6	2,201	87.5	96	3.8	X^2=209.838***
	임시직	648	7	1.0	170	26.2	464	71.6	7	1.1	
	자영업	1,343	1	0.1	131	9.7	1,182	88.0	29	2.2	
	기타	8	0	0.0	1	12.7	6	79.7	1	7.5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3	2.6	31	24.7	89	72.1	1	0.6	X^2=425.431***
	19~59세 고졸	2,179	6	0.3	298	13.7	1,821	83.6	55	2.5	
	19~59세 대재이상	3,101	2	0.1	206	6.7	2,751	88.7	142	4.6	
	60세 이상 초졸	459	4	0.9	152	33.1	297	64.7	6	1.3	
	60세 이상 중졸	550	2	0.3	133	24.2	413	75.1	2	0.3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3	0.5	76	12.9	497	84.6	12	2.0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16	1.4	343	29.5	791	68.2	10	0.9	X^2=499.017***
	200~400만원 미만	2,735	3	0.1	341	12.5	2,323	84.9	69	2.5	
	400~600만원 미만	2,525	0	0.0	188	7.5	2,232	88.4	105	4.1	
	600만원 이상	580	0	0.0	23	4.0	522	90.1	34	5.9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12	0.2	643	12.5	4,351	84.6	139	2.7	X^2=13.510**
	하고 있음	1,855	7	0.4	252	13.6	1,517	81.8	78	4.2	

〈부표 4-18〉 우리사회의 평등함

구분	명	%
합계	7,000	100.0
매우 불평등	235	3.4
불평등	2,881	41.2
평등	3,849	55.0
매우 평등	34	0.5

〈부표 4-19〉 우리사회의 평등함

구분		총 합계	매우 불평등		불평등		평등		매우 평등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235	3.4	2,881	41.2	3,849	55.0	34	0.5	
성별	남성	3,469	145	4.2	1,472	42.4	1,834	52.9	18	0.5	X^2=22.349***
	여성	3,531	90	2.6	1,409	39.9	2,015	57.1	16	0.5	
연령별	19~29세	1,275	48	3.8	501	39.3	717	56.3	9	0.7	X^2=26.534
	30~39세	1,304	42	3.2	493	37.8	760	58.2	10	0.8	
	40~49세	1,443	37	2.5	624	43.3	776	53.8	6	0.4	
	50~59세	1,383	53	3.8	571	41.3	752	54.4	6	0.4	
	60~64세	541	20	3.8	232	42.9	288	53.3	0	0.1	
	65~69세	288	12	4.1	135	46.8	140	48.8	1	0.3	
	70세 이상	767	24	3.1	325	42.4	415	54.1	3	0.4	
지역별	동	5,937	187	3.2	2,454	41.3	3,264	55.0	32	0.5	X^2=7.596
	읍·면	1,063	48	4.5	427	40.2	585	55.1	2	0.2	
세대별	1세대	1,853	62	3.4	810	43.7	977	52.7	3	0.2	X^2=13.134*
	2세대	4,900	162	3.3	1,980	40.4	2,729	55.7	29	0.6	
	3세대	247	10	4.2	92	37.0	143	57.9	2	0.9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61	4.0	608	40.0	840	55.2	11	0.7	X^2=29.511***
	유배우	5,004	159	3.2	2,027	40.5	2,795	55.8	23	0.5	
	별거·이혼·사별	476	15	3.2	246	51.7	215	45.1	0	0.0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65	3.0	891	41.0	1,203	55.4	12	0.6	X^2=3.980
	비맞벌이	2,684	92	3.4	1,072	39.9	1,509	56.2	10	0.4	
	비해당	148	2	1.6	63	42.7	82	55.2	1	0.4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30	1.9	567	35.6	975	61.2	22	1.4	X^2=96.542***
	육체노동자	2,921	128	4.4	1,307	44.7	1,481	50.7	6	0.2	
	무직	2,484	78	3.1	1,008	40.6	1,392	56.1	6	0.2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68	2.7	984	39.1	1,441	57.2	24	0.9	X^2=66.756***
	임시직	648	41	6.4	330	50.9	275	42.5	2	0.3	
	자영업	1,343	49	3.6	556	41.4	735	54.7	3	0.2	
	기타	8	0	0.0	3	36.3	5	63.7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4	3.3	71	57.5	48	39.0	0	0.3	X^2=103.403***
	19~59세 고졸	2,179	95	4.4	978	44.9	1,104	50.7	2	0.1	
	19~59세 대재이상	3,101	80	2.6	1,140	36.8	1,853	59.7	28	0.9	
	60세 이상 초졸	459	16	3.6	218	47.5	224	48.8	1	0.1	
	60세 이상 중졸	550	18	3.3	249	45.3	283	51.4	0	0.0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22	3.7	225	38.3	337	57.4	3	0.5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52	4.5	587	50.6	520	44.8	2	0.2	X^2=109.780***
	200~400만원 미만	2,735	106	3.9	1,168	42.7	1,454	53.1	8	0.3	
	400~600만원 미만	2,525	68	2.7	913	36.2	1,524	60.4	20	0.8	
	600만원 이상	580	10	1.7	214	36.9	352	60.7	5	0.8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175	3.4	2,124	41.3	2,826	54.9	20	0.4	X^2=3.881
	하고 있음	1,855	61	3.3	758	40.8	1,023	55.1	14	0.8	

〈부표 4-20〉 사람들의 신뢰도

구분		총 합계	전혀 신뢰할 수 없음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		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		매우 신뢰할 수 있음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75	1.1	2,131	30.4	4,738	67.7	55	0.8	
성별	남성	3,469	44	1.3	1,132	32.6	2,264	65.3	29	0.8	X^2=19.386***
	여성	3,531	31	0.9	999	28.3	2,474	70.1	27	0.8	
연령별	19~29세	1,275	14	1.1	383	30.0	863	67.7	15	1.2	X^2=28.210
	30~39세	1,304	13	1.0	368	28.2	916	70.3	8	0.6	
	40~49세	1,443	5	0.3	448	31.1	980	67.9	10	0.7	
	50~59세	1,383	17	1.2	427	30.9	932	67.4	8	0.6	
	60~64세	541	9	1.6	178	32.9	348	64.4	6	1.1	
	65~69세	288	3	1.0	93	32.2	188	65.5	4	1.3	
	70세 이상	767	16	2.1	235	30.7	511	66.6	6	0.7	
지역별	동	5,937	61	1.0	1,816	30.6	4,007	67.5	53	0.9	X^2=5.392
	읍·면	1,063	14	1.4	315	29.6	731	68.8	3	0.3	
세대별	1세대	1,853	27	1.5	584	31.5	1,226	66.2	15	0.8	X^2=6.370
	2세대	4,900	46	0.9	1,477	30.2	3,339	68.1	37	0.8	
	3세대	247	2	0.7	70	28.3	173	69.8	3	1.2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18	1.2	460	30.3	1,029	67.7	13	0.8	X^2=29.772***
	유배우	5,004	44	0.9	1,491	29.8	3,430	68.5	39	0.8	
	별거·이혼·사별	476	13	2.8	180	37.8	279	58.6	4	0.8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12	0.6	636	29.3	1,511	69.6	12	0.6	X^2=12.671*
	비맞벌이	2,684	31	1.2	806	30.0	1,822	67.9	24	0.9	
	비해당	148	0	0.0	49	33.0	97	65.1	3	1.9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5	0.3	438	27.5	1,138	71.4	13	0.8	X^2=24.025***
	육체노동자	2,921	36	1.2	944	32.3	1,918	65.7	22	0.8	
	무직	2,484	33	1.3	749	30.1	1,681	67.7	20	0.8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7	0.7	722	28.7	1,757	69.8	21	0.8	X^2=68.385***
	임시직	648	12	1.8	271	41.8	363	56.1	2	0.3	
	자영업	1,343	12	0.9	389	29.0	930	69.2	12	0.9	
	기타	8	1	11.6	1	12.7	6	75.6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1	0.8	52	42.2	70	56.3	1	0.7	X^2=57.061***
	19~59세 고졸	2,179	28	1.3	716	32.8	1,425	65.4	11	0.5	
	19~59세 대재이상	3,101	19	0.6	857	27.6	2,196	70.8	29	0.9	
	60세 이상 초졸	459	12	2.6	151	32.9	293	63.8	3	0.6	
	60세 이상 중졸	550	7	1.2	190	34.5	349	63.5	4	0.8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8	1.4	166	28.2	405	69.0	8	1.3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26	2.3	424	36.5	703	60.6	8	0.7	X^2=65.640***
	200~400만원 미만	2,735	35	1.3	836	30.6	1,849	67.6	16	0.6	
	400~600만원 미만	2,525	13	0.5	712	28.2	1,777	70.4	22	0.9	
	600만원 이상	580	1	0.2	160	27.6	409	70.6	9	1.6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57	1.1	1,588	30.9	3,469	67.4	31	0.6	X^2=9.788*
	하고 있음	1,855	18	1.0	544	29.3	1,269	68.4	24	1.3	

〈부표 4-21〉 우리 사회의 안정성

구분	명	%
총 합계	7,000	100.0
전혀 안정적이지 않음	132	1.9
안정적이지 않음	2,342	33.5
조금 안정적임	4,482	64.0
매우 안정적임	44	0.6

〈부표 4-22〉 우리 사회의 안정성

구분		총 합계	전혀 안정적이지 않음		안정적이지 않음		조금 안정적임		매우 안정적임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132	1.9	2,342	33.5	4,482	64.0	44	0.6	
성별	남성	3,469	82	2.4	1,218	35.1	2,148	61.9	22	0.6	X^2=18.801***
	여성	3,531	50	1.4	1,124	31.8	2,335	66.1	22	0.6	
연령별	19~29세	1,275	27	2.1	416	32.6	825	64.7	7	0.5	X^2=17.641
	30~39세	1,304	18	1.4	411	31.5	866	66.4	9	0.7	
	40~49세	1,443	27	1.9	468	32.4	941	65.2	7	0.5	
	50~59세	1,383	27	1.9	472	34.1	876	63.3	8	0.6	
	60~64세	541	8	1.6	196	36.3	331	61.2	5	1.0	
	65~69세	288	7	2.5	115	39.9	164	56.8	2	0.8	
	70세 이상	767	17	2.3	264	34.5	480	62.5	6	0.7	
지역별	동	5,937	91	1.5	2,005	33.8	3,802	64.0	40	0.7	X^2=28.253***
	읍·면	1,063	41	3.8	337	31.7	681	64.0	4	0.4	
세대별	1세대	1,853	34	1.8	652	35.2	1,150	62.1	17	0.9	X^2=11.110
	2세대	4,900	96	2.0	1,601	32.7	3,178	64.9	25	0.5	
	3세대	247	2	0.9	88	35.8	154	62.1	3	1.1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32	2.1	504	33.2	977	64.2	7	0.5	X^2=31.131***
	유배우	5,004	83	1.6	1,636	32.7	3,251	65.0	34	0.7	
	별거·이혼·사별	476	17	3.5	201	42.3	254	53.4	4	0.8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34	1.6	662	30.5	1,465	67.5	11	0.5	X^2=13.796*
	비맞벌이	2,684	47	1.8	923	34.4	1,690	63.0	23	0.9	
	비해당	148	1	0.9	51	34.1	96	65.0	0	0.0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20	1.2	487	30.5	1,076	67.5	12	0.7	X^2=20.354**
	육체노동자	2,921	67	2.3	1,000	34.2	1,844	63.1	11	0.4	
	무직	2,484	45	1.8	856	34.5	1,562	62.9	21	0.8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38	1.5	794	31.6	1,668	66.3	17	0.7	X^2=53.852***
	임시직	648	27	4.2	270	41.6	350	54.0	1	0.1	
	자영업	1,343	22	1.6	419	31.2	896	66.7	6	0.4	
	기타	8	0	0.0	3	36.3	5	63.7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4	3.4	51	41.4	68	54.7	1	0.5	X^2=59.234***
	19~59세 고졸	2,179	51	2.3	787	36.1	1,333	61.2	8	0.4	
	19~59세 대재이상	3,101	43	1.4	928	29.9	2,107	68.0	22	0.7	
	60세 이상 초졸	459	10	2.1	188	40.9	259	56.4	3	0.6	
	60세 이상 중졸	550	12	2.2	204	37.1	328	59.7	5	1.0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12	2.0	183	31.2	387	65.9	5	0.9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35	3.0	488	42.0	632	54.4	7	0.6	X^2=63.633***
	200~400만원 미만	2,735	48	1.8	867	31.7	1,804	66.0	17	0.6	
	400~600만원 미만	2,525	40	1.6	786	31.1	1,683	66.7	16	0.6	
	600만원 이상	580	9	1.5	201	34.8	364	62.8	5	0.9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95	1.8	1,751	34.0	3,272	63.6	27	0.5	X^2=5.979
	하고 있음	1,855	37	2.0	591	31.8	1,210	65.2	17	0.9	

〈부표 4-23〉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구분		총 합계	매우 나쁨		나쁨		보통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21	0.3	461	6.6	1,928	27.5
성별	남성	3,469	11	0.3	169	4.9	908	26.2
	여성	3,531	11	0.3	291	8.3	1,020	28.9
연령별	19~29세	1,275	1	0.1	11	0.9	172	13.5
	30~39세	1,304	2	0.1	9	0.7	223	17.1
	40~49세	1,443	2	0.2	29	2.0	365	25.3
	50~59세	1,383	1	0.1	74	5.4	446	32.2
	60~64세	541	2	0.4	52	9.7	265	49.1
	65~69세	288	5	1.8	34	11.8	128	44.3
	70세 이상	767	8	1.0	251	32.8	330	43.0
지역별	동	5,937	19	0.3	382	6.4	1,673	28.2
	읍·면	1,063	2	0.2	79	7.4	256	24.1
세대별	1세대	1,853	12	0.6	296	16.0	714	38.5
	2세대	4,900	7	0.1	131	2.7	1,147	23.4
	3세대	247	3	1.1	34	13.7	68	27.5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2	0.2	12	0.8	230	15.2
	유배우	5,004	14	0.3	306	6.1	1,513	30.2
	별거·이혼·사별	476	5	1.0	143	29.9	185	38.9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0	0.0	52	2.4	579	26.7
	비맞벌이	2,684	12	0.4	227	8.5	879	32.7
	비해당	148	2	1.6	27	18.5	55	36.9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0	0.0	7	0.4	281	17.7
	육체노동자	2,921	6	0.2	121	4.2	898	30.7
	무직	2,484	15	0.6	333	13.4	749	30.2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	0.1	30	1.2	519	20.6
	임시직	648	2	0.3	48	7.4	218	33.6
	자영업	1,343	3	0.2	50	3.7	442	32.9
	기타	8	0	0.0	1	11.6	1	12.3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3	2.0	18	14.4	46	36.8
	19~59세 고졸	2,179	3	0.1	73	3.3	628	28.8
	19~59세 대재이상	3,101	1	0.0	33	1.1	532	17.2
	60세 이상 초졸	459	6	1.2	168	36.6	185	40.3
	60세 이상 중졸	550	8	1.5	117	21.3	285	51.8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2	0.3	53	9.0	253	43.1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15	1.3	288	24.8	530	45.7
	200~400만원 미만	2,735	6	0.2	103	3.8	769	28.1
	400~600만원 미만	2,525	1	0.0	57	2.2	542	21.5
	600만원 이상	580	0	0.0	13	2.2	87	15.0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15	0.3	279	5.4	1,329	25.8
	하고 있음	1,855	6	0.3	182	9.8	600	32.3

〈부표 4-23〉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 계속

구분		총 합계	좋음		매우 좋음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7,000	3,839	54.8	750	10.7	
성별	남성	3,469	1,930	55.6	450	13.0	X^2=68.416***
	여성	3,531	1,909	54.1	300	8.5	
연령별	19~29세	1,275	741	58.1	350	27.5	X^2=2244.758***
	30~39세	1,304	836	64.1	234	18.0	
	40~49세	1,443	937	65.0	109	7.6	
	50~59세	1,383	817	59.1	44	3.2	
	60~64세	541	216	39.9	5	0.9	
	65~69세	288	115	40.1	6	1.9	
	70세 이상	767	177	23.1	1	0.2	
지역별	동	5,937	3,235	54.5	628	10.6	X^2=8.949
	읍·면	1,063	604	56.9	122	11.5	
세대별	1세대	1,853	740	40.0	91	4.9	X^2=702.128***
	2세대	4,900	2,976	60.7	639	13.0	
	3세대	247	123	49.7	20	8.0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882	58.0	393	25.9	X^2=1099.098***
	유배우	5,004	2,817	56.3	354	7.1	
	별거·이혼·사별	476	141	29.6	3	0.6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1,367	62.9	173	8.0	X^2=183.394***
	비맞벌이	2,684	1,388	51.7	178	6.7	
	비해당	148	62	41.5	2	1.5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1,022	64.1	284	17.8	X^2=539.511***
	육체노동자	2,921	1,664	57.0	232	7.9	
	무직	2,484	1,152	46.4	235	9.4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586	63.0	380	15.1	X^2=236.287***
	임시직	648	326	50.3	54	8.4	
	자영업	1,343	769	57.2	80	6.0	
	기타	8	6	76.0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57	45.6	1	1.2	X^2=1984.002***
	19~59세 고졸	2,179	1,312	60.2	164	7.5	
	19~59세 대재이상	3,101	1,963	63.3	572	18.5	
	60세 이상 초졸	459	99	21.6	1	0.3	
	60세 이상 중졸	550	137	24.9	3	0.6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272	46.4	8	1.3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304	26.2	24	2.1	X^2=1395.352***
	200~400만원 미만	2,735	1,613	59.0	244	8.9	
	400~600만원 미만	2,525	1,592	63.0	333	13.2	
	600만원 이상	580	331	57.0	149	25.7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2,925	56.8	598	11.6	X^2=89.957***
	하고 있음	1,855	915	49.3	152	8.2	

〈부표 4-24〉 흡연 경험

구분		총 합계	있음		없음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7,000	2,499	35.7	4,501	64.3	
성별	남성	3,469	2,381	68.7	1,087	31.3	X^2=3254.667***
	여성	3,531	117	3.3	3,414	96.7	
연령별	19~29세	1,275	385	30.2	890	69.8	X^2=39.673***
	30~39세	1,304	488	37.4	817	62.6	
	40~49세	1,443	561	38.9	881	61.1	
	50~59세	1,383	533	38.6	849	61.4	
	60~64세	541	184	34.0	357	66.0	
	65~69세	288	111	38.6	177	61.4	
	70세 이상	767	236	30.8	531	69.2	
지역별	동	5,937	2,102	35.4	3,835	64.6	X^2=1.481
	읍·면	1,063	397	37.3	666	62.7	
세대별	1세대	1,853	659	35.6	1,193	64.4	X^2=0.524
	2세대	4,900	1,756	35.8	3,144	64.2	
	3세대	247	83	33.7	164	66.3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535	35.2	985	64.8	X^2=22.563***
	유배우	5,004	1,840	36.8	3,164	63.2	
	별거·이혼·사별	476	123	25.9	352	74.1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816	37.6	1,355	62.4	X^2=5.143
	비맞벌이	2,684	982	36.6	1,702	63.4	
	비해당	148	42	28.5	106	71.5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715	44.9	879	55.1	X^2=666.701***
	육체노동자	2,921	1,391	47.6	1,531	52.4	
	무직	2,484	393	15.8	2,091	84.2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198	47.6	1,318	52.4	X^2=19.773***
	임시직	648	256	39.5	392	60.5	
	자영업	1,343	651	48.5	692	51.5	
	기타	8	1	7.5	7	92.5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40	32.4	84	67.6	X^2=106.698***
	19~59세 고졸	2,179	744	34.1	1,435	65.9	
	19~59세 대재이상	3,101	1,183	38.2	1,917	61.8	
	60세 이상 초졸	459	81	17.6	378	82.4	
	60세 이상 중졸	550	179	32.5	371	67.5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271	46.2	316	53.8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374	32.2	787	67.8	X^2=10.616*
	200~400만원 미만	2,735	1,010	36.9	1,725	63.1	
	400~600만원 미만	2,525	889	35.2	1,635	64.8	
	600만원 이상	580	225	38.8	355	61.2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2,076	40.3	3,069	59.7	X^2=182.869***
	하고 있음	1,855	423	22.8	1,432	77.2	

〈부표 4-25〉 흡연량

구분		총 합계	매일 피움			가끔 피움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통계값
			명	%	평균(개비)	명	%	평균(개비)	명	%	
총 합계		2,499	1,634	65.4	15.69	74	2.9	6.24	790	31.6	
성별	남성	2,381	1,571	66.0	15.86	64	2.7	6.60	746	31.3	X^2=13.553**
	여성	117	63	54.1	11.35	9	8.1	3.81	44	37.8	
연령별	19~29세	385	320	83.1	14.80	22	5.7	6.54	43	11.2	X^2=210.465***
	30~39세	488	359	73.6	14.86	14	2.8	6.36	115	23.6	
	40~49세	561	371	66.1	16.84	18	3.2	6.10	172	30.7	
	50~59세	533	336	63.0	16.80	10	1.8	7.12	188	35.2	
	60~64세	184	106	57.9	16.19	2	1.1	8.31	75	41.1	
	65~69세	111	46	41.7	16.59	2	1.8	4.31	63	56.5	
	70세 이상	236	95	40.3	12.33	7	2.8	4.12	134	56.9	
지역별	동	2,102	1,366	65.0	15.57	66	3.1	6.46	670	31.9	X^2=2.106
	읍·면	397	269	67.8	16.25	8	2.0	4.40	120	30.3	
세대별	1세대	659	382	57.9	15.60	14	2.1	5.17	263	39.9	X^2=34.459***
	2세대	1,756	1,201	68.4	15.59	54	3.1	6.35	501	28.5	
	3세대	83	51	61.2	18.65	6	6.8	7.93	27	32.1	
혼인 상태별	미혼	535	432	80.8	15.12	24	4.5	5.55	79	14.7	X^2=93.379***
	유배우	1,840	1,121	60.9	15.78	49	2.6	6.68	671	36.5	
	별거·이혼·사별	123	82	66.1	17.41	1	0.9	2.06	41	33.0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816	520	63.8	15.79	25	3.1	7.26	271	33.2	X^2=9.044
	비맞벌이	982	580	59.0	15.74	23	2.3	6.08	380	38.7	
	비해당	42	21	49.0	16.40	1	1.6	5.00	21	49.5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715	462	64.5	15.43	25	3.5	6.34	229	32.0	X^2=25.276***
	육체노동자	1,391	954	68.6	16.17	31	2.2	7.45	406	29.2	
	무직	393	219	55.7	14.12	18	4.6	4.03	156	39.7	
근로 형태별	정규직	1,198	841	70.2	15.55	33	2.7	7.17	324	27.1	X^2=14.915*
	임시직	256	163	63.8	16.22	9	3.5	6.34	84	32.6	
	자영업	651	410	63.0	16.58	14	2.1	6.86	227	34.8	
	기타	1	1	100.0	15.00	0	0.0	-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40	32	80.6	17.15	0	1.2	5.00	7	18.2	X^2=134.025***
	19~59세 고졸	744	551	74.1	16.64	19	2.6	5.00	173	23.3	
	19~59세 대재이상	1,183	803	67.8	15.25	43	3.6	7.13	338	28.5	
	60세 이상 초졸	81	34	42.5	14.02	2	2.8	6.42	44	54.7	
	60세 이상 중졸	179	83	46.4	13.22	5	3.0	5.33	90	50.6	
	60세 이상 고졸이상	271	131	48.2	15.97	3	1.1	3.04	138	50.8	
소득별	200만원 미만	374	199	53.3	15.82	11	2.9	5.43	164	43.8	X^2=39.134***
	200~400만원 미만	1,010	714	70.7	15.46	26	2.6	7.39	270	26.7	
	400~600만원 미만	889	577	64.9	15.88	29	3.3	5.69	283	31.9	
	600만원 이상	225	144	64.0	15.83	7	3.3	5.54	74	32.7	
종교활동	하지 않음	2,076	1,408	67.8	15.83	51	2.4	6.88	617	29.7	X^2=36.143***
	하고 있음	423	226	53.5	14.75	23	5.4	4.83	174	41.1	

〈부표 4-26〉 음주 경험(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경험)

구분		총 합계	없음		있음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7,000	1,207	17.2	5,793	82.8	
성별	남성	3,469	286	8.3	3,183	91.7	X^2=389.248***
	여성	3,531	920	26.1	2,611	73.9	
연령별	19~29세	1,275	149	11.7	1,126	88.3	X^2=219.621***
	30~39세	1,304	151	11.6	1,153	88.4	
	40~49세	1,443	199	13.8	1,244	86.2	
	50~59세	1,383	256	18.5	1,126	81.5	
	60~64세	541	133	24.6	408	75.4	
	65~69세	288	74	25.6	214	74.4	
	70세 이상	767	244	31.9	523	68.1	
지역별	동	5,937	1,037	17.5	4,900	82.5	X^2=1.373
	읍·면	1,063	170	16.0	893	84.0	
세대별	1세대	1,853	424	22.9	1,429	77.1	X^2=66.335***
	2세대	4,900	727	14.8	4,174	85.2	
	3세대	247	56	22.6	191	77.4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166	10.9	1,355	89.1	X^2=111.744***
	유배우	5,004	891	17.8	4,113	82.2	
	별거·이혼·사별	476	150	31.5	326	68.5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317	14.6	1,855	85.4	X^2=42.824***
	비맞벌이	2,684	526	19.6	2,158	80.4	
	비해당	148	48	32.3	100	67.7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162	10.1	1,432	89.9	X^2=224.472***
	육체노동자	2,921	394	13.5	2,527	86.5	
	무직	2,484	651	26.2	1,833	73.8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253	10.0	2,264	90.0	X^2=30.676***
	임시직	648	86	13.3	561	86.7	
	자영업	1,343	215	16.0	1,128	84.0	
	기타	8	2	24.0	6	76.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36	28.7	88	71.3	X^2=286.832***
	19~59세 고졸	2,179	360	16.5	1,819	83.5	
	19~59세 대재이상	3,101	360	11.6	2,741	88.4	
	60세 이상 초졸	459	185	40.3	274	59.7	
	60세 이상 중졸	550	141	25.7	409	74.3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125	21.3	462	78.7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330	28.5	830	71.5	X^2=137.393***
	200~400만원 미만	2,735	451	16.5	2,284	83.5	
	400~600만원 미만	2,525	367	14.5	2,158	85.5	
	600만원 이상	580	58	10.1	521	89.9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744	14.5	4,401	85.5	X^2=104.309***
	하고 있음	1,855	462	24.9	1,393	75.1	

〈부표 4-27〉 알코올 중독

구분		총 합계	정상군		위험음주군		알코올중독		통계값
			명	%	명	%	명	%	
총 합계		5,793	3,525	60.8	2,224	38.4	44	0.8	
성별	남성	3,183	1,325	41.6	1,815	57.0	42	1.3	X^2=1096.801***
	여성	2,611	2,200	84.3	409	15.7	2	0.1	
연령별	19~29세	1,126	629	55.9	492	43.8	4	0.3	X^2=145.350***
	30~39세	1,153	661	57.3	488	42.3	4	0.3	
	40~49세	1,244	739	59.4	495	39.8	10	0.8	
	50~59세	1,126	660	58.6	456	40.5	10	0.9	
	60~64세	408	266	65.1	137	33.6	5	1.3	
	65~69세	214	154	71.8	54	25.1	7	3.2	
	70세 이상	523	417	79.8	101	19.3	4	0.8	
지역별	동	4,900	2,956	60.3	1,905	38.9	40	0.8	X^2=4.832
	읍·면	893	570	63.8	319	35.8	4	0.5	
세대별	1세대	1,429	932	65.2	477	33.4	21	1.4	X^2=31.359***
	2세대	4,174	2,475	59.3	1,675	40.1	24	0.6	
	3세대	191	119	62.2	72	37.8	0	0.0	
혼인 상태별	미혼	1,355	702	51.8	648	47.8	5	0.4	X^2=95.669***
	유배우	4,113	2,591	63.0	1,491	36.2	31	0.8	
	별거·이혼·사별	326	232	71.2	85	26.1	9	2.7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1,855	1,073	57.8	773	41.7	9	0.5	X^2=57.666***
	비맞벌이	2,158	1,453	67.3	688	31.9	17	0.8	
	비해당	100	66	65.3	31	30.4	4	4.3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432	729	50.9	700	48.8	4	0.3	X^2=420.098***
	육체노동자	2,527	1,333	52.7	1,169	46.3	25	1.0	
	무직	1,833	1,463	79.8	355	19.4	15	0.8	
근로 형태별	정규직	2,264	1,111	49.1	1,143	50.5	10	0.4	X^2=34.567***
	임시직	561	340	60.5	217	38.6	5	0.9	
	자영업	1,128	606	53.7	508	45.0	14	1.3	
	기타	6	4	73.3	2	26.7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88	55	61.7	30	34.1	4	4.2	X^2=173.738***
	19~59세 고졸	1,819	1,112	61.1	694	38.2	13	0.7	
	19~59세 대재이상	2,741	1,522	55.5	1,207	44.1	11	0.4	
	60세 이상 초졸	274	233	85.0	39	14.3	2	0.7	
	60세 이상 중졸	409	300	73.4	100	24.5	9	2.2	
	60세 이상 고졸이상	462	304	65.7	153	33.0	6	1.2	
소득별	200만원 미만	830	573	69.0	234	28.1	24	2.9	X^2=101.600***
	200~400만원 미만	2,284	1,401	61.3	870	38.1	13	0.6	
	400~600만원 미만	2,158	1,260	58.4	892	41.3	6	0.3	
	600만원 이상	521	292	56.0	228	43.7	2	0.3	
종교활동	하지 않음	4,401	2,512	57.1	1,850	42.0	39	0.9	X^2=110.391***
	하고 있음	1,393	1,014	72.8	374	26.9	5	0.4	

주: * p<0.05, ** p<0.01, *** p<0.001

〈부표 4-28〉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수면 시간

구분		총 합계	7시간 미만		7시간		8시간		9시간 이상		통계값
			명	%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1,953	27.9	2,652	37.9	1,955	27.9	440	6.3	
성별	남성	3,469	1,040	30.0	1,341	38.7	914	26.3	173	5.0	X^2=36.389***
	여성	3,531	913	25.8	1,310	37.1	1,041	29.5	267	7.6	
연령별	19~29세	1,275	269	21.1	471	37.0	438	34.3	97	7.6	X^2=217.582***
	30~39세	1,304	308	23.6	566	43.4	368	28.2	63	4.8	
	40~49세	1,443	382	26.5	616	42.7	391	27.1	53	3.7	
	50~59세	1,383	435	31.5	531	38.4	350	25.3	66	4.8	
	60~64세	541	190	35.2	155	28.7	147	27.2	48	8.9	
	65~69세	288	105	36.6	97	33.6	62	21.4	24	8.4	
	70세 이상	767	263	34.3	215	28.0	200	26.1	89	11.6	
지역별	동	5,937	1,679	28.3	2,277	38.3	1,620	27.3	361	6.1	X^2=12.667**
	읍·면	1,063	274	25.8	375	35.3	335	31.5	79	7.5	
세대별	1세대	1,853	565	30.5	612	33.0	508	27.4	167	9.0	X^2=82.543***
	2세대	4,900	1,284	26.2	1,962	40.0	1,394	28.5	259	5.3	
	3세대	247	104	42.0	78	31.5	52	21.2	13	5.4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354	23.3	577	38.0	496	32.6	94	6.2	X^2=62.320***
	유배우	5,004	1,418	28.3	1,923	38.4	1,359	27.2	303	6.1	
	별거·이혼·사별	476	182	38.2	152	31.9	100	20.9	43	9.0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657	30.2	883	40.7	542	25.0	90	4.1	X^2=43.658***
	비맞벌이	2,684	720	26.8	995	37.1	771	28.7	198	7.4	
	비해당	148	41	27.8	45	30.6	46	31.3	15	10.3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403	25.3	729	45.7	418	26.3	44	2.8	X^2=196.200***
	육체노동자	2,921	915	31.3	1,118	38.3	752	25.7	137	4.7	
	무직	2,484	635	25.6	806	32.4	784	31.6	259	10.4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665	26.4	1,099	43.7	670	26.6	83	3.3	X^2=44.190***
	임시직	648	194	30.0	241	37.2	172	26.6	40	6.1	
	자영업	1,343	454	33.8	505	37.6	326	24.2	58	4.3	
	기타	8	4	56.0	1	10.4	2	24.3	1	9.4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59	47.4	36	28.8	21	16.9	9	6.9	X^2=182.415***
	19~59세 고졸	2,179	583	26.8	874	40.1	607	27.8	115	5.3	
	19~59세 대재이상	3,101	752	24.3	1,275	41.1	918	29.6	155	5.0	
	60세 이상 초졸	459	152	33.2	136	29.6	110	24.0	60	13.1	
	60세 이상 중졸	550	200	36.4	150	27.4	142	25.8	57	10.4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206	35.1	181	30.8	157	26.7	44	7.4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374	32.2	350	30.1	308	26.6	129	11.1	X^2=106.098***
	200~400만원 미만	2,735	722	26.4	1,029	37.6	801	29.3	182	6.7	
	400~600만원 미만	2,525	696	27.6	1,028	40.7	690	27.3	111	4.4	
	600만원 이상	580	161	27.7	245	42.2	155	26.8	19	3.3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1,412	27.4	1,980	38.5	1,452	28.2	301	5.8	X^2=9.732*
	하고 있음	1,855	541	29.2	672	36.2	503	27.1	139	7.5	

〈부표 4-29〉 최근 3개월 동안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한 횟수

구분		총 합계	없음		월 1-2회		주 1-2회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4,812	68.7	1,707	24.4	387	5.5
성별	남성	3,469	2,440	70.3	806	23.2	173	5.0
	여성	3,531	2,372	67.2	901	25.5	214	6.1
연령별	19~29세	1,275	1,007	79.0	219	17.2	39	3.1
	30~39세	1,304	988	75.7	266	20.4	41	3.2
	40~49세	1,443	997	69.1	369	25.6	61	4.3
	50~59세	1,383	893	64.6	386	27.9	83	6.0
	60~64세	541	342	63.2	146	26.9	46	8.5
	65~69세	288	186	64.7	73	25.4	22	7.7
	70세 이상	767	400	52.1	248	32.3	95	12.4
지역별	동	5,937	4,074	68.6	1,449	24.4	333	5.6
	읍·면	1,063	738	69.4	258	24.3	55	5.1
세대별	1세대	1,853	1,181	63.8	478	25.8	160	8.7
	2세대	4,900	3,492	71.3	1,153	23.5	202	4.1
	3세대	247	139	56.1	76	30.6	25	10.0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1,182	77.8	273	18.0	49	3.2
	유배우	5,004	3,414	68.2	1,282	25.6	260	5.2
	별거·이혼·사별	476	216	45.3	152	31.9	79	16.5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1,517	69.8	572	26.3	71	3.3
	비맞벌이	2,684	1,802	67.1	681	25.4	167	6.2
	비해당	148	96	64.5	29	19.7	21	14.4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1,128	70.7	392	24.6	62	3.9
	육체노동자	2,921	2,053	70.3	700	24.0	131	4.5
	무직	2,484	1,631	65.7	615	24.8	194	7.8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824	72.5	586	23.3	83	3.3
	임시직	648	389	60.0	204	31.4	43	6.6
	자영업	1,343	961	71.5	302	22.5	67	5.0
	기타	8	6	79.7	1	7.5	1	12.7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81	65.4	28	22.5	7	6.0
	19~59세 고졸	2,179	1,488	68.3	560	25.7	101	4.7
	19~59세 대재이상	3,101	2,315	74.7	652	21.0	115	3.7
	60세 이상 초졸	459	240	52.3	139	30.3	61	13.3
	60세 이상 중졸	550	304	55.3	171	31.1	61	11.1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384	65.4	157	26.8	41	7.0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652	56.2	333	28.7	136	11.7
	200~400만원 미만	2,735	1,974	72.2	617	22.5	112	4.1
	400~600만원 미만	2,525	1,780	70.5	602	23.8	126	5.0
	600만원 이상	580	405	69.9	156	26.9	13	2.3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3,635	70.6	1,186	23.0	261	5.1
	하고 있음	1,855	1,177	63.5	522	28.1	126	6.8

〈부표 4-29〉 최근 3개월 동안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한 횟수 - 계속

구분		총 합계	주 3-4회		거의 매일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7,000	62	0.9	32	0.5	
성별	남성	3,469	31	0.9	18	0.5	X^2=10.542*
	여성	3,531	30	0.9	14	0.4	
연령별	19~29세	1,275	6	0.5	4	0.3	X^2=272.657***
	30~39세	1,304	6	0.5	3	0.2	
	40~49세	1,443	9	0.7	6	0.4	
	50~59세	1,383	15	1.1	5	0.4	
	60~64세	541	5	1.0	2	0.4	
	65~69세	288	4	1.4	2	0.7	
	70세 이상	767	15	2.0	10	1.2	
지역별	동	5,937	54	0.9	27	0.5	X^2=0.776
	읍·면	1,063	8	0.7	4	0.4	
세대별	1세대	1,853	18	1.0	15	0.8	X^2=108.214***
	2세대	4,900	36	0.7	16	0.3	
	3세대	247	8	3.1	0	0.2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9	0.6	7	0.5	X^2=319.921***
	유배우	5,004	36	0.7	11	0.2	
	별거·이혼·사별	476	17	3.6	13	2.8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7	0.3	4	0.2	X^2=58.505***
	비맞벌이	2,684	28	1.1	6	0.2	
	비해당	148	1	0.5	1	0.9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11	0.7	1	0.0	X^2=53.020***
	육체노동자	2,921	22	0.8	15	0.5	
	무직	2,484	28	1.1	16	0.6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9	0.8	4	0.2	X^2=58.787***
	임시직	648	6	0.9	7	1.0	
	자영업	1,343	8	0.6	5	0.4	
	기타	8	0	0.0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4	3.5	3	2.6	X^2=260.322***
	19~59세 고졸	2,179	18	0.8	11	0.5	
	19~59세 대재이상	3,101	15	0.5	3	0.1	
	60세 이상 초졸	459	11	2.3	8	1.8	
	60세 이상 중졸	550	10	1.8	5	0.8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4	0.7	1	0.2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22	1.9	17	1.5	X^2=201.263***
	200~400만원 미만	2,735	23	0.8	10	0.4	
	400~600만원 미만	2,525	12	0.5	4	0.2	
	600만원 이상	580	4	0.7	1	0.1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39	0.7	25	0.5	X^2=36.445***
	하고 있음	1,855	23	1.2	6	0.3	

〈부표 4-30〉 정기적 동호회 활동

구분	명	%
총 합계	7,000	100.0
예	2,948	42.1
아니오	4,052	57.9

〈부표 4-31〉 정기적 동호회 활동

구분		총 합계	예		아니오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7,000	2,948	42.1	4,052	57.9	
성별	남성	3,469	1,590	45.8	1,879	54.2	X^2=39.043***
	여성	3,531	1,358	38.5	2,173	61.5	
연령별	19~29세	1,275	474	37.2	801	62.8	X^2=203.058***
	30~39세	1,304	611	46.9	693	53.1	
	40~49세	1,443	684	47.4	759	52.6	
	50~59세	1,383	681	49.3	701	50.7	
	60~64세	541	225	41.6	316	58.4	
	65~69세	288	104	36.3	183	63.7	
	70세 이상	767	168	21.9	599	78.1	
지역별	동	5,937	2,556	43.0	3,381	57.0	X^2=14.103***
	읍·면	1,063	392	36.9	671	63.1	
세대별	1세대	1,853	670	36.2	1,183	63.8	X^2=40.382***
	2세대	4,900	2,183	44.6	2,717	55.4	
	3세대	247	95	38.2	153	61.8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580	38.2	940	61.8	X^2=70.689***
	유배우	5,004	2,240	44.8	2,764	55.2	
	별거·이혼·사별	476	127	26.7	349	73.3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1,070	49.3	1,101	50.7	X^2=43.415***
	비맞벌이	2,684	1,128	42.0	1,555	58.0	
	비해당	148	41	27.8	107	72.2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882	55.3	712	44.7	X^2=172.539***
	육체노동자	2,921	1,206	41.3	1,716	58.7	
	무직	2,484	860	34.6	1,624	65.4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261	50.1	1,255	49.9	X^2=61.221***
	임시직	648	214	33.1	434	66.9	
	자영업	1,343	609	45.3	734	54.7	
	기타	8	3	43.9	4	56.1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42	34.3	82	65.7	X^2=247.123***
	19~59세 고졸	2,179	911	41.8	1,268	58.2	
	19~59세 대재이상	3,101	1,497	48.3	1,604	51.7	
	60세 이상 초졸	459	84	18.2	375	81.8	
	60세 이상 중졸	550	129	23.5	421	76.5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285	48.5	302	51.5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291	25.1	870	74.9	X^2=305.265***
	200~400만원 미만	2,735	1,071	39.2	1,664	60.8	
	400~600만원 미만	2,525	1,210	47.9	1,314	52.1	
	600만원 이상	580	375	64.8	204	35.2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2,131	41.4	3,014	58.6	X^2=3.695
	하고 있음	1,855	816	44.0	1,039	56.0	

〈부표 4-32〉 범죄의 피해자 경험

구분		총 합계	있음		없음		잘 모르겠음		통계값
			명	%	명	%	명	%	
총 합계		7,000	274	3.9	6,454	92.2	271	3.9	
성별	남성	3,469	141	4.1	3,207	92.4	121	3.5	X^2=3.048
	여성	3,531	133	3.8	3,248	92.0	150	4.3	
연령별	19~29세	1,275	49	3.8	1,175	92.2	51	4.0	X^2=20.935
	30~39세	1,304	58	4.5	1,194	91.5	52	4.0	
	40~49세	1,443	57	4.0	1,332	92.3	54	3.7	
	50~59세	1,383	58	4.2	1,288	93.1	37	2.7	
	60~64세	541	23	4.3	498	92.1	19	3.6	
	65~69세	288	8	2.7	269	93.4	11	3.9	
	70세 이상	767	21	2.8	699	91.1	47	6.1	
지역별	동	5,937	175	3.0	5,528	93.1	234	3.9	X^2=97.409***
	읍·면	1,063	99	9.3	926	87.2	37	3.5	
세대별	1세대	1,853	57	3.1	1,716	92.6	80	4.3	X^2=23.452***
	2세대	4,900	202	4.1	4,527	92.4	171	3.5	
	3세대	247	16	6.3	211	85.4	20	8.3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48	3.2	1,414	93.0	58	3.8	X^2=15.607**
	유배우	5,004	214	4.3	4,607	92.1	183	3.7	
	별거·이혼·사별	476	12	2.5	433	91.1	31	6.4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67	3.1	2,029	93.4	76	3.5	X^2=27.527***
	비맞벌이	2,684	146	5.4	2,443	91.0	95	3.5	
	비해당	148	2	1.4	135	90.7	12	7.9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92	5.7	1,444	90.6	58	3.6	X^2=30.007***
	육체노동자	2,921	78	2.7	2,739	93.8	105	3.6	
	무직	2,484	105	4.2	2,270	91.4	109	4.4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12	4.5	2,309	91.8	95	3.8	X^2=10.094
	임시직	648	17	2.6	605	93.4	26	4.0	
	자영업	1,343	40	3.0	1,261	93.9	42	3.1	
	기타	8	0	0.0	8	100.0	0	0.0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4	3.0	118	95.2	2	1.9	X^2=18.320*
	19~59세 고졸	2,179	88	4.0	2,027	93.0	64	2.9	
	19~59세 대재이상	3,101	130	4.2	2,843	91.7	128	4.1	
	60세 이상 초졸	459	9	2.1	422	92.0	27	5.9	
	60세 이상 중졸	550	20	3.6	506	92.0	24	4.4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23	4.0	538	91.7	25	4.3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36	3.1	1,060	91.3	65	5.6	X^2=55.100***
	200~400만원 미만	2,735	103	3.8	2,541	92.9	91	3.3	
	400~600만원 미만	2,525	84	3.3	2,347	93.0	94	3.7	
	600만원 이상	580	52	8.9	506	87.3	22	3.8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214	4.2	4,744	92.2	186	3.6	X^2=6.272*
	하고 있음	1,855	60	3.2	1,710	92.2	85	4.6	

주: * p〈0.05, ** p〈0.01, *** p〈0.001

〈부표 4-33〉 트라우마

구분		총 합계	있음		없음		통계값
			명	%	명	%	
총 합계		7,000	519	7.4	6,481	92.6	
성별	남성	3,469	257	7.4	3,212	92.6	X^2=0.000
	여성	3,531	262	7.4	3,269	92.6	
연령별	19~29세	1,275	59	4.6	1,216	95.4	X^2=72.843***
	30~39세	1,304	62	4.8	1,242	95.2	
	40~49세	1,443	99	6.9	1,344	93.1	
	50~59세	1,383	117	8.4	1,266	91.6	
	60~64세	541	58	10.8	483	89.2	
	65~69세	288	27	9.5	260	90.5	
	70세 이상	767	98	12.7	670	87.3	
지역별	동	5,937	461	7.8	5,476	92.2	X^2=6.430*
	읍·면	1,063	59	5.5	1,004	94.5	
세대별	1세대	1,853	189	10.2	1,664	89.8	X^2=28.767***
	2세대	4,900	312	6.4	4,589	93.6	
	3세대	247	19	7.6	228	92.4	
혼인 상태별	미혼	1,520	74	4.9	1,446	95.1	X^2=106.695***
	유배우	5,004	355	7.1	4,649	92.9	
	별거·이혼·사별	476	90	19.0	386	81.0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2,172	136	6.3	2,036	93.7	X^2=4.054
	비맞벌이	2,684	208	7.8	2,476	92.2	
	비해당	148	11	7.2	138	92.8	
직업별	비육체노동자	1,594	93	5.8	1,501	94.2	X^2=11.496**
	육체노동자	2,921	211	7.2	2,710	92.8	
	무직	2,484	215	8.7	2,269	91.3	
근로 형태별	정규직	2,516	138	5.5	2,379	94.5	X^2=36.194***
	임시직	648	76	11.8	572	88.2	
	자영업	1,343	89	6.6	1,255	93.4	
	기타	8	2	20.8	6	79.2	
학력별	19~59세 중졸이하	124	20	16.4	104	83.6	X^2=74.771***
	19~59세 고졸	2,179	148	6.8	2,031	93.2	
	19~59세 대재이상	3,101	168	5.4	2,933	94.6	
	60세 이상 초졸	459	54	11.7	405	88.3	
	60세 이상 중졸	550	70	12.8	480	87.2	
	60세 이상 고졸이상	587	60	10.1	528	89.9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61	166	14.3	994	85.7	X^2=97.961***
	200~400만원 미만	2,735	167	6.1	2,568	93.9	
	400~600만원 미만	2,525	144	5.7	2,381	94.3	
	600만원 이상	580	42	7.3	537	92.7	
종교활동	하지 않음	5,145	325	6.3	4,820	93.7	X^2=34.065***
	하고 있음	1,855	194	10.5	1,661	89.5	

주: * p〈0.05, ** p〈0.01, *** p〈0.001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Yes24 http://www.yes24.com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5-01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5-02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	오영호
연구 2015-03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보건의료산업 정책과제	김대중
연구 2015-04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략	김동진
연구 2015-05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강희정
연구 2015-06	보건의료 공급체계 재설계를 통한 국민의료비 합리화 방안	정영호
연구 2015-07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최정수
연구 2015-08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강신욱
연구 2015-09	돌봄·보건의료 연합서비스(Joned-up Services)공급 모형에 관한 전망과 과제	박세경
연구 2015-10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 사 간 부양분담방안	김유경
연구 2015-1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이현주
연구 2015-12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 연구: 스웨덴&프랑스&미국 편	임완섭
연구 2015-13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정해식
연구 2015-14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김현경
연구 2015-15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고제이
연구 2015-16	사회보장재정과 경제 선순환 국제비교연구	유근춘
연구 2015-17	공·사적 연금 체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발전 방향	우해봉
연구 2015-18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평가	신화연
연구 2015-19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경환
연구 2015-20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정홍원
연구 2015-21-01	가족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이삼식
연구 2015-21-02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이소영
연구 2015-21-03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연구	신윤정
연구 2015-21-04	여성노동-출산 및 양육행태와 정책과제	박종서
연구 2015-21-05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III)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오영희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5-21-06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여가현황과 여가증진방안 연구	강은나
연구 2015-21-07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선우덕
연구 2015-21-08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정경희
연구 2015-21-09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	원종욱
연구 2015-21-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류정희
연구 2015-21-11	소셜 빅데이터 기반 저출산 정책 수요 예측	송태민
연구 2015-22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이상영
연구 2015-23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김정선
연구 2015-24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여유진
연구 2015-2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여유진/정해식
연구 2015-26	정책결정자의 사회통합 인식에 관한 연구	김미곤
연구 2015-27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5-28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	강혜규
연구 2015-29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5-30-1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 전략을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5-30-2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전략 구축방안	김정선
연구 2015-31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삼식
연구 2015-32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복지실태	노대명
연구 2015-33	2013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만성질환, 임신·출산, 보건의식행태-	이수형
연구 2015-34	2015년 빈곤통계연보	정은희
연구 2015-35	2015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송태민
연구 2015-36	의료기술 혁신과 의료보장체계의 지속성을 위한 국제동향과 정책과제	박실비아
연구 2015-37	보건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 주요국 보건의료산업 육성정책 변화와 동향연구	김대중